

考古歷史學志

第三輯

目次

〈論文〉

- 統一新羅·高麗 銅鐘의 撞座와 上·下帶 文樣에 관한 研究 7
高麗 肅宗의 即位過程에 관한 研究..... 35
鐵砂에 관한 研究..... 57

〈資料〉

- 本校 博物館의 青銅器 數例에 대하여 101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鮮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111

〈翻譯〉

- 會寧五洞의 土器에 관한 問題 147
- 北部韓國 無文土器編年을 위하여 -

- 《慶北地方 鄉吏關係 古文書資料集成》 I 171
- 《安東鄉係事蹟通錄》의 刊行者 權永翁 家門과 그들의 文書 -

東亞大學校博物館

1987年 5月

CONTENTS

Articles

- Park, Eun Kyung; A Study on the Sangha-Dae(上·下帶) and Tangjwa(撞座)
of the Bronze Bells in the Unified Silla and Koryŏ Dynasties..... 7
- Park, Nak Hoon ; A Study on the Process of Enthronement of King
Sukchong in the Koryŏ Dynasty 35
- Yang, Sung Sun ; A Study on Iron Oxide Decorated in Porcelains 57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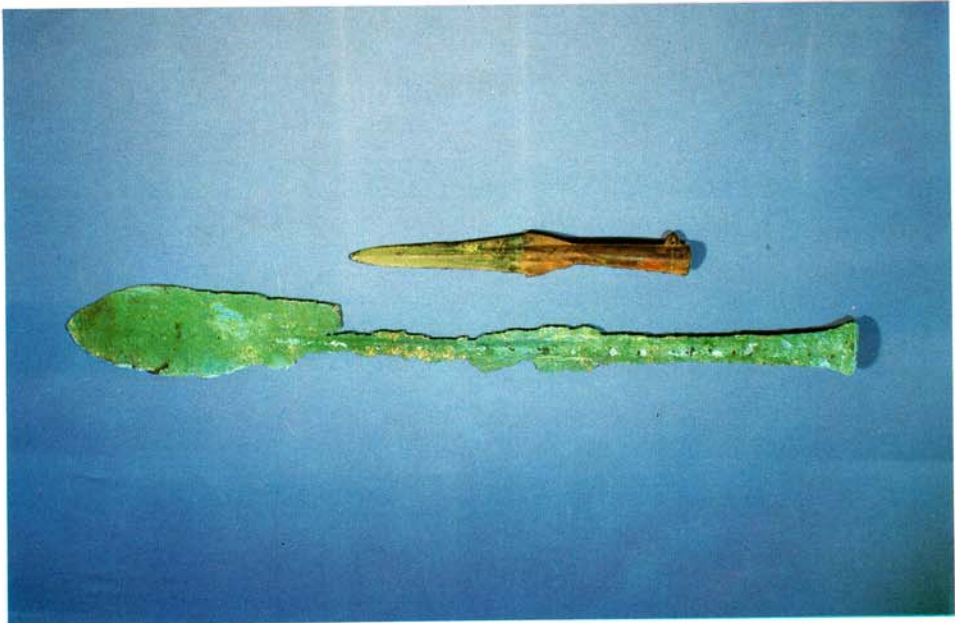
- Shim, Bong Keun; On Some Bronze wares in Dong-A University Museum..... 101
- Shim, Pu Ja & ; A Simplified Report on the Reconstructing Shroud Excavated
Chun, Hea Sook from the Tomb of Park Hwa in Nop'a-ri,
Bongsan-myŏn, Hapch'ŏn-gun 111

Translation

- Nishi, Dani, Tadashi ; The Problems on the Plain-Coarse Pottery in Odong,
Hoeryŏng-gun..... 147
- Lee, Hoon Sang ; A Collection of Ancient Documents of a Andong Kwŏn
Local Functionary's Lineage (安東 權氏 吏族)..... 171



銅製鞞裝具(上) 銅戈(下)



銅鉞

統一新羅·高麗 銅鐘의 撞座와 上·下帶 文樣에 관한 研究

朴 銀 卿*

目 次

I. 머리말	다. 11世紀
II. 鐘의 各部名稱	라. 12世紀
III. 文樣의 時期別 特徵	마. 13世紀
가. 8·9 世紀	바. 14世紀
나. 10世紀	III. 맺음말

I. 머 리 말

우리나라 金石遺文이 남아 있는 資料로서는 碑, 造像, 香垵, 梵鐘, 飯子, 塔燈, 佛具 등이 있다. 그 중 여기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銅鐘의 경우만도 紀年銘을 가진 것이 현재 70餘例가 알려져 있고 無銘의 것도 수십 例가 있는데, 이 경우는 表面에 施文된 名種文樣을 통해서 編年的 研究가 可能하다는 사실이다.

筆者는 이 점에 착안하여 아직까지 美術史研究에서 體系가 잡혀져 있지 않은 高麗時代 瓦當文樣의 編年研究를 위한 先行作業으로서 우선 이 銅鐘의 撞座와 그 上·下帶에 施文된 文樣의 特徵을 살펴 編年表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생각과는 달리 그 資料의 방대함에 압도되어 소략한 점이 많은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이점 앞으로 關係 研究者들의 많은 叱正을 바라마지 않는다.

II. 鐘의 各部名稱

佛敎에서 宗教的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發音되는 일체의 用具를 梵音具라 하고¹⁾, 그 중 鐘은

* 博物館 研究員

1) 佛具는 크게 莊嚴具, 供養具, 梵音具, 僧具, 密敎法具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梵音具로는 堂外에서는 鐘을, 堂內에서는 磬, 雲板, 鐘, 銅羅, 鉦鼓, 引磬, 木魚, 魚鼓, 太鼓, 法螺 등을, 그리고 堂 軒下에서는 飯子를 사용하는데 그 種類는 다양하다.

堂外の鐘樓에 걸어놓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打樂器의 一種이다. 일반적으로 淸淨한 佛寺나 혹은 梵刹에서 使用하는 鐘을 梵鐘이라 하는데²⁾, 이는 다시 洪鐘, 蒲牢, 鯨鐘, 華鯨, 巨鯨, 釣鐘, 撞鐘等 異名도 있으며, 크기에 따라서 半鐘, 晚鐘으로 區別지워지기도 한다.³⁾

이러한 梵鐘의 由來는 옛 부터 中國에서 행하던 鐘과 인도의 健椎(鐘의 梵語)에서 본받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坪井良平은 鐘의 起源을 印度에서 구하는 說은 타당치 않고 中國 殷代以降의 樂器였던 古銅器의 一種인 「甬鐘」이라 부르는 것이 지금 極東佛教寺院에 있는 梵鐘의 祖型이라고 추정하고 있다.⁴⁾

그리고 鐘의 各 部位 名稱은 다음 圖1에 나타난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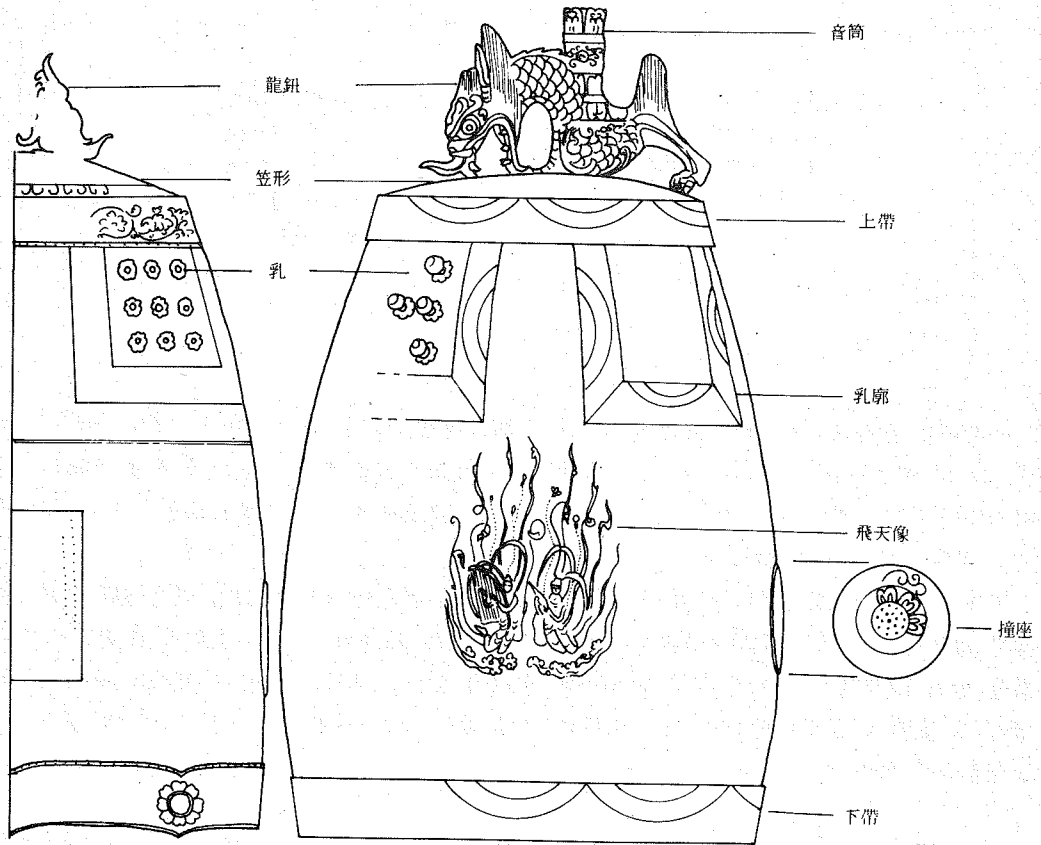


圖 I. 鐘의 各部 名稱

- 2) 운허·용하 엮음, 「불교사전」 법통사, 1962.
- 3) 一般적으로 口徑이 1尺8寸以上은 梵鐘, 以下는 半鐘이라 부르고 높이가 2尺5寸은 喚鐘이라 한다. 一說에는 口徑이 1尺以上은 梵鐘, 2尺3·4寸以下는 半鐘이라 하며 口徑이 2尺3·4寸 以下이고 重量이 百貫以上의 것은 梵鐘이라한다. (新版「佛教考古學講座」佛具, 雄山閣, 昭和50年)
- 4) 坪井良平, 「朝鮮鐘」角川書店, 昭和 49年.

Ⅲ. 文樣의 時期別 特徵

우리나라 鐘은 蠟型鑄造에 의해 表面에 화려한 裝飾文樣을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인데 그 中에서도 撞座와 上·下帶에 施文된 各種文樣은 이들 佛具의 編年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으므로 먼저 이것을 時期別로 그 特徵을 紹介하여 보기로 한다.

가. 8·9世紀 (A.D. 700~899)

이 時期에 해당되는 紀年銘鐘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資料로는 모두 5例가 있는데 그 中 上院寺鐘과 聖德大王神鐘은 널리 알려진 作品으로 이미 많은 關係 資料들이 소개된 바 있다.⁵⁾

여기서 그 몇 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江原道 平昌郡 珍富面 東山里 上院寺所藏鐘으로 크기는 總高167cm, 身高129cm, 口徑 90cm로 大型에 속하며, 現存하는 鐘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形態는 鐘頂上部에 完存한 龍鈕와 音筒이 있고 鐘身에는 上帶에 접하여 4個의 乳廓帶가 배치되어 있다. 鐘身下部 前後에는 撞座가 각각 1個씩 배치되어 있는데 그 左右에는 1雙의 飛天像이 陽鑄되어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구비된 圓形으로 內區에는 통통한 8葉蓮花文과 꽃술帶가 배치되어 있고 子房에는 1+6+10蓮顆子가 小圓圈에 싸여 있다. 그리고 外區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줄기는 한 방향으로 뻗어가면서 가지가 左右로 均衡을 이루고 있는 화려한 作品이다. 한편 上·下帶는 樣式이 거의 같으나 上帶에는 花文과 如意頭文으로 형성된 半橢圓帶內에 2軀의 秦樂飛天像이 있고 밖에는 섬세한 唐草文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上·下緣에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花文이 具備된 蓮珠帶가 있는데 下緣에는 品字文帶가 1條 더 있으며 반쪽의 單辨6葉蓮花文이 下緣에 접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下帶는 上帶에 비해 幅이 넓은 편인데 다만 半橢圓帶內에 秦樂飛天像이 2軀 더 갖춰져 있고, 唐草文 形態는 약간 변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上帶의 上·下緣帶文이 下帶에서는 上下가 바뀌어 배치되어 있다.

銘文은 音筒左右에 「開元十三年 乙丑三月/八日鐘成記之都合鑄/……」라고 陰刻되어 鑄成時期, 所要銅量, 僧侶 鑄成監督者名, 當番幹事名, 信徒名 등을 밝히고 있다.⁶⁾ 開元은 唐 高宗時의 年號로 그 十三年 乙丑은 新羅 聖德王24年(725)에 해당한다.

두번째로 天寶四載 尤盡寺銘鐘을 들 수 있다. 이 鐘은 過去 日本에 있었다고하나 지금은 그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데 크기는 身高72.7cm, 口徑56.4cm의 中型이었다고 한다. 坪井良平에 의하면⁷⁾ 龍鈕와 音筒이 前記한 上院寺鐘에 매우 近似하고, 鐘身下部에 1雙의 秦樂飛天像이 2군데

5) ①廉永夏, 韓國梵鐘에 관한 研究(第1報 上院寺鐘), 「梵鐘」韓國梵鐘研究會誌 1978.

② " , 奉德寺梵鐘考, 「梵鐘」韓國梵鐘研究會誌 1978.

" , 奉德寺梵鐘小考, 「考古美術」第3卷 第2·3號

" , 奉德寺鐘考, 「考古美術資料」No.12, 1967.

③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昭和49年.

6) 廉永夏, 前掲書

7) 坪井良平, 前掲書.

배치되어 있다. 上院寺鐘에서 笠形은 無文이었으나 여기서는 長方形에 가까운 華麗한 裝飾을 지닌 蓮瓣文을 放射狀으로 배열하였다고 한다. 鐘身 前後에 1個씩 배치된 圓形撞座는 資料의 미흡으로 자세한 文樣을 알 수 없으나 蓮珠文으로 이루어진 內區에는 間辨이 있는 複辨8葉蓮花文이 배치되었고 外區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었다. 그리고 上·下帶는 同一文樣으로 半圓圈文이 下緣에 접해서 배치되고 圓圈內外의 空間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었으며 下緣에는 蓮珠帶가 있다. 銘文은 上帶下 乳廓 사이에 「天寶四載乙酉思仁大角干/爲賜夫只山村尤盡寺鍾成/敎受內成記時願助在衆郁/……」이라 陰刻하여 鑄成時期, 寺刹名, 鑄成願旨와 僧職名을 밝히고 있다. 天寶는 唐 玄宗時의 年號로 四載乙酉는 新羅 景德王4년(745)에 해당되며 「夫只山村尤盡寺」의 地名과 寺名에 관한 記錄은 찾아 볼 수 없다.

세번째 例로는 貞元廿年銘鐘으로⁸⁾ 總高122cm, 身高93.5cm, 口徑68cm의 크기이다. 이 鐘은 1948年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里 雪岳山에서 발견 된 뒤 月精寺로 移置되었다가 1951年 月精寺 화재시 불타버리고 그 파편만 國立中央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는데 坪井良平이 이의 拓本과 李弘植의 報告書를 참조하여 復元圖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撞座와 上·下帶文을 中心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즉, 鐘身前後에 배치된 圓形撞座는 內·中·外區로 區分되고 內區에는 통통한 8葉蓮花文과 섬세한 꽃술帶가 있고 子房內에는 1+6+8의 蓮顆子가 배열되어 있다. 蓮珠帶로 둘러진 中區에는 8개의 寶相花文이, 그리고 역시 蓮花帶가 둘러진 外區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鐘身左右에는 蓮花座上에 한쌍의 秦樂天人像을 각각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上帶와 乳廓帶는 同一文樣인데 上院寺鐘과 前記한 天寶4年銘鐘 上帶文과 같은 樣式의 半圓圈文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 內部文樣은 撞座文과 同一한 蓮花文, 寶相花文, 唐草文 등을 각각 施文하고 그의 공간에는 唐草文을 배치하였으며, 上帶下緣과 乳廓帶外緣에는 蓮珠帶가 갖추어져 있다. 下帶는 頭光과 身光을 갖춘 菩薩座像 19軀가 배치되어 있는데, 각 菩薩座像 左右에는 飛天像이 수호하고 주위는 雲文이 施文된 화려한 作品으로 上緣에는 品字文帶가, 下緣에는 蓮珠文帶가 둘러져 있다. 銘文은 鐘身 內面에 「貞元廿年甲申三月廿三日當寺鍾成內之/古尸山郡仁近大秀紫草里 施賜乎古鍾/金二百年廷當寺古鍾 金二百廿廷此以/……」라고 陽鑄하였는데⁹⁾ 이 銘文에 대해서는 李弘植과 藤田亮策이 해석한 것이 있다.¹⁰⁾ 여기 貞元는 唐 德宗時의 年號로 그 廿年甲申은 新羅 哀莊王5년(804)에 해당된다.

네번째 例로는 太和七年蓮池寺銘鐘을 들 수 있다. 크기는 總高111.5cm. 身高84cm, 口徑66.3cm로 中型에 속하며 현재 日本 福井縣 常宮神社所藏으로 在日 中の 朝鮮鐘55餘基 가운데 銘이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龍鈕는 부분적으로 잔존하고 있으나 音筒은 完存한 편으로 여기에는 花文과 三角形線帶가 施文되어 있다. 그리고 鐘身 前後左右에 배치된 4個의 乳廓帶는

8) ①李弘植, 貞元廿年在銘新羅梵鐘, 「朝鮮學報」第7輯, 1955.

②黃壽永, 貞元廿年在銘新羅梵鐘의 鐵索과 鐵壺, 「考古美術」2卷 12號, 1961.

9) 秦弘燮, 「韓國美術史料集成(1)」, 一志社 1987.

10) ①李弘植, 貞元二十年在銘新羅梵鐘, 「朝鮮學報」第7輯, 1955.

②藤田亮策, 在日本新羅鐘の銘文, 「大和文化研究」13·14, 1955.

內·外緣에 蓮珠帶와 三角形線條帶가 나란히 施文되고 그 안에는 九乳가 배치되어 있는데 乳座는 19葉蓮花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鐘身下半部에는 秦樂飛天像 2軀와 撞座 2個가 교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雲座上에 跪座한 飛天像은 양 손을 크게 벌린 채 長鼓를 두들기려는 形態로 위로는 天衣자락이 날리고 있다. 한편 撞座는 間辨이 있는 複辨8葉蓮花文으로 구성되고, 비교적 넓은 圓形子房內에는 1+8蓮顆子가 小圓圈에 싸여 배열되어 있는데 중심의 1蓮顆子は 주위에 小星形의 8葉蓮花文이 二重으로 갖춰져 있는 독특한 樣式이다. 上·下帶는 同一文樣으로 上·下緣은 前記한 乳廓帶 內·外緣의 文樣과 역시 같으나, 內部는 縱線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蓮珠帶로 區劃하고, 그 方形칸마다 波文과 같은 물결문이 施文되어 있다. 그리고 곳곳에 바위와 같은 부분은 坪井良平이 岩礁文이라고 언급하였다. 銘文은 上帶 가까이 「太和七年三月日靑州蓮池寺/鑄成內節傳合入金七百三廷/古金四百九十八廷加入金百十廷/……」라고 陽鑄하여 鑄成時期, 寺名, 重量, 僧職名, 官職名 등을 밝히고 있다. 이 銘文에 대해서는 藤田亮策과 坪井良平이 언급하였는데¹¹⁾ 太和7年은 新羅 眞德女王時 建元인 太和7年(653)과 唐나라 文宗時의 太和7年(833)이 있는데, 坪井良平이 點貝房之進과 藤田亮策이 해석한 內容을 인용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여기서의 太和7年은 唐文宗의 太和7年으로 보나 藤田幹이 이 太和年號를 新羅 眞德女王의 建元과 관계되는 太和7年이라고 보고 이후 明治에 이르기까지 그 설이 행해져왔지만 平子尙의 考證한 것과 같이 眞德女王의 太和4년에 唐의 正朔를 받들어서 唐의 年號 永徽를 사용하여 그 이후 自國의 年號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眞德女王의 太和7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언급하였다. 筆者 역시 이 太和7年을 唐文宗의 年號로 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平子尙의 考證뿐만 아니라 靑州의 名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靑州는 「본래 百濟의 居列城으로 新羅文武王이 빼앗아서 州를 설치하였고 景德王은 康州, 惠恭王은 靑州, 高麗太祖는 또 康州라 고쳤다……」는 내용이 보인다.¹²⁾ 여기서 惠恭王時(765~780) 다시 靑州라 삼았기 때문에 「太和七年三月日靑州蓮池寺」에 보이는 太和는 靑州로 改名된 이후에 해당되는 唐文宗의 年號로 그 七年은 新羅興德王8年(833)인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蓮池寺에 대한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蓮池, 蓮池院에 대한 명칭은 보이거나 靑州와는 무관한 所在일 뿐이다.

以上과 같이 統一新羅時代에 해당되는 8~9世紀의 作品으로 4例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文樣을 特徵別로 알아보면 먼저 撞座文에서는 통통한 單·複辨8葉蓮花文과 寶相華文, 화려한 唐草文이 함께 施文되었고 上·下帶에는 主文樣인 半圓圈文을 비롯하여 秦樂飛天像과 佛像이 배치되고 唐草文과 寶相華文도 아울러 施文하였는데 表Ⅲ의 太和7年銘처럼 波文과 岩礁가 施文된 異例의인 것도 있다. 統一新羅時代의 美術은 ‘佛教美術’이라고 일컬을 만큼 佛教關係의 造形美術이 뛰어나 지금 논의하고 있는 銅鐘과 같은 우수한 工藝品이 선보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銅鐘은

11) ①藤田亮策, 高麗鐘의 銘文, 「朝鮮學報」第14輯,
②坪井良平, 前掲書

12) ①高麗史 志卷第十一 地理二 靑州牧

②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 靑州牧 建置沿革

「本百濟居列城(一名居陁)新羅文武王取而置州神文王分居陁州置靑州摠管景德王改康州惠恭王復爲靑州 高麗太祖又改康州 成宗二年置牧十四年改靑州置節度使」

鐘身의 아름다운 造形美와 더불어 화려한 文樣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 규모에 있어서도 上院寺鐘 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에 보이는 皇龍寺鐘과 奉德寺鐘에 관한 記錄에서도¹³⁾ 보다시피 이같은 巨鐘들은 당시 統一新羅가 國力을 다하여 제작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10世紀(A. D. 900~A. D. 999)

이 時期에 해당되는 鐘은 모두 4例를 들 수 있는데 차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天復四年銘鐘을 들 수 있다. 현재 日本 大分縣 宇佐市 宇佐八幡에 所藏中인 이 鐘은 總高85.8cm, 身高66cm, 口徑47.2cm 크기로 中型에 속하며, 統一新羅의 마지막 作品이라고 말할 수 있다. 龍鈕와 音筒이 잘 갖춰져 있고 乳廓內에는 突起된 九乳가 있으며 鐘身에는 撞座 2個와 雲上에 앉아있는 秦樂飛天像 2軀가 교대로 양쪽에 배치되어 있다.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撞座에는 Y狀의 間辨을 지닌 複辨7葉蓮花文이 약간 가름하게 처리되어 있고 둥근 子房에는 1+4蓮顆子가 배열되어 있다. 上·下帶와 乳廓帶는 同一文樣으로 陽鑄되어 있는데 前記한 上院寺, 天寶四年銘, 貞元二十年銘鐘에 施文된 半圓圈文과 같은 樣式의 것이다. 蓮珠文이 具備된 半圓圈帶內에는 半圓圈과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고 圓圈外에는 唐草文이 대칭을 이뤄 배치되어 있는데 그 手法이 上院寺鐘의 上·下帶에 나타난 唐草文과 유사하다. 그리고 上·下帶 모두 下緣에 蓮珠帶가 있다. 銘文은 乳廓下 飛天像과 撞座間에 「天復四年甲子二月廿日松山村/大寺鐘成內文節本和上與本村主/連筆一合入金五千八十方擲成」이라고 陽鑄되어 鑄成時期, 寺刹所在銘, 重量 등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天復은 唐 昭宗의 年號로, 그 四年甲子는 新羅 孝恭王 8年(904)으로 新羅가 滅하기 바로 직전이었다. 「松山村大寺」의 松山村에 대해서 藤田亮策은 그 所在가 不明하다고 언급하였으나¹⁴⁾ 東國輿地勝覽 楊州編에 松山에 관한 記錄이 보인다.¹⁵⁾ 그리고 「松山村大寺」에서 보다시피 寺刹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소재의 村의 名稱을 붙여서 사용한 예는 이 鐘 뿐만 아니라 高麗時代에 몇 例가 더 있는데 뒤에 소개가 될 것이다.

다음은 顯德三年銘鐘으로 日本 沖繩縣 那覇區 若狹町 波上宮에 所藏中이었는데 大戰으로 인해 파괴되고 일부 龍頭部分만 沖繩縣立博物館에 남아 있다. 以前에 拓本된 資料를 소개한 책자가 있어서 다행히 形態와 文樣을 알 수 있었는데¹⁶⁾ 크기는 身高64.8cm, 口徑57cm로 中型이다. 形

13)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皇龍寺鐘 芬皇寺樂師 奉德寺鐘

「新羅第三十五 景德大王 以天寶十三甲午 鑄皇龍寺鐘 長一丈三寸 厚九寸 入重四十九萬七千五百八十一斤 又捨黃銅一十二萬斤 爲先考聖德王 欲鑄巨鐘一口 未就而崩 其子惠恭大王乾運 以大曆庚戌十二月 命有司鳩工徒 乃克成之 安於奉德寺 寺乃孝成王開元 二十六年戊寅 爲先考聖德大王奉福所創也 故鐘銘曰 聖德大王神鐘之銘…」

14) 藤田亮策, 前掲書.

15) 東國輿地勝覽 卷之十一 楊州編

古蹟條에 「……松山處在州東十五里」

陵墓條에 「……申叔舟墓在松山里……」

16) ①林永周, 「韓國文樣史」, 미진사 1983.

②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店 昭和49年.

態는 寶珠를 지닌 龍鈕와 蓮辨이 施文된 音筒이 있고 笠形周緣에는 長方形의 複蓮辨이 둘러져 있으며, 鐘身에는 2個의 撞座와 함께 舞人立像 2軀와 秦樂天人座像 2軀 그리고 雲文위의 蓮花座上에 坐佛像 2軀가 배치되어 있고 光背와 頭光위에는 天蓋가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內·外區로 구분된다. 內區에는 8개의 稜節마다 如意頭文이 있고 蓮珠帶로 둘러진 子房에는 格子文과 小形 8花文이 새겨져 있으며, 外區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8개의 線이 放射狀으로 뻗어 空間을 區劃지었는데 그 사이마다 脈文이 施文된 蓮葉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乳廓帶에는 唐草系雲文이 施文되고 上·下帶에는 牡丹系唐草文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上·下緣에는 蓮珠帶가 둘러져 있다. 銘文은 鐘身에 「退火郡大寺鐘表/夫鍾者三身總名/……/維顯德參奉太歲丙辰正月廿五二記……」라고 陰刻되어 있는데¹⁷⁾ 부분적인 해석을 藤田亮策이 언급하였다.¹⁸⁾ 「退火郡」에 대한 記錄은 高麗史와 東國輿地勝覽에 보이고 있다.¹⁹⁾ 즉 慶尙道 興海郡 編에 「本新羅退火郡 景德王 改爲義昌郡 高麗初 改今名 顯宗九年 來屬 明宗二年 置監務 恭愍王十六年 以國師千熙之鄉 降知郡事……」라고 보여 退火郡은 新羅때의 名稱으로 高麗初에는 興海郡으로 改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鐘銘에 「退火郡」이라고 記銘된 것으로 보아 古名인 退火郡이 高麗時에도 일시 사용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退火郡大寺」에서 보다시피 寺名을 밝히지 않고 表記한 手法은 앞서 天復四年銘鐘과 같은 예이다. 顯德은 後周의 年號로 三年丙辰은 高麗光宗 7宗(956)에 해당한다. 光宗은 元年(庚戌)에 自主의 年號인 光德을 실시하였으나 三年(辛亥) 冬十二月에 後周太祖의 「廣順」年號를 행하였고 光宗5年(954)에는 後周世宗의 「顯德」年號를 이어 사용하였다.²⁰⁾

덧붙여 이 顯德三年銘鐘 樣式과 거의 同一한 無銘鐘(日本四大寺觀音院所藏)1例가 있다. 이 鐘은 身高 86.9cm, 口徑65cm로 中型인데 鐘身에 施文된 文樣은 前者와 매우 닮고 있다. 다만 下帶의 경우 樣式은 同一하나 形態가 다른 牡丹系唐草文이 施文되어 있다는 점과 上緣에만 蓮珠帶가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아마, 이 無銘鐘은 前者와 거의 같은시기에 鑄造된 것이라 추측된다.

다음 例로는 峻豐4年銘鐘이다. 이 鐘은 日本 廣島縣 竹原市 竹原町上市 照蓮寺所藏品으로 身高 47.2cm, 口徑 41.4cm의 中型이다. 龍鈕와 音筒이 많이 결실되어 있고 笠形周緣에는 顯德三年銘의 것과 같이 複辨蓮花文이 배열되어 있다. 鍾身에 비해 비교적 큰 乳廓帶에는 唐草系渦文이 施文되고 兩側에 배치된 撞座 사이에는 飛天像이 교대로 배치되었으며 飛天像下에는 唐草系流雲文이 施文되어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稜花形으로 內部에는 複辨8葉蓮花文과 그리고 子房內에는 1+5顆子가 施文되어 있다. 上·下帶는 同一文樣으로 蓮珠帶가 具備된 半稜花圈文이 上·下緣에 접해서 서로 어긋지게 배치되어 있는데 內部에는 蓮顆子와 唐草文이, 外部에는

17)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18) 藤田亮策, 前掲書.

19) ①高麗史 志卷第十一 地理二 慶尙道 興海郡

②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二 慶尙道 興海郡 建置沿革

20) 高麗史 世家 卷第二 光宗編

「庚戌 元年春正月……建元光德」

「辛亥二年……冬十二月 始行後周年號」

唐草系流雲文이 施文되어 있다. 鍾身に 陽鑄된 銘文에는 「伐/昭大王當縣 規沙干/峻豐四年癸亥 九月十八日古彌縣/西院……」라고 되어 鑄成時期, 所在名, 人名, 住持名 등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이 銘文 해석에 대해서 坪井良平이 언급한 것을 보면 「峻豐四年 癸亥(高麗光宗 14년, 963)의 峻豐은 所謂 避諱年號로 당시 宋 太祖 建元인 建隆의 建字가 高麗 太祖의 諱였기 때문에 峻으로, 隆字는 太祖의 父 世祖의 諱였기 때문에 豐으로 대신한 것이다.」라고²¹⁾ 하였다. 그러나 光宗14년(963) 12월에 乾德으로 宋 年號가 改元되면서 「光宗十四年…… 冬十二月行宋年號…」라 하여²²⁾ 이후 宋의 乾德年號를 使用하였다. 乾德年號를 使用한 金石遺文으로는 현재 鳳巖寺 塔碑 1例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銘에 보이는 古彌縣은 高麗史의 全羅道 昆眉縣條에 「本百濟古彌縣 新羅景德王 改今名 來屬 高麗仍之」라고 보이는데²³⁾ 古名인 古彌縣을 高麗때에도 일시 使用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例는 前記한 顯德三年銘鐘의 銘文에서도 언급된 例가 있다.

이상 몇 例되지 않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10世紀는 統一新羅에서 高麗로 넘어오는 過度期로서 뚜렷한 特徵을 띠고 있지는 않다. 表I의 天復4年銘과 峻豐4年銘鐘 撞座의 複辨蓮花文은 前代의 통통한 單·複辨蓮花文에 비해 가름해진 면을 보이고 있고, 顯德3年銘과 觀音院所藏無銘鐘의 撞座에 施文된 사실적인 口 門은 前代에 없던 이 時期에 새로 등장하는 文樣이다. 上·下帶文도 表II에서 보듯이 唐草系牡丹文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天復4年銘의 것은 上院寺, 天寶四年銘, 貞元20年銘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峻豐4年銘鐘의 上·下帶 樣式도 前代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證 據 알 수 있다.

다. 11世紀 (A.D. 1000~1099)

이 時期에 해당되는 紀年銘鐘으로는 9例가 알려져 있고 干支銘鐘 1점을 추가하면 모두 10例가 된다. 그 중 몇 例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統和二十八年天興寺銘鐘이다. 지금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크기는 總高 167cm, 身高 128cm, 口徑 100cm의 大型인데 新羅鐘 樣式을 충실히 따른 作品으로 高麗鐘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鐘 頂上部에는 寶珠를 口 門 口 龍頭와 화려한 寶相華系唐草文, 花文과 雲文이 施文된 音筒이 잘 갖춰져 있고, 笠形에는 蓮珠帶와 複蓮辨이 둘러져 있다.

鍾身에는 撞座와 天人像이 교대로 四面에 배치되어 있는데 唐草系雲文上 에 跪座한 天人像은 한쪽 方向으로 合掌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內·外區로 구분되고 內區에는 T字狀의 間辨이 있는 통통한 8葉蓮花文이 배치되어 있으며 미세한 蓮珠文이 둘러진 둥근 子房에는 1+4+9 蓮顆子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外區에는 2條線으로 구성된 唐草文이 한 方向으로 연속무늬를 이루고 있는 화려한 文樣이다. 이 撞座의 樣式은 上院寺鐘과 많이 닮고 있어 11世紀 高麗時代 作品으로서는 統一新羅 樣式을 강하게 계승받은 것이라고 말할

21) 坪井良平, 前掲書.

22) 高麗史 世家 卷第一 光宗編

23) 高麗史 志卷第十一 地理二 全羅道 昆眉縣

수 있겠다. 乳廓帶와 上·下帶文은 同一樣式이나 다만, 上帶는 牡丹系唐草文에 上·下緣은 小蓮珠帶間에 雲文을 두고, 下帶는 唐草系草花文에 上·下緣에 蓮珠帶가 구비된 것이 다른 점이다.

銘文은 乳廓下 蓮花座와 天蓋가 구비된 位牌形의 廓內에 「聖居山天興寺 鍾銘/統和二十八年庚戌二月日」이라고 陽鑄되어 있다. 統和는 契丹 聖宗의 年號로 그 二十八年庚戌은 高麗 顯宗元年(1010)에 해당한다. 天興寺는 忠淸南道 天安郡 聖居山에 있던 절로 新羅때에 세운 金대(銅槁)가 있었다는 내용이 보이며²⁴⁾ 東國輿地勝覽 稷山縣 山川條에도 聖居山에 관한 記錄이 보이고 있다.²⁵⁾ 稷山縣에서 남쪽으로 天安郡 境界까지는 10里로 高麗 顯宗9년에 稷山縣은 天安府에 소속되었다고 한다.²⁶⁾

두번째 例로는 太平六年銘鐘으로 2점이 있다. 그 중 1점의 크기는 總高 73cm, 身高 57.8cm, 口徑 51.4cm 로 中型인데 現在 日本佐賀縣 唐津市 鐘町 惠日寺所藏品이다.

龍鈕와 音筒이 구비되어 있고 笠形에는 唐草文이 연속을 이루고 있으며 鐘身下位 前後에는 撞座가 있고, 左右에는 두 손을 가슴에 合掌한 채 跪座한 天人像이 陽鑄되어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구비된 圓形으로 內·外區로 구성되어 있는데 蓮珠帶로 둘러진 內區에는 中央의 小圓心圈을 중심으로 주위에 퇴화된 듯한 굵고 짧은 꽃술帶가 있고 7個의 如意頭文이 施文되어 있으며, 外區에는 複辨12葉蓮花文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上·下帶의 文樣은 앞서 소개한 鐘들의 上·下帶文과는 달리 圓圈과 稜花圈內에 巴文, 四分 卍字文, 花文等 多樣한 文樣이 施文되고 圓圈과 稜花圈間에는 脈文을 施文하여 일련의 연속적인 무늬로 表現하고 있다. 또한 上·下緣에는 小蓮珠帶가 둘러져 있다. 뿐만아니라 4個所에 위치한 乳廓帶는 內·外緣에 역시 小蓮珠帶가 갖춰져 있고 文樣은 笠形에 施文된 것과 同一한 唐草文이다. 各 乳廓內에 배열된 九乳座는 이전에는 대부분 蓮花文 이었는데 이 太平6年銘鐘에 施文된 것은 隆起된 圓圈文으로 高麗時代의 瓦當中 一名 鬼目文막새의 축소판 形態를 하고 있어 참고할 만한 資料이다.

銘文은 撞座와 天人像間의 位牌形 廓內에 「太平六年丙寅九月日河/淸部曲北寺鑄鍾壹軀入/重百二十一斤棟梁僧談日」라고 鑄成時期, 所在名, 重量, 棟梁 등을 간단히 밝히고 있다. 太平은 契丹 成宗時의 年號로 그 六年丙寅은 高麗 顯宗17年(1026)에 해당한다. 河淸部曲은 당시 慶尙道 巨濟縣에 있었던 部曲(古丁部曲, 竹吐部曲, 河淸部曲)중 하나로 縣의 북쪽 20里 지점에 位置하였다.²⁷⁾ 「河淸部曲北寺」는 前記한 天復四年銘鐘, 顯德三年銘鐘에 銘記된 것과 같은 표현인데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北寺라고 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세번째 例로는 太平十二年銘鐘으로 역시 日本에 있는데 滋賀縣 大津園城寺町 園城寺圓滿院에 보관되어 있으며 크기는 總高 77.5cm, 身高 70cm, 口徑 50cm 로 中型이다.

龍頭는 입을 크게 벌려 笠形上에 붙은 寶珠를 머금은 채 고개를 아래로 숙인 모습이고 音筒은

24) 운허·용하 엮음, 「불교사전」, 법통사 1962.

25)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六 忠淸道 稷山縣 山川條에 「……聖居山 在縣東二十一里 高麗太祖嘗駐蹕于 縣西愁歇院東望山上有五色雲以爲有神祭之遂稱聖居山我 太祖 世宗幸溫泉時亦祭之……」

26) 東國輿地勝覽 卷之十六 忠淸道 稜山縣 建置沿革

27)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二 巨濟縣 古蹟條에 「……河淸部曲在縣北二十里 古丁部曲即今治所 竹吐部曲在縣東十四里……」

上·下帶의 文樣과 同一하며, 笠形周緣에는 國府八幡, 顯德3年銘鐘의 것과 形態가 유사한 長方形의 複蓮辨이 둘러져 있는데 蓮辨內에는 統一新羅樣式의 꽃술이 갖춰져 있고 辨根에는 蓮珠帶가 있다. 鐘身前後에 各各 배치된 撞座와 그 사이 左右에 배치된 唐草系雲文上에 跪座한 天人像은 깨끗하게 陽鑄된 느낌을 준다. 한편 撞座는 圓形인데 꽃술帶로 촘촘히 둘러진 子房은 비교적 넓은 편이고 小圓圈에 싸인 1+8+12蓮顆子가 그 속에 배열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10個의 忍冬系 寶相華文과 꽃술이 배열되어 있다. 이는 貞元 20年銘 撞座에 施文된 것과 유사하다. 上·下帶와 乳廓帶文은 統一新羅期에 나타나는 樣式을 잘 이어받고 있다. 즉,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연속적인 半圓圈內에는 複辨蓮花文, 忍冬系寶相華文, 小圓文등이 各各 배열되어 있고 圓圈外의 空間에는 唐草文이 대칭을 이루고, 下緣에는 半蓮花文이 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上帶는 下緣에, 下帶는 上·下緣에 各各 蓮珠帶가 둘러져 있다. 銘文은 撞座와 天人像間의 下帶에 접한 長方形廓內에 「太平十二年 十二月日清覺大寺/鍾百七十斤大匠位金廈門棟梁元善十四人戶長抗覽等」라고 鑄成時期, 所在, 重量, 棟梁, 戶長名 등을 밝히고 있다. 太平이라는 年號는 契丹 聖宗1~10年(1021~1030)사이에 사용되었고, 이듬해 辛未年(1031)에는 景福年號, 壬申年(1032) 부터는 重熙年號로 改元되었다. 이렇게 太平年號가 改元이 된 뒤에도 계속 이 年號를 사용한 金石遺文 例로는 太平11年銘(高麗顯宗 22年, 1031) 淨興寺石塔과 太平12年銘(高麗 德宗元年, 1032)鐘 2점이 있다.²⁸⁾ 「靑鳧」는 현재 慶尙南道 靑松郡으로 「본디 高句麗의 靑己縣이었는데 新羅에서 積善이라고 치었고 高麗初期에는 鳧伊縣 또는 雲鳳縣이라 고쳤으며 成宗五年(986)에 다시 靑鳧라고 고쳐 禮州의 속현으로 하였다…」라는 記錄이 보인다.²⁹⁾ 「靑鳧大寺」는 당시 靑鳧縣內에 있던 어떤 절로서 天復四年銘鐘의 「松山村大寺」, 顯德三年銘鐘의 「退火郡大寺」, 太平六年銘鐘의 「河靑部曲北寺」 등과 같은 表現이다.

네번째 例로는 靑寧四年銘과 十一年銘鐘이 있는데, 여기서는 淸寧四年銘鐘을 소개한다. 현재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으로 크기는 總高 87cm, 身高 65cm, 口徑 54.6cm의 中型이다.

龍鈕는 口에 寶珠를 머금고 龍身이 굽이치는 形狀을 하고, 音筒는 唐草文과 蓮珠帶가 둘러져 있으며 笠形周緣은 鐘身과는 달리 如意頭文이 立花形 처럼 突出되어 있다. 上帶와 乳廓帶는 同一文樣으로 牡丹系唐草文이 施文되어 있고, 上帶 上·下緣과 乳廓帶外緣에는 蓮珠帶가 둘러져 있으며 乳廓內 九乳座는 重辨7葉蓮花文으로 蓮辨이 날카로운 편이다. 下帶文은 위와 같은 계통의 牡丹唐草文이나 形態가 조금 다르며 花辨과 앞에는 확실한 脈文이 施文되어 있고 上·下緣에는 蓮珠帶가 있다. 뿐만 아니라 乳廓帶下에는 如來座像이, 左右에는 菩薩座像이 頭光과 身光을 갖추고 雲文蓮花座上에 結可趺坐하고 있다. 撞座는 그 아래 斜線方向으로 각각 4個가 위치하고 있는데, 그 形態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그 안에는 一字狀의 細線間辨이 새겨진 複辨16葉蓮花文이 施文되어 있다. 그리고 꽃술帶가 둘러진 花形子房內에는 1+5+9蓮顆子가 성글

28) ①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②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中世上·下, 亞細亞文化史 1984.

29) ①高麗史 志卷第十三 慶尙道 靑鳧縣

②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四 慶尙道 靑松都護府 建置沿革

게 배열되어 있다. 銘文은 下帶에 접한 方形廓內에 陰刻되어 있고 廓위에는 花文이 裝飾되어 있다. 內容은 「特爲/聖壽天長之願鑄/成金鐘一口重一百/五十斤/清寧四戊戌五月日記」로 發願文, 重量과 鑄成時期만을 간단히 밝히고 寺名이나 所在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清寧은 契丹道宗의 年號로 그 四年戊戌은 高麗 文宗12年(1058)에 해당한다.

다섯번째 例로는 太安二年銘鐘으로 現在 扶余博物館 所藏品이며 크기는 總高 50.7cm, 身高 35.6cm, 口徑 26.5cm로 小型이다. 이 鐘도 1969年 7月 全羅南道 麗川郡 雙峯面 麗山里 山21번 지에 있는 逸名寺址에서 出土되었는데 이 鐘에 대해서는 李永樂이 소개하였다.³⁰⁾

笠形은 종전과 같은 手法인데 그 周緣에 辨根보다 辨端이 넓은 複蓮辨이 둘러져 있고 4個所に 배치된 乳廓帶에는 內·外緣에 蓮珠帶를 두르고 그 사이는 간단한 唐草文으로 施文되어 있다. 九乳座의 形態는 細辨蓮花文보다는 퇴화된 굵고 성근 꽃술帶가 變化된 느낌을 준다. 蓮珠帶를 두른 圓形撞座는 重辨7~8葉花文이 배치되어 있는데 정연치 못한 편이다. 子房은 中央의 1蓮顆子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花形圈으로 구성되어 있다. 高麗樣式의 撞座文에 확실한 脈文을 지닌 花文은 이것이 처음으로 高麗 瓦當中 입맥문을 지닌 瓦當의 編年에 參考될 만한 資料이다. 上帶는 忍冬系唐草文이 연속문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笠形에 배열된 蓮花文과 같은 複辨3葉이 施文되어 있는데 中間의 蓮辨內에는 格子文이 새겨져 있고 둥근辨端이 下緣밖으로 흘러나온 것처럼 표현하였다. 下帶는 옆으로 퍼진 花文이 唐草系 줄기를 따라 약간 上下로 배열되고 花辨內에는 맥문이 촘촘히 施文되어 있다. 上·下帶 모두 上·下緣에 蓮珠帶가 둘러져 있다.

鍾身의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크게 陽鑄된 撞座 2個와 飛天像 2軀가 교대로 배치되어 있고 雲上에 跪座한 이 天人像은 두 손을 가슴앞에서 合掌한 채 한 방향으로 응시하고 있고 머리에는 頭光이 갖춰져 있다. 銘文은 正面의 撞座위 上帶에 접해 從으로 「聖壽天長」이라고 陽鑄되어 있는데 그 아래부분을 花文이 받치고 있다. 그리고 그 左側 乳廓帶下의 長方形廓內에 「長生寺金鍾重五十斤/棟梁寺主重口倡漢/京戊口正春元施納/十六斤太安二年十二月日」이라고 陰刻되어 寺刹名, 重量, 棟梁, 絕納者名, 鑄成時期 등을 밝히고 있다.

長生寺에 대해서 李永樂은 「長生寺는 후시 바로 出土地에 있었던 寺名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고 文獻 또한 찾을 수 없다」³¹⁾고 하였는데 出土地인 全羅南道 麗川郡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東國輿地勝覽 慶畿道 南陽都護府編에 「府의 서쪽 20里에 絕命山이 있고 그 산에 長生寺가 있었다」는 記錄이 보이고 있어³²⁾ 參考할 만하다. 太安은 遼 道宗時의 네번째 年號로서 그 二年은 高麗 宣宗3年(1086)에 해당한다.

여섯번째 例로는 日本島根縣 松江市 國屋町 天倫寺所藏中인 辛亥銘鐘을 들 수 있다. 크기는 總高 87cm, 身高 62cm, 口徑 53cm로 中型이다. 龍鈕와 音筒은 잘 갖춰져 있다. 龍頭는 아래를

30) 李永樂, 太安二年銘 高麗 銅鐘과 小鐘二口 「考古美術」, 109號 1971.

31) 註 28)과 同一

32) 東國輿地勝覽 卷之九 慶畿道 南陽都護府
佛宇條에 「…長生寺在絕命山」
山川條에 「…絕命山在府西二十里」

향하여 笠形上에 안치된 寶珠를 입을 크게 벌려 머금고 있는 형태인데, 이 寶珠는 唐草와 蓮花文이 施文된 圓圈座內에 陽鑄되어 있고 音筒에는 仰·伏蓮辨과 花文이 배열되어 있으며, 笠形周緣에는 複蓮辨이 쪽 둘러져 있다. 그리고 乳廓帶 內·外緣에는 蓮珠帶가 있고 그 사이는 1條線으로 된 唐草文이 정연하게 陽鑄되어 있다. 乳廓帶內 九乳座는 중첩된 單辨8葉蓮花文으로 蓮辨의 形態가 前記한 靑寧4年銘鐘의 九乳座와 유사하다. 또한 鐘身左右에는 蓮花座臺上에 頭光과 身光을 갖춘 如來座像이 배치되어 있고, 頭光위에는 天蓋가, 光背에는 乳廓帶文과 同一한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다. 手印은 오른 손은 降魔印, 왼 손은 施無畏印의 形態를 취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으며 佛像左右에는 天衣자락이 달린 樂器(통소, 비파)와 꽃이 施文되어 있다. 鐘身前後에 配置된 圓形撞座는 外區에 忍冬系8花文이, 內區에는 九乳座와 同一한 重辨8葉蓮花文이 배치되고 子房에는 단순한 원형의 小節帶가 있을 뿐이다. 上·下帶는 모두 上·下緣에 蓮珠帶를 갖고 있으나 上帶는 中間의 蓮珠帶를 중심으로 上下로 區分된다. 즉, 上部에는 연속적인 菱文과 橫으로 퍼진 如意頭文이 배열되어 있는데 各各 그 內部에 短線이 施文되어 있고, 下部에는 半圓圈文이 서로 어긋지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蓮顆子와 蓮花文이, 밖에는 葉文이 施文되어 있다. 下帶는 忍冬唐草文과 稜形의 花文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花文은 音筒에 施文된 것과 同一한 것으로 複辨14葉蓮花文과 4蓮顆子로 구성되어 있다. 銘文은 蓮珠文과 唐草文帶로 方形을 이룬 廓內에 「高麗國東京內廻眞寺佛弟子釋口/奉爲/聖壽天長國泰安安普勸有緣/者三千餘人入香徒布糧添敬造/金鍾一軀 辛亥四月八日 記」라고 陽鑄되어 寺刹名, 發願文, 干支 등을 밝히고 있다.

「東京」은 「본래 新羅의 옛 수도인 慶州로서 高麗 太祖18년에 敬順王 金傳가 와서 항복하니 나라는 없어지고 慶州라 하였고 뒤에 승격하여 大都督府가 되었으며 成宗(6年, 987)때에 東京留守로 고치고 또 留守使라 일컬었으며, 顯宗때에는 降等되어 慶州防禦使로 하고 안동대도호부로 고쳤다가 다시 東京留守로 하였다. 忠烈王 때에는 鷄林府로 고쳤다…」는 내용이 보이니³³⁾ 廻眞寺에 대한 記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慶州가 東京이라고 改名된 뒤에 해당되는 辛亥年은 顯宗2年(1011), 文宗25年(1071), 仁宗9年(1131), 明宗21年(1191)…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顯宗2年(1101) 辛亥年으로 보고싶다. 그것은 첫째, 撞座에 施文된 花文이 天禧2年銘(1018)鐘의 撞座文과 같은 系統이며, 撞座內區와 九乳座에 施文된 花文은 靑寧4年銘(1058)鐘의 乳座文과 同一系統이다. 그리고 上帶 下部에 施文된 半圓圈文은 8·9世紀의 영향으로 11世紀初半期에 다시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事實이다. 둘째, 高麗初期에 宋, 契丹과 더불어 三國間의 국제관계는 불균형으로 인해 高麗는 契丹에게 3차례나 걸쳐 침범 당하였다. 이런 政治的 狀況下에 986년부터 1018년 까지 高麗에서는 거의 宋, 契丹의 年號를 使用하지 않고 干支만 使用한 것을 金石遺文 資料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만 高麗 成宗13年 3월에 「처음으로 契丹의 統和年號(遼 聖宗의 年號)를 使用하였다」라는 記錄과 顯宗7년에 「다시 宋의 大中祥符年號를 행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는데³⁴⁾ 지금까지 밝혀진 金石遺文 資料에 의하면 이 期間(986~1018년)에 年號를 使用한 資料는 5例

33) 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一 慶尙道

34) ①高麗史 世家 卷第三 成宗十三年條

②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七年條

가 있을 뿐이다.³⁵⁾

특히, 顯宗元年(1010) 11月 辛卯에 契丹主가 스스로 步騎 40萬을 거느리고 내침하여 康兆가 敗戰하여 사로 잡혔으며, 同月 壬申 밤에는 王과 后妃가 契丹兵을 피하여 남쪽으로 行次한 일, 다음 해(1011)正月에는 契丹主가 京城에 들어와 大廟와 宮闕과 民屋을 불태워서 남김이 없었고 이 날 王은 廣州에 이르렀던 事實 등으로³⁶⁾보아 대외 감정의 악화로 契丹의 年號를 使用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顯宗 10年(1019)부터는 宋의 天禧 年號를 使用하다가 同13年(1022) 부터는 契丹의 太平年號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金石遺文 資料를 통해 알 수 있다.³⁷⁾

이상으로 6例를 紹介하였는데 11世紀에 접어들면 高麗前半期의 特色을 지닌 樣式이 자리를 잡는 반면 아직까지 統一新羅的인 要素도 함께 나타난다. 즉, 表I에서 보다시피 統和28年銘, 辛亥銘, 天禧3年銘, 太平12年銘鐘 등의 撞座에 施文된 花文과 唐草文, 寶相華文은 統一新羅的인 要素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例들 수 있다.

反面, 表I의 太平6·10年銘과 靑寧4·10年銘鐘의 撞座에 施文된 蓮花文은 8·9·10世紀때 처럼 주로 8葉蓮花文이던 것이 이 時期에 와서는 12~16葉으로 辨數가 상당히 늘어났으며 蓮辨도 11世紀 後半으로 갈 수록 가름해진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子房의 形態도 圓形뿐만 아니라 花形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太安2年銘鐘 撞座에 脈文이 施文된 花文은 顯德3年銘과 觀音院所藏無銘鐘과는 달리 완전히 高麗的인 色調를 띤 것으로 이는 점차 13世紀에 많이 등장하는 蓮花文과 맥을 이어주는 作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樣式은 11·12世紀에 해당하는 純靑磁器 表面의 蓮辨內에 施文된 文樣과 닮고있다. 또한 上·下帶文은 前代의 唐草系牡丹文이 맥을 이어오면서 多樣한 草花文이 함께 등장하고 表II의 太平6·10年銘鐘과 같은 異例的인 樣式도 나타난다. 그러나 辛亥銘과 太平12年銘鐘의 것은 以前의 統一新羅의 영향을 많이 받은 作品으로 後者는 더욱 그러하다.

라. 12世紀 (A.D. 1100~1199)

이 時期는 다른 金石遺物資料에 비해 그 例가 드문데다가 現存하는 2點도 모두 日本에 있다.

먼저 東京都豐島區高田本町2-7 北澤國男 所藏의 乾統七年銘鐘으로 크기는 總高47.7cm, 身高36.4cm, 口徑33cm의 小型이다. 龍頭는 笠形上에 있는 寶珠를 입을 크게 벌려 머금고, 위로 쳐 들은 오른쪽 다리의 四爪間에는 寶珠를 쥐고 있으며 音筒上部는 약간 破損되었을 뿐 完存하다.

그리고 笠形周緣에는 비교적 큰 複蓮辨이 둘러져 있고, 乳廓帶에는 唐草系花文이 施文되었으

35) 統和13年銘(995) 斷俗寺東洞口石刻, 統和23年銘(1005) 東臺塔誌石, 統和24年銘(1006) 法住寺鐵器刻, 統和28年銘(1010) 開心寺石塔, 統和28年銘(1010) 天興寺鐘,

36)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一

37) ①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②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下, 亞細亞文化史 1984.

③ 奏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87.

며 그 안의 乳는 이전과는 달리 4개만 배열된 四乳로서 突起된 乳頭는 없고 8葉蓮花文으로 된 乳座만 있다. 鐘身左右에는 蓮花座臺上에 頭光과 身光을 갖춘 如來座像이 있고, 鐘身前後에는 撞座가 배치되어 있는데 撞座와 前記한 如來像間에는 飛天像이 1軀씩 배치되어 있다. 唐草系飛雲文위의 雲上에 跪座한 飛天像은 合掌한 모습으로 天衣가 위로 향하여 날리고 있다.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間辨이 있는 複辨8葉蓮花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圓形子房內에는 1+8蓮顆子가 배열되어 있다. 上·下帶는 牡丹系唐草文으로 乳廓帶와 거의 同一樣式이나 文樣만 조금 다를 뿐이다. 上帶는 下緣, 下帶는 上·下緣에 蓮珠帶가 각각 구비되어 있다.

銘文은 鐘身前面의 乳廓帶와 撞座間에 위치한 長方形 蓮珠帶內에 「川北觀世音寺主法弘棟/梁郎崇引道副戶長同正/……聖壽天長之 以金鍾入重五十斤/乾統七年丁亥二月十九日」이라 陰刻하여 寺名, 住持·棟梁名, 職名, 發願文, 重量, 鑄成時期 등을 밝히고 있다. 川北에 관한 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全羅道 高敞縣과 慶尙道 慶州府編의 備考部分에 각각 보이나³⁸⁾ 觀世音寺의 所在는 未詳이다. 乾統은 遼 天祚帝時의 年號로서 그 七年丁亥는 高麗 睿宗2年(1107)에 해당한다.

다른 1例는 明昌七年銘鐘으로 현재 日本 千葉縣 習志野市 實粉 小倉 Collection에 所藏中이다. 크기는 總高50.7cm, 身高38cm, 口徑34cm의 小型으로 龍頭는 口에 寶珠를 머금고 笠形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두 다리는 뒤로 돌려 音筒을 잡고 있다. 笠形周緣에는 역시 蓮辨을 배열하였다. 乳廓帶는 外緣에 蓮珠帶가 둘러져 있고 施文된 文樣은 辛亥銘天倫寺鐘의 乳廓帶文에서 약간 변형된 唐草文이나 同一系統의 樣式으로 乳廓內에는 突起된 九乳가 있다. 鐘身下位 左右側面에는 秦樂飛天像이 각각 1軀씩 陽鑄되어 있는데 손에는 비파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前後側面에는 撞座가 배치되어 있는데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內部에는 一字狀의 間辨을 가진 複辨10葉蓮花文이 施文되어 있고, 넓은 子房內에는 1+6+11蓮顆子가 배열되어 있다.

上·下帶는 각각 下緣에만 蓮珠帶가 둘러져 있으나 文樣은 서로 다르다. 즉, 下帶는 唐草系花文이며 上帶는 上·下로 굽이치는 唐草系 줄기를 따라 滿開된 花文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花文間마다 2~3개의 葉文이 施文되어 있다. 銘文은 前面의 撞座와 飛天像사이, 乳廓帶下의 陽鑄된 長方形廓內에 陰刻하였는데 이 廓의 上帶는 V字狀의 脈文이 施文된 三角形 蓮辨과 蓮珠帶가 배열되어 있고, 下帶 역시 맥문이 施文된 蓮辨이 중첩되어 있다. 左·右帶에는 乳廓帶文과 同一한 唐草文이 배치되어 있고 外緣에는 短斜線帶가 구비되어 있다. 內容은 「明昌七年丙辰四月日鑄/成金鍾一重六十七斤德/興寺懸排普勸丹那同共一心/聖躬萬歲上棟梁戶長金仁鳳副棟 廷甫慶讚陳蕃孝」으로 鑄成時期, 重量, 寺名, 發願文, 棟梁·副棟梁名 등을 記錄하고 있다. 明昌은 金章宗의 年號로 七年丙辰는 高麗 明宗26年(1186)에 해당하나 丙辰 10月 이후 부터는 承安으로 改元되었다. 德興寺에 대한 所在는 未詳이다. 그러나 咸慶北道 회령군 팔울면 창효동 소풍산에 德興寺라는 절이 所在한다고³⁹⁾ 하나 이 咸北 所在 절의 創建時期도 알 수 없거니와 이 鐘의 出土地도 未詳이라서 同一한 절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38) 고전국역총서 44,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3·5卷, 민족문화추진회 1970.

39) 윤허·용하역음, 「불교사전」, 법통사 1962.

이상과 같이 12世紀에 해당하는 鐘의 資料가 부족한 관계로 뚜렷한 特徵을 짓기는 어려우나 12世紀는 13世紀로의 樣式變化에 있어 過度期的인 時期인 것 같다. 撞座나 上·下帶文은 前代의 複辨蓮花文과 唐草系花文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撞座文에 있어서 資料로는 제시되지 못했지만 12, 13世紀에 해당하는 高麗靑磁에⁴⁰⁾ 施文된 蓮花文中 蓮辨內에 顆粒文과 脈文이 施文된 樣式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銅鐘 또한 12世紀에 前代의 太安二年銘鐘 撞座文과 연결되는 單辨蓮花文內에 脈文과 顆粒文이 施文된 樣式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⁴¹⁾

마. 13世紀(A.D. 1200~1299)

이 時期에 해당되는 例는 많은 편이어서 文樣變遷 研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먼저 紀年 銘鐘 몇 例를 소개한 뒤 이 時期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干支銘鐘을 紹介코자 한다.

1) 紀年銘鐘

현재 7例 정도 알려져 있는데 모두 前半期에 해당하는 것이다.

먼저 大和六年銘鐘으로 現在 日本 岩手縣 盛岡市 北山 南部利英 所藏品인데 크기는 總高58cm, 身高47cm, 口徑38cm로 小型이다. 龍鈕는 龍身部를 조금 남긴 채 절반정도 파손되었으나 音筒은 完存하다. 笠形周緣은 종전과는 달리 立花形式의 如意頭文이 陽鑄된 것인데 이 樣式은 前記한 淸寧四年銘鐘에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두번째 例이다. 外緣에만 蓮珠帶가 둘러진 乳廓帶에는 過文系唐草文이 施文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역시 九乳가 배열되어 있다. 鐘身下部에 斜線方向으로 배치된 4個의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없이 重辨8葉蓮花文이 배치되어 있고 各蓮辨內에는 입맥문과 小顆粒文이 균일하게 施文되어 있다. 그리고 稜形의 꽃술帶로 둘러싸인 子房은 두겹으로 된 六花文形態로 그 안에 1+6蓮顆子가 小圓圈에 싸여 배열되어 있다. 이 撞座文은 13世紀에 많이 나타나는 樣式으로 瓦當文이나 磁器文에도 등장하며 12世紀에서 13世紀 飯子의 表面에 施文된 蓮花文에도 이런 類의 樣式이 보인다. 上·下帶文은 形態가 조금 다르나 같은 牡丹系唐草文으로서 淸寧四年銘鐘 上·下帶文과 同一하여 주목이 된다. 왜냐하면 大和(泰和를 意味)六年銘(高麗 熙宗2年, 1206)鐘과 淸寧四年銘鐘(1058)은 시기적으로 150여년 간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坪井良平은 두가지 견해를 언급하였는데,⁴²⁾ 하나는 裝飾地紋板이 늦게까지 그 工房에서 長期間 保存되어져 使用된 것, 다른 하나는 大和六年銘鐘이 앞서 淸寧四年銘鐘과 서로 前後해서 鑄造되어 그 당초에는 無銘이었는데 約150년 후에 이르러 銘文을 실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40) ①「韓國美術全集9」高麗陶磁, 同和出版公社 1974.

②「韓國의 美4」靑磁, 中央日報 1981, 參考

(例를 들면 靑磁象嵌雲鶴文梅瓶, 靑磁陰刻象嵌蓮花文托蓋, 靑磁象嵌菊花文瓜形注子 等).

41) 12世紀에 해당된다고 추정되는 國立博物館所藏의 乙巳銘鐘과 서울 朴秉來所藏의 正豐2年銘鐘에 나타난 撞座文을 參考로 들 수 있는데 後者의 年代는 再考되어야 한다.

(단, 坪井良平은 「朝鮮鐘」에서 正豐2年銘鐘을 13世紀로 추정하고 있다.)

42) 坪井良平, 「朝鮮鐘」, 角川書點 昭和49年.

이러한 두가지 관점에 대해 筆者의 생각은 만약 이 鐘이 淸寧4年銘鐘을 前後해서 만들어 졌다면 大和六年銘鐘은 그 당시 無銘鐘으로 時期는 11世紀中葉에 해당하는데 笠形周緣에 나타나는 立花形 樣式은 高麗 後半期에 많이 등장하는 樣式이며 더우기 撞座의 文樣은 분명 11世紀에서는 볼 수 없는 樣式으로 13世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特徵을 지닌 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地紋板이 工房에서 오랫동안 보존되어 재활용된 것이라 보는 것도 가능하나 地紋板의 材質上 150여년 간이나 잘 보존되었으리라는 것은 막연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大和六年銘鐘에 施文된 上·下帶 文樣은 淸寧4年銘鐘의 文樣을 모방했으리라고 보아지며, 撞座文은 그 時期(13世紀)에 나타나는 文樣을 施文했던 것이라 추정된다. 銘文의 內容도 「大中大夫興威衛大將軍/……臨口/郡善慶院以是功德者/大和六年丙寅正月 日謹記」로 施主者名, 重量, 所在名, 鑄成時期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銘文의 解讀에 대해서는 藤田亮策이 밝히고 있다.⁴³⁾ 大和六年丙寅은 泰和六年丙寅으로 高麗熙宗 2年(1206)이다.

그 다음은 貞祐10年銘鐘을 들 수 있다.⁴⁴⁾ 寶物 277號인 이 鐘은 現在 全羅北道 扶安郡 山內面 石浦里 來蘇寺에 所藏中으로 總高103cm, 身高79.8cm, 口徑67cm의 中型으로 우수한 作品이다.

정교한 龍鈕와 音筒은 完存하며 龍頭는 鬘으로 입을 크게 벌려 寶珠를 머금고, 위로 향한 왼쪽 다리의 四爪間에도 寶珠가 있으며, 오른쪽 다리는 아래로 향한 채 구부리고 있다. 音筒의 上部에도 寶珠와 같은 6개의 작은 구슬이 놓여 있는 것이 特色이다. 笠形周緣에는 내부에 花文이 施文된 立花形의 如意頭文이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다. 外緣에 蓮珠帶가 둘러진 4개의 乳廓帶에는 唐草系花文이 施文되고 그 안에는 突起된 九乳가 있다. 그리고 乳廓間마다 天蓋下에 三尊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蓮花座에 앉아 있는 本尊을 中心으로 左右에 菩薩立像을 配列하고 있다. 그 아래에는 滿開된 蓮花文과 雲文이 받치고 있고, 頭光위로는 飛天衣와 같은 雲文을 새겨두고 있다. 各 乳廓下에는 撞座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形態는 細長한 重瓣12葉蓮花文으로 蓮瓣內에 脈文이 施文되어 있고, 辨端은 날카로운 편이며 三重圈으로 된 6~7花形의 子房內에는 겹으로 된 1+5蓮顆子가 배열되어 있다. 上·下帶는 同一文樣으로 牡丹系唐草文이 정연하게 施文되어 있고, 上·下緣은 蓮珠帶 대신 용기된 1條의 線으로 처리하였다.

銘文은 鐘身下部에 原銘과 追記銘이 陰刻되어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貞祐十年六月日社主禪師湛默誌/貞祐壬午六/月初七日邊山/靑林寺金鍾/鑄成入重七百斤 棟梁……」 「余己酉九月七日卜居/靑林翌年九月七日鑿/比金鐘移懸干來蘇寺/……/崇禎紀元後四癸丑九月/……」 라고 記錄하고 있는데 貞祐는 金 宣宗의 年號로 癸酉(1213) 九月부터 丁丑(1217) 七月까지 使用하였으며 丁丑(1217) 八月부터는 興定으로 改元이 되어 壬午(1222) 七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貞祐十年壬午六月은 사실상 興定6年으로 이 때는 高麗 高宗9年(1222)에 해당한다. 改元이된 뒤에

43) 藤田亮策, 高麗鐘의 銘文, 「朝鮮學報」第4輯, 1859.

44) ①「韓國美術全8」金屬工藝, 同和出版社 1974.

②今西龍, 全羅北道 西部地方旅行雜記, 「百濟史研究」 1934.

③坪井良平, 前掲書.

도 貞祐銘으로 계속 使用된 金石遺文의 種類는 현재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⁴⁵⁾ 그 이유는 이 시기의 對外的 勢力變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金, 南宋, 西夏 등의 存立속에서 1206年 蒙古의 鐵木眞(테무진)이 即位하여 成吉思汗(징기스칸)이라 칭하고 점차 그 세력이 확장되자 金과의 대립 속에서 상대적으로 金은 점차 衰弱해져서 결국 1234년 1월에 滅亡하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高麗는 金의 改元年號를 使用치 않고 계속 貞祐年號를 1227년까지 使用했던 것 같다. 「邊山」에 대한 記錄은 「在保安縣距今治西二十五里一名榜伽山一名瀛洲山或云下山語轉而爲邊……」라고 되어 있는데⁴⁶⁾ 현재 全羅北道 扶安郡 所在이다. 그리고 靑臨寺라는 名稱은 보이니⁴⁷⁾ 靑林寺에 대한 記錄은 없다. 단지 忠淸南道 공주군과 全羅北道 金山군 대둔산에 靑林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나⁴⁸⁾ 어느 時期에 해당되는 절인지 알 수 없었다. 또한 追記銘에는 이 靑林寺鐘이 崇禎紀元後四癸丑年(朝鮮 哲宗4年, 1853)에 來蘇寺로 옮겨졌음을 밝히고 있다.

세번째 例로는 日本 愛知縣 江南市 前飛保 曼陀羅寺 所藏鐘으로 總高45.8cm, 身高32cm, 口徑31cm의 小型인데 전반적으로 정교하고 우수한 作品이다. 龍紐와 音筒은 약간의 破損이 있을 뿐 대체로 完存한 편이고 龍頭는 입을 크게 벌려 寶珠를 머금고 있으나 坪井良平에 의하면 이 寶珠는 別珠로서 입안에 삽입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笠形周緣에는 蓮辨이 둘러져 있고 前後左右로 배치된 4개의 乳廓帶에는 渦文系唐草文이 施文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蓮花雷 形態의 突起된 九乳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乳廓帶間에는 雲文과 蓮花座上에 合掌한 菩薩座像이 1軀씩 배치되어 있는데 圓形頭光을 갖추고 있고 그 뒤에는 雲尾가 施文되어 있다. 菩薩像을 中心으로 위에는 垂飾이 늘어져 있고 아래에는 右向하고 있는 飛天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左手에는 蓮花蕾를 쥐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래 左右에는 如意頭文이 크게 施文되어 있다. 각 乳廓帶下에는 撞座가 배치되어 있는데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圓形으로 內部에는 重辨8蓮花文이 施文되어 있고 각 蓮辨內에는 顆粒文이 균일하게 처리되어 있다. 子房은 圓形과 八花形의 두점으로 된 形態로 그 안에는 1+8蓮顆子가 배치되어 있는데 中央의 1蓮顆子は 小圓圈에, 주위의 8蓮顆子は 半圓圈에 싸여 있다. 上·下帶는 각각 上·下緣에 蓮珠帶가 둘러져 있으나 施文된 文樣은 다르다. 즉, 上帶는 唐草文系統으로 가는 덩굴사이사이에는 蓮花文이 施文되어 있으나 下帶는 二條線으로 된 扁平六稜花圈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였는데 그 안에는 辨端이 尖形인 花文을 施文하였다. 그런데 이 六稜花文 形態는 12·3世紀 象嵌靑瓷扁瓶과 梅瓶에 많이 등장하는 主文樣과 유사한 樣式이다. 銘文은 鐘下端 口緣部에 「目中□□□□□□二十一甲午五月日日輪寺金鍾棟梁副興通監□□□□光仁長老□□□□□□君□□□□大中□願納」라고 陰刻되어 鑄成時期와 寺

45) 貞祐5年銘奉業寺半子, 貞祐6年銘飯子·墓誌, 貞祐9年銘墓誌·香院, 貞祐10年銘翠岩寺子, 貞祐11年銘月峯寺鐘, 貞祐12年銘利義寺飯子, 貞祐13年銘鐘, 貞祐15年銘墓誌 등이 있다.

①黃壽永,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②秦弘燮, 「韓國美術史資料集成(1)」, 一志社 1987.

46)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四 全羅道 扶安縣 山川條

47)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四 全羅道 扶安縣 佛宇條

48) 윤허·용하 엮음, 「불교사전」, 법통사, 1962.

名, 棟梁에 대해 겨우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밝혀진 銘文中 甲午가 명시되어 있고 □□二十一은 高麗 高宗21년(1234)甲午와 일치하므로 이 시기임이 틀림없으며, 특히 撞座文은 13世紀의 대표적인 樣式이다. 그리고 13世紀 干支銘鐘 編年設定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時期는 中國年號를 使用치 않고 干支만을 使用한 時期이다. 日輪寺에 대한 所在는 未詳이다.

2) 干支銘鐘

紀年은 銘記되어 있지 않으나 文樣의 特徵과 전반적인 樣式으로 미루어 보아 13世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干支銘鐘을 몇 例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서울 張衡植所藏의 己丑銘鐘⁴⁹⁾으로 크기는 總高33.5cm, 口徑19.5cm인 小型으로 通形에 가깝다. 鐘 頂上部에는 音筒만 一部分이 남은 채 龍鈕와 함께 모두 缺失되어 있다. 笠形周緣에는 三角形의 蓮辨이 立花形態를 취하고 4個所의 乳廓帶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약간 突出된 九乳가 있다. 鐘身下部에는 上記한 乳廓帶와 相互 어긋나게 배치된 4個의 圓形 鐘座가 있는데 內部에 重辨12葉蓮花文을 具備하고 重圈으로된 子房內에는 1+4蓮顆子가 있다.

이 撞座에 施文된 蓮花文은 貞祐10年銘鐘의 撞座에 나타난 蓮辨처럼 辨端이 날카로운데, 樣式上으로는 13世紀의 崇慶2年銘飯子와 貞祐陸年銘飯子 表面에 施文된 蓮花文과 유사하다.⁵⁰⁾ 그리고 上·下帶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고 각각 下緣에만 蓮珠帶가 둘러져 있다. 銘文은 乳廓下 鐘座사이에 「己丑五月日竹丈寺住/持重大師代□棟梁/僧仁嚴光州白丁高/三十同原鑄成入重/六斤懸排大匠大夫」라고 陰刻되어 있는데 竹丈寺에 대한 所在는 忠淸北道 忠州와 慶尙北道 善山 두군데의 記錄이 있으나⁵¹⁾ 이 鐘이 어느 所在의 竹丈寺인지는 알 수 없으며 더구나 出土地도 未詳이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鐘의 編年에 대해서 黃壽永博士는 13·4世紀로 추정한다고 언급하였고⁵²⁾, 坪井良平은 늦어도 高宗19年(1229)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도 大過는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筆者도 13世紀頃으로 보고 싶은데 이 시기에 해당되는 己丑年은 高宗19年(1229)과 忠烈王 15年(1289)이 있다. 그 중 前者로 추정하는 이유는 첫째, 撞座의 文樣이 13世紀前期의 半子文樣과 유사하다. 둘째, 金石遺文資料에 1228년부터 1272년까지 계속해서 紀年銘을 가진 資料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金の 쇠약과 蒙古의 세력부상에 따라 金の 改元을 무시하고 이전의 年號를 계속 使用하였는데 高宗11年甲申(1224)에 金の 年號를 정지한다는 記錄이

49) ①黃壽永, 新羅·高麗梵鐘의 新例(十三), 「考古美術」113·114號, 1972.

②「韓國美術全集8」金屬工藝, 同和出版社 1974.

50) 沈奉謹, 高麗靑銅飯子の 研究, 「考古歷史學志」2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51) ①高麗史 卷十九 毅宗三

「乙巳 以壽星再見 命太子 醮于福源宮 平章事許洪材 醮于賞春亭 左承宣金敦中 祭于忠州竹杖寺」

②東國輿地勝覽 卷之二十九 善山都護府.

山川條 「飛鳳山 在府北十步鎮山……」

佛宇條 「竹林寺 竹杖寺 俱在飛鳳山……」

52) 黃壽永, 前掲書

있으나 실지로는 1227년까지는 改元以前の 年號(貞祐)를 使用한것이 資料上으로 나타나 있다.⁵³⁾ 蒙古는 世祖1年庚申(1260)부터 中統이라는 年號를 실시하였으나 高麗가 元의 年號를 使用하기 시작한 것은 資料上으로 훨씬 뒤날인 至元10年銘(高麗 元宗14年, 1273)灯부터 이다. 이 己丑銘鐘은 그 사이에 해당되는 高麗 高宗19年(1229)에 해당된다고 추정한다.

둘째로는 全南 海南郡 三山面 九林里 頭輪山 大興寺所藏品인 寶物88號 癸巳銘鐘⁵⁴⁾을 들 수 있다. 크기는 總高77.8cm, 身高60cm, 口徑43cm로 中型에 속하지만 그 樣式은 新羅鐘을 충실히 따른 作品으로서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즉, 龍鈕와 音筒은 完存하고 정교한 편으로 특히 上下 잇빨이 다 드러날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린 龍頭는 매우 활동적으로 보이며 왼쪽의 다리는 위로 쳐들고 있고 그 四爪間에는 寶珠가 얹혀 있다. 그리고 音筒에는 蓮珠帶와 唐草文이 새겨지고 笠形周緣에는 꽃무늬가 施文된 蓮辨이 立花形처럼 둘러져 있다. 前後左右 네 곳에 배치된 乳廓帶는 內外緣에 蓮珠帶가 둘러지고 그 사이에는 唐草文이 촘촘히 施文되어 있다. 또 그 안에는 九乳가 배치되고 乳座는 重辨6葉蓮花文으로 撞座文과 같은 樣式이다. 이 乳廓帶와 어긋지게 鐘身中間에 頭光과 身光을 갖춘 菩薩坐像이 1軀씩 배치되어 있고 蓮花座上에는 雲文이 施文되어 있다. 鐘身 下位에 前後左右 4곳에 배치된 撞座는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지고 그 안에 重辨6葉蓮花文을 새겼는데 各 蓮辨內에는 顆粒文을 균일하게 배치하고 있다. 이런 形態의 花文은 13世紀에 나타나는 特徵을 가진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圓圈과 八葉形으로 된 子房에는 1+5+8蓮顆子가 구비되어 있는데 曼陀羅寺鐘처럼 中央의 1蓮顆子是 小圓圈에 싸여있지만 나머지는 半圓圈에 싸여져 있어 興味롭다. 上·下帶는 上下緣에 모두 蓮珠帶가 둘러지고 그 속에 唐草文이 施文되어 있는데 上帶경우 이 唐草系의 줄기를 따라 그 上下로 어긋지게 小形花文을 일정하게 배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銘文은 原銘과 追記銘이 있는데 鐘身의 菩薩像下에 陰刻되어 있는 原銘은 「癸巳十月日洛山面/塔山寺火香徒上玄智/長木於非戶長住仲山寸同原/金鐘入重別拾斤印」이라 되어 있고 追記銘에는 萬曆二十一年이라고 紀年이 제시되어 있다.⁵⁵⁾ 이 大興寺鐘의 銘文에 대해서 坪井良平和 曷城末治가 자세하게 언급하였다.⁵⁶⁾ 특히 原銘 뿐만 아니라 追記銘에도 보이는 塔山寺의 名稱에 대해서, 「塔山」글자가 새겨진 原銘의 그 部分에 본래의 명칭을 두드려 없애고 (두드린 흔적이 있음) 그 뒤에 다시 「塔山」2字를 刻했다는 坪井良平의 말은 再考할 필요성이 있다. 「洛山面」과 「塔山寺」에 대한 所在는 未詳이나 다만 불교사전에⁵⁷⁾ 全羅南道 장흥군 천관산과 해남군 삼산면에 塔山寺

53) 金石遺文資料에 의하면 貞祐12年銘(1224) 利義寺飯子, 貞祐13年銘(1225) 鄭詔文所藏鐘, 貞祐15年銘(1227) 墓誌 등이 現存하고 있다.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下, 亞細亞文化史 1984. 參照

54) ①「韓國美術全集8」, 金屬工藝, 同和出版社 1974.

②曷城末治, 「朝鮮金石攷」1935.

55) 黃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8.

56) ①坪井良平, 前掲書

②曷城末治, 大興寺塔山寺鐘に 就りて, 「朝鮮金石攷」1935.

57) 윤허 용하 엮음, 「불교사전」법통사. 1962.

가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銘文에 보이는 「癸巳」年은 어느 時期에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먼저 高麗 前半期에 해당하는 銅鐘의 笠形周緣에 立花形式의 突起帶가 거의 없었으나 高麗 後期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다음은 撞座의 文樣이 13世紀의 特徵을 갖고 있는데 특히 曼陀羅寺所藏鐘(1234)의 것과는 거의 닮았다는 사실로 보아 高麗 後期中에서 13世紀前半期로 보여진다. 또한 貞祐10年銘, 己丑銘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228年 부터 1272年 사이는 계속적으로 干支만을 使用한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13世紀 前半期에 해당되는 癸巳年은 高麗 高宗20年(1233)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느껴진다.

이상에서 13世紀에 해당하는 銅鐘의 特徵을 살펴보면, 이 時期에 접어들면 表I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撞座에 施文된 花文은 複辨蓮花文은 나타나지 않고 중첩된 單辨蓮花文이 압도적이다. 즉, 蓮辨이 細長하고 辨端이 尖形인 蓮花文과 비교적 통통한 蓮辨內에 脈文과 顆粒文이 施文된 樣式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子房의 形態도 이 時期에 와서는 6~8花形이 많은데 이 경우 蓮顆子는 小圓圈 또는 半圓圈에 싸여 배열되어 있고, 子房이 圓形인 경우는 蓮顆子는 별다른 특징없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前記한 이런 사실들은 13世紀의 飯子文樣에서도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⁵⁹⁾ 특히 泰和7年銘飯子, 貞祐2年銘禁口, 貞祐6年銘半子, 高麗 高宗32·39年飯子 등이 그러한 예이다. 貞祐13年銘鐘의 撞座文은 12世紀中葉으로 추정하는 文公裕의 墓에서 出土된 靑磁象嵌寶相唐草文대접과 강화도에서 出土된 靑磁象嵌菊花文대접⁶⁰⁾ 內部에 施文된 花文과 많이 닮았는데 특히 後者와는 辨數도 일치한다. 上·下帶文은 表III에서 보듯이 草花文과 唐草文이 대부분으로 承安6年銘鐘의 渦文系唐草文과 같은 圖式的인 것도 있다. 그리고 曼陀羅寺所藏鐘과 같은 下帶文은 高麗的인 독특한 文樣으로 특히 草花文을 둘러싼 扁平六稜花圈文은 주로 13世紀를 前後해서 등장하는 高麗 磁器中 靑磁象嵌梅瓶類와 象嵌靑磁扁瓶類의⁶¹⁾ 胴體部에 施文된 扁平稜花文과 그 樣式이 유사하다.

바. 14世紀(A.D. 1300~1392)

이 時期에 해당되는 것은 뚜렷한 特徵은 없으나 대체로 前代인 13世紀의 영향을 받으면서 變形 또는 退化된 作品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現存하는 紀年銘鐘은 3例가 있다.

먼저 至大四年銘鐘으로 France Paris Cernuchi 博物館所藏中이던 것을 崔淳雨先生이 1962年에 拓本寫眞과 함께 소개하였다.⁶²⁾ 總高31cm, 身高25cm, 口徑2cm의 小型으로 전체적으로 정연한 편이다. 이 鐘은 音筒頂上部에 小珠가 裝飾되어 있고 龍鈕는 完存하며 笠形周緣에는 如意頭

58) 黃壽永, 高麗梵鐘의 新例(其二), 「考古美術」第2卷 第1號, 1961.

59) 沈奉謹, 高麗靑銅飯子の 研究, 「考古歷史學志」2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6.

60) ①「韓國美術全集9,」高麗陶磁, 同和出版社 1974.

②「韓國의 美4,」靑磁, 中央日報 1981. 圖版參照

61) 註60)과 同一

62) 崔淳雨, 巴里의 高麗鐘, 「考古美術」第3卷7號 1962.

文이 立花形 처럼 突出되어 있다. 鐘身의 4곳에 배치된 乳廓帶에는 唐草文이 施文되었고 外緣에는 蓮珠帶가 具備되어 있으며 帶內에는 突起된 九乳頭가 있다. 그리고 各 乳廓間 下位에 蓮花座上에 合掌한 天人像이 1軀씩, 各 乳廓下에는 撞座가 陽鑄되어 있다. 撞座는 重瓣7葉蓮花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各 蓮瓣마다 사실적인 印紋이 施文되어 있고 2條線으로 된 六花形 子房內에는 1+6蓮顆子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上·下帶는 同一文樣인데, 연속적인 唐草系 줄기를 따라 花文을 일정한 간격마다 배치하고, 上緣에는 모두 蓮珠帶를 갖춘 것이다. 銘文은 撞座間과 天人像下에 點刻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崔淳雨先生이 원래 子劃이 稚拙不分明해서 缺字들을 모두 判讀할 수 없었음을 유감이라고 언급하면서 소개한 內容을 보면, 「至大四年 辛亥二月日/智峇且 閑/香徒清信戒女等/造上樂師菴小鐘/鑄□成□□□□當/同願/□□女/加叱同」이라고 하였는데⁶³⁾ 이 至大는 元 武宗時의 年號로 그 4年 辛亥는 高麗 忠宣王3年(1311)에 해당되며, 辛亥1월에 武宗이 죽고 3월에 仁宗이 即位하면서 그 이듬해 부터는 皇慶 年號를 使用하였음을 參考해 둘 필요가 있다. 樂師菴은 平安道 朔州 북쪽18里 昌城府 境界에 있는 延坪山에 所在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⁶⁴⁾ 있으나 그 외에도 全國에 많이 所在하였을 것으로 추측됨으로 確實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는 洪武貳拾伍年銘鐘을 들 수 있다.⁶⁵⁾ 현재 서울시 城東區 三成洞 奉思寺 所藏으로 身高60.2cm, 口徑49.5cm의 中型이다. 龍鈕와 音筒은 거의 缺失되고 없으나 身部는 完存하다.

殘存部位에 의하면 笠形周緣에는 如意頭文이 突出되고 4個所의 乳廓帶에는 花文 一部分이 施文되었으며 外緣에는 蓮珠帶가 둘러지고 그 안에는 八蓮花文을 가진 九乳座가 있다. 그리고 各 乳廓帶節마다 垂飾이 달려있다. 鐘身下位에는 乳廓帶와 一直線이 되도록 撞座가 배치되고 撞座間에는 雲文과 蓮花座 위에 菩薩立像이 合掌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圓形頭光을 具備하고 있고 身部뒤에는 雲座에서 뻗어나온 雲尾가 처리되어 있다. 撞座는 花形으로 單瓣17葉花文이 배열되고 있는 비교적 넓은 圓形子房內에는 1+6蓮顆子が 뚜렷이 陽鑄되어 있다. 이 撞座文은 前代에 비해 異形的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花辨內에 별 다른 施文없이 辨數를 형식적으로 많이 배열한 점이 흥미롭다. 上·下帶는 同一文樣으로 撞座에 비해 화려하게 施文되어 있다. 즉 唐草文과 花文이 어우러진 형태로 滿開된 花文이외에 채 피어나지 못한 花蕾形과 같은 이 文樣은 13·4世紀에 해당되는 象嵌蓮花文瓶이나 編瓶에 施文된 花文과 비슷하며 이런 형태는 대체로 시기가 뒤진 麗末鮮初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上·下緣에는 蓮珠帶가 갖춰져 있으나 上帶上緣에 2條의 蓮珠帶가 나란히 具備된 것은 天禧三年銘(日本, 正祐寺所藏)鐘의 下帶下緣에 나타난 것의 예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銘文은 鐘身下部에 「洪武貳拾伍年九月拾七日川寧土/象頭山長興寺鐘造成金三百/斤以人鐘/施主戶長……」라고 陰刻되어 鑄成時期, 寺名, 重量, 施主者名 등을 밝히고

63) 崔淳雨, 前掲書

64) 東國輿地勝覽 卷之五十三 平安道 朔州都護府
山川條에 「……延坪山在府十八里昌城府界……」
佛宇條에 「普賢寺在五峯山樂師菴在延平山」

65) 黃壽永, 奉思寺所藏高麗香爐와 梵鐘의 調査, 「東國史學」五, 1958.

있다. 洪武는 明太祖의 年號로서 그 25年은 高麗 恭讓王4年(1392)에 해당하며 高麗王朝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며, 이 해 7月에는 李成桂가 王으로 추대되고 17日 壽昌宮에서 即位하여 朝鮮太祖1年이된 해이다. 「川寧」에 대한 記錄은 高麗史 志卷第十 地理一 廣州牧條에 川寧郡에 대한 內容이 보이고 東國輿地勝覽卷之七 驪州牧 古蹟條에도 川寧廢縣에 대한 記錄이 보인다.⁶⁶⁾ 驪州牧 山川條에는 象頭山, 佛宇條에는 長興寺에 대한 것도 보인다.⁶⁷⁾ 長興寺는 朝鮮 肅宗末年에 廢寺되면서 鐘은 지금의 奉思寺로 옮겨왔던 것 같다. 奉思寺는 서울에 편입되기 전에는 京畿道 慶州郡에 속하였다고 하는데⁶⁸⁾ 長興寺와는 가까운 거리에 位置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慶州博物館所藏의 己酉銘鐘을 들 수 있다.⁶⁹⁾ 크기는 總高17cm, 身高13.3cm, 口徑10cm로 아주 小型이다. 龍鈕와 音筒, 鐘身 일부가 破損되었고 전체적으로 조잡한 편이다. 音筒上端에는 承安6年銘, 貞祐10年銘鐘처럼 小珠가 장식되어 있고 龍頭는 입을 조금 벌린 채 寶珠를 머금고 있다. 笠形周緣에는 忍冬文이 立花形처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乳廓은 종전과는 달리 文樣이 施文된 帶없이 九乳만을 배치하고 있다. 鐘身下部에는 乳廓과 서로 어긋지게 撞座4個가 四方에 배치되어 있는데, 外輪에 蓮珠帶가 둘러진 撞座는 그 속에 重瓣8葉蓮花文이 크기가 일정치 않고 성글게 배치되었으며 등근 子房內에는 1+6蓮顆子가 배치되어 있다. 이 撞座의 花文은 至正十一年銘(1351) 半子와 本校博物館所藏無銘半子⁷⁰⁾에 施文된 花文과 유사한데 그 중에서 前者에 보다 더 가까운 편이다. 上·下帶는 각각 1條의 蓮珠帶와 함께 소략한 唐草文이 雙을 이루고 있다. 銘文은 鐘身部 한면에 「清信戒/弟子南瞻部/州高麗國昇/平□□……五聖寺/施納小鍾入重二十兩/己酉十二月十七日/亥□□」라고 陰刻되어 있다. 「昇平」에 관한 內容은 高麗史와 東國輿地勝覽에 보이나⁷¹⁾ 五聖寺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寺名과 同一한 山名으로는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四 臨陂縣 山川條에 縣의 서쪽 18里에 五聖山이 있었다는 記錄이 보인다. 臨陂縣과 昇平郡이 결코 인접한 거리는 아니지만 같은 全羅道內에 位置하므로 무슨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銘文에 보이는 「己酉」年은 鐘의 전반적인 特徵으로 미루어 보아서 13·4世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時期의 干支로는 高宗36年(1249), 忠宣王元年(1309), 恭愍王18年(1369)이 있다. 黃壽永博士은 이를 소개하면서 編年에 관해서는 언급하

66) 東國輿地勝覽 卷之七 驪州牧 古蹟 川寧廢縣 「本高句麗述川郡一名省知貫新羅改沂川高麗改今名顯宗九年屬廣州後置監務本朝 太宗朝例爲縣監 睿宗朝廢之并于州爲直村在州西二十五里」

67) 東國輿地勝覽 卷之七 驪州牧
山川條에 「… 象頭山在川寧縣西……」
佛宇條에 「… 長興寺在象頭山……」

68) 黃壽永, 前揭書.

69) 黃壽永,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一), 「考古美術」第2號, 1960. 9.

71) ①高麗史 志卷第十一 地理一 全羅道 昇平郡, 「本百濟 平郡(歆一作沙一作武)新羅景德王 改今名成宗十四年 爲昇州尙海軍節度使(一云昇化) 靖宗二年 復爲昇平郡 忠宣王元年 陞昇州牧 二年 降爲順天府屬縣四」

②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 順天都護府 建置沿革 「本百濟歆平郡(歆一作沙 一作武) 新羅改昇平郡 高麗成宗十四年 爲昇州尙海軍節度使(一云昇化) 靖宗二年復爲昇平郡 忠宣王元年陞爲昇州牧 二年 改今名 降爲府本朝因之 太宗十三年例爲都護府」

지 않았고⁷²⁾, 坪井良平은 1309, 1369년으로 추정하는데⁷³⁾筆者는 14世紀初인 恭愍王18年(1369)己酉로 보고 싶다. 물론 註71)에서 보다시피 忠宣王2年(1310)부터는 昇平에서 順天府로 삼았다는 내용이 보이는데, 만약 恭愍王18年(1369)己酉에 해당된다면 銘文에 「~高麗國昇平~」이 아니라 「~高麗國順川~」으로 記銘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앞에서 소개한 例 중에 改名된 名稱보다 古名을 계속 使用한 例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撞座에 施文된 蓮花文과 子房의 樣式이 至正11年銘(1351)半子 表面의 內區에 施文된 文樣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恭愍王18年己酉(1369) 5월에 元의 至正年號를 폐하였고⁷⁴⁾ 廢王禡3年丁巳(1377) 2월에 北元年號 宣光을 使用한다는 것과 다시 廢王禡4年戊年(1378) 9월에 元의 洪武年號를 다시 使用한다는 記錄이⁷⁵⁾ 보인다는 사실이다. 또한 金石遺文資料에도 1369年 부터 1376年 까지 年號를 使用한 資料가 보이지 않고 1377年에 檜巖寺碑에⁷⁶⁾ 北元의 宣光 年號를 使用한 것이 보이므로 1369年은 年號未使用期로 于支만을 使用하였기 때문에 이 己酉銘鐘은 恭愍王18年己酉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4世紀의 몇 例되지 않는 作品들을 紹介하였는데 이를 요약한다면 14世紀의 銅鐘은 洪武25年銘외에는 크기가 小型이다. 撞座에 施文된 蓮辨文은 三角形 혹은 星形으로 변형된 상태이고, 子房은 圓形과 花形이 13世紀때처럼 함께 등장하였다.

表I의 至大4年銘, 至治4年銘鐘과 같은 樣式 즉, 입맥문이 施文된 花文과 6~8花形으로 이뤄진 子房의 特徵은 大和6年銘鐘 系統을 이어왔고, 己酉銘鐘처럼 蓮珠帶가 갖춰지고 蓮辨이 細長하면서 辨端이 尖形이고 子房은 圓形으로 이뤄진 점 등은 己丑銘, 己亥銘鐘 系統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洪武25年銘 撞座文처럼 조금 樣式을 달리하는 花文도 등장한다. 上·下帶文은 대체적으로 소략한 唐草文을 施文하였다.

Ⅲ. 맺음말

以上에서 統一新羅 및 高麗時代의 紀年銘 銅鐘의 撞座와 上·下帶文樣을 中心으로 그 特徵을 살펴보았다. 本稿가 試圖하는 바는 이미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高麗時代 瓦當文樣의 體系的인 編年表 作成을 하기 위한 先行作業이었음을 상기하면서 要約하기로 한다.

表I 을 보면, 統一新羅時代의 8·9世紀에 해당하는 圖1·2·3·4와 같은 화려한 文樣은 羅末麗初의 過度期를 거쳐 11世紀 前半期에 해당되는 圖10·11·12·16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반면 圖13·14·15·17·18과 같은 것은 11世紀에 등장하는 高麗의인 樣式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72) 黃壽永, 高麗青銅梵鐘의 新例(其一), 「考古美術」第1卷 第2號, 1960.

73) 坪井良平, 「朝鮮鐘」角川書點, 昭和 49年.

74) 高麗史 世家 卷第四十一 恭愍王四 「己酉十八年……五月……辛丑 停至正年號……」

75) 高麗史 列傳 卷第四十六 辛禡一

「三年……二月……始行北元宣光年號……」

「四年……九月……復行洪武年號……」

76) 許興植, 「韓國金石全文」中世上, 亞細亞文化史, 1984.

중 圖13·18과 같은 樣式의 撞座文은 蔚州 潤月寺址⁷⁷⁾에서 出土된 숫막새 瓦當의 樣式과 많이 닮고 있어 이들 瓦當의 編年研究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世紀에서는 前代의 複辨蓮花文系統을 이은 圖20·21 例 外에 資料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圖19 系統을 이은 單辨蓮花文이 등장하였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이 時期로 편년되는 高麗 磁器나 飯子 表面에 施文된 文樣中 同一 單辨蓮花文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등을 참고로 例들 수 있다. 13世紀에 접어들면 蓮花文 樣式은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먼저 圖28·32와 같은 樣式, 두번째는 圖19 系統에서 맥을 찾을 수 있는 圖23·29·30類, 세번째는 異例的인 색체를 띤 圖22·24·26·27과 같은 것 등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위의 첫째와 두번째 같은 樣式의 表現은 13世紀의 飯子表面에 施文된 樣式과 同一하다. 이에 대해서 앞서 13世紀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圖29,30과 同一한 文樣의 것이 陝川 靈巖寺址⁷⁸⁾ 出土 숫막새 중에 있어 이 瓦當의 年代추정에 결정적인 資料 역할이 되리라 본다. 14世紀에서는 주로 小型鐘에 배치된 鐘座라서 그 文樣도 소략하고 성근편으로 圖33은 前代의 圖28·32, 圖34·35는 圖23·25·31의 영향을 받으면서 퇴화된 例이다.

表Ⅱ에서 보면, 8世紀의 圖2,3과 같은 樣式은 9世紀의 圖4로, 10世紀의 圖6·9 그리고 11世紀의 圖16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서 11世紀까지는 統一新羅時代 樣式을 강하게 받고 있다.

10世紀의 圖7·8과 같은 牡丹系花文은 11世紀의 圖 10·12·16·17·18과 같은 牡丹文과 多樣한 草花文 等이 그 主流를 이루면서 12·13·14世紀에도 계속 主文樣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11世紀의 圖13·14, 13世紀의 圖28 等과 같은 圖案의인 要素가 가미된 文樣은⁷⁹⁾ 高麗時代 工藝作品 表面의 文樣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圖1·6·10에 보이는 화려한 唐草文 또 圖11과 같은 唐草文 手法 등은 13世紀의 圖26·29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와서는 퇴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 14世紀의 圖 30·31·32 에서는 완전히 소략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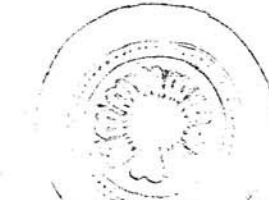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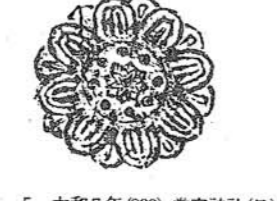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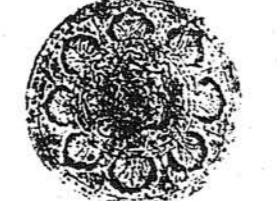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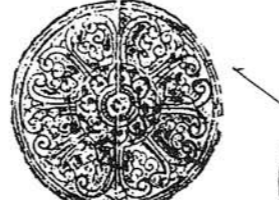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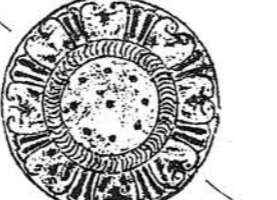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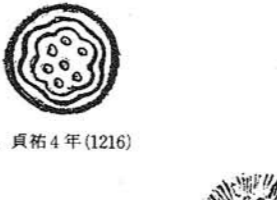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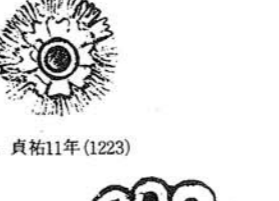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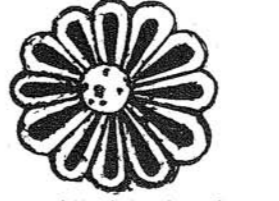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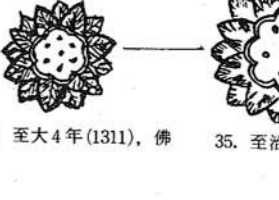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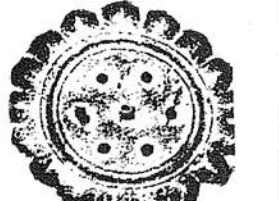
아무튼 本稿에서 처음 意圖한 바와는 달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을 參考로 하여 記銘이 없는 高麗時代의 암·숫막새기와의 編年研究에 절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資料가 될 뿐만 아니라 新羅및 高麗瓦當의 再定立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77)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第十冊, 1985. 「蔚州潤月寺址 I」

78)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第十一冊, 1985. 「陝川靈巖寺址 I」

79) 서울 朴秉來, 金信權所藏鐘의 上·下帶에 施文된 舊文도 같은 要素로서 이 舊文은 高麗 磁器에도 많이 施文된 文樣中의 하나이다.

表1. 銅鐘 撞座文様の 編年表

世紀	8 世紀	9 世紀	10 世紀	11 世紀	12 世紀	13 世紀	14 世紀	
撞座	<p>圖1. 開元 13年(725), 上院寺</p>  <p>圖2. 天寶 4年(745), 今亡</p>  <p>圖3. 聖德太子神廟大開 6年(771) 慶州博</p> 	<p>圖4. 貞元 20年(804), 國博</p>  <p>5. 太和 7年(833), 常宮神社(日)</p> 	<p>5. 天復四年(904), 在日</p>  <p>7. 順德 3年(956), 波土宮(日)</p>  <p>8. 無銘(10世紀半葉), 觀音院(日)</p> 	<p>9. 統壹 4年(963), 照運寺(日)</p>  <p>13. 太平 6年(1026), 勝樂寺(日)</p>  <p>14. 太平 6年(1026), 惠日寺(日)</p>  <p>15. 太平 10年(1030), 鶴瀨寺(日)</p> 	<p>10. 統和 28年(1010), 國博</p>  <p>11. 辛亥銘(1011年), 天德</p>  <p>12. 天禧 3年(1019), 今亡</p>  <p>16. 太平 12年(1032), 國城寺(日)</p>  <p>18. 清寧 11年(1065), 承天寺(日)</p>  <p>19. 太安 2年(1086), 扶餘博</p> 	<p>20. 乾統 7年(1107), 日人</p>  <p>21. 明昌 7年(1196), 小倉CoL (日)</p> 	<p>22. 承安 6年(1201), 日人</p>  <p>23. 大和 6年(1206), 日人</p>  <p>24. 貞祐 4年(1216)</p>  <p>25. 貞祐 10年(1222), 家蘇寺</p>  <p>26. 貞祐 11年(1223)</p>  <p>27. 貞祐 13年(1225), 日人</p>  <p>28. 己丑銘(1229年), 高木博</p>  <p>29. 癸巳銘(1233年), 大興寺</p>  <p>30. (高宗) 21甲午(1234) 雙陀羅寺</p>  <p>31. 戊戌銘(1238年), 國博</p> 	<p>32. 己亥銘(1239年), 高木博</p>  <p>33. 己酉銘(1309)</p>  <p>34. 至大 4年(1311), 佛</p>  <p>35. 至治 4年(1324)</p>  <p>36. 洪武 25年(1392)</p> 

表II. 銅鐘 上・下帶文様の 編年表

世紀別	8 世紀	9 世紀	10 世紀	11 世紀	12 世紀	13 世紀	14 世紀
上・下帶	<p>圖1. 開元13年(725), 上院寺</p> <p>圖2. 天寶4年(745)</p> <p>3. 聖德大王神鐘 大曆6年(771)</p>	<p>4. 貞元20年(804)</p> <p>5. 太和7年(833)</p>	<p>6. 天復4年(904)</p> <p>7. 顯德3年(956)</p> <p>8. 觀音院所藏無銘鐘</p> <p>9. 咸豐4年(963)</p>	<p>10. 統和28年(1010)</p> <p>11. 平泉鐘(1011 寺傳)</p> <p>12. 天滿3年(1019)</p> <p>13. 太平6年(1026)</p> <p>14. 太平10年(1030)</p> <p>15. 太平12年(1032)</p> <p>16. 清寧4年(1058)</p> <p>17. 清寧11年(1065)</p> <p>18. 太安2年(1086)</p>	<p>19. 乾統7年(1107)</p> <p>20. 明昌7年(1196)</p> <p>21. 承安6年(1201)</p>	<p>22. 大和6年(1206)</p> <p>23. 貞祐4年(1216)</p> <p>24. 貞祐10年(1222)</p> <p>25. 貞祐11年(1223)</p> <p>26. 癸巳銘(1233 寺傳)</p> <p>27. (高宗)21甲午(1234)</p> <p>28. 戊戌銘(1238 寺傳)</p> <p>29. 己亥銘(1239 寺傳)</p>	<p>30. 己酉銘(1309 寺傳)</p> <p>31. 至大4年(1311)</p> <p>32. 至治4年(1324)</p> <p>33. 洪武25年(1392)</p>

高麗 肅宗의 即位過程에 관한 研究

朴 樂 勳*

目 次

I. 序 言	IV. 肅宗의 即位
II. 李資義 謀亂의 實體	V. 結 語
III. 鷄林公의 舉事	

I. 序 言

高麗 肅宗의 即位過程에 관하여서는 지금까지 學界에서 소홀히 하여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이것은 筆者의 寡聞한 所致이겠지만 고작하여 概說書에서 斷片的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¹⁾

이에 비록 概說書이기는 하나 金庠基·李丙燾 博士 등의 업적을 바탕으로 하고 보다 더 實證的인 研究를 시도하여 高麗 肅宗의 即位가 高麗史 研究에서 차지하는 領域을 확대하고 나아가서 高麗時代 全般의 解明에 디딤돌을 이룩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먼저 지금까지 通念的으로 이해하여 오던 李資義 謀亂의 實體를 밝히기 위해 「高麗史」에 記載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踏襲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 검토하고, 그와 아울러 이른 바 李資義의 謀亂에 連累되어 목숨을 잃거나 流配 당한 사람들의 數조차 얼마나 되었으며 당시 그들의 官職體系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그들에 대한 高麗社會의 反響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鷄林公(뒤의 肅宗)의 舉事を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鷄林公에게 禪位한 獻宗 在位年間の 政事內容을 파악할 것인 바, 獻宗은 11세의 어린나이로 即位하였으며 자연히 政事の 實權은 母后인 思肅太后가 장악하고 어린 獻宗과 政權의 안정을 위한 人事가 있었는데 그때의

* 大學院

1) 金庠基 博士는 “아마 肅宗(獻宗의 叔父)이 位를 차지하기 까지에는 非常한 手段이 취해졌던 듯 하다”고 하였고(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東國文化社, 1961, p.204), 李丙燾 博士는 “肅宗의 即位는... 禪位의 經緯와 場面이 朝鮮의 端宗·世祖의 關係 그것과 얼마나 恰似한가를 우리는 또 한번 吟味할 수 있다”고 하였다(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48, p.225).

人事發令의 내용을 통하여 網羅된 人士들 중에서 어떤 部類의 사람들이 獻宗支持의 태도를 견지하였고 어떤 系列의 사람들이 反獻宗系列로 轉向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이와 아울러 政變의 가장 主體가 되는 鷄林公과 邵台輔는 어떻게 密着하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密約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鷄林公의 密命을 받은 邵台輔와 王國髦는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王國髦와 高義和의 활약상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살펴 볼 것이다.

끝으로 肅宗의 即位는 평탄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論功行賞과 함께 새로운 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어떠한 布石을 시도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肅宗即位 後의 人事措置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구성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肅宗이 即位 後에 獻宗에 대하여 어떠한 處遇를 하였고 獻宗 死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限定된 史料를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므로 혹시 獨斷에 빠지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면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의 活性化라는 의미에서 本稿에 임하고자 한다.

II. 李資義 謀亂의 實體

高麗 제15대 肅宗의 即位는 獻宗 元年(1095)에 李資義 謀亂의 粉碎過程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된다. 그러나 李資義가 叛亂을 과연 음모하였는지 아니면 鷄林公측의 일방적인 造作인지는 확실하게 斷定할 근거는 없다.

이를 從來에는 李資義의 반란음모를 하나의 既定事實로 看做하고 鷄林公측이 이를 분쇄한 것으로 이해하여 왔으므로 이를 밝히는 것을 本章의 주된 목표로 한다.

1. 從來의 見解

高麗 제14대 獻宗은 宣宗 元年(1084) 6月 乙未에 탄생하여, 11세되는 宣宗 11年(1094) 5月 壬寅에 即位하여 獻宗 元年(1095) 10月 己巳에 12세로 鷄林公에게 禪位하고 14세되던 肅宗 2年(1097) 閏 2月 甲辰에 崩御하였다.

그런데 이른 바 李資義의 반란음모는 獻宗 元年 7月 庚申에 일어났는데 이제 關係史料를 引用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몇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庚申 李資義 謀亂伏誅」²⁾
- ② 「戊戌 詔曰 昨者 權姦 謀亂伏誅 此實將相宜力之効 雖拔亂 益勤修省 凡諸冤獄 悉令寬宥 內外贖銅小罪 皆許免除」³⁾
- ③ 「肅宗二年閏二月甲辰 薨于興盛宮 壽十四 在位一年 諡曰懷殤 葬于城東 陵曰隱陵 睿

2) 高麗史, 卷10 獻宗世家 元年 7月 庚申條.

3) 高麗史, 卷10 獻宗世家 元年 9月 戊戌條.

宗即位 改諡恭殤 廟號獻宗 高宗四十年 加諡定比⁴⁾

- ④ 「資義 貪冒貨財 集無賴勇士 以騎射爲事 常曰主上有疾 朝夕難保 外邸有窺覩者 汝輩宜盡力 奉漢山侯 勿令神器于他人 聚兵禁中 欲舉大事 時肅宗爲鷄林公 在明福宮 密知之 諭平章事邵台輔曰… 台輔 使上將軍王國髦 領兵入衛 國髦 先令壯士高義和 斬資義宣政門內…」⁵⁾

먼저 史料 ①의 경우를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李資義가 정말 반란을 음모하다가 적발되어 伏誅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史料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치 獻宗 자신이 李資義의 반란음모를 분쇄한 것을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詔書를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詳論이 되겠지만 이 元年 9월의 詔書는 獻宗의 意圖와는 전혀 관계 없는 鷄林公 一派의 意思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史料 ③의 내용은 獻宗이 崩御한 뒤에 肅宗이 諡號만을 올리고 廟號를 정하지 아니하므로 正統君主로 認定하지 않고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例는 高麗 34王 중에서 이른 바 廢假立眞의 결과로 君主 취급을 받지 못하는 禍王·昌王을 제외하고는 唯一한 경우이다. 獻宗의 廟號는 肅宗 다음 王인 16대 睿宗이 即位한 뒤부터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실은 肅宗의 의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史料 ④는 李資義가 탐욕스러워 財貨를 많이 모으고 無賴한 勇士들을 모아서 騎射를 일삼으며 항상 말하기를 主上이 병환이 있으므로 朝夕을 보존키 어렵고 밖에서 엿보는 자가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힘을 다하여 漢山侯를 받들어 神器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말게 하라고 한 바, 鷄林公이 明福宮에 있다가 비밀히 이를 알고 平章事 邵台輔를 달래고 邵台輔는 王國髦에게 命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宮中에 들어와 侍衛케 하였고, 王國髦는 高義和로 하여금 宣政門 안에서 李資義를 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아무리 너그럽게 吟味한다 하여도 이는 한낱 鷄林公의 舉事를 合理化하는 것 이상 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史料上에 나타난 것으로는 李資義의 음모를 듣고 말한 사람은 오직 鷄林公 한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결과가 된다. 만약에 鷄林公에게 傳言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실을 史料上에 빠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情勢로 보아서 李資義가 반란을 음모하였다면 가장 機密을 엿듣지 못하게 할 일차적인 對象이 鷄林公이었을 것인데 鷄林公이 단 한 사람의 媒介體도 없이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는 것이다.

2. 犧牲者群

이른 바 李資義의 謀亂에 連累되어 희생당한 사람은 「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는 수효만 하여도 被殺者가 20名이고 流配者는 50餘名으로 延人員이 70餘名에 이르고 있다.⁶⁾ 그러나 「高麗史」에

4) 高麗史, 卷10, 獻宗世家 末尾.

5) 高麗史, 卷127, 李資義列傳.

6) 高麗史, 卷127, 李資義列傳.

그 이름이 明示되고 있는 것은 41名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름이나 官職內容 등을 알길이 없다. 이제 그 이름과 官職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表로 작성하여 보면 아래의 <表1>과 같다.

<表1> 犧牲者의 官職別 一覽表

人	名	關	係	官 職 名	犧 牲 內 容
李	資	本	人	中 樞 院 使	被 殺
張	忠	黨	與	閣 門 祗 候	"
崔				中 樞 院 堂 後 官	"
李			子	注 簿 師	"
知		血	緣 (?)	大 將	"
崇					"
澤					"
郭		黨	與	中 郎 將	"
成				別 將	"
成		黨	與	別 校 尉	被 殺
盧				校 隊 正 事 卿	"
裴				平 少 監	流 配
李	子			天 少 監	"
金	義			司 奉 少 監	"
黃	忠			御 監	"
黃				徐 王 御 監	"
徐				王 侍 祗 錄	"
王	台			李 注 簿 官	"
李	資	血	緣 (?)	李 判 司 殿 將 郎	"
李	景		與	崔 注 簿 官	"
全				王 判 司 殿 將 郎	"
王				李 判 司 殿 將 郎	"
李	滋			金 判 司 殿 將 郎	"
金				黃 判 司 殿 將 郎	"
廉				李 判 司 殿 將 郎	"
李				吳 判 司 殿 將 郎	"
吳				仇 判 司 殿 將 郎	"
良				安 判 司 殿 將 郎	"
安				珍 判 司 殿 將 郎	"
珍				惟 判 司 殿 將 郎	"
惟					"

高麗 肅宗의 即位 過程에 관한 研究

崔		幸	〃	〃	〃
林	自	成	〃	〃	〃
侯		善	〃	〃	〃
金		錢	〃	〃	〃
李	玄	孟	〃	〃	〃
康	希	白	〃	〃	〃
鄭	貞	佐	〃	〃	〃

이상의 <表1>에 나타난 41명을 분석하여 볼 때 被殺者 중에는 文臣이 4名이고 武臣이 7名이며 僧侶가 1名으로 12名이다. 그리고 流配者 중에는 文臣이 15名이고 武臣이 14名이다.⁷⁾

그런데 李資義와의 관계에서 볼 때 血緣關係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아들 李緯과 大師 知炤·將軍 崇列 澤春 및 祗侯 李資訓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軍士를 分遣하여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心證을 가지게 하고, 또한 崇列과 澤春은 姓이 기록되지 않았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게 되고, 祗侯 李資訓은 李資義와 行列 字가 같은데서의 추측이다.

그런데 文臣의 경우에는 正二品(李子威)·從二品(李資義) 등이 들어있으므로 謀亂하였다는 구실이 어느 정도 수궁이 갈 수도 있겠으나 武臣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한명의 大將軍이나 上將軍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른 바 李資義 謀亂의 虛構性을 立證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鷄林公족의 주장대로라면 李資義 一黨은 謀亂을 위하여 상당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 한명의 大將軍이나 上將軍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비록 李資義 謀亂이라고 하는 것은 虛構로 꾸며낸 사실이라고 하여도 한 두사람의 上·大將軍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무리 嫌疑를 뒤집어 씌운다고 하여도 전혀 無關한 사람을 끌어 넣을 수 없는 일이고 그나마도 軍部의 實權者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高級武臣이 아닌 一般 犧牲者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수가 단지 李資義와 交分이 두터웠던지, 아니면 鷄林公 舉事의 主動者들에게 밍보인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이나 流配를 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보는 肅宗 元年의 中書省 上奏에서 確然하게 들어난다. 이제 그 上奏文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頃者 幼君寢疾 聽斷不明 母后 攝政 涵惑失度 致使凶人 乘間謀亂
- ② 由是 大行誅戮 不遺黨類而事不原情 囚繫之中 必有非罪 怨氣塞于天地 和氣變爲灾沴
- ③ 伏惟 聖上 應命繼統 摠正萬機

7) 이들을 官階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官階	正二品	從二品	正四品	從四品	正五品	正六品	正七品	從七品	正八品	正九品	從九品	기타	計
八員數	1	1	5	3	3	3	7	3	8	5	1	1	41

※ 大師는 正一品이나 명예직이므로 기타로 포함시켰.

④ 乞令御使臺 尚書刑部 凡疑獄 是非未定者 保令決正 使無冤濫 其所告非實 悉令反坐 以答天戒 則人情胥悅 災變爲福矣 王納之⁸⁾

위의 史料 ①은 이를테면 이른바 李資義 謀亂의 이유가 된다고 하겠는데 이것은 肅宗 元年 4月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 더 설명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②의 부분이 이 上奏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겠는데 그 내용은 李資義 謀亂에 대한 彈壓이 매우 苛酷하였다는 것과 또한 關係事實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連累되어 그 害를 입었으므로 自然의 災殃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③의 경우는 肅宗을 추켜세우는 대목이므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④의 경우는 ②의 내용을 修正하자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誣告에 의하여 無關한 사람을 害를 받게한 사람은 그의 被害에 相應하는 反坐律을 適用하는 것으로, 마침내는 肅宗도 이를 嘉納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른바 李資義의 謀亂-鷄林公의 舉事가 얼마나 酷毒하였고 無關한 사람들이 害를 입었다는 사실을 反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Ⅲ. 鷄林公의 舉事

本章에서는 鷄林公의 舉事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獻宗이 即位하고 나서 어떻게 政事를 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나서 鷄林公과 邵台輔와의 關係 및 王國鬣와 高義和의 활약상에 미치도록 한다.

1. 獻宗의 即位와 政事內容

獻宗은 11세의 어린나이로 即位하였으므로 그 政事は 母后인 思肅太后에 의하여 主宰되었다.⁹⁾ 이제 獻宗年間の 政治狀況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人事問題보다 더할 것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3개의 表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表2〉 獻宗 即位年 人事 一覽表

月 日	人 名	官 職 · 官 爵 名
6月 甲申	邵 台 輔	門下侍郎平章事, 上柱國
"	李 子 威	"
"	柳 爽	尚書左僕射 柱國
"	林 槩	叅知政事
"	李 資 義	知中樞院事
"	崔 思 諷	同知中樞院事 左散騎常侍

8) 高麗史, 卷11, 肅宗世家 元年 4月 癸酉條.

9) 高麗史, 卷88, 后妃列傳, 思肅太后傳.

高麗 肅宗의 即位 過程에 관한 研究

6月 己亥	朝	鮮	公	燾	守	太	師
"	鷄	林	公	熙	"	"	"
"	常	安	公	琇	守	太	保
"	扶	餘	公	遂	"	"	"
"	辰	韓	侯	愉	守	司	徒
"	漢	山	侯	昀	"	"	"
"	樂	浪	伯	瑛	"	"	"

<表3> 獻宗 元年 5月 人事 一覽表

月 日	人 名	官 職 · 官 爵 名
5月 己酉	柳 爽	判三司事
"	李 預	政堂文學刑部尙書
"	李 資 義	中樞院使
"	孫 冠	知中樞院事 翰林學士承旨

<表4> 獻宗 元年 8月以後 人事 一覽表

月 日	人 名	官 職 · 官 爵 名
8月 甲子朔	黃 仲 寶	尙書右僕射
" 乙丑	鷄 林 公 熙	中 書 令
8月 癸未	孫 冠	樞密院使
"	崔 思 諷	吏部尙書 知樞密院事
9月 乙未	邵 台 輔	特進守司徒 判吏部事
"	金 上 琦	中書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	柳 爽	"
"	林 槩	守司空 尙書左僕射 判戶部事
"	王 國 髦	右僕射 叅知政事 判兵部事 柱國
"	黃 宗 愨	同知樞密院事
9月 庚子	金 先 錫	刑部尙書
"	王 國 髦	判都兵馬事

먼저 <表2>의 경우에 있어 6月 甲申의 人事發令을 받은 사람은 모두 6名인데, 그 중 邵台輔와 李子威는 함께 門下侍郎平章事 上柱國이 되고 있는데 이들 2名이 6名의 人士 中에서는 가장 上位者이고 또한 中心人物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나머지 4名의 경우도 即位初의 獻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 임에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6月 己亥의 官爵人事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文宗과 宣宗의 아들로 宗室들을 높여서 藩屏을 튼튼히 하려는 의도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即位年 6月 甲申의 人事에 등장한 6名 중 뒷날 獻宗을 支持하고 나선 人士는 오직 李子威와 李資義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4名, 즉 邵台輔·柳奭·林槩·崔思諫 등은 鷄林公에 의한 擧事가 성공을 거둔 獻宗元年 8月과 9月의 昇進人事에 들어있는 사실로 보아 反獻宗勢力圈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 6명의 核心勢力으로 하여금 分裂의 길을 걷게하였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獻宗이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과 함께 病弱하다는 것이 첫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사실은 비록 鷄林公이 李資義를 몰아 내면서 내 세운 구실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로 누가 들어도 그럴사 하게 여겨지는 사실이다.

그 두번째 이유로서는 獻宗에게는 李資義와 같이 强盛한 外戚勢力이 없었던 것 같다. 물론 宣宗의 3王妃¹⁰⁾는 모두 仁州 李氏로 李子淵의 孫女들이지만 직접적인 外戚이 아닌 이상 크게 의지할 수 없었을 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그 세번째 이유로서는 即位年 6月 甲申人事에서 上位職에 있는 邵台輔와 李子威가 틈이 생겨 그 결과로 邵台輔는 손쉽게 鷄林公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는 李子威가 獻宗을 두둔하였을 것이라는 前提 밑에서 하는 말이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根據 있는 것이라고 하면 李子威가 思肅太后의 信任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자연히 思肅太后와 邵台輔의 사이는 疎遠해 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 방면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그 간접적인 증거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名 중에서 4名이 共同戰線을 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나머지 2名은 結束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李子威는 李資義의 謀亂으로 말미암아 流配 당한 50餘名 중 가장 우두머리이었다는 데에서도 추측을 한층 뒷받침하여 준다.

이러한 사실은 <表3>에서 제시한 獻宗 元年 5月의 人事에 등장하는 人士가 모두 4名인데 그 중 柳奭과 李資義는 即位年 6月 甲申의 人事에 등장하였던 人物이고 나머지 2名은 새로 나타난 人物이다. 그리고 특히 그중 李預는 宣宗의 妃父¹¹⁾로 뒷날 肅宗과의 結束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柳奭과 孫冠의 경우는 元年 8月과 9月의 人事에서 昇進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肅宗이 即位하고 난 뒤, 論功行賞의 褒賞人事에서도 그 面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5月 己酉의 人事에서 注目을 끄는 것은 李資義가 實質의 權力的 核心體라고도 할 中樞院使가 된 것이 鷄林公이나 邵台輔에게 危險水位를 느끼게 하고 그러한 사실이 兩人으로 하

10) 貞信賢妃 李氏는 仁州李氏로서 宣宗이 國原公으로 있을 때 妃로 삼았는데 敬和王后를 낳고卒했다.

思肅太后도 仁州李氏로서 宣宗이 國原公으로 있을 때 맞이하여 獻宗과 遂安宅主를 낳았다. 元信宮主는 仁州李氏로서 平章事 李預(資義의 父)의 딸인데 漢山侯 昀을 낳았다(高麗史, 卷88, 后妃列傳, 宣宗條 참조).

11) 貞信賢妃의 父를 말함.

여금 그 접근을 促進시켰다고 한다면 지나친 臆測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李子威와 李資義가 獻宗을 積極적으로 斗護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保障은 없다.

그러나 筆者의 추측으로는 李資義의 甥姪인 漢山侯 昫은 未嘗不 獻宗보다도 나이가 어린 것이라고 보아지는데,¹²⁾ 그렇다고 하면 11세에 即位한 獻宗도 幼冲한 나이로 말미암아 12세에 退位의 悲運을 맛보게 되는데 獻宗을 제치고 漢山侯를 推戴할 公算은 극히 稀薄하다고 하여야겠다.

이제 視覺을 <表4> 獻宗 元年 8月 이후의 人事一覽表에 돌리기로 한다.

먼저 獻宗 元年 8月の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다. 이른바 李資義의 謀亂이 있었다는 時期가 7月이고 보면 8月은 이제 李資義의 一黨을 제거한 후, 論功行賞이 이루어진 時期로서 어느 시점에 가서 獻宗을 스스로 自退케 하여 王位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하는 時期를 捕捉함과 동시에 그러한 사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官職上의 布石과 함께 그 陳容을 整備하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8月 人事를 斷行한 지 두달 만에 獻宗은 마침내 禪位라는 美名아래 後宮에 退居하게 되었는데 사실 退居라고 하는 말은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表現하려고 하여 採用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實體는 幽閉라고 하는 말이 보다 더 妥當한 표현이 될 것 같다.

그러한 사실을 端的으로 立證하고 있는 것은 禪位한지 2年후에 獻宗은 病死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 崩御하였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確證은 없지만 自然死가 아닐 것이라는 心證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그 보다 관심이 쏠리는 사실은 李資義의 謀亂을 粉碎한 것으로 되어있는 鷄林公·邵台輔·王國髦 등이 國家의 非常大權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위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鷄林公의 경우를 보면 中書令이 되고 있는데 高麗에서는 中書令이나 尙書令은 몇몇 事例를 제외하고서는 王族에게 내리는 名譽職¹³⁾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鷄林公이 차지한 中書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君臨하여 統治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막론하고 莫重大權을 행사할 수 있었음은 두말할 餘地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邵台輔가 차지한 特進守司徒 判吏部事는 文官의 官職을 오로지 하는 것이고, 王國髦가 차지한 右僕射 叅知政事 判兵部事 柱國은 바로 武官의 人事와 함께 兵權을 손에 넣은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들 세 사람이 들어서 안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表4>에 보이는 나머지 人士들이라고 하여 어느 한 사람도 獻宗의 退位에 작용을 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우기 王國髦의 경우는 9月の 乙未에 上記한 바와 같은 관직에 올랐다가 불과 5일후에 判都兵馬事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물샴 틈없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如實히 증명하는 것이 된다.

또한 <表4>에서 보여주는 特色은 8月 癸未에 孫冠이 樞密院使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3

12) 漢山侯 昫의 母 元信宮主는 思肅太后(獻宗의 母) 보다 늦게 宣宗이 맞아드렸기 때문이다(高麗史, 卷88, 后妃列傳, 宣宗條 참조).

13) 邊太燮, “高麗宰相考”, 歷史學報, 第35.36輯, 1967, pp.113~123.

개월전에 李資義가 맡고 있던 中樞院使 그것의 變形이므로 中樞院을 樞密院으로 改正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이상 論難할 수 없으므로 이 정도에서 접어 두거니와 機構의 改編까지 隨伴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을 끈다고 하겠다.¹⁴⁾

그리고 한가지 附言할 사실은 獻宗 元年 9月 丙申에 兵部員外郎 金德忠을 李資義의 徒黨이라고 하여 追放하고 있는데¹⁵⁾ 이러한 사실은 獻宗 元年 9月에도 계속하여 肅淸의 바람은 持續되고 있었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2. 鷄林公과 邵台輔의 密約

위에서 邵台輔와 李子威가 틈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면 이들 두 사람이 어찌하여 友好的이 못되고 對立的인 位置에 서게 되고 邵台輔로 하여금 쉽사리 鷄林公과 손을 맞잡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먼저 두 사람의 官職上的 經歷을 對比하여 보면 <表5>와 같다.

<表5> 邵台輔·李子威 官職經歷 對比表

年代	人名	邵 台 輔	李 子 威
文宗 30年			刑 部 侍 郎
" 35年			史 部 侍 郎
" 36年			右 副 承 宣
" 末		戶 部 侍 郎	
宣宗 3年		刑部尙書 西北面兵馬使	知中樞院事
" 4年		吏 部 尙 書	東北面兵馬使兼 知行營兵馬事
"			檢 校 司 空
"			同知中樞院事
" 7年			尙書右僕射 參知政事修國史
" 8年		左 僕 射	
" 9年		參知政事 權判西北面 兵馬事 兼中軍兵馬事	尙書右僕射 權知門下省事 兼西京留守事
" 10年		中書侍郎平章事 判刑兵部事	
獻宗即位年		門下侍郎平章事 上柱國	門下侍郎平章事 上柱國

위의 <表5>에서 보면 文宗代에 있어서 邵台輔는 戶部侍郎이었고 李子威는 兵部侍郎·吏部侍郎을 거쳐 右副承宣에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文宗代를 基準으로 말한다고 하면 李子威가

14) 今後 이 문제에 대해서는 制度史的인 側面에서 연구할 價値가 있다고 본다.

15) 高麗史, 卷10, 獻宗世家 9月 丙申條.

上位職에 있었다는 結論을 얻게 된다.

그러던 것이 宣宗代에 들어와서는 兩人이 엇비슷한 官職經路를 기쳤으나 宣宗 9年(1092)에 李子威가 宋나라 使臣으로 가서 遼의 年號를 사용한 실수로 말미암아 罷免 당하였다가 內嬖에 干謁하여 尙書右僕射 權知門下省兼 西京留守使에 拜命된 사실이 있었는데¹⁶⁾ 이러한 사실이 獻宗 即位年の 人事에 있어 李子威를 邵台輔의 序列 밑에 놓게 된 所以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李子威는 內心 邵台輔에게 대하여 先輩로서의 體面이 維持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 邵台輔를 敬遠한 이유중의 하나일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李子威는 그의 本傳이 없어 확실히 斷言할 수는 없으나 아마 李資義의 祖父인 李子淵과 同一 行列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¹⁷⁾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宋나라에 使臣으로 갔다가 실수로 인하여 罷免되었던 것이 비록 內嬖에 干謁하여 拜命되었다고는 하나 단순히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고는 하기가 어렵겠고 畢竟은 李子淵의 一族이었음이 그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것은 또한 李子威가 李資義와 더불어 행동을 같이하고 있으며 李資義의 謀亂에 連累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추측을 뒷받침하여 준다.

즉 鷄林公은 그 자신이 仁州李氏의 外孫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李子威나 李資義의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자신의 右黨을 발견하려 하면 자연히 邵台輔에게 秋波를 던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邵台輔측에서도 仁州李氏의 桎梏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해관계가 一致되는 鷄林公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마침내 두 사람의 密約은 實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 같다.

위에서 邵台輔와 李子威와의 관계를 통하여 邵台輔가 鷄林公에게 기울어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鷄林公은 邵台輔를 어떻게 說諭하였는가 하는 것을 「高麗史」는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

「諭平章事 邵台輔曰 國家安危 繫宰相 今事急 公其圖之 台輔」¹⁸⁾

위의 말만으로 邵台輔가 쉽게 움직여지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바, 兩人사이의 密約은 실로 광범위한데까지 걸쳤을 것인데 그 核心을 이루는 것은 물론 邵台輔 本人에게 행한 官職상의 약속이었을 것이고, 이 약속은 舉事가 성공된 獻宗 元年의 人事나 肅宗 即位後의 人事에서 反映되었고 그 밖의 약속 등은 수백인에 달하는 많은 람들의 官職상의 進出등이 密約의 내용으로 믿어지는데 뒤에 자세히 論議되겠음으로 여기서는 일단 접어두려고 한다.

16) 高麗史, 卷10 宣宗世家 9年 8月 乙丑條.

17) 藤田亮策, 李子淵と其の家系(上), 靑丘學叢, (1933), 第13號, pp. 8~11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언급하고 있다.

18) 高麗史, 卷127, 李資義列傳.

3. 王國鬣와 高義和의 活躍

王國鬣와 高義和의 活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兩人의 出身乃至는 人間關係를 알아보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王國鬣의 경우에 있어 그의 先代나 출신관계 등에 대한 것은 그의 列傳에서도 언급한 바 없으므로 家系上으로 불만한 것은 없다.¹⁹⁾

그러므로 전통적인 武人家門 출신이라기 보다는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基盤을 쌓은 사람이라 하겠다.

그의 관직 진출관계는 初期的인 것은 기록에 없으므로 알수 없지만 未嘗不 散員職이나 同正職으로 出身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의 列傳 첫머리에 宣宗代에 直門下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관직은 門下府의 從三品職으로 그가 어떠한 緣由로 直門下가 되었는지 확실치 않으나 門下府의 官員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例事사람은 아니었음을 말하여 준다.

또한 그는 「高麗史」 宣宗世家에서 볼 때 宣宗 3年(1086)에 衛尉卿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衛尉寺官員으로, 衛尉寺는 儀仗을 管掌하는 官府로 武官인 王國鬣에게는 알맞는 官職이라 하겠다. 그러던 그가 宣宗 8年(1091)에는 上將軍으로 발돋움 하였다.

그는 獻宗 元年(1095) 正月에 權尙書兵部事의 벼슬에 올라갔는데 이는 아마도 어린 國王을 保護함에 있어 武將勢力이 필요하므로 思肅太后的 配慮에 의하여 특별히 주어진 관직이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王國鬣가 邵台輔의 請으로 獻宗을 淘汰케 하는 戰列에 서게 된 것은 一種의 思肅太后에 대한 懇請을 저버린 결과가 된다.

그런데 權尙書兵部事가 된 것이 正月이고 그가 죽는 것이 10월이므로 그는 9개월간의 志操를 지키지 못하여 世上을 뒤엎는 舉事의 中樞勢力으로 變貌하게 된 것이다. 여하튼 그는 李資義를 제거시킨 功으로 權判兵部事가 되고 곧이어 右僕射 參知政事 判兵部事 柱國이 되었다가 다시 判都兵馬事가 되어 病으로 일을 보지 못하였으나 威嚴이 朝廷에 떨쳤다고 하는데²⁰⁾ 守司徒를 받고 肅宗 即位年(1095) 10월에 病死하였다.

다음으로 高義和는 金州 高山縣人으로 性品이 침착하고 選軍에 응하여 軍人이 되어 隊正의 자리에 올랐다가 李資義를 斬한 功으로 散員에 昇進하였고 累進하여 上將軍이 되었다. 그러므로 高義和야 말로 肅宗의 舉事로 말미암아 가장 榮達된 사람이다.

睿宗朝에는 兵部尙書가 되고 守司空 尙書左僕射 判兵部事를 加하였다. 睿宗 12年(1117)에 上書하여 관직을 辭退하고 睿宗 14年(1119)에 죽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73세였다.²¹⁾

「高麗史」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鷄林公이 邵台輔를 說諭하고 邵台輔가 王國鬣를 動員하고 王

19) 增補文獻備考, 卷47, 帝王考8, 江陵金氏條에 王國鬣는 王父의 玄孫이라는 기록은 볼 수 있다. 그리고 王父가 江陵金氏의 집안이었는데 王父가 太祖로부터 賜姓을 받은이후 王姓을 칭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20) 高麗史, 卷95, 王國鬣列傳.

21) 高麗史, 卷95, 高義和列傳.

高麗 肅宗의 即位 過程에 관한 研究

國髦는 高義和에게 命하여 一絲不亂하고 매우 간단하게 舉事가 이루어진 것 같이 記述하고 있으나 問題의 舉事가 그렇게 順調로웠다고 速斷하여서는 안될 것 같다.

다음의 史料는 당시의 情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음을 雄辯하고 있다.

「其餘躡等遷官者 數百人 工商皂隸 亦有超授顯職者 有司莫敢言」²²⁾

위의 史料는 等級을 뛰어넘어 進級한 자가 수백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傳하여 賤과 동시에 工人·商人 뿐만 아니라 賤人들에게까지도 顯職의 等級을 뛰어넘어 授與한 자가 있어도 關係官廳에서 말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얼마나 광범위한 사람들이 舉事에 참여하여 功을 세웠고, 그들에 대한 論功行賞에 대하여 감히 누구도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官職體系나 政權의 運營이 主體勢力의 손아귀에 들어 있음을 말하여 주는 좋은 증거라 하겠다.

王國髦의 경우는 舉事成事 後 불과 3개월 밖에 生命을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榮達을 圖謀하지 못했지만 高義和야 말로 肅宗代는 말할 나위도 없고 그 後光이 睿宗代에까지 걸쳐 있었고 그 榮華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IV. 肅宗의 即位

前述한 바와 같이 肅宗의 即位는 正常的이고 순조로운 가운데 禪位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숙청과 自派에 의한 물센 틈 없는 조직강화 속에서 強迫의인 退位가 이루어진 가운데 即位하였던 것이다.

1. 肅宗 即位年の 人事措置

肅宗 即位後의 人事措置는 前章의 末尾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백인에 달하는 “超授顯職者”가 있었으나 그 자세한 것은 史料에 나타나지 않고 또 막상 주요관심의 대상도 아니므로 史料上에 나타나는 주요관직자의 任命事實을 表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6> 肅宗 即位年 人事 一覽表

月 日	人 名	官 職 · 官 爵 名
10月 戊寅	邵 台 輔	守太尉 門下侍中
"	金 上 琦	守司徒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
"	柳 爽	守司空
"	林 槩	中書侍郎平章事 判刑部事
"	王 國 髦	守司徒
"	孫 冠	尚書右僕射 參知政事 判戶部事

22) 高麗史, 卷11, 肅宗世家 即位年 10月 庚辰條.

“	崔	思	諫	守司空 樞密院使 翰林學士 承旨
“	金	先	錫	知樞密院事
10月 庚辰	黃	仲	寶	尙書左僕射
“	尹	莘	傑	龍虎軍 上將軍 兵部尙書
“	黃	俞	顯	工部尙書
“	崔		迪	金吾衛 上將軍 刑部尙書
12月 丙戌	崔	思	諫	吏部尙書 兼知政事
	金	先	錫	樞密院事
	黃	宗	愨	知樞密院事
	黃		瑩	禮部尙書 同知樞密院事
	李		璋	尙書右司員外郎

〈表6〉에 의하면 人事의 對象으로 등장하는 人物은 延 16名인데 그 중 崔思諫 金先錫은 10月 戊寅의 人事에서도 나타나고 12月 丙戌의 人事에도 등장하므로 실제인물은 14名이다.

이제 이들을 가능한 한 肅宗 即位와 관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 분석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이들의 개별검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중에서 獻宗 即位年의 6月 甲申人事와 獻宗 元年 5月 己酉의 人事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들을 注視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獻宗의 母后인 思肅太后가 특별히 獻宗의 主權維持를 목표로 삼았다고 하는 見地에서 다루었던 인물들인데 이들이 所謂 李資義의 謀亂을 겪고나서 獻宗 元年 8月 이후의 人事와 肅宗 即位年의 人事에 나타났다는 것은 적어도 이들이 肅宗 即位를 위한 舉事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였거나 또는 民心收拾을 위하여 擁立되었거나 體制維持를 위한 前衛의인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들 중 李資義의 謀亂 이전의 人事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들을 列舉하여 보면 邵台輔, 柳爽, 林槩, 孫冠, 崔思諫 등을 들수 있는 바, 肅宗 即位年 人事의 對象으로 하고있는 14名 중에서 王國鬻은 그 이전의 人事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肅宗의 舉事에 가장 中樞的인 인물이므로 14名 중 6名이 實質的인 主體勢力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6名 중 확실하게 武臣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王國鬻 뿐이다. 그러므로 王國鬻 만으로 그러한 舉事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의혹이 있었는데 肅宗 即位年 人事에서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그것은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肅宗 即位年 10月 庚辰에 등장하는 人士 중 尹莘傑, 黃俞顯, 崔迪 3名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尹莘傑은 龍虎軍 兵部尙書이므로 확실하게 武臣이고 黃俞顯은 다만 工部尙書로 나타나 있으므로 그 眞假를 확인할 수 없는데 肅宗 元年의 人事에서 鷹揚軍 上將軍 戶部尙書로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武臣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므로 尹莘傑과 黃俞顯은 高麗의 基本 軍制인 二軍 六衛 중 二軍인 응양군과 용호군의 최고지휘자가 肅宗 即位年의 人事에서는 兵部尙書와 工部尙書의 重責을 맡고있는 셈이다.

그리고 崔迪의 경우는 金吾衛 上將軍 攝刑部尙書로 나타나는데 이듬해의 人事에서는 神虎衛 上將軍 刑部尙書로 昇進하고 있다. 말하자면 14名 중에서 4名이 武臣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 밖의 人士들을 대충 살펴보면 金上琦는 守司徒 門下侍郎 同中書門下平章事인데 그는 慶州金氏로 뒷날 宣宗廟庭에 配享된 人士라는 점을 勘案하여 보면 이는 肅宗 即位年에 宣宗代의 舊臣을 重用하므로 民心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力點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金先錫의 경우는 知樞密院事의 관직으로 나타나는 바 그는 그의 列傳에 의하면 吏才에 能하다고 표현한 점으로 보아 獻宗 元年에 있었던 그 많은 숙청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行政實務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의 登用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는 10月 戊寅의 人事에서 知樞密院事의 職을 받고 2개월 뒤 12月 丙戌의 人事에서 樞密院使로 승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²³⁾

그 다음 黃仲寶는 尙書左僕射의 高位官職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經歷에 대하여서는 자세한 것을 알수 없이 그때의 활약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어쨌건 肅宗 即位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政權安定上 필요한 등용이라 하겠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黃宗懋과 黃瑩의 3黃氏가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끝으로 李瑋는 樹州李氏로 그의 父는 李靖恭으로 門下侍中을 歷任한 인물이고 李瑋 자신도 睿宗代에 門下侍中에 오른 점을 보아 역시 民心收拾策이나 정권안정을 위한 布石의 뜻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 드는 인물은 孫冠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孫冠은 肅宗 即位年에 이미 그의 나이가 72세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元老級을 包攝하였다는 의미가 짙다.

이상의 분석을 다시 요약하여 보면 肅宗 即位年의 人事는 獻宗代 이래로 주체세력으로 활약한 6名의 武臣에 3名을 추가하여 전체 14名 중에서 9名이라고 하는 壓倒的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의 5名은 民心安定을 기하기 위한 人事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비록 간접적일 망정 肅宗의 舉事에 一翼을 담당하는데 대한 褒賞의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肅宗 即位年의 人事는 獻宗을 退位시키고 등장한 肅宗이 王權保護와 더불어 論功行賞을 한 標本的인 人事措置라고 하겠고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수백명의 人事褒賞 중에서 그 두드러진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2. 獻宗에 대한 措置

獻宗에 대한 措置에 대해 먼저 結論부터 제시한다고 하면 세가지를 들수가 있으니 그 하나는 「高麗史」 獻宗世家 末尾에 李齊賢의 史贊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麗初期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父子相續에 못지않게 兄弟相續을 當然視한 결과, 肅宗이 王位를 넘본 것을 당시 사회사람들이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은 肅宗으로 하여금 王位에 나아가는 것을 자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그 결과는 獻宗에게 대하여 가혹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증

23) 高麗史, 卷95, 金先錫列傳.

대시켰다고 생각된다.

물론 朝鮮時代에 世祖가 端宗의 位를 篡奪하고 魯山君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를 잘 아는 우리로서는 아직 儒敎的인 序次觀念이 확립되지 못한 高麗初期社會에서는 당연히 있을 법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그 둘째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後宮에 幽閉시키거나 死後에 遼에다 史臣조차 보내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여야겠다.

셋째는 이것도 앞에서 지적된 사실인데 廟號를 올리지 않음으로 하여 15대인 肅宗이 14대로 自處하여 獻宗을 正統君主로서 대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야겠다. 이제 아래에서 史料를 제시하며 자세한 검토를 시도해보려 한다.

먼저 「高麗史」 獻宗世家의 末尾에 있는 李齊賢의 史贊부터 제시하고 분석해 보기로 한다.

「李齊賢曰… 顯之三子 兄弟相傳 以及於順 順以居喪過哀 夭折無嗣 而傳於宣 宣薨而太子 嗣 是爲獻宗 國人習熟見聞 乃謂宣有五弟 而立孺子 以是歸非… 唯不得周公於親 博陸於 臣 委任而輔政 其危且亂 可翹足而待也後世 有不幸而遺大 投艱于襁褓之中者 可以此爲 誠哉」²⁴⁾

이 史料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國人習熟見聞…以是歸非」의 대목이다. 사실 高麗初期에 있어서 兄弟相續의 王位繼承은 2대 惠宗에게서 定宗·光宗의 계승이 그러하고, 9대 德宗에게서 10대 靖宗·文宗의 계승이 그러하며 12대 順宗에게서 宣宗과 肅宗의 계승이 그러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肅宗 이후 18대 毅宗에게서 19대 明宗이 계승한 것도 兄弟相續이다.

이렇게 볼 때 15대 肅宗에 이르기까지 형제상속이 이루어진 것은 定宗·光宗·靖宗·文宗·宣宗·肅宗인데 이와같이 14대 도안에 6왕이 형제상속을 하였다면 太祖는 상속자가 아니므로 반이나 형제상속을 한 셈이 되므로 高麗初期에 있어서는 高麗太祖가 그의 訓要十條에서 말한 元子相續의 原則은 제대로 遵守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宣宗이 아우에게 傳位하지 않고 어린 獻宗에게 傳位하였다고 하여 그 허물을 國人들이 宣宗에게 돌린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 史贊에서 李齊賢은 周公이나 博陸같은 後見者만 있다고 하면 元子相續의 측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人들의 思考方式이란 것도 肅宗 측에서 부추긴 결과가 加味된 것이 없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다음에는 獻宗의 退位後 崩御에 이르는 과정을 「高麗史節要」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傳하고 있다.

「…前王 自退居別邸 以來病勢日增 於閏月十九日 薨逝 今已葬訖… 肆遵前王遺命 不敢遣 使告哀 及睿宗 即位 改諡恭殤 廟號 獻宗」²⁵⁾

24) 高麗史, 卷10, 獻宗世家 末尾. 25) 高麗史節要, 卷6, 肅宗 2年 3月 庚申條.

高麗 肅宗의 即位 過程에 관한 研究

이 史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상에는 別邸로 물러난 이래로 病勢가 날로 더해져서 윤달 19일 서거하여 이제 葬事를 마쳤다고 했는데 이것은 外交文書에서의 禮節을 깎듯히 한 것뿐이고 사실에 있어서는 幽閉와 加害薄葬을 표현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使臣조차 파견하지 않음을 前王의 遺命에 돌리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苦笑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그러한 肅宗의 행동은 앞에서도 누누히 지적하였으므로 再言을 하지 않겠다.

끝으로는 肅宗 자신이 자신의 代를 14대라고 표현하므로 獻宗을 國王으로 인정치 않으려고 한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인데 다음의 史料가 그 좋은 증거이다.

「高麗國十四葉辛巳歲藏書 大宋建中靖國元年 大遼乾統元年」²⁶⁾

위의 史料는 보는 바와 같이 肅宗은 자신을 14대로서 自稱하고 있으므로 獻宗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實證이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肅宗의 獻宗에 대한 조치는 미루어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는 것이다.

V. 結 論

高麗 肅宗의 即位過程에 非常手段이 취하여 졌다거나 朝鮮王朝의 世祖 即位過程과 恰似하다고 한 先學들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른 바 李資義 謀亂의 實體를 분석하여 보고 鷄林公 舉事의 實相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그 결과로 이루어진 肅宗의 即位過程을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이제 본 연구에서 到達한 내용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從來 李資義의 謀亂이라고 指稱되어 오던 것은 鷄林公의 舉事를 合理化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가장 단적인 증거로서는 이른 바 李資義의 謀亂을 罔담하게 된 것도 鷄林公 자신이었고 이 舉事를 추진한 것도 鷄林公 자신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鷄林公에게 提報한 사람도 없었고 또한 이 舉事를 建議한 사람도 없었다는 데서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李資義 一黨이 武裝한 現場에서 발각된 것도 아니고 어떠한 謀議事實이 들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李資義를 살해하는 것도 궁중에서 赤手空拳으로 있는 것을 他殺하였고 병사들을 分遣하여 李資義 一黨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成就한 流血政變으로써, 그 힘을 바탕으로 하여 多數의 사람들을 流配한 舉事였음이 밝혀졌다.

둘째, 鷄林公의 舉事를 보다 深度있게 考察하기 위해 獻宗 即位年의 政事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獻宗은 幼沖한 나이에 即位한 관계로 母后인 思肅太后에 의하여 政事가 이루어진 바, 思肅太后는 어린 獻宗을 보필할만한 인물들을 網羅하는 한편 宗室들에게 高位官爵을 주어서 안정을 도모코자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고위관직에 있던 邵台輔와 李子威는 龜裂을 일으키고 그 틈을 엿본 鷄林公은 즉시 邵台輔와 연결하고, 王國鬻는 高義和 등을 통하여 李資義 一黨을 제거

26) 金澤基, 高麗時代史(서울:東國文化社, 1961), p. 205; 李丙燾, 韓國史中世篇(서울:震檀學會, 1961), p. 396. 재 인용함.

하고 獻宗 在位時에 自派 一色으로 관직을 충당하여 어린 獻宗으로 하여금 禪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도록 하였던 것이다.

셋째, 肅宗은 即位後 주체세력들에 대한 論功行賞格의 人事措置를 단행하여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숙청으로 말미암아 離反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元老給 人士를 등용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後官에 蟄居하고 있는 獻宗을 病死라고 하는 명목으로 세상을 떠나게 하여 後顯의 염려를 없이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肅宗의 조치에 대하여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당시의 여론은 크게 沸騰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 까닭은 高麗初期에 있어서 형제상속은 매우 일반적인 것에 緣由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肅宗은 獻宗의 死後에 遼나라에 使臣을 파견하여 訃告조차 하지 않았고 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엄연히 高麗 제15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14대라고 自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肅宗代를 중심으로 한 史料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李資義 一黨이 漢山侯 昫를 옹립하려고 한 사실이 全無하다는 확실한 反證資料를 제시하지 못한 脆弱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制約된 史料에서나마 李資義 一黨이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한 증거가 없으므로 李資義의 謀亂이라고 하는 것은 鷄林公의 舉事, 즉 鷄林公의 武力에 의한 政權奪取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反射的인 殘影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參 考 文 獻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篇, 韓國文化史大系Ⅱ, 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出版部, 196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서울: 探究堂, 1981.

_____, 韓國史篇, 서울: 民族文化社, 1983.

金庠基, 高麗時代史, 서울: 東國文化社, 1961.

金潤坤, 高麗貴族社會의 諸矛盾,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7卷. 서울: 探究堂, 1977.

藤田亮策, 李子淵と其の家系(上), 靑丘學叢, 第13號, 1983. pp.1~37.

朴龍雲, 高麗의 中樞院 研究, 韓國史研究, 第12輯, 1976. pp.91~141.

邊太燮, 高麗宰相考, 歷史學報, 第35. 36合輯, 1967. pp.110~138.

_____, 高麗時代 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 歷史學報, 第47輯, 1970. pp.1~42.

_____, 高麗史의 諸問題, 서울: 三英社, 1986.

_____, 高麗의 政治體制와 權力構造, 韓國學報, 第4輯, 1976. pp.22~39.

_____, 高麗朝의 文班과 武班, 史學研究, 第11號, 1961. pp.1~82.

_____, 高麗政治制度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2.

高麗 肅宗의 即位 過程에 관한 研究

歷史學會, 韓國史 資料選集(高麗篇), 서울:一潮閣, 1971.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 서울:乙酉文化社, 1948.

_____, 韓國史(中世篇), 震檀學會, 서울:乙酉文化社, 1961.

李樹健, 高麗土姓研究(上), 亞細亞學會, 第12輯, 1976. pp.49~138.

增補文獻備考

黃雲龍, 高麗諸王考, 又軒 丁仲煥博士還曆紀念論文集, 1974.

_____, 高麗閔族에 관한 研究, 서울:親學社,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Enthronement of King Sook-Jong
in Koryo Dynasty**

by Park, Nak-hoon

For the critical review of precedent studies which asserted that King Sook Jong in Koryo Dynasty enthroned by exceptional means similar to that of King Se Jo in Yi Dynasty, in this study the author examined the realities of Lee Ja Eu's premediated rebellion, Gye Lim Kong's Liquidation and the following enthronement of King Sook Jong mainly through 'Koryosa' and 'Koryosa Jeol Y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made clear that, what has been called Lee Ja Eu's premediated rebellion was nothing but a means to rationalize the Gye Lim Kong's rebellion. Such evidences were plainly disclosed in the following facts that the man who noticed the premediated Lee Ja Eu's rebellion and propelled the liquidation was Gye Lim Kong himself and that there was none who gave the information about Lee Ja Eu's rebellion was found in the battle field; Lee Ja Eu was killed by them when he was in the court with disarmament; The soldiers who seemed related to Lee Ja Eu were separated and slayed. It seems clear that they achieved power through a bloody political change through which many people were exiled to remote place.

Secondly, in order to study thoroughly the Gye Lim Kong's liquidation, the contents of political affairs in the year of accession of Heon Jong was reviewed. Since Heon Jong was throned at young age Sa Sook Tae Hoo, King Heon Jong's mother, governed the nation. She, on the one hand, brought together the great figures who were able to help young Heon Jong and, on the other hand, gave high official ranks to royal families in order to stabilize the political situation. However, taking advantage of the conflict between So Tae Bo and Lee Ja We, who were high rank officials, Gye Lim Kong rallied with So Tae Bo and Wang Koog Mo rallied with Ko Eu Hwa removed Lee Ja Eu and his fellows. They supplemented the personnel with their own party so that young Heon Jong faced to the situation in which he could not help obolivating himself.

Thirdly, Sook Jong changed official personnels according to the meritorious services to strengthen his own organization.

Besides, he promoted the veteran class people and put Heon Jong to death to root out the future trouble. Because the succession to the brother was common in the beginning of the Goryo Dynasty the public response in those days was not too bad. Sook Jong, therefore, after Heon Jong's death, did not even send an envoy to Yo dynasty to give an obituary notice and notified that he was the 14th King even though he was the 15th in fact.

Finally, this study review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age of Sook Jong. But the study could not present any clear evidences to confirm the fact that Lee Ja Eu and his fellows never tried to enthrone Han San Hoo Yoon. However, it was made clear that Lee's rebellion was nothing but a reflective phenomenon of Gye Lim Kong's rebellion by military power.

鐵砂에 관한 研究

梁 性 順*

目 次

- | | |
|----------------|------------------|
| I. 序 論 | IV. 鐵砂의 實驗 |
| II. 鐵砂의 一般의 考察 | V. 現代磁器에서의 鐵砂 活用 |
| III. 鐵砂의 變遷과정 | VI. 結 論 |

I. 序 論

1. 研究 目的

陶磁器를 매체로 美感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흙을 사용하여 생활용구 및 필요한 器具를 만들어 쓰게 된 때부터 시작되어 그 나라의 民族的 美感과 時代的 特性을 지니면서 여러 方面으로 표현되어져 왔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도자기의 裝飾은 紀元前 新石器時代 櫛文土器를 그 始原으로 하여 오랜 역사 속에서 실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 傳統陶磁 중에는 초벌구이된 器物의 胎土 위에 酸化鐵을 主原料로 하는 繪料인 鐵砂로 그림을 그리고 釉藥을 씌워서 높은 온도로 재벌구이하는 裝飾方法이 있었다.¹⁾ 여기에서 裝飾에 사용되어진 鐵砂는 우리 나라에서는 高麗時代 靑磁 및 其他의 陶磁에 施文되어지기 시작하여 朝鮮時代말까지 시대별로 특징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陶磁에 사용되어졌다. 새로운 장식기법이나 화려한 색채의 顏料가 유행될 때는 쇠퇴하였지만, 재료구입의 용이성과 높은 온도에서도 그 발색이 일관성이 있다는점, 소박하고 거친표현, 담백한 맛이 우리 민족의 美感과 어울리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끊이지 않고 사용되어져 우리 나라 陶磁 장식용 色 顏料로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 藝術大學 産業美術科 講師

1) 이러한 裝飾技法을 釉下繪라고 하며 釉下顏料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에는 鐵砂, 靑華, 辰砂 등이 있다.

그러나, 1883년 分院官窯가 民間으로 移管된 후²⁾ 60여년 간 전통적인 陶磁생산이 단절되고 새로운 陶磁생산의 발달로 彩色 顏料사용 및 陶磁 製造과정에서 대량생산에 적합한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이루어 졌지만 우리의 전통적 예술성에 근거하면서 독특한 美感을 주고있는 鐵砂의 裝飾技法은 그 맥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酸化鐵을 主成分으로 하는 顏料로서의 鐵砂에 대하여 연구함에 있어 傳統鐵砂磁器에 나타난 鐵砂 장식의 예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鐵砂 原料의 調合과 燒成 방법에 따른 鐵砂 發色の 변화를 실제적인 실험에 의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전통 鐵砂의 再現 가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現代磁器에 있어서 鐵砂의 활용 가능성을 提示함으로써 鐵砂에 관한 傳統美의 재발견 및 활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코져 한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酸化鐵을 사용하는 陶磁 裝飾技法은 土器 및 陶器, 硯器, 磁器등에 폭 넓게 사용되어지는데 본 研究에서는 1,240°C~1,300°C의 燒成 범위를 가지는 硯器 및 磁器로 제한하여 傳統的 鐵砂를 再現시켜 보고코져 한다.

研究方法은 조사 연구와 실험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조사연구로는 각 박물관 및 개인소장품의 遺物 사진과 參考文獻, 先行論文을 수집하여 그 자료를 대상으로 鐵砂의 명칭 및 기원, 시대적 변천 과정, 鐵砂의 成分 및 美的 特質에 관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傳統的인 鐵砂는 어떠한 色彩 범위와 美感을 가지며 釉藥과의 관계 및 施文형식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규명코져 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실험 研究에 있어서 鐵砂 재료로 가능한 原料를 관계서적 및 학교나 각 공방에서 자문을 얻어 선정했으며, 실험 방법은 胎土와 釉藥 및 燒成조건과의 상관 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실험한 후 비교 결과에 의해 傳統鐵砂 發色の 標本을 색출하여 鐵砂發色の 핵심적 요소를 제시코져 하며, 아울러 이를 토대로 現代磁器 제작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코져 하였다.

II. 鐵砂의 一般的 考察

1. 鐵砂에 관한 명칭

鐵砂는 酸化鐵이 다량 함유된 彩料로서 釉와 配合하여 사용하거나 釉下, 또는 釉上에 사용되어질 때, 黑褐色이나 赤褐色의 상태로 나타난다.³⁾ 鐵砂가 釉 속에 함유되면, 그 량에 따라 靑磁

2) 朝鮮時代에는 民窯와 官窯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였다. 대표적인 官窯는 1456~1592년 까지 광주군 退村面 道馬里와 牛山里 道莊洞에 있었으며 그 후 退村面 金沙里로 옮겼다. 1752년에는 다시 南終面 分院里로 옮겼다가 1883년에 民間으로 移管 되었다.

3) 原色陶器大辭典, C(東京:淡交社, 1974).

釉, 또는 鐵釉 등으로 되며 鐵分이 釉 속에 함유되어 赤色으로 發色되는 것은 赤鐵釉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釉 속에 酸化鐵의 成分이 위주가 되어있는 釉藥을 鐵釉라고 하는데 鐵砂란 주로 下繪, 또는 上繪用으로, 文樣 표현을 위한 色 顏料의 의미를 나타내며 鐵釉는 器物의 胎土 위에 전체를 씌우는 釉의 의미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鐵砂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으며 과학적인 의미의 명칭 또한 아니다.⁴⁾ 우리 나라에서는 鐵砂의 原料로 18세기경까지는 酸化鐵이 다량 함유된 흙의 이름인 石間朱⁵⁾를 사용하였던 흔적이 있는바, 여기에서의 石間朱가 鐵砂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⁶⁾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위의 石間朱를 鐵砂 原料로 사용했던 時期에는 명칭도 당연히 그것의 이름으로 대신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금속산화물의 化工藥品이 사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련된 금속산화물인 Fe_2O_3 (산화제2철) 등으로 鐵砂의 原料가 代替됨에 따라서 명칭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傳統陶磁 중에 鐵砂가 施文되어진 磁器에 대한 명칭은 釉藥과 胎土 및 施文 방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鐵砂가 나타난 磁器에 대한 호칭은 畫靑磁, 繪靑磁, 鐵砂粉靑磁器, 鐵砂白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鐵砂의 起源

酸化鐵成分을 사용하여 磁器에 장식하는 技法은 磁器생산 이전의 土器나 陶器에 시도하였던 것인데, 오랜 기간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磁器의 발생과 더불어 釉下, 또는 釉上에 사용되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磁器가 발생되었던 중국의 경우, 鐵砂磁器가 생산되기 시작한 경위는 後漢代(AD2C 경)에 세워진 越州窯의 陶磁器 발달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⁷⁾ 越州窯 초기에는 灰釉陶器를 생산했고 後漢代 후반에는 灰釉 속에 酸化鐵이 少量 함유된 低火度褐釉가 발생했다. 이러한 灰釉는 곧 재와 長石이 기본인 釉로 발달했고 여기에 低火度褐釉의 영향으로 自然酸化鐵을 가해서 만든 鐵釉가 출현한다.

鐵釉의 등장은 釉下鐵斑點文을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어 4세기 경에는 釉下鐵斑點文 <圖 17>이 나타나며⁸⁾ 晚唐代(AD850~900년)에 와서는 中國陶磁 史上 최초로 붓을 사용하여 文樣을 그린

4) 久志卓眞, 朝鮮の陶磁(東京:雄山閣, 1975), p. 449.

5) 石間朱는 酸化鐵이 다량 함유된 赤土로서 岩石과 岩石 사이에 層으로 박혀있는 粘力이 좋은 흙. 小山富士夫, 世界陶磁全集, 14, 李朝(東京:河出書房, 1955).

6) 英祖實錄卷八十二 英祖三十年七月甲午條 中 『教田磁器之畫活用 石間朱...』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英祖 三十年인 1765년에는 酸化鐵 顏料가 石間朱로 불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이전에는 石間朱를 사용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7) 磁器는 中國에서는 六朝시대인 6세기경, 유럽에서는 15세기경, 우리 나라에서는 10세기경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김원룡, 韓國古美術의 이해(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 204.

8) 佐藤雅彦, 中國陶磁史(東京:平凡社, 1979), pp. 65~72.

鐵砂青磁가 나타난다.⁹⁾

그러나 이와같은 越州窯 鐵砂技法은 978년 吳越이 滅亡하고 窯가 쇠퇴하면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磁州窯계 龍泉窯나 西村窯에서 鐵斑點文과 鐵砂文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傳統은 끊이지 않고 他 地方 窯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¹⁰⁾ 이상과 같은 中國에서의 鐵砂 발생과정을 요약해서 나타내면 <表 1>과 같다.

<表 1> 越州窯를 중심으로한 鐵砂 발생의 起源

	六 朝				初 唐	盛 唐	晚 唐	五 代	北 宋	
A · D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78	1120
							840	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越州窯의 興起 • 低火度 褐 釉의 出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長石과 灰(灰)의 基本유 사 용 • 基本유에 酸化 鐵을 첨가한 鐵釉의 出現 • 鐵釉의 영향으 로 4C 경 釉下 鐵斑文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釉下鐵斑文의 영향으로 9 세기경 鐵砂 발생 • 833年 銘 鐵砂青磁가 발 견됨 • 붓으로 그린 최초의 釉下 顏料로서의 鐵砂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8년 吳越 이 망함으 로서 越州 窯 쇠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磁州窯계 龍泉窯나 西村 窯로 影響을 미침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中國의 鐵砂가 발생한 예에 比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鐵砂 발생의 기원은 그 과정이 모호하다. 몇 몇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발생 경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그 하나는 주로 日人 학자들의 주장으로 中國 西村窯나 磁州窯의 白地鐵繪<圖 16>, 白地黑搔落陶器<圖 13>의 影響을 받고 11~12세기 경에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11,12)}

또 하나는 우리 나라 학자들의 주장으로 초기 鐵砂青磁의 형태가 古拙스럽고 그 祖形이 統一新羅의 土器에 있다는 점, 日人 학자들이 주장하는 磁州窯에서의 傳來는 11세기 말에야 磁州窯에서 鐵砂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관을 짓기 어려우며 발생 후의 변천과정에 다소의 影響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하여 中國의 影響하에서 鐵砂가 발생했다는 학설은

9) 崔 健, 高麗鐵繪青磁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1, p. 29.

10) 崔 健, 上揭論文, p. 29.

11) 野守健, 高麗陶磁의 研究(東京:國書刊行會, 1942), p. 38.

12) 陶器강좌, 朝鮮 I, 高麗(東京:雄山閣, 1971), p. 224.

再考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3,14)}

그러나 발생과정의 규명에 도움을 줄만한 古문헌상의 기록이 없고, 발생 이전의 鐵砂 변천과정이 移行된 흔적이 있는 遺品이 없는 現時點에서는 그 起源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鐵器時代(BC1,000년경)의 紅陶라고 불리우는 赤色軟質土器나 統一新羅期(AD668~980년)의 三彩陶器 등에 酸化鐵의 成分을 이용한 裝飾의 例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鐵砂磁器 發生 이전의 예시로 볼 수 있다.

Ⅲ. 鐵砂磁器의 變遷過程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의 경우 鐵砂磁器의 出現은 新羅時代 三彩陶器 및 灰釉綠褐陶器가 始原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시대는 아직까지 土器質窯業이 盛行했던 시기이고, 본격적으로 鐵砂가 釉下 및 釉上彩料로서 사용된것은 磁器質窯業의 發生 및 盛行 時期로 볼 수 있는 것으로 本 研究에서는 高麗時代를 起點으로 하여 鐵砂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高麗時代의 鐵砂磁器

高麗는 서기 918년에 건국하여 중국의 文物을 받아들임과 同時에 傳統의인 佛教文化和 新興하는 儒敎文化를 복합하여 文化的 폭을 넓히고자 노력한다.¹⁵⁾

그러한 高麗社會 新興의 분위기 속에서 靑磁은 新羅土器의 傳統을 이어받고 10세기경에 중국 靑磁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⁶⁾ 新羅人의 磁器에 대한 지식은 土器燒成 과정에서 깨달았던 自然灰釉의 경험과 통일신라시대의 鉛釉 系統 綠釉技法의 다양한 개발의 기초가 있었다.¹⁷⁾

그와같은 기초위에 삼국시대로부터 六朝¹⁸⁾의 靑磁, 白磁, 黑釉등의 流入과 9~10세기경에는 唐末 五代의 陶磁器와 그 제작 技術이 海路를 통하여 보다 많이 유입되어 初期 靑磁인 綠靑磁를 만들기에 이르렀다.¹⁹⁾

중국에서의 磁器 제작 기술은 周시대(BC1세기경)의 燒成온도 1,200°C 이상의 수준 높은 釉陶

13) 이경희, 高麗靑磁 生産技術의 역사적 고찰, 博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2, p. 54.

14) 崔 健, 前揭論文, p. 62.

15) 李京美, 우리나라 陶磁器에 施文된 牡丹唐草文의 變形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p. 12.

16) 朴물관 新聞(74, 1, 1), p. 2.

17) 金元龍, 韓國美術小史(서울: 삼성문화, 1984), p. 41.

18) 六朝時代는 중국 三國時代의 吳(222-280)와 東晉, 南朝의 4대인 宋, 齊, 梁, 陳(557-589)을 합한시대.

19) 韓國美術五千年(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76), p. 275.

를 始初로 後漢代부터 源初的인 것이 만들어졌고²⁰⁾ 5~6세기경 부터는 차츰 발전하여 宋代에 들어와서 절정에 달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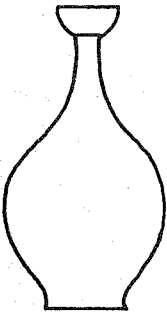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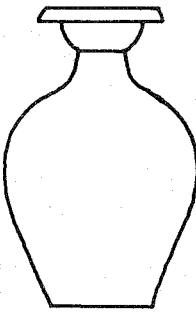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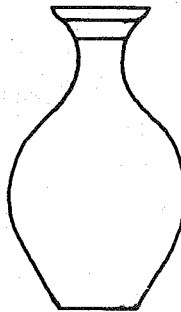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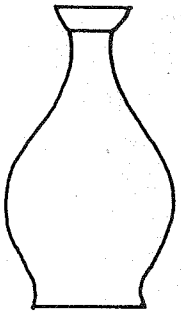
그러한 중국의 靑磁기술이 우리 나라에는 두가지 경로로 들어왔는데, 그 한 계통은 황하 유역의 北方계 酸化焰 또는 中性焰 靑磁 기술이 우리 나라 황해연안 중부지방인 인천시 경서동과, 충청북도 보령군 서산지방에 침투되어 粗質의 靑磁를 燻造하게 되었다. 또 한 계통은 양쯔강 이남 杭州灣 연안의 五代, 宋初 越州窯系 還元焰 靑磁技法이 海路를 타고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인 황해의 남해안 地方에 들어온 것이다. 이 두 갈래의 靑磁技法 中에서 越州窯系 南方 還元焰 靑磁와 白磁 技術이 西·南 지방에 정착, 확산되었다.

1) 10~14세기초, 發生期

10세기 初까지는 華北系 窯技가 移植되었다가 후에 華南의 窯技도입으로 소멸하고 華南의 還元燻造 技法이 확산하는 時期로²¹⁾ 10세기 前半까지는 高麗의 窯業이 先驅的인 靑磁와 白磁의 기술을 익히는 時期이며 10세기 후반은 靑磁와 白磁의 技法이 나날이 숙련되어 가는 時期이다.²²⁾ 따라서 11세기 初가 되면 多種 多樣한 質의 초보적 陶磁에서 가장 良質의 것만 남고 그 외에는 스스로 소멸되어 진다.

이 시기의 鐵砂磁器는 일반靑磁에서 華南, 華北陶磁의 영향이 함께 보이는 것에 比하면 器形과 文樣에서 중국陶磁와의 관련은 찾아 볼 수 없다. <圖 1>과 <圖 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器形은 統一新羅 土器에서 그 祖形을 찾을 수 있고, 文樣 또한 當時代 中國陶磁의 文樣이나 그의 영향을 받았던 陰刻, 陽刻 靑磁에 施文된 文樣과는 연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圖 1> 統一新羅말기의 瓶形態와 發生기 鐵砂靑磁瓶의 形態비교




	統一新羅말기	10~11세기 初의 瓶		10세기
器形의變化				
	長頸壺 高14.1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鐵砂靑磁담사리瓶 이 경희 소장	鐵砂靑磁담사리瓶 이 경희 소장	一般靑磁瓶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 佐藤雅彦, 中國陶磁史(東京:平凡社, 1979), p. 66.

21) 野守健, 前掲書, p. 131.

22)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韓國의 美, 靑磁(서울:중앙일보사, 1981), p. 197.

〈圖 2〉 10~11세기초의 磁器에 施文된 文樣의 比較

一 般 磁 器	中 國 的 磁 器	鐵 砂 磁 器
		
<p>靑磁음각접시의 唐 草 文</p>	<p>磁州窯의 白地黑搔落 唐草七寶文</p>	<p>鐵砂靑磁담사리瓶의 草文</p>

2) 11세기前半~11세기말, 발전기

中國은 陶藝文化의 황금기인 宋의 時代이며,²³⁾ 고려의 國政은 內憂外患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은 國子監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일으켜서 인재를 기르는데 힘썼고 國史의 편찬과 대장경 彫版을 시작하는 등, 고려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힘을 기울인 時代였다.²⁴⁾

11세기 前半의 고려陶磁는 중국陶磁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급속도의 성장을 하는 時期로²⁵⁾ 釉色이 완숙되고 器形과 장식이 세련된다. 아직은 北宋陶磁의 樣式을 탈피하지 못하였으나 고려陶磁 특유의 造形 감각은 미숙하지만 나타나기 시작한다. 11세기 중엽 이후의 고려陶磁는 고려적인 풍모가 정착했으며 技法 또한 進一步했다.

이 時期의 鐵砂磁器는 중국陶磁와 그의 영향을 받는 일반靑磁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며 세련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器形은 當代 유행하는 것으로 廣口瓶류와 碗, 皿類는 이 기간에 소멸하고 梅瓶과 酒瓶의 器形이 발전하는데 靑銅器의 形態를 따른 주전자류가 등장하여 鐵砂磁器의 중요한 器種이 된다.

文樣은 前代의 단순한 素材에서 중국陶磁系 文樣 素材가 등장하는 경향이 보이며 唐草文과 草花文등의 변형된 모습과 牡丹唐草文이 많아진다. 붓으로 그렸을때 느껴지는 회화적인 鐵砂文樣은 이 시대의 일반적인 陰·陽刻靑磁에서 보여지는 도안화한 文樣의 감각과는 달리 크고 활력있는 것으로써 當代 수요자들의 美的 취향의 一面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燒成은 주로 酸化焰으로 褐色 釉胎를 떠나나 가끔 還元燒成하여 맑은 翡色을 보이는 것도 있다.〈圖 3, 4, 5〉

23) 高裕燮, 前掲書, p. 15.
24) 崔淳雨, 前掲書, p. 198.
25) 野守健, 前掲書, pp. 131~138.

3) 12세기, 세련기

12세기 前半期는 한국陶磁史上의 황금기로 고려陶磁는 현저한 國風化 현상이 보인다.²⁶⁾ 즉 器形과 釉調에 있어 고려 독자적인 감각을 완성하고 脫 중국적인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고려적인 美感으로 승화되는 시기로 胎土와 釉質이 매우 고르고 精緻스럽다. 文樣도 牡丹, 국화, 唐草, 楊柳등 고려적 감각을 보이고 모든 靑磁는 還元焰 위주가 된다.

12세기 중엽이 되면 宋과 交流가 단절되면서 象嵌文樣이 주류를 이루고 釉藥도 象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명도가 높아지고 氷裂이 생겼다. 器形은 고려적 특색이 정착되며 前代부터 이어져 오는 文樣素材가 象嵌技法으로 再構成되며 회화적 성격을 지닌다.

鐵砂磁器는 前半期에 세련을 보여서 胎土와 釉質이 매우 고르고 精緻스러워 지며 釉調에 酸化된 黃褐色系와 還元된 灰靑色系의 두가지 系流가 있다.

文樣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 한 類型은 <圖 6,7,8,9>와 같은 사실적이고 회화적인 것으로 대개 酸化燒成되어 黃褐色이며, 또한 類型은 <圖 10,11,12>와 같이 도안화된 그림으로 대개 還元燒成되어 灰靑色이다. 이 도안화된 그림은 長方 다이아몬드形으로 定形된 것이 특색이며 중국 北宋代 越州窯의 白釉黑畫牡丹文梅瓶에서 볼 수 있는 文樣 <圖 13,15>과 매우 비슷한 類型이다.

이러한 例로 보아 고려磁器 鐵砂文의 施文意匠은 前時代로부터 고려 독자로 발달한 것들과 宋代 鐵繪施文意匠과 관계가 있는 것의 두가지 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 역시 鐵砂로서 施文한 다음 葉脈등을 陰刻 처리하는 세부 표현이 등장한다. <圖 18>

이 時期의 全般的인 鐵砂磁器 文樣的 특징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胎土와 文樣을 시원스러운 비례로 포치한 점과 붓으로 그릴때만 표현될 수 있는 유연한 선의 모양이다. 그러나 12세기 중반 이후로는 象嵌技法의 발달과 유행에 따라 鐵砂技法은 위축되어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圖 19, 20>

4) 13세기초~14세기말, 쇠퇴기

13세기초 蒙古의 침입은(AD 1231년) 고려의 政治, 經濟, 社會의 疲弊를 초래케 하였다.²⁷⁾ 이러한 고려의 정세는 陶磁界에도 영향을 미쳐 質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더구나 華北地方의 酸化焰 사용방법이 우리 나라에까지 도입되어 釉色이 黃綠色調나 黃褐色調로 변하고 作風도 거칠어진다. 象嵌意匠은 過密化 되거나 散漫해 지면서 정밀성을 잃게 되며 印章技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鐵砂磁器는 이미 前時代에 발생한 象嵌技法의 유행으로 급속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器形은 이 시기의 일반磁器와 마찬가지로 端雅하던 線에서 불균형적인 線으로 변하였고 文樣도 쇠퇴기의 특징으로 단순해지며 머뭇거리지 않고 단숨에 붓질을 한듯, 힘이 있고 꾸밈이 없다.

26) 上揭書, pp. 131~178.

27) 上揭書, pp. 131~178.

비록 11세기나 12세기 全般의 鐵砂磁器 독자적 성격은 잃었지만 鐵砂技法만은 제작상의 편리성 때문에 粗質靑磁에서 단순한 草文이나 퇴화한 象嵌文樣의 素材로 일부에서 제작이 끊이지 않았다. <圖 21, 22, 23, 24>

2. 朝鮮時代의 鐵砂磁器

고려말의 豪族 세력이 몰락함과 동시에 新進 士大夫에 의해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유교를 기본 思想으로 하며 明과 親交를 가지고 1392년에 朝鮮이 건국되었다.

朝鮮은 당시 士大夫들의 청렴, 결백, 소박한 취향이 陶磁器의 裝飾意匠에 가미됨으로써 독자적 성격을 형성한다.²⁸⁾ 즉, 과거 어느때 보다도 건실하고 淳厚한 情感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소위 李朝의인 工藝美의 定型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²⁹⁾

朝鮮時代의 陶磁器는 고려靑磁의 餘脈을 이어나간 初期의 靑磁系統과 고려시대 말부터 퇴락하기 시작한 靑磁에서 일변하여 새로운 形態와 樣式으로 이루어진 粉靑砂器, 그리고 고려시대 白磁계통을 이어 받은 初期 白磁와 元, 明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발전한 朝鮮白磁가 있으며 다시 黑釉, 鐵彩, 鐵釉등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朝鮮時代 鐵砂磁器의 변천과정은 건국 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전인 1392년부터 1592년 사이의 粉靑砂器와 白磁가 생산되는 시기와 임진왜란 이후부터 分院官窯의 廢窯 時期까지인 1592년 이후, 1883년까지의 주로 白磁가 생산되는 시기로 나누어진다.

1) 鐵砂粉靑砂器

象嵌靑磁에서 발전한 粉靑砂器는 象嵌文과 印花文이 먼저 발전하고 뒤이어 剝地文, 彫花文, 鐵砂文, 귀얄문, 粉粧文등의 순서로 발전하였다.³⁰⁾

粉靑砂器의 커다란 특징은 地方마다 施文 方法이 조금씩 다르고 文樣의 전개에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印花文은 경상도와 경기도, 충청도에서 많이 발전하였고 剝地, 彫花文이 주로 호남지방에서 발전하였으며 계룡산에서 鐵砂文이 발전하였다.³¹⁾

이러한 粉靑砂器의 製陶 및 意匠의 기원은 통일신라 시대의 印花文 技法이나 고려靑磁의 象嵌 技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白土粉粧의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³²⁾ 그러나 白土분장의 技法이나 표면장식 技法의 일부가 他國이나 前時代의 技法에서 유래되

28) 李京美, 前揭論文, p. 13.

29) 崔淳雨, 李朝陶磁器, 박물관 신문(72. 3. 1), p. 31.

30) 鄭良模, 粉靑砂器의 編年, 韓國의 美, 粉靑砂器(서울: 중앙일보사, 1981), p. 180.

31) 上揭書, p. 168.

32) 粉靑砂器는 원래부터 技法上으로는 중국 宋代 諸窯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白化粧土가 사용된 技法은 北宋 磁州窯에서 배운것이라고 하며, 高麗朝의 고분에서 定窯, 磁州窯등의 작품이 출토되었다.

김 영태, 粉靑砂器의 발생과 意匠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慶대학교 대학원, p. 266.

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계승된 것이 아니고 任意로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며 또 同一한 技法이 同一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加減되고 소화되어 조선의 독자적인 것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鐵砂粉靑砂器의 발생은 대부분 세조(AD1455~1468) 이후의 수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으며,³³⁾ 그 후 16세기 중엽에 세련되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燔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룡산 근처의 窯에서만 燔造되었기 때문에 一名 계룡산粉靑이라고도 하는 鐵砂粉靑砂器는 그 커다란 특징이 제작 공정에서 자신있고 손쉽게 처리한 점이다. 灰黑色의 粗質胎土 위에 반드시 귀얄로 粉粧을 하고 그 위에 鐵砂로서 자유분방하며 생략형의 文樣을 빠른 運筆로 나타내었으며 얇게 施釉하였고 대체로 中性焰과 酸化焰 燔造로 표면에 淡黃이나 淡褐色을 머금은 예가 많다.

器形은 梅瓶이나 偏瓶은 찾아볼 수 없으며 瓶과 호가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瓶의 모양에 있어 腹部가 풍만하며 목이 짧고 완전대칭이 아닌 자태이며 이러한 것들은 17세기 白磁의 瓶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圖 25~38>

2) 鐵砂白磁

1592년부터 1597년의 임진왜란 후 40여년간은 李朝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암흑기이다. 陶磁 또한 생산이 단절되어 그 후로 생산의 양상이 달라졌다.³⁴⁾

특징적인 樣相은 前期에 많이 생산되었던 粉靑砂器가 소멸된 점이다. 따라서 白磁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후 중국陶磁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게 됨으로써 朝鮮 독자의 美를 구축하게 되었다.

鐵砂가 언제부터 白磁에 施文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15세기 器形에 鐵砂 施文된 것이 있으며 <圖 39, 40, 41> 16세기의 鐵砂白磁 墓誌는 그 예가 많다.³⁵⁾ 일반 器皿에 鐵砂가 施文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製造되었다.

器形은 梅瓶에서 변형된 듯한 어깨부분이 풍만한 호, 腹部가 둥글고 목이 짧은 瓶류가 있다. 文樣은 중앙 官窯의 생산품이라고 추측되는 器皿에는 雲, 龍, 포도문 등의 사실적인 文樣이 나타나고 지방 官窯의 제품은 반추상화된 간결하고 運筆이 빠른 筆力의 文樣이 주가 된다.

鐵砂白磁는 우리의 美術史上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한국화한 풍토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18세기가 되면 수입의 자유로 증가된 靑華 顔料의 사용 증가로 급격히 감소하여 그 傳統이 사라지고 만다. <圖 42~47>

33) 李京美, 前揭論文, p. 65.

34) 伊藤郁太郁, 朝鮮陶磁略史, 東洋陶磁の展開(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2), p. 206.

35) 鐵砂白磁墓地는 『成化二一五年』 성종18年인 1487年, 『弘治三年』 성종21年인 1490年등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鐵砂에 관한 研究



圖3. 鐵砂青磁國화唐草文
주전자
11세기 高17.1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4. 鐵砂白磁草文瓶
11세기 高18.9cm
서울 개인장



圖5. 鐵砂青磁牡丹文
주전자
11세기 후반 高21.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6. 鐵砂青磁花卉文梅瓶
12세기 高28.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7. 鐵砂青磁鳥蟲文梅瓶
12세기前半 高28.9cm
서울 개인장



圖8. 鐵砂青磁牡丹文梅瓶
12세기前半 高26.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9. 鐵砂青磁牡丹文花瓶
12세기前半 高10.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10. 鐵砂青磁草花文梅瓶
12세기 高26.7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11. 鐵砂青磁牡丹文瓶
12세기 高24.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12. 鐵砂青磁唐草文梅瓶
12세기 高25.6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13. 白地黑搔落牡丹文瓶
北宋 高40.8cm



圖14. 圖13의 文樣 확대



圖15. 白釉黑繪牡丹文梅瓶
北宋 磁州窯 高31.6cm
大阪市立박물관 소장



圖16. 白地鐵繪牡丹文瓶
北宋定窯 高17.3cm
大阪市立박물관 소장



圖17. 釉下鐵斑文青磁
東晉 越州窯 徑20.8cm



圖18. 圖11의 文樣 확대



圖19. 鐵砂青磁牡丹唐草文
주전자
12세기前半 高17.0cm
日本 安宅京택선장



圖20. 鐵砂白磁草文梅瓶
12세기 高28.3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鐵砂에 관한 研究



圖21. 鐵砂青磁草葉文瓶
13세기 高27.0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22. 鐵砂青磁草葉文瓶
14세기 高24.2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23. 鐵砂青磁草文水盤
13세기 高11.4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24. 鐵砂青磁草文油壺
13세기 高5.4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25. 鐵砂粉青磁器草文瓶
15~16세기 高11.6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26. 鐵砂粉青磁器
蓮唐草文瓶
16세기 高30.3cm
서울 개인장



圖27. 鐵砂粉青磁器
三葉文瓶
15~16세기 高29cm
부산 개인장



圖28. 鐵砂粉青磁器
草文瓶
16세기 高10.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29. 鐵砂粉青磁器鳥文壺
15세기 후반 高42cm
日本 개인장



圖30. 鐵砂粉青砂器
唐草文壺
15~16세기 高11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31. 鐵砂粉青砂器
魚文瓶
16세기 高29.5cm
日本 小倉컬렉션장



圖32. 鐵砂粉青砂器
柳鳥文瓶
16세기 高28.5cm
日本太和문화관 소장



圖33. 鐵砂粉青砂器
唐草文瓶
16세기 高15.5cm
호암미술관 소장



圖34. 鐵砂粉青砂器
唐草文壺
16세기 高10.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35. 鐵砂粉青砂器
唐草文壺
16세기 高10.8cm
서울 개인장



圖36. 鐵砂粉青砂器
唐草文壺
16세기 高10.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37. 鐵砂粉青砂器
唐草文壺
16세기 高17.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38. 鐵砂粉青砂器
唐草文鉢
16세기 口지름8.2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鐵砂에 관한 研究



圖39. 鐵砂白磁龍文壺
15세기 高45.8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圖40. 鐵砂白磁梅竹文壺
16세기 高4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41. 鐵砂白磁虎文壺
15세기 高30.1cm
日本 安宅컬렉션장



圖42. 鐵砂白磁竹文壺
17~18세기 高28.1cm
日本 安宅컬렉션장



圖43. 鐵砂白磁포도文壺
17세기 高53.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圖44. 鐵砂白磁風竹文壺
17~18세기 高22.6cm
日本 安宅컬렉션장



圖45. 鐵砂白磁草花文壺
17~18세기



圖46. 鐵砂白磁草花文壺
17~18세기 高25.7cm
日本 安宅컬렉션장



圖47. 鐵砂白磁草文壺
17세기 高20.3cm
호암미술관 소장

IV. 鐵砂의 實驗

1. 鐵砂의 成分

현대陶磁에 있어서 着色顏料는 거의 금속산화물이 사용되며,³⁶⁾ 器物의 胎土와 顏料와의 사이에 粘力을 주고 붓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胎土³⁷⁾를 첨가하기도 하고 자연적이고 美的인 효과를 위하여 다른 無機化合物³⁸⁾을 혼합하기도 한다.³⁹⁾

鐵砂에 사용되는 금속산화물은 酸化鐵이며 그 외에 다른 無機化合物이나 稀釋劑가 사용된다. 실질적인 鐵砂의 調合例는 문헌상으로 찾아볼 수 없었으나 鐵砂의 主된 원료를 褐色 계통 釉下 顏料의 例에서 추출해 볼 수 있었고, 각 대학 도예실습 현장 및 공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鐵砂의 調合例를 <表2>와 같이 수집하여, 鐵砂 調合에 필요한 成分을 고찰해 본다.

<表2> 鐵砂의 調合例

(단위 : %)

	主 原 料				보 조 재 료				他 금속산화물		회 석 제		
	화학성분	천 연 성 분			珪石	胎土	가오링	아연화	산화 크롬	망간	불	그린 세린	기타
	Fe ₂ O ₃	철광석	막철	황토									
A ⁴⁰⁾	22.6							55.8	21.6		○		
B ⁴¹⁾	55.0						46.5		18.5		○		
C ⁴²⁾	60				10	30				1	○		
D ⁴³⁾			40		10	50				0.5	○		
E ⁴⁴⁾	20			80							○		
F ⁴⁵⁾	9~13			100							○		
G ⁴⁶⁾	40					20				20	○		
H ⁴⁷⁾	50				50						○		
I ⁴⁸⁾	100											○	
J ⁴⁹⁾		80			20								○

36) 大西政太郎, 陶藝의 釉藥(東京:理工學社, 1976), p.19.

37) 여기에서 胎土는 器物을 성형하는데 사용한 점토를 말한다.

38) 착색안료에 쓰이는 무기화합물은 물에 녹지 않는 분말 상태의 아연, 티탄, 구리, 철, 크롬 등이 이에 속한다.

39) 李喜洙, 釉藥과 그 顏料(서울:大光書林, 1980), p.92.

40) 원대경, 陶藝의 科學, 흥익대학교 대학원, p.75.

41) 上同.

42) 申相浩, 韓國鐵彩磁器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흥익대학교 대학원, 1975, p.29.

43) 上同.

44) 上同.

45) 韓胤淑, 韓國陶磁器에 나타난 化粧土 技法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흥익대학교 대학원, p.13.

46) 朴 賢, 高溫陶磁器의 原料와 技法,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9, p.41.

47) 工方 A.

48) 工方 B.

49) 경기도 이천시 S陶窯 제공.

鐵砂에 관한 研究

1) 二酸化鐵

화학식으로 Fe_2O_3 이며 酸化第二鐵이라고 부른다. 분자량은 160.0, 광물학에서는 赤鐵鑛으로 불리우며 結晶되어 있을 때는 黑色, 분말일때는 赤色이다.⁵⁰⁾ $1,370^{\circ}C$ 에서 燒結하고 $1,500^{\circ}C \sim 1,600^{\circ}C$ 에서 熔融한다. 화학성분으로서의 Fe_2O_3 뿐만 아니라 鐵은 釉藥에 포함되어 酸化燒成에서 赤褐色, 還元燒成에서는 灰青色과 暗灰色으로 변하게 한다.⁵¹⁾ 용도는 顏料 또는 融材이며⁵²⁾ 釉下顏料로서는 단독 또는 다른 원료와 함께 쓴다.⁵³⁾

2) 硅石

화학식은 SiO_2 , 분자량 60.1, 融點은 $1,600^{\circ}C \sim 1,750^{\circ}C$ 이며 다른 모든 酸化物과 자유롭게 化合하여 일반적으로 어느 온도에서든지 완전히 혼합하며, Gas, 물, 알카리, 酸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다. 磁器用素地の 중요한 原料이며 熔融物의 流動성이 감소된다.⁵⁴⁾

3) 赤粘土

色素와 融劑로 사용된다. 色彩와 함께 질감의 묘사가 가능하므로 좋은 顏料가 된다.⁵⁵⁾ 赤土 또는 朱土라고 부르기도 하고 Al_2O_3 와 SiO_2 를 주성분으로 하는 粘土質 속에 자연 合成物으로서의 酸化鐵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顏料상태의 酸化鐵을 첨가하면 더욱 좋은 鐵砂 顏料가 된다.⁵⁶⁾

4) 가오링(Kaolin)

분자식 $Al_2O_3 \cdot 2SiO_2$, 분자량 102, 融點은 $1,755^{\circ}C \sim 1,790^{\circ}C$ 이다.⁵⁷⁾ 原料가 잘 섞이게 하고 잘 밀착되게 한다. 長石을 含有한 岩石이 風化에 의해 二次的으로 變成된 것으로 素地로 사용했을 때 밝은 색으로 구워지며 극히 耐火性이다.⁵⁸⁾ 釉藥에 없어서는 안될 재료이며 粘着性과 건조시의 수축을 억제한다.

5) 아연화

분자식 ZnO , 분자량 81.4, 白色粉末, 融點은 $1,800^{\circ}C$ 이다.⁵⁹⁾ Matt 유에서 不透明化劑로서 많이 쓰인다. 아연화만으로는 착색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나 여러 가지 着色 酸化物에 대해서 色調에 영향을 준다. 크롬과 鐵을 함유한 赤褐色의 顏料는 아연화가 들어가도 전혀 色에 대한 영향을 받지않는다. 전반적으로 봐서 着色酸化物에 대한 아연화의 영향은 색깔을 아름답게

50) 大西政太郎, 前掲書, p. 371.

51) 李喜洙, 前掲書, p. 106.

52) 大西政太郎, 前掲書, p. 2~599.

53) 李喜洙, 前掲書, p. 106.

54) 원대정, 前掲書, p. 134.

55) 박 현, 前掲論文, p. 5.

56) 신상호, 前掲論文, p. 23.

57) 李喜洙, 前掲書, p. 30.

58) 박 현, 前掲論文, p. 5.

59) 李喜洙, 前掲書, p. 30.

하고 色調를 순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⁶⁰⁾

6) 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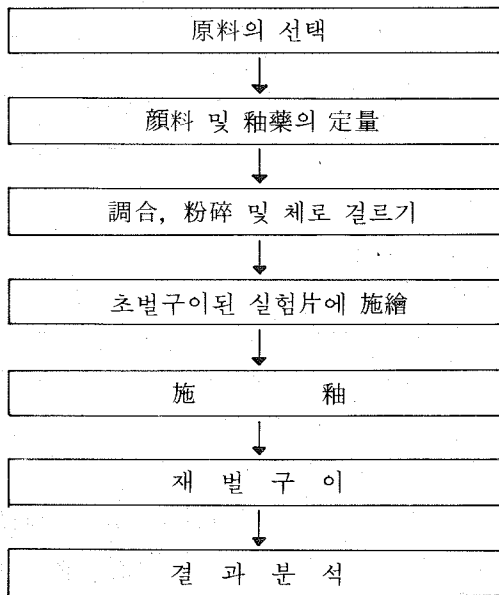
분자식 MnO_2 , 분자량 86.93, 천연망간광으로 산출된다.

7) 산화크롬

분자식 Cr_2O_3 , 분자량 152, 融點은 $1,990^{\circ}C$ 이다.

2. 실험의 材料 및 方法

鐵砂의 發色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主原料인 酸化鐵과 보조재료와의 調合比, 胎土, 釉藥, 燒成온도 및 燒成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實驗을 하였다.



1) 原料의 선택

본 研究를 위한 實驗의 材料는 研究方法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一般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標準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1) 胎土: 傳統磁器중에 鐵砂가 施文되어진 器物의 胎土가 白土, 靑土, 白土粉粧인 점을 감안하여 白土, 靑土,⁶¹⁾ 白土粉粧의 세가지 胎土를 선정하여 實驗을 하였으며 그 調合比는 <表3>과 같다.

60) 上揭書, p. 702.

61) 여기에서 靑土란 유색점토에 대한 一般의인 명칭이며 전통자기의 靑磁 胎土와는 그 發色상태와 成分이 相異하다.

鐵砂에 관한 研究

〈表3〉 胎土의 調合比⁶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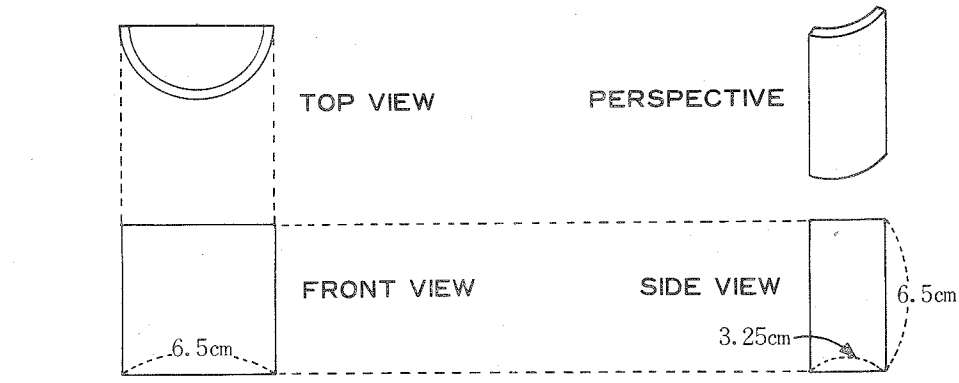
白 土		靑 土		白 土 粉 粧	
原 料	調 合 比	原 料	調 合 比	原 料	調 合 比
경주싸리산白土	50	여주능서粘土	50	와 목	50
여주싸리산粘土	27	이 천 砂 土	40	硅 石	50
여주능서粘土	12	하동고령토	7		
하 동 고 령 토	6	안 양 長 石	3		
안 양 長 石	2				
청 송 陶 石	3				

(2) 釉藥：傳統鐵砂磁器에서 透明釉를 基本으로하여 鐵砂가 發色되어진 점을 감안하여 각 胎土에 맞는 透明釉를 실험을 통해서 선정하였다.

(3) 顏料：鐵砂의 主原料인 酸化鐵을 함유한 材料로서 化學成分의 試藥用 Fe_2O_3 ,⁶³⁾ 天然成分의 鐵鑛石,⁶⁴⁾ 黃土,⁶⁵⁾ 막철⁶⁶⁾ 등을 선택하였고 보조재료로는 釉藥用 硅石, 胎土, 黃土, 가오령 등을 선정하였다.

2) 實驗片 製作

鐵砂의 퍼짐과 熔融 상태를 고찰하고, 또 鐵砂가 器物에 실제로 施文되어졌을 때의 효과를 測定하기 위해서는 세워서 燒成할 수 있는 實驗片이 필요하므로 높이 6.5cm, 지름 6.5cm의 원통형을 물레로 成形한 후 세로로 1/2 등분하여서 사용하였다.



62) 경기도 이천시 수광도요 제공.

63) 合成 금속 산화물인 Fe_2O_3 에는 정제되어 불순물이 없는 99.9%순도의 시약용 Fe_2O_3 와, 불순물이 제거되기 전의 Fe_2O_3 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불순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약용 Fe_2O_3 를 사용하였는데 향후의 서술에서는 " Fe_2O_3 "라고 표기하려고 한다.

64) 철광석은 경기도 이천시 수광도요에서 제공한 피산 철광석을 700°C로 구운다음 pot mill에 24시간 갈아서 180目체를 통과시켜 건조한 다음 사용하였다.

65) 황토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구덕산의 적색토를 수비하여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66) 막철은 무쇠의 녹슨 부분을 취하여서 철광석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였다. 그 명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다.

3) 초벌구이

초벌구이는 器物의 強度를 증가시키고 吸收性を 增大시켜 유약과의 밀착을 助長한다. 그리하여 施釉할 때 便利하게 하고 破損防止를 目的으로 하는 과정이다.⁶⁷⁾ 燒成은 석유가마인 角窯에서 하였고, 燒成溫度는 700°C, 燒成時間은 7時間 소요되었다. 소성곡선은 <圖 49>와 같다.

4) 顏料및 釉藥의 定量

各 材料의 調合시에 調合比의 精確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부온도 300°C 정도의 석유가마에서 三時間 가량 乾燥 하였다. 乾燥 後, 100g 以下는 天秤으로 定量하였고, 100g 以上일때는 最大定量 500g의 저울을 사용하였다.

5) 調合粉碎및 체로 걸르기(mesh passing)

顏料나 釉藥을 만들기 위한 工程에서 調合과 粉碎는 調合物의 同一한 條件을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顏料는 100g 단위로 濕式混合하여 乳鉢에 10분가량 粉碎한 다음 150目 체로 걸러서 사용하였으며 釉藥은 3kg 단위로 調合하여 濕式混合한 후 12시간 經過 後에 180目 체로 걸러서 사용하였다.

6) 施繪

초벌구이된 實驗片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1초간 담근 후 스폰지로 닦아 주었다. 일정한 면적에 精確하게 施繪하기 위해서 實驗片 前面에 중앙에 세로×가로=3.4cm×4cm의 장방형 외곽선을 라텍스(Latex)로 처리한 후 0.7cm와 4cm의 평붓을 사용하여 施繪하였다.

7) 施釉

施釉方法에는 畫筆法, 담금법, 噴霧法등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작은 實驗片에 고른 釉面과 일정한 두께로 施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담금법으로 하였다. 담금의 方法은 釉藥의 濃度 比重⁶⁸⁾ 1.42에서 2초간 담갔다.

8) 재벌구이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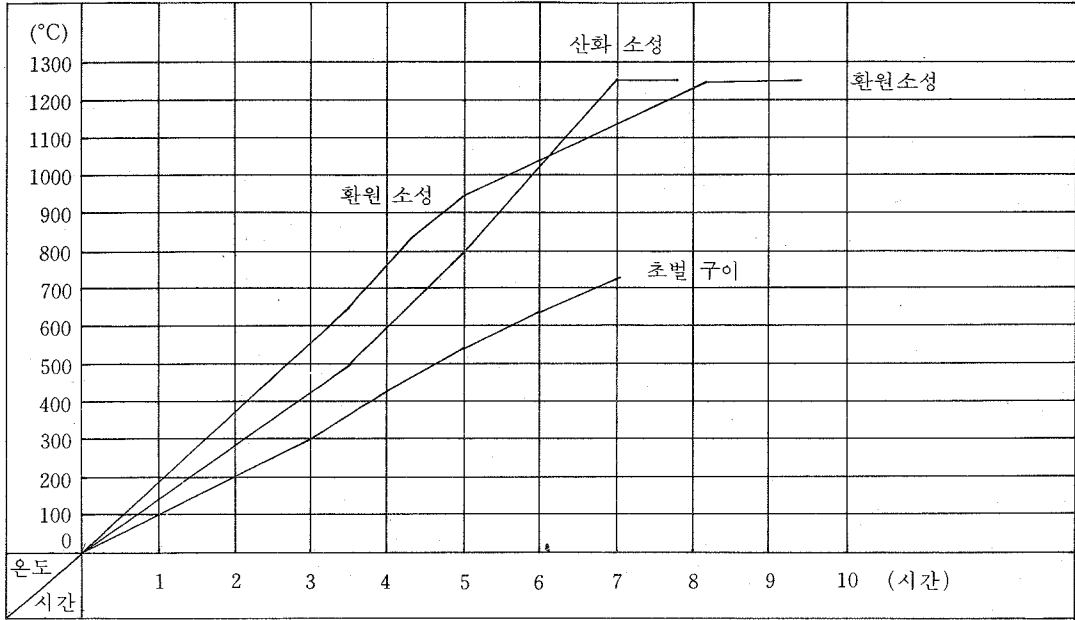
재벌구이는 實驗의 마지막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色相에 영향을 미치므로 燒成溫度, 燒成 方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燒成 분위기에 따른 발색의 차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酸化焰과 還元焰의 두가지 방법으로 燒成하였다. 燒成의 온도는 透明釉의 熔融度인 1, 270°C로 하였고, 窯內 일정한 溫度의 유지를 위해 최대 온도에서 1시간 동안 宿成시켰다. 酸化焰 燒成은 0.27m³ 크기의 실리콘(Silicon)선을 발열체로 하는 전기가마를 사용하였고 燒成時間은 8시간 소요되었다. 還元焰 燒成은 0.85m³ 크기의 석유가마를 사용하였고 燒成時間은 10시간 소요되었다. 燒成曲線은 <圖 49>와 같다.

67) 김현식, 우리 나라 陶磁 角形 접시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p. 79.

68) 유약의 농도측정은 “보우메”로 불리우는 比重計를 사용하였다.

69) 본 研究의 實驗은 동아대학교 공예과 도자기 실습용 0.85m³ 석유가마와 Silicon선을 발열체로한 0.27m³ 전기가마를 사용했다.

〈圖 49〉 燒 成 曲 線



3. 實驗 및 結果

1) 釉藥의 선정 實驗 및 結果

투명유 의 선정을 위한 실험과정으로 참고문헌상의 調合比와 一般의 學 校나 公 房에서 사용 하고 있는 調合比중에서 1,270°C에서 熔 融되는 투명유 의 調合比를 〈表4〉와 같이 수집하여 白 土, 靑土, 白化粧土의 胎土로서 실험하였다.

〈表4〉 釉藥의 實驗을 위한 調合比

(단위 : %)

原料	長 石	硅 石	석회석	아연화	가오링	대리석	초벌구이 가오링	재
A	38.8	26.69	17.49	1.97		5.98	9.76	
B	46	33	16	1		3	1	
C	37.21	30.58	21.01		6.96		4.24	
D	50	10	30		10			
E	30	10	30		10			20
F	20	10	30		10			30
G	32	24	21					21

* 색의 표현은 색명(영문색명 : JIS 該當번호)로 표기하였으며 色名小事典.(東京 : 日本色研事業株式 會社, 1981)에 기준하였다.

위의 實驗과정에서 白土에는 C 釉가 白磁 鐵砂의 表現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赤粘土에는 靑磁釉로 적합한 D 釉, 白化粧土 粉粧에는 粉靑磁器釉로 E 釉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圖 45>

2) 鐵砂 主原料의 實驗 및 結果

鐵砂의 主原料인 酸化鐵을 含有한 原料의 鐵砂로서의 使用 可能性을 알아보기 위한 實驗의 과정이다. 酸化鐵을 含有한 原料중에서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化學成分의 Fe_2O_3 와 天然成分의 鐵鑛石, 矽鐵, 黃土의 4종류를 선정하여 3가지 胎土에 각각 施繪하고 실험1)에서 선정된 유약을 씌워서 酸化焰과 還元焰으로 燒成하였다. 顏料은 물을 稀釋制로 하여 原料 100g당 물 70cc를 稀釋하였다.

실험의 結果는 다음과 같다. <圖 51>

胎土가 白土일때, Fe_2O_3 (A)는 酸化燒成에서 綠褐(olive drab : 9.0Y4.0/2.5)기미의 黑色이었으며 還元燒成에서 暗赤色(dark red : 4.0R4.0/6)과 黑色이 일정치 않은 面으로 나타났다.

鐵鑛石(B)는 酸化燒成에서는 Fe_2O_3 와 비슷하게 발색되었고 還元燒成에서 暗赤色(dark red : 4.0R4.0/6)과 가까운 색으로 고른 色面으로 나타났다.

黃土(C)는 酸化燒成에서 어두운 褐色(chocolate : 9.0R2.5/2.5)이 붓질 的 자국에 따라서 두껍게 施繪된 부분에 만 발색되었다. 還元燒成에서는 黑褐色이 酸化燒成에서와 마찬가지로 붓질한 자국대로 나타났다.

矽鐵(D)는 鐵鑛石에서의 발색 상태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Fe_2O_3 , 鐵鑛石, 矽鐵 등이 鐵砂의 主原料로서 활용 可能性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鐵鑛石의 경우 產地별로 成分이 일정치 않은 것이며, 矽鐵 또한 酸化鐵의 母體인 무쇠의 종류가 많아서 發色이 일관성 있는 것이라고 확인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2)의 실험 과정에서 胎土와 顏料, 釉藥의 調和면으로 볼 때 赤粘土와 白化粧土粉粧을 바탕으로한 鐵砂 實驗은 바람직한 것이 나오질 못했고 白土에서의 實驗이 傳統 鐵砂의 效果에 유사함을 나타냈으므로 白土를 中心으로 집중적인 實驗을 하였다.

3) 보조재료가 鐵砂의 發色에 미치는 영향의 實驗 및 結果

鐵砂의 主原料인 酸化鐵과 補助材料의 調合比에 따른 發色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實驗 과정이다. 보조재료는 앞서 제시된 <表2>의 鐵砂 調合比 中에서 矽石, 胎土, 黃土, 가오링의 4종류를 선정 하였다. <表2>에서의 망간, 산화크롬 등과 같이 독립된 彩料로서 발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材料는 제외시켰다. 實驗은 다음과 같이 두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1) 實驗 I

첫번째의 實驗은 주원료를 Fe_2O_3 로 하고 <表5>의 “가”와 같이 단일보조재료와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차이와, <表5>의 “나”와 같이 보조재료와의 복합적인 調合比에 따른 발색의 차이를 고찰 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實驗의 조건은 白土, 투명유, 下繪, 酸化焰과 還元焰으로 燒成하였고 한개의 實驗片에 4종류의 顏料를 施繪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의 結果는 <圖 52>와 같이 보조재료의 종류에 따른 발색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다만 酸化

鐵砂에 관한 研究

鐵의 함량에 따른 tone의 변화와 소성 방법에 따른 색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酸化燒成에서는 黑褐色 tone이, 그리고 還元燒成에서는 赤褐色 tone이 형성되었다.

〈表5〉 보조재료가 鐵砂의 발색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위한 調合比 (실험 I) (단위 : %)

구분 기호 調合比	가					나					
	Fe ₂ O ₃	矽石	胎土	黃土	가오령	Fe ₂ O ₃	矽石	胎土	黃土	가오령	아연화
a-1	90	10				60	30	10			
a-2	90		10			60	30		10		
a-3	90			10		60	30			10	
a-4	90				10	60	30				10
b-1	80	20				60	20	20			
b-2	80		20			60	20		20		
b-3	80			20		60	20			20	
b-4	80				20	60	20				20
c-1	70	30				60	10	30			
c-2	70		30			60	10		30		
c-3	70			30		60	10			30	
c-4	70				30	60	10				30
d-1	60	40				60		30	10		
d-2	60		40			60		30		10	
d-3	60			40		60		30			10
d-4	60				40	60		20	20		
e-1	50	50				60		20		20	
e-2	50		50			60		20			20
e-3	50			50		60		10	30		
e-4	50				50	60		10		30	
f-1	40	60				60		10			30
f-2	40		60			60			40		
f-3	40			60		60			30	10	10
f-4	40				60	60			30		
g-1	30	70				60			20	20	20
g-2	30		70			60			20		
g-3	30			70		60			10	30	30
g-4	30				70	60			10		10
h-1	20	80				60				30	20
h-2	20		80			60				20	30
h-3	20			80		60				10	40
h-4	20				80	60					

* 희석제는 안료 100g당 물 70cc

(2) 實驗 II

실험 II는 2)의 鐵砂主原料 사용 가능성의 실험에서 그 발색 상태가 양호한 Fe_2O_3 와 鐵鑛石, 막철 등의 3가지 主原料와 보조재료와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실험이다.

調合比는 실험 I의 결과, 보조재료의 함량에 따른 발색의 차이가 적고 또 보조재료의 복합적인 調合比, 즉 <表5>의 “나”항의 실험결과에서도 발색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4가지의 보조재료를 최대80%에서 최소20%까지 20%씩의 단계로 <表6>과 같이 실험하였다.

<表6> 보조재료가 鐵砂의 발색에 미치는 영향 실험을 위한 調合比(실험 II) (단위 : %)

기호	주원료 보조재료	Fe_2O_3 (A)				鐵鑛石 (B)				막 철 (C)			
		矽石	胎土	黃土	가오링	矽石	胎土	黃土	가오링	矽石	胎土	黃土	가오링
A B C	100												
ㄱ-1	80	20				20				20			
ㄱ-2	80		20				20			20			
ㄱ-3	80			20				20			20		
ㄱ-4	80				20				20			20	
ㄴ-1	60	40				40				40			
ㄴ-2	60		40				40				40		
ㄴ-3	60			40				40				40	
ㄴ-4	60				40				40			40	
ㄷ-1	40	60				60				60			
ㄷ-2	40		60				60				60		
ㄷ-3	40			60				60				60	
ㄷ-4	40				60				60			60	
ㄹ-1	20	80				80				80			
ㄹ-2	20		80				80				80		
ㄹ-3	20			80				80				80	
ㄹ-4	20				80				80			80	

* 희석제는 顔料 100g당 물 70cc

實驗의 결과 주원료와 보조재료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圖 53, 54, 55> 첫째, 보조재료의 종류에 따른 색깔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둘째, 傳統 鐵砂磁器에 있어서의 赤鐵色⁷⁰⁾에 가장 가까운 발색의 조건은 Fe_2O_3 : 黃土의 調合比가 80 : 20일때 還元燒成의 경우이다. <圖 53의 ㄱ-3>

70) 赤鐵色이라 함은 傳統鐵砂磁器에서 鐵砂가 발색되어진 상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이러한 색을 色名事典에 의해서 표현하면 暗赤色(dark red : 4.0R4.0/6)에 금속성의 느낌이 나는 色으로 나타낼 수 있다.

鐵砂에 관한 研究

셋째, 4가지의 補助材料 中에서 黃土일때 발색상태가 비교적 우수하고 熔融의 정도⁶¹⁾가 적당하다. <圖 53, 54, 55의 3번세로열>

넷째, 酸化鐵과 색을 가지지 않는 補助材料와의 調合比의 增減에 따라 다양한 色感이 表現되어지는데, 酸化燒成에서는 黑褐色에서 黑綠色⁷²⁾에 이르는 tone이 形成되고 還元燒成에서는 赤褐色에서 黑綠色에 이르는 tone이 形成된다. 또한, 補助材料의 含量이 많아지면 붓의 자국이 鮮明하게 나타난다. <圖 53, 54, 55의 세로열>

主原料의 種類에 따른 發色의 特性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主原料가 Fe_2O_3 일때 <圖 53>는 酸化燒成에서 黑褐色에서 黑綠色에 이르는 tone을 形成하는데 主原料가 60%以上이면 (A. ㄱ, ㄴ) 黑褐色으로, 그 以下면 (ㄷ, ㄹ) 黑綠色으로 發色된다. 그리고 主原料가 40% 以下일때는 (ㄷ, ㄹ의 가로열) 붓의 자국이 鮮明하게 나타난다. 補助材料가 黃土일 경우에는 黃土 自體내의 酸化鐵 成分의 영향으로 인하여 他 補助材料에 비해서 tone의 차이가 적다. 즉 전체적으로 色이 강하다<3의 세로열>. 還元燒成에서는 赤褐色부터 黑綠色에 이르는 tone이 形成되는데 主原料가 80% 以上이고 補助材料로서 胎土가 20%(ㄱ-2)이거나 가오링 20%(ㄱ-4)일때는 熔融의 程度가 심해서 많이 흘러 내린다. 主原料가 60% 以下가 되면 赤色기미는 거의 없어지고 黑褐色 기미의 tone이 形成된다. (ㄴ, ㄷ, ㄹ). 主原料가 40% 以下가 되면 酸化燒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붓의 자국이 鮮明하게 나타나면서 補助材料가 矽石일때 (ㄹ-1)와 가오링일때 (ㄹ-4) 푸른기미⁷³⁾의 色이 나타난다.

둘째, 主原料가 鐵鑛石일때는 <圖 54> 酸化燒成에서 黑褐色부터 綠褐色에 이르는 tone⁷⁴⁾이 形成되었으며 補助材料가 矽石일때와(1번세로열) 가오링일때(4번세로열)는 ㄱ, ㄴ, ㄷ, ㄹ의 調合比에서 붓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還元燒成일때는 主原料100%일때와(B) 主原料80% : 胎土 20%(ㄱ-2)에서 赤褐色이 發色되었고 나머지는 綠褐色의 tone을 形成하였다. 胎土(2번세로열)와 黃土(3번세로열)를 補助材料로 使用하였을때 强하고 段階가 약한 綠褐色의 tone이 形成되었고 矽石과(1번세로열), 가오링(4번세로열)은 段階가 명확하나 色이 약한 綠褐色 tone이 形成되었다.

셋째, 主原料가 矽石일때는 <圖 55> 主原料100%(C)일때 酸化燒成에서 강한 黑褐色, 還元燒成에서 강한 赤鐵色으로 발색되었는데 주원료가 80% 以下일때의 발색은 酸化와 還元燒成의 차이가 他 主原料에 비해서 가장 적었다. 즉 酸化와 還元燒成에서 서로 비슷한 綠褐色의 tone이 형성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補助材料가 黃土일 때는 黃土自體의 酸化鐵 含量으로 인하여 他 補助

71) 熔融의 정도라는 것은 鐵砂의 흐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당하다는 것은 색면이 고르게 나타나며 흐름이 약간 있는 정도이다.

72) 黑綠色은 olive(olive darb : 9.0Y4.0/2.5)에 黑褐色의 높은 모래가 10%가량 섞여 있는 상태와 같이 보인다.

73) 푸른기미는 붓질자국에 따라 얇게 施繪된 부분이 酸化鐵成分이 적게 포함되어 있는 顏料이므로 釉胎의 色과 융화되어서 그렇게 보여진다.

74) 여기에서의 tone은 主原料가 100%일때 90%는 黑色, 10% olive색이라면, 主原料가 20%일때는 綠褐90%, olive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材料를 調合했을 때와는 반대의 tone이 형성된다. 즉, 黃土가 80%일때(ㄹ-4) 가장 강한 綠褐色이며 黃土가 20%(ㄷ-1)일때 가장 약한 綠褐色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實驗 결과로 볼 때 靑漆은 自體內에 色을 낼수있는 酸化鐵의 含量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4) 上繪일때의 발색 實驗

傳統 鐵砂磁器에서의 鐵砂의 上繪 例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본 研究에서는 3)항의 實驗 結果를 토대로 하여 투명유에서의 上繪 發色 實驗을 하였다. 顏料는 實驗 結果 비교적 發色의 상태가 양호한 黃土를 補助材料로 한 調合比를 <表7>과 같이 선정하여 實驗하였다.

<表7> 上繪에서의 鐵砂發色 實驗을 위한 調合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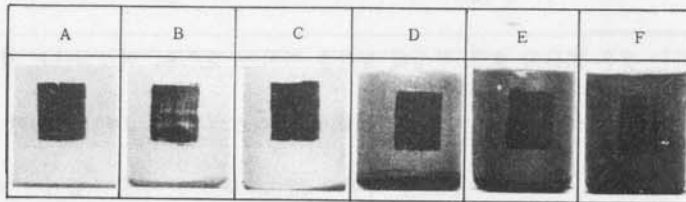
(단위 : %)

기 호	主 原 料			보조재료
	Fe ₂ O ₃ (A)	鐵鑛石 (B)	막 칠 (C)	黃 土
A, B, C	100	100	100	
ㄱ-3	80	80	80	20
ㄴ-3	60	60	60	40
ㄷ-3	40	40	40	60
ㄹ-3	20	20	20	80

<表6>에서 선정한 調合比

實驗의 結果는 <圖 56>에서 보는바와 같이 主原料가 Fe₂O₃일때(A 세로열), 酸化燒成에서 透明한 느낌의 黃褐色⁷⁵⁾ tone이 형성되며 還元燒成에서는 透明한 느낌의 黑褐色⁷⁶⁾ tone이 形成되는데 붓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主原料가 鐵鑛石일때(B)는 酸化燒成에서, 主原料가 100%일때 강한 黑褐色이며 그 以下일때 폭이 넓지 않은 黑褐色 tone이 形成되었다. 還元燒成에서는 熔融의 정도가 심하며 赤褐色 tone이 形成되었다. 主原料가 막칠일때는(C) 酸化燒成에서 主原料 100%인 경우는 부풀음의 현상이 심하며 主原料가 80%以下일때 폭이 넓지 않은 黃褐色 tone이 形成되지만 대체적으로 부풀음의 현상이 조금씩 있다. 還元燒成에서는 熔融의 정도가 심하며 폭이 넓지 않은 赤褐色 tone이 形成되었다.

(圖50) 釉藥의 선정 實驗결과



75) 黃褐色은 暗黃(Mastard : 5.0Y6.0/10)과 黑色이 혼합되어서 나타났을 때의 느낌이다.

76) 黑褐色은 灰色기미의 색(grayish olive : 4.0GY3.5/5)과 黑色이 혼합되어서 나타남을 말한다.

〈圖51〉 酸化鐵을 함유한 原料의 실험결과

산화철의종류 소성 방법		화 학 성 분	천 연 성 분			
			鐵 鑛 石 (B)	黃 土 (C)	막 철 (D)	
胎土 白 土	酸 化 焰					
	環 元 焰					
青 土	酸 化 焰					
	環 元 焰					
白 化 粧 土 粉 粧 (^㉔)	酸 化 焰					
	環 元 焰					

〈圖52〉 보조재료가 鐵砂의 발색에 미치는 영향의 실험(실험 I)의 결과

“가”

조항비 소상양면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d-1	d-2	d-3	d-4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h-1	h-2	h-3	h-4
	酸化焰																															
還元焰																																

“나”

조항비 소상양면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d-1	d-2	d-3	d-4	e-1	e-2	e-3	e-4	f-1	f-2	f-3	f-4	g-1	g-2	g-3	g-4	h-1	h-2	h-3	h-4
	酸化焰																															
還元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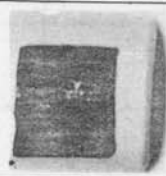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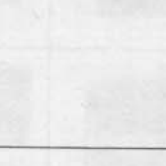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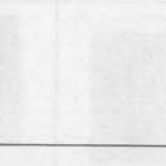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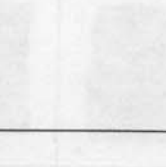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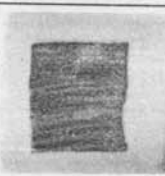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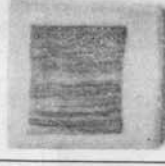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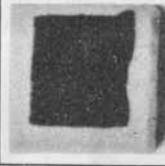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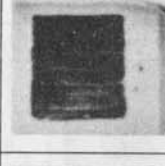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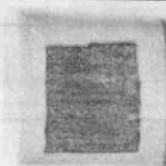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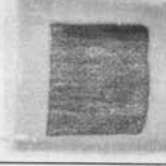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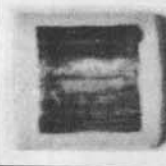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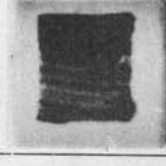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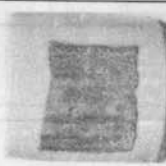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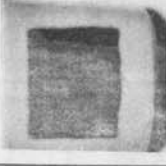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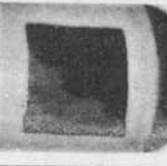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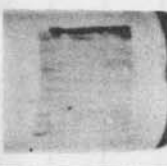



〈圖53〉 Fe_2O_3 와 보조재료와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 실험 결과(表6)의 A항)

조항비	酸化 焰				還元 焰			
	1	2	3	4	1	2	3	4
A (100%)								
7								
L								
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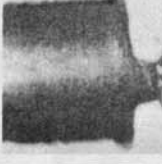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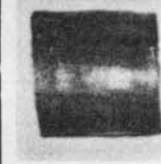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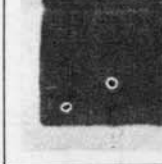
〈圖54〉鐵鐵石과 보조제로와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 실험 결과 (表6)의 B항

조색 방법	酸 化 焰				環 元 焰			
	1	2	3	4	1	2	3	4
B (100%)								
7								
L								
L								
R								

〈圖55〉 막칠과 보조재료와의 調合比에 따른 발색 실험결과(表6)의 C항)

수성 양액	酸 化 焰				環 元 焰			
	1	2	3	4	1	2	3	4
C (100%)								
7								
L								
L								
2								

〈圖56〉 투명유에서의 上繪 발색 실험 결과

소성방법 調合比	酸化			環		
	A	B	C	A	B	C
100%						
7-3						
L-3						
L-3						
L-3						

V. 現代磁器에서의 鐵砂 活用

1. 現代磁器 釉藥과 鐵砂의 관계 실험

現代磁器에 있어서는 표면 질감이 광택이 있는 것보다는 무광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여, 鐵砂의 活用 범위를 넓히고져 現代磁器에서 많이 응용되는 Matt釉와 불투명釉에서의 鐵砂 반응 實驗을 하고져 하였다.

우선 <表8>과 같이 Matt釉와 불투명釉의 調合比를 수집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의 결과, Matt釉로서는 광택이 없고 백색도가 좋은 <表8>의 “나”를 선정하였으며, 불투명釉로서는 백색도가 좋은 “바”를 선정하여, <表9>의 鐵砂 調合比로서 上繪와 下繪로 施繪하여 실험하였다.

<表8> Matt釉 및 불투명유 선정을 위한 실험의 調合比

(단위 : %)

구분	原料 기호	長石	硅石	석회석	아연화	가오령	초벌구이 가오령	지 당	활 석	지르콘
		Matt釉	가	53.08	25.80	7.06	8.06			
	나	26.3	21.6	19.7		6.6	25.8			
	다	58.3	8.3	25		8.3				
불투명유	라	45.5	15.9	15.9				22.7		
	마	39.5	25.4	10.5					17.5	7
	바	45.9	29	12					11	3

<表9> Matt釉와 불투명유에서의 鐵砂발색 실험을 위한 調合比

(단위 : %)

原料	기 호	A	ㄱ-3	ㄴ-3	ㄷ-3	ㄹ-3
	Fe ₂ O ₃		100	80	60	40
黃 土			20	40	60	80

* <表6>에서 선정한 調合比

실험의 결과 Matt유와 불투명유에서의 鐵砂 발색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圖 57, 58>

Matt유에서는 <圖 57> 酸化燒成에서 上繪일때, 補助材料가 60% 이상이면 부풀음의 현상이 심하였으며 主原料 100%일때가 가장 발색 상태가 우수하였다. 색은 黑褐色으로서 tone의 변화가 거의 없다. 下繪일때는 主原料80% 이상인 경우에는 綠色이 가미된 黑褐色이며 전체적으로 tone의 변화가 거의 없는 우수한 黑褐色으로 나타났다. 還元燒成에서 上繪일때는 熔融의 정도가 심하여 많이 흘러 내렸으며 <A, ㄱ-3, ㄴ-3>, 補助材料가 60% 이상일때 熔融의 상태가 적당하였다<ㄷ-3>. 색깔은 柴朱色 기미의 赤褐色⁷⁷⁾ tone으로 tone의 단계는 넓지 않고 主原料40 :

77) 暗赤色(dark red : 4.0R/4.0/6)에 黑色의 점이 10%정도 섞여 있는 색으로 광택이 없는 색이다.

補助原料60일때가 熔融상태도 적당하고 色도 赤褐色으로 안정된 발색을 보이고 있다. 下繪일때는 柴朱色 기미의 赤褐色 tone이 形成되는데 主原料 60%以下에서의 발색 상태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ㄴ-3, ㄷ-3, ㄹ-3)

不透明釉에서는〈圖 58〉酸化燒成에서 上繪일때 黑褐色에서 柴朱色기미의 赤褐色 tone이 形成되는데 전체적으로 施繪된 부분에 잔금의 현상이 있었다. 下繪에서의 발색은 不透明釉인 관계로 tone의 변화가 없는 灰黑色으로 나타났는데 施繪된 부분에 기포 현상이 심하였다. 還元燒成에서의 발색은 上繪일때는 施繪부분이 금속표면처럼 되어서 黑色으로 나타났다. 下繪에서는 黑褐色에서 綠色과 赤色の 기미가 있는 黑褐색의 tone이 形成되었는데 熔融의 상태는 안정되어 흐름의 현상은 거의 없다.

以上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Matt 유일때 酸化燒成에서의 下繪는 黑褐色の 발색이 우수하고 熔融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며, 還元燒成에서는 下繪일때 柴朱色 기미의 赤褐色の 발색상태가 光澤이 없는 안정된 色으로서 아주 우수하였다. 그리고 不透明釉에서 還元燒成일때 下繪는 黑赤褐色の 발색 상태가 우수하였다.

2. 鐵砂의 실제적인 응용 효과에 대한 실험

鐵砂를 사용하여 作品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주로 붓을 이용하여 회화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류를 이룸으로, 본 연구에서는 〈圖 59〉와 같이 붓의 자국과 사실적인 文樣, 직선, 곡선의 패턴(pattern)을 묘사해 봄으로써 鐵砂 使用의 실제적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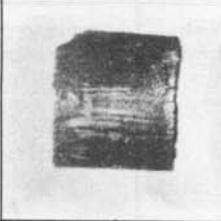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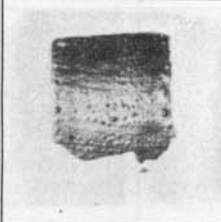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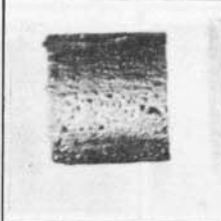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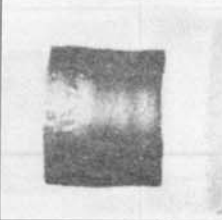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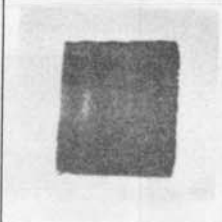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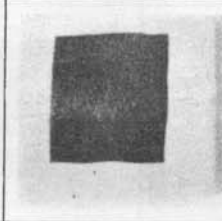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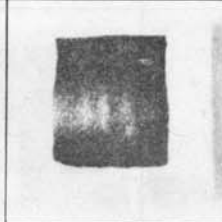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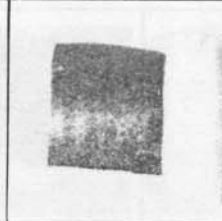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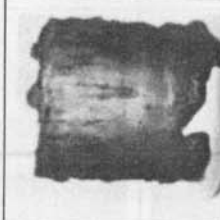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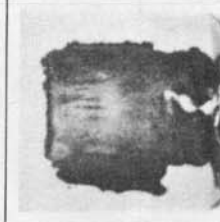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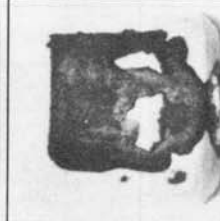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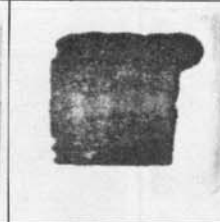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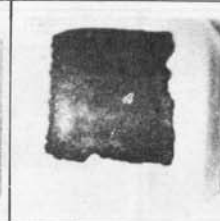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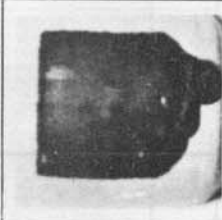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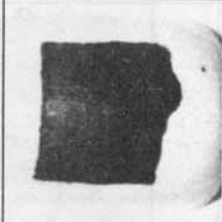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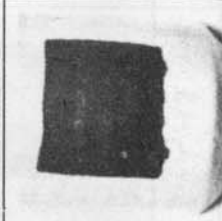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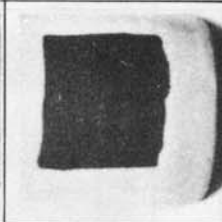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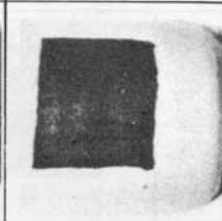
釉藥은 투명유, Matt 유, 불투명유의 3가지를 각각 사용하였고 上繪, 下繪로 施繪하여 酸化와 還元으로 燒成하였는데, 以上の 실험 결과는 다음 〈圖 60〉과 같다.

붓의 자국 표현은 透明釉, 下繪, 酸化燒成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Matt 유, 下繪, 酸化燒成과 투명유, 上繪와 下繪, 還元燒成의 조건에서 우수하였다.

사실적인 文樣의 표현은 투명유를 사용한 下繪의 경우와 Matt 유를 사용한 下繪의 경우 酸化燒成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투명유를 사용한 上繪의 경우 還元燒成의 조건에서 비교적 우수하였다. 그리고 Matt 유와 불투명유를 사용한 上繪의 경우 酸化燒成의 조건에서 비교적 우수하였다.

직선, 곡선의 표현은 투명유를 사용한 下繪의 경우, Matt 유를 사용한 上繪경우와 下繪경우, 불투명유를 사용한 上繪경우일 때, 酸化燒成에서 우수하였고 투명유에서의 下繪경우, Matt 유에서의 下繪경우 還元燒成의 조건에서 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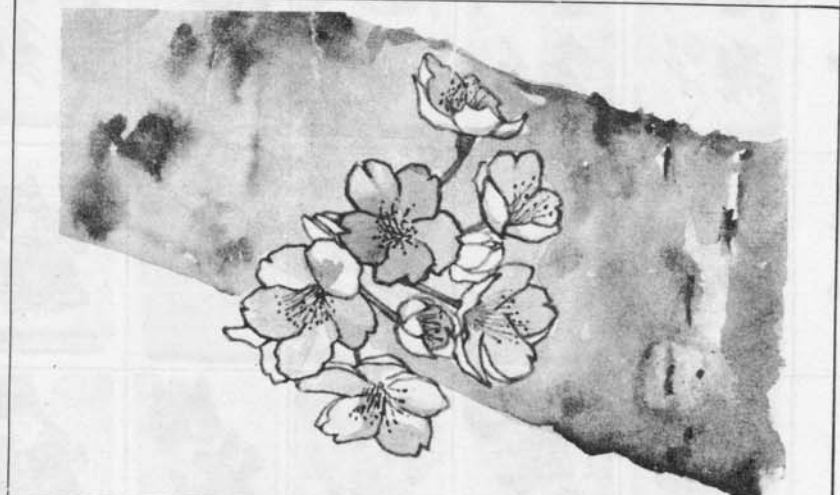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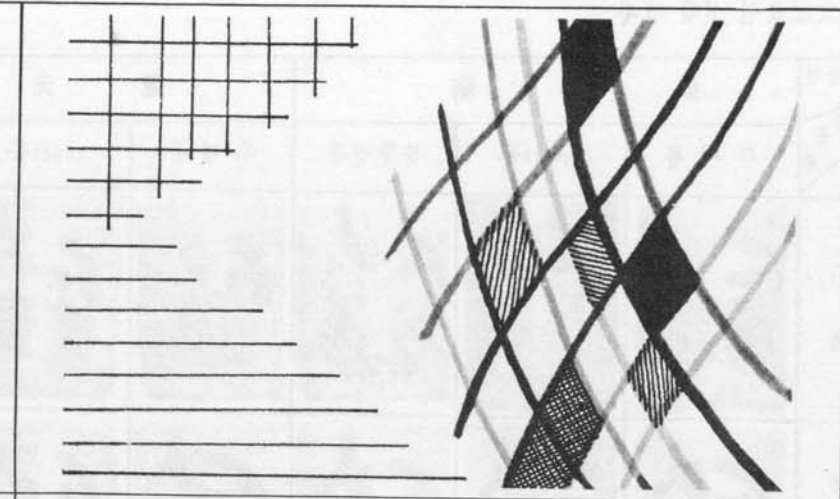
(圖57) Matt釉에서의 鐵砂 발색 실험 결과

	A	7-3	L-3	E-3	E-3	
酸化焰	上繪					
	下繪					
還元焰	上繪					
	下繪					

(圖58) 불투명釉에서의 鐵砂 발색 실험 결과

		A	7-3	L-3	E-3	E-3
酸化	上繪					
	下繪					
還元	上繪					
	下繪					

〈圖59〉 鐵砂의 文樣표현 실험을 위한 패턴(pattern)

붓 의 자 국	사 실 적 인 문 양	직 선 · 곡 선
		

(圖60) 文樣 표현 실험 결과

소성방법 유약의 종류 배된 의종류		酸 化 焰			還 元 焰		
		투명류	matt유	불투명류	투명류	matt유	불투명류
붓 의 자 국	上 繪						
	下 繪						
사실적인 문양	上 繪						
	下 繪						
직 선	上 繪						
	下 繪						

VI. 結 論

現代磁器 製作 過程에서 鐵砂의 利用은 그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작가나 학자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鐵砂 사용방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참고문헌 및 선행논문의 고찰을 통하여 그 일반적인 이론을 추출, 분석함과 동시에 공방이나 陶窯에서의 鐵砂 사용 예를 수집 종합하여 실험에 참고하였다.

실험은 일반적인 鐵砂 사용 예에 따른 기본적인 鐵砂의 발색실험과 現代磁器에의 응용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以上과 같은 과정으로 研究하고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白土를 胎土로 하여 투명유를 사용할시에 下繪의 경우

1) 傳統鐵砂磁器의 赤鐵色에 가까운 발색은 Fe_2O_3 : 黃土의 調合比가 80 : 20일때 還元燒成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鐵砂의 主成分인 酸化鐵을 함유한 原料로서 化工藥品인 Fe_2O_3 천연성분의 鐵鑛石, 矽石 등이 鐵砂의 主原料로서 적당하였다.

3) 鐵砂의 補助材料로써 矽石, 胎土, 黃土, 가오링이 鐵砂의 발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슷하며 胎土와 黃土가 같은 색이면서 약간 강한 tone으로 발색된다. 그러나 補助材料로서는 黃土가 발색이 자연스럽고 熔融의 상태도 좋기 때문에 가장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4) 鐵砂의 主成分인 酸化鐵과 補助材料의 調合 비율에 따라서 tone이 形成되는데 酸化燒成에서는 酸化鐵이 많이 함유된 순서로 黑褐色에서 黃褐色의 tone이 形成되고 還元燒成에서는 酸化鐵이 80% 이상일때는 赤褐色이고 그 以下면 黑赤褐, 黑褐, 黃褐 등으로 tone이 形成된다. 그리고 補助材料의 함량이 60% 이상이면 붓의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2. 現代磁器에 활용하기 위한 Matt유와 불투명유에서의 발색 특징

1) 赤鐵色에 가까우며 발색의 상태가 안정되고 熔融의 상태도 안정된 것은 Fe_2O_3 : 黃土의 調合比가 60 : 40일때 Matt 유, 下繪, 酸化燒成의 조건에서였다.

2) Matt 유에서는 下繪의 방법이 발색과 熔融의 상태가 적당하며 색은 酸化燒成에서 黑褐色, 還元燒成에서는 赤褐色으로 나타나며 tone의 변화는 거의 없다.

3) 불투명유에서는 酸化燒成에서는 上繪, 還元燒成에서는 下繪의 방법이 발색과 熔融의 상태가 적당하며 색은 진한 赤褐色으로 tone의 변화가 거의 없다.

3. 실제적인 施文方法에 따른 특징

1) 붓의 자국 표현은 투명유, 下繪, 酸化燒成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다.

2) 사실적인 文樣 표현은 투명유, 下繪, 酸化燒成의 조건과 Matt 유, 上繪와 下繪, 酸化燒成의

조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3) 직선·곡선의 표현은 투명유, 上繪와 下繪, 불투명유, 上繪, 酸化燒成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上記 실험결과 鐵砂의 發色効果는 胎土, 釉藥, 鐵砂의 材料, 施文方法 및 濃淡의 차이, 燒成 분위기, 燒成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鐵砂의 發色은, 복합적으로 이 모든 조건이 합치되었을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鐵砂에 관한 일반적인 材料를 대상으로 上記 조건을 십분 감안하여 傳統鐵砂의 發色 再現 및 現代磁器에 있어서의 活用 可能性을 위한 기초적인 方法 제시 및 실험을 통한 實例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이 방향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져 하였다.

參 考 文 獻

- 高裕燮, 高麗靑磁.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4.
- 金榮泰, 粉靑磁器의 發生과 그 意匠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계명대학교 대학원, 1976.
- 金元龍, 韓國 古美術의 理解.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_____, 韓國 美術少史. 서울: 삼성문화재단, 1981.
- 金炫式, 우리 나라 陶磁 角形 切시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 朴 賢, 高溫陶磁器의 原料와 技法.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9.
- 申相浩, 韓國 鐵彩磁器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75.
- 元大正, 陶藝의 科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 李京美, 우리 나라 陶磁器에 施文된 牡丹唐草文의 變形에 關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4.
- 李基柱, 高麗靑磁의 時代區分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0.
- 李慶熙, 高麗靑磁 生産 技術의 歷史的 考察. 博士學位論文,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2.
- 李喜洙, 釉藥과 그 顔料. 서울: 대광서림, 1980.
- 崔 健, 高麗 鐵繪靑磁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1.
- 韓胤淑, 韓國陶磁器에 나타난 化粧土技法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홍익대학교 대학원, 1973.
- 高麗靑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1.
- 東亞世界大百科辭典, 제19권. 서울: 동아출판사, 1980.
- 박물관신문. 1970~1980년 발행 合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粉靑磁器.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종합디자인. 1986년 3, 4, 5월호.

鐵砂에 관한 研究

- 韓國의 美, 白磁. 서울: 중앙일보계간미술, 1983.
- 韓國의 美, 靑磁. 서울: 중앙일보계간미술, 1983.
- 韓國의 美, 粉靑砂器. 서울: 중앙일보계간미술, 1983.
- 韓國美術五千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76.
- 久志卓眞, 朝鮮の陶磁. 東京: 雄山閣, 1975.
- 大西政太郎, 陶藝の釉藥. 東京: 理工學社, 1976.
-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42.
- 佐藤雅彥, 中國陶磁史. 東京: 平凡社, 1979.
- 陶器講座, 朝鮮 I, 高麗. 東京: 雄山閣, 1971.
- 東洋陶磁の展開.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82.
- 色名小事典. 東京: 日本色研事業株式會社, 1981.
- 世界陶磁全集, 14, 李朝. 東京: 河出書方, 1956.
- 世界陶磁全集, 18, 高麗. 東京: 河出書方, 1956.
- 原色陶器大辭典 C. 東京: 淡交社, 1974.

Abstract

A Study on Iron Oxide Decoration

by Yang, Sung-sun

Major in Craft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The iron oxide decoration, being a paint containing much oxide of iron, when applied both under or over glazing onto the patterns of the porcelain, results in the colors of dark or red browns.

The initial utilization of the iron oxide decoration on the porcelain first appeared during the early stage of Koryo Dynasty in the 10th century which developed in various forms onto the porcelain till the latter part of the Yi Dynasty till 19th century with distinctive features realized through these eras. A touch of the iron oxide on the porcelaneous yielded unsophisticated, bold and plain in appearances.

This study probed, on the foundation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of iron oxide decoration porcelains, of its materials preparations followed by the firing which result in coloring and variations through the pilot experiments to produce methods of the iron oxide decoration applications on the contemporary porcelain production.

The methods so employed in this pilot project were the probing of the coloring in utilizations of Fe_2O_3 which contains major portions of iron oxide, iron ores, deep rusted irons plus silica, porcelain clay, yellow ochre soil and kaolin which plays the major role by the previous and by the latter, to approach the coloring appearances by the preparations of proportions of the above elements, all which the superior colorings eventually applied onto the contemporary porcelain works on often and generally used on the Matt glazing and semi-transparent glazings.

Along these lines, expressions in the traces of brush, realistic designs, lines of both straight and curves whose feasibilities of utilizations of iron oxide decoration have been experimented.

The experimental circumstances were that the white porcelain clay, glazes which is melted on the 1270 degrees in Centigrade, fired by both oxide firing and restoration firing.

These experiments had revealed the following findings:

1. When mixed in the proportion in the ratio of 80 Fe_2O_3 and 20 yellow ochre soil on the test of white porcelain clay and transparent glaze to go through restoration firing, the coloring showed close to red iron color.

2. The materials adequate to the iron oxide decoration were chemical kin of Fe_2O_3 , natural iron ores and deep rusted irons which contain of the principal elements of the iron oxide.

3. The supplementary materials such as silica, porcelain clay, yellow ochre soil and Kaolin affect almost similar result onto the iron oxide decoration coloring, the color is rather indistinct when iron oxide contains less, deep tone brown when oxide firing applied, and red brown tone is formed when restoration firing applied.

4. Iron oxide decoration coloring shows, between Mattglaze and semi-transparent glaze, the former reveals good esquis, the latter the main drawing when oxide firing and the esquis when restoration firing implemented, all which revealed agreeable coloring and the degree of the melting.

5. In the case of oxide firing, the expressions in the traces of brush reveal a satisfactory result in transparent glaze and esquis, and the same were realistic designs, transparent glaze, esquis, and the Matt glaze, which all appeared to be superior when the oxide firing applied. The straight lines, the curved lines are superior on the transparent glaze, esquis are proper when both oxide and restoration firings applied and the Matt glaze, esquis, main drawing are proper when oxide firing applied.

The above research is considered rather unfinished formulation in the iron oxide utilizations and it is hoped to be a helpful study towards the superior coloring of the iron oxide in the process so implemented by this study considering the complexion of the iron coloring thus far experimented to date.

本校 博物館의 靑銅器 數例에 대하여

沈 奉 謹*

目 次

- | | |
|------------------------|-------------------|
| 1. 머리말 | 나. 傳 金海 明法洞 出土 銅鉞 |
| 2. 遺物의 特徵 | 3. 끝맺는말 |
| 가. 傳 大田 槐亭洞 出土 靑銅器一括遺物 | |

1. 머 리 말

本校 博物館 所藏 靑銅器時代 遺物 가운데 好例가 몇점 있어 이를 寫眞과 圖面을 準備하고 여기에 紹介한다.

특히 遺物가운데는 1972年 本校 博物館에서 發掘調査한 固城東外洞貝塚에서 出土된 廣鋒鉞와 同形의 것이 있어 興味가 있으며,¹⁾ 또 이는 日本 對馬島를 中心한 北九州地方에서도 많이 出土되고 있어²⁾ 韓·日 兩國間의 文化交流 研究에도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日本の 경우 初期 靑銅器들이 모두 그 起源을 우리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은 周知하는 事實이나 반대로 中期 以後에 들어가서는 점차로 自國生産能力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後期에는 도리어 日本 靑銅器의 一部가 우리나라로 逆流하는 現象을 보였다고 日本側 學者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例로서 比較的 靑銅器의 規模가 점차 大形化된 固城東外洞貝塚과 大邱 晚村洞³⁾에서 出土된 銅鉞, 銅戈를 들고 있다⁴⁾. 現在까지 兩國間에 나타난 關係資料를 比較한다면 이를 결코 否定할 수는 없는 입장에 놓여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積極的인 資料들이 增加한다면 보다 明確한 解析들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意味에서 이번에 紹介되는 靑銅遺物은 앞으로 이 方面 研究에 있어서 資料的인 좋은 役割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文科大學 考古美術史學科 副教授

2. 遺物의 特徵

가. 傳 大田 槐亭洞 出土 靑銅器 一括遺物

서울 麻浦區 倉前洞에 살고 있는 蔣모씨가 舊藏하고 있던 것을 本校에서 一括로 購入한 것이 데 銅鉞, 銅戈 各 1點, 銅製鞞裝具 2點이다. 이를 個別的으로 그 特徵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a. 銅鉞1點(圖面1의①, 圖版1의①)

全長 35.7cm로 袋部中間이 구부러지면서 일부 破損되었으나 그런대로 原狀을 잘 維持하고 있다. 中央의 背稜部는 兩側으로 갈아서 그 傾斜面이 刃部에 連結되며 背稜部의 斷面은 제법 銳利하다 할 정도이고 刃部도 銳利하게 갈렸으나 全面에 磨滅이 심하며 피홈 끝부분의 刃部 幅은 2.6cm, 袋部와의 接點부분 刃部 幅은 4.7cm이다. 袋部內의 中空의 길이는 17cm이며 粘土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袋部 入口에는 外側으로 幅 1.8cm 크기의 낮은 段을 지우고 있었으며 이렇게 段진 部分과 그 아래에 걸려서 半圓形 귀를 달고 있는데 酸化된 탓인지 구멍이 形式的이라고 할 만큼 작다. 袋部 끝의 最大幅은 3.5cm이다. 全體的으로 表面의 酸化가 심한 편으로 刃部 쪽은 푸르게 酸化되었으나 袋部 쪽은 鐵이 酸化된 것과 같이 褐色을 띄고 있는데, 아마 近接해서 鐵器가 놓였던 탓이 아닌가 싶다. 이런 形態의 것을 岡崎敬先生은 中細形 A類로 區分하고 있으며⁵⁾ 크기로 보아서는 慶州 坪里 出土의 것 보다 7~8cm 짧고⁶⁾ 日本의 宇木坂田 37號 甕棺에서 出土된 것 보다는 2.3cm 정도 짧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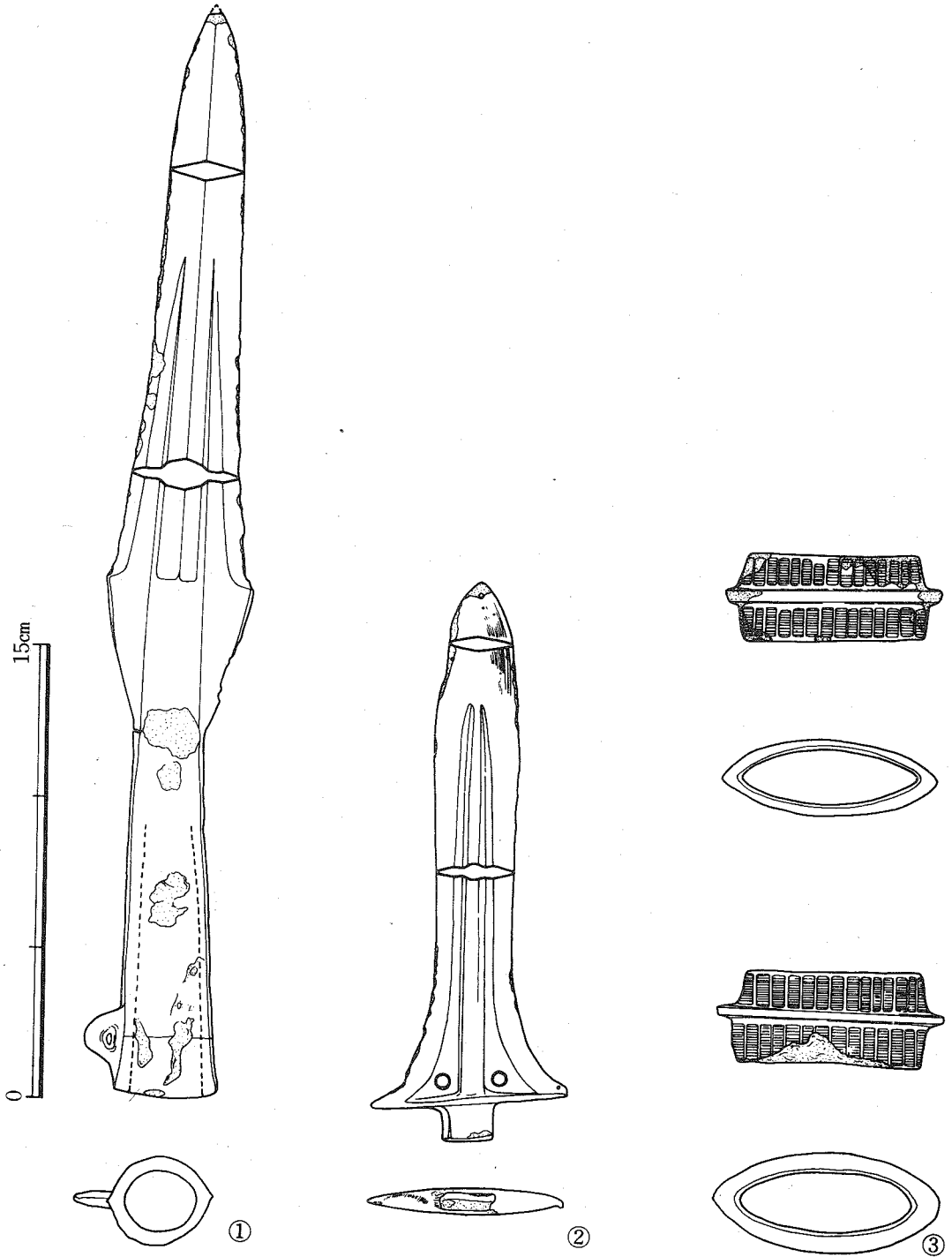
b. 銅戈1點(圖面1의②, 圖版1의②)

全長 18.5cm로 鋒部의 한쪽이 많이 滅失된 듯하다. 背稜部는 날을 세우지 않은 채 둥근 그대로이며 周邊에 피홈이 둘러져 있다. 날은 關部까지 날카롭게 兩面을 갈아 세웠으나 가장자리 부분은 대부분 磨滅되었다. 나무자루에 매달기 위한 구멍은 마치 기계로 뚫은듯 둥글고 整然하다. 副葬時에 表面에 무엇을 감아두었던 것이 酸化한 듯하며 곳곳에 鐵이 酸化된 痕迹을 남기고 있다. 關部 最大幅은 6.5cm고 鋒部의 最大幅은 2.8cm 정도이다. 形態의으로 보아서는 大邱 飛山洞, 慶州 坪里, 九政里 出土 一括遺物들과 時期的으로 大差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⁸⁾.

c. 銅製鞞裝具2點(圖面1의③, 圖版1의③)

橢圓形으로 된 칼집부속품이다. 2點 中 1點은 크고 1點은 약간 작다. 세우면 높이가 2.7cm~3cm이고 中間의 突帶形으로 튀어나온 部分의 外徑은 6.8~7cm이다. 兩端의 口徑도 약간씩 大小에 差異를 보인다. 즉 큰 것의 경우 한쪽은 3cm, 한쪽은 2cm이고 작은 것은 2.7cm, 1.8cm이다. 아마도 좁은 쪽이 칼집의 끝부분이라고 생각된다. 中間 突線左右의 一段 낮은 부분에는 짧은 集線文을 區劃지워 配置하여 文樣으로 삼은 듯하며 內部에 가죽같은 材料를 끼워 連結한 뒤 칼집으로 삼은 듯하다. 比較的 保存狀態는 良好하지만 곳곳에 파랗게 녹은 부분이 보이며 역시 鐵製品이 接近해서 있었던 탓인지 褐色點이 간혹 붙어 있다. 이와같은 形狀의 例가 慶州 坪里遺蹟에서 出土되고 있다.⁹⁾

圖面 1. 傳 大田 槐亭洞 出土 青銅遺物 實測圖



以上으로 大田 槐亭洞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靑銅器 一括遺物에 대해서 그 特徵을 調査하여 보았다. 이 3種類의 遺物은 우선 出土地의 正確性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 遺物들이 同一遺蹟에서 出土된 것만은 그 特徵으로 미루어 보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出土된 資料를 中心해서 같은 形態의 例를 참고해서 말한다면 이 遺物의 出土地는 오히려 大邱나 慶州地方에서 出土됨이 더 有力하다고 말할 수 있다. 特히 銅鉞에 있어서 中細形으로 발전된 것, 銅戈의 구멍, 關部の 發達過程, 背稜部の 갈지않은 技法, 韞裝具의 形態等 諸特徵이 靑銅器時代末 내지는 初期鐵器時代로 編年되는 大邱 飛山洞, 慶州 坪里, 九政里 遺物들과 大同小異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며¹⁰⁾ 이 年代는 日本 宇木坂田 遺蹟의 37號 甕棺 年代인 彌生文化 中期前半의 編年을 참고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들 遺物의 表面에 鐵製品의 酸化痕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역시 鐵器와 함께 副葬되었던 것이라고 解析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 遺物은 靑銅器時代보다는 初期鐵器時代의 것이라고 말해둘이 옳을 듯하다.

나. 傳 金海 明法洞 出土 銅鉞1點(圖面2 圖版2)

本校 卒業生이 金海市 明法洞에서 先祖墓所를 整理하다가 土取場에서 우연히 發見하여 資料가 되면 展示해 달라고 하면서 寄贈한 遺物이다. 當時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와같은 廣鋒銅鉞가 出土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또 遺物자체가 表面의 酸化가 심해서 감정하기 어려워 그냥 창고 안에 보관하여 두었다. 그런데 1972年 固城東外洞貝塚에서 이와 同形態의 것이 出土되고보니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再檢討하기위해 日本것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國內外 關係專門家의 諮問도 받아보았더니 한결같이 眞品임에는 틀림없다는 結論을 얻었다.

現在 穗部の 대부분이 破損되고 袋部에서 鋒部에 이르는 背稜部와 鋒部만 남아 있어서 確實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現存하는 길이가 85cm 정도되는 것으로 보아 製作當時는 이보다는 약간 더 길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鋒部는 애당초의 狀態대로 납작하고 刃部에는 날을 세우지 않았으며 現在 最大幅은 10cm 정도가 된다. 그리고, 背稜部分에는 分明히 鎬를 넣지 않았으나 皮홈이 背稜部가 남아있는 곳까지 둘러져 있었다. 袋部 역시 酸化가 심한데 基部 入口를 除外하고는 內部에 粘土가 桴 메워져 있으며 表面 上段에 段狀이나 線을 넣는 수법은 취하고 있지 않다. 귀는 분명히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痕跡이 보이고 처음에는 兩側 가장자리에 두 거무집 이음새 사이로 밀려나온 鑄造物의 痕跡도 除去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酸化되어 떨어져 내린 痕跡으로 남아 있다. 基部의 直徑은 6cm 정도이다. 對馬島 佐保字キロスガ濱遺蹟에서 出土된 廣鋒銅鉞는 이것과 잘 닮은 듯하며¹²⁾ 固城東外洞貝塚에서 出土된 것과는¹³⁾ 袋部上段 귀가 달린부분 中間에 沈線을 넣어 段狀을 띄게 한것만 다르고 나머지 背稜部에 鎬를 새기지 않고 周邊에 皮홈을 두르며 刃部에는 날을 세우지 않는 점은 同一한 手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形態의 遺物은 이미 日本에서는 彌生文化 後期中半以後로 編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出土되는 同形의 것은 모두 日本에서 逆輸出된 것이라고 岡崎敬先生등 九州地方의 關係學者들은 말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¹⁴⁾.

3. 끝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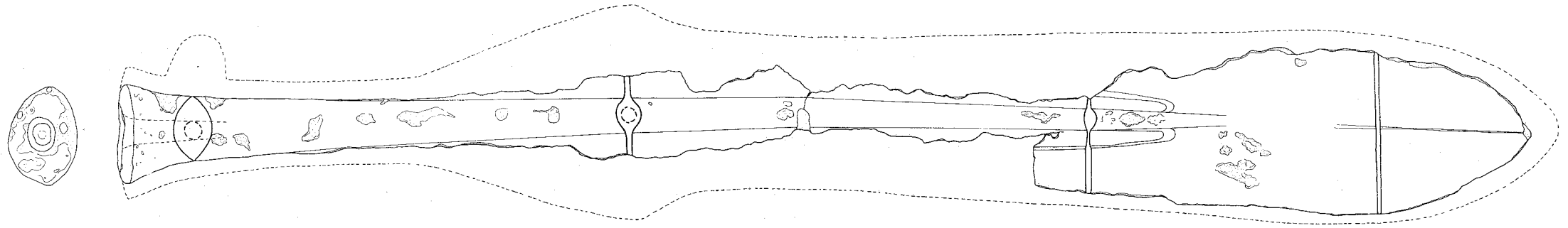
以上으로 兩地域에서 出土된 遺物의 特徵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紹介된 靑銅器는 우리나라에서는 靑銅器時代 末期내지 初期鐵器時代의 것으로 編年되는 重要한 資料라고 생각되며 日本에서는 日本 彌生時代의 韓·日文化 交流關係를 研究하는데 있어 또한 빼어놓을 수 없는 資料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이들의 使用年代를 이야기 한다면 傳 大田 槐亭洞 出土의 것은 紀元 前後 1世紀頃, 傳 金海 出土의 것은 紀元 3世紀로 編年해 본다면 韓·日兩國間에 있어 큰 問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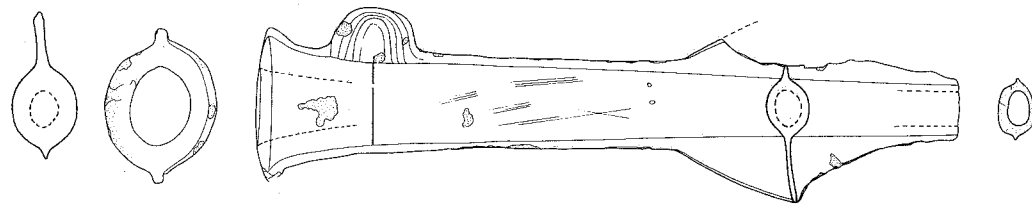
- 1) 金東鎬: 「固城東外洞貝塚」 東亞大學校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八冊, 1984.
- 2) 가. 長崎縣教育委員會: 「對馬」 長崎縣文化財調查報告書 第十七集, 1974. 日本
나. 福岡縣飯塚市立岩遺蹟調查委員會: 「立岩遺蹟」 河出書房, 1977. 日本
- 3) 가. 金載元, 尹武炳: 「大邱晚村洞出土의 銅戈, 銅劍」 震檀學報29·30合輯, 1966.
나. 西谷正: 「慶尙北道大邱市晚村洞發見의 靑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51, 1968.
- 4) 岡崎敬: 「靑銅器とその鑄型」 立岩遺蹟, 河出書房, 1977. 日本
- 5) 註4)와 同一
- 6) 金載元: 「扶餘 慶州 燕岐出土 銅製遺物」 震檀學報25·26·27合輯, 1964.
- 7) 註4), 5)와 同一
- 8) 金廷鶴編: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에서 모두 II C 式 및 III 式으로 形式分類하여 靑銅器時代末期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 9) 金元龍編: 「古代美術」 韓國美術 I 講談社 1986. 9. 日本
- 10) 註8)과 同一
- 11) 註4), 5), 7)과 同一
- 12) 高倉洋彰: 「對馬」 長崎縣文化財調查報告書 第十七集, 1974.
- 13) 註1)과 同一
- 14) 註4), 5), 7)과 同一

圖面 2. 傳 金海 明法洞 及 固城 東外洞 貝塚出土 青銅遺物 實測圖



0 20cm

傳 金海 明法洞 出土 廣鋒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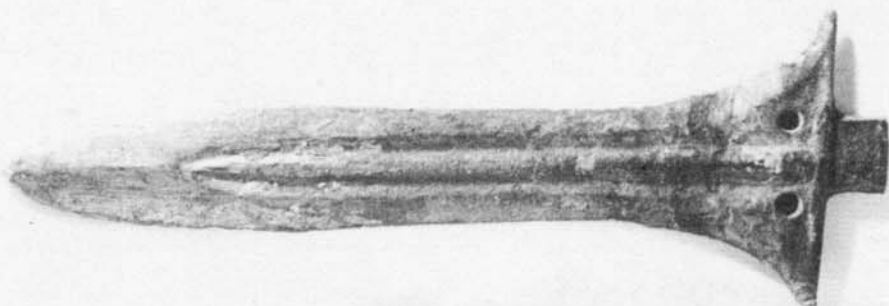


固城 東外洞 貝塚出土 廣鋒鉞

圖版 1. 傳 大田 槐亭洞 및 固城 東外洞 貝塚出土 青銅遺物



①



②



③

傳 大田 槐亭洞 出土遺物



④

固城 東外洞 貝塚出土 廣鋒銅鉞

圖版 2. 傳 金海 明法洞 出土 青銅遺物



全體狀態



鋒部近影



袋部近影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沈 富 子* · 全 惠 淑**

目 次

I. 머리말	2) 뒤트임 襪衣
II. 出土經緯와 年代	3) 道袍
III. 出土襪衣의 圖解 尺類	2. 袴 衣
IV. 出土襪衣의 形態 構造 및 縫製의 特徵	V. 맺음말
1. 袍	寫 眞
1) 앞트임 襪衣	

I. 머 리 말

이 遺物은 1984年 12月 慶南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에 所在한 朴齋의 墳墓 移葬時에 出土된 것으로 朴齋의 10代孫인 朴丁濟氏가 本 大學校 博物館에 寄贈한 것이다. 1985年 11月 本 大學校 博物館 主催로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던 袍類 12點을 公開 展示한 以後 年前에 本 衣類學科에 復原을 의뢰받았다. 復原作業 결과 袍類 14點, 袴衣2點의 報告書를 作成하게 되었다. 實測은 가능한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襪衣의 破損과 纖維의 特殊性을 감안하면 약간의 誤差는 무시되어도 좋을 것이다. 일부 나머지 破損物의 경우 형체는 어렵나왔으나 워낙 毀損 상태가 심해서 이를 實測 圖解하여 報告書를 作成하기에는 무리가 가기에 제외하였다. 그 破損 상태로 보아 襪衣 2點, 袍 2點 및 斂襲具 몇 點의 조각으로 여겨진다.

本遺物은 文益新墓 出土服飾과 더불어¹⁾ 朝鮮 中·後期인 壬亂以後의 嶺南地方 土族層의 服飾 文化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규모로 보아 당시의 儒敎式 喪禮風習을 연구하는데도 일정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의 작성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自然科學大學 衣類學科 副教授

** 自然科學大學 衣類學科 助教授

II. 出土經緯와 年代

密城朴氏 族譜에 依하면²⁾ 襦衣의 主人公 朴齋는 寄贈人 朴丁濟의 10代祖로 字는 致中이고, 號는 華齊이다. 壬亂이 끝난 다음해인 宣祖 32年 己亥(1599)에 나서 孝宗 4年 癸巳(1653)에 享年 55歲로 卒하였으며 일찌기 芦坡 李屹門에게 受業받아 學問에 見識이 있었다 한다.

그의 生卒 年代로 보아 襦衣의 製作 年代는 17C 中葉으로 추정될 수있다. 그 製作 솜씨로 보아서 葬送時 丹시일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평소에 着用하던 것을 부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墓에서 出土된 襦衣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袍 : 명주 누비 髦衣 9點. 명주 髦衣 4點. 명주 道袍 1點.

袴衣 : 명주 바지 1點. 명주 누비 바지 1點.

기타 : 훼손된 袍 조각 2點. 훼손된 襦衣 조각 2點. 斂襲具 조각 몇 點.

III. 出土襦衣의 圖解 尺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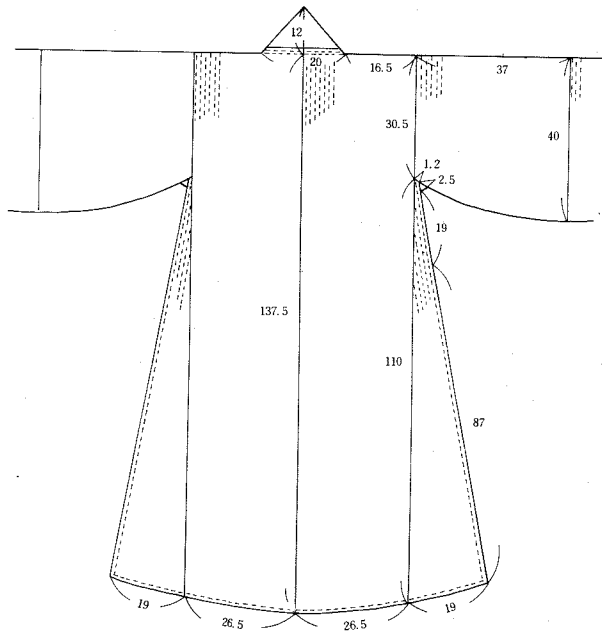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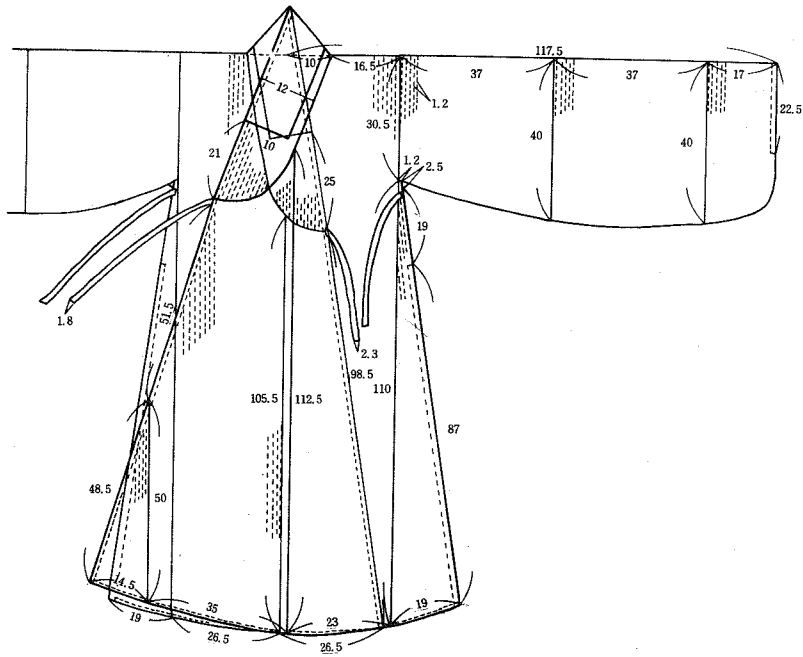
1. 袍

1) 옆트임 髦衣

(1) 素色명주 누비 髦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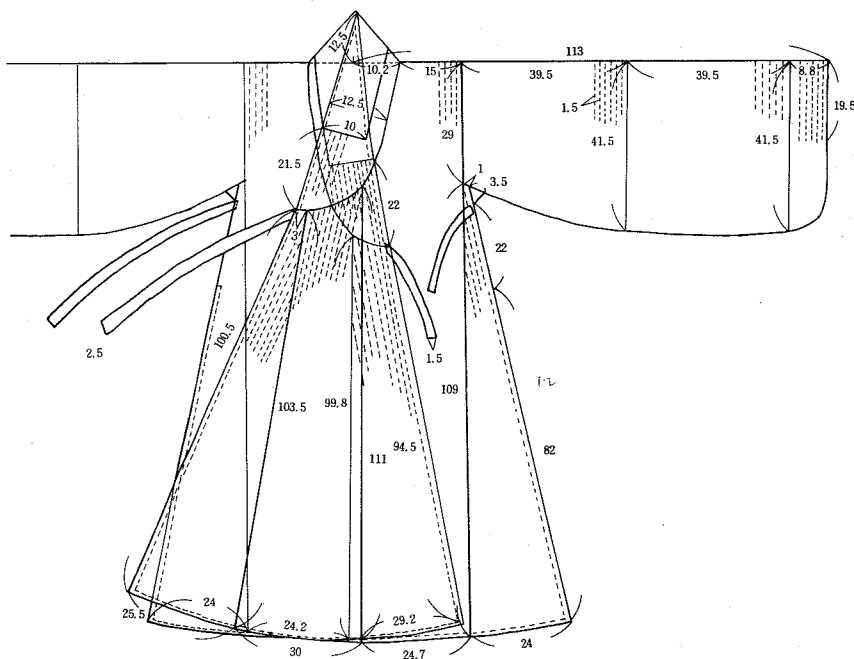
1. 총 길 이 : 137.5	13. 깃 길 이 : 109
2. 뒷 품 : 55	14. 깃 넓 이 : 12
3. 화 장 : 117.5	15. 동 정 길 이 : 63
4. 고 대 : 20	16. 동 정 넓 이 : 10
5. 소 매 길 이 : 91	17. 동정위치 (겉깃) : 21
6. 소 매 넓 이 : 40	동정위치 (안깃) : 25
7. 진 동 : 30.5	18. 겉고름길이·넓이 : 장48.5, 단48.5, 넓이1.8
8. 수 구 : 22.5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8.5, 단37.5, 넓이2.3
9. 겉섶 넓 이 (안) : 상19.5, 하35	20. 무 넓 이 : 19
겉섶 넓 이 (밖) : 하14.5	21. 무 길 이 : 110
10. 안 섶 넓 이 : 상10, 하26.5	22. 옆 선 길 이 : 106
11. 겉섶 길 이 (안) : 안112.5, 밖50	23. 옆 선 트 기 : 87
겉섶 길 이 (밖) : 안50, 밖48.5	24. 겨 드 량 바 대 : 2.5×2.5
12. 안섶 길 이 (안) : 105.5	25. 누 비 간 격 : 1.2
안섶 길 이 (밖) : 98.5	26. 안 단 넓 이 : 0.8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襖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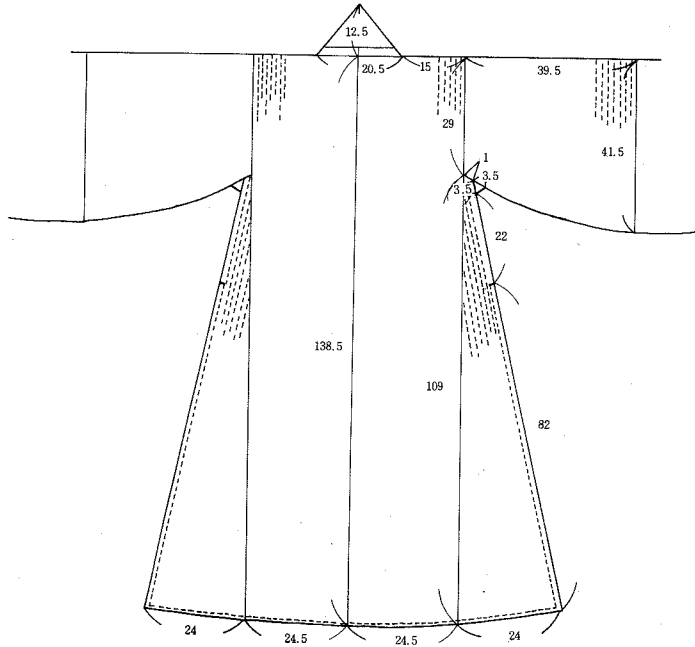


(2) 濃褐色 명주 누비 襪衣

- | | |
|-------------------------------|----------------------------------|
| 1. 총 길이 : 138.5 | 13. 깃 길이 : 105.5 |
| 2. 뒷 품 : 52.5 | 14. 깃 넓이 : 12.5 |
| 3. 화 장 : 113 | 15. 동정 길이 : 62 |
| 4. 고 대 : 20.5 | 16. 동정 넓이 : 10 |
| 5. 소매 길이 : 87.8 | 17. 동정 위치 (깃) : 21.5 |
| 6. 소매 넓이 : 41.5 | 동정 위치 (안깃) : 22 |
| 7. 진 동 : 29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 파손, 단50 넓이2.5 |
| 8. 수 구 : 19.5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1.5, 단23, 넓이1.5 |
| 9. 겹선풀 넓이 (안) : 상13, 하30 | 20. 무 넓이 : 24 |
| 겹선풀 넓이 (밖) : 상3, 하25.5 | 21. 무 길이 : 109 |
| 10. 안선풀 넓이 : 상8.5, 하29.2 | 22. 옆선 길이 : 104 |
| 11. 겹선풀 길이 (안) : 안111, 밖103.5 | 23. 옆선 트기 : 82 |
| 겹선풀 길이 (밖) : 안103.5, 밖100.5 | 24. 겨드랑바대 : 3.5×3.5 |
| 12. 안선풀 길이 (안) : 99.8 | 25. 누비 간격 : 1.5 |
| 안선풀 길이 (밖) : 94.5 | 26. 안단 넓이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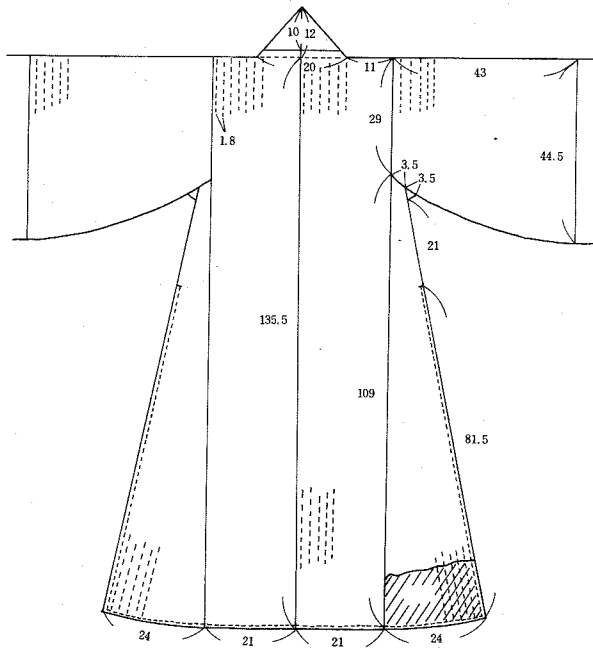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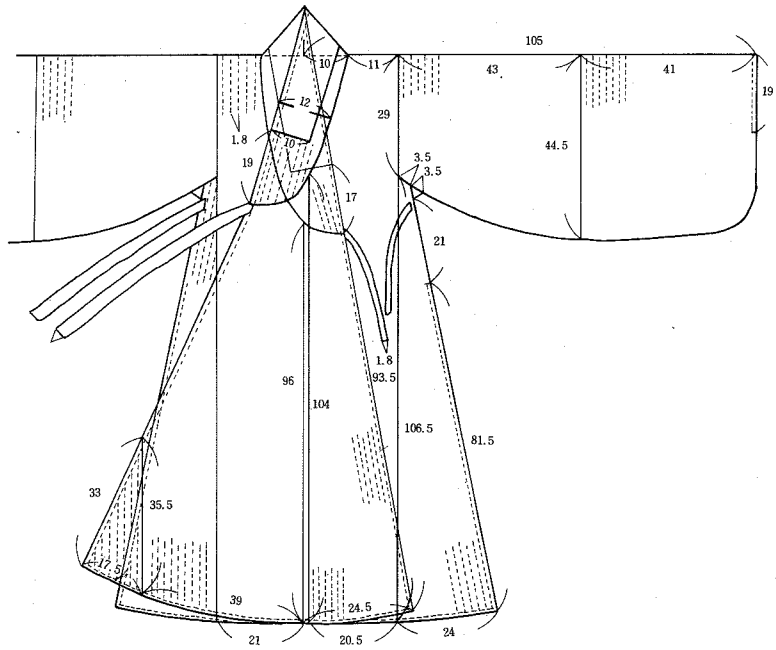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鮮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3) 素色 명주 누비 襪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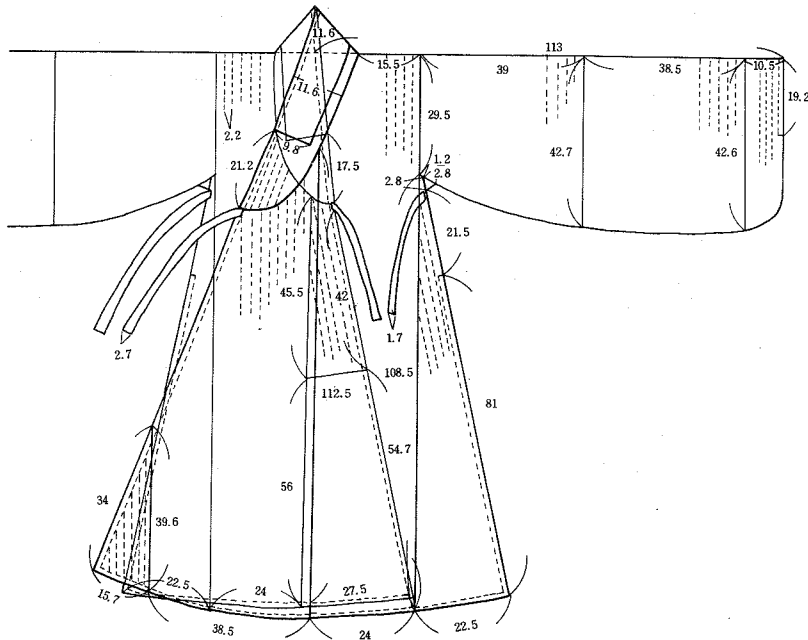
- | | |
|------------------------------|----------------------------------|
| 1. 총 길이 : 135.5 | 13. 깃 길이 : 100 |
| 2. 뒷 품 : 49 | 14. 깃 넓이 : 12 |
| 3. 화 장 : 105 | 15. 동정 길이 : 64 |
| 4. 고 대 : 20 | 16. 동정 넓이 : 10 |
| 5. 소매 길이 : 84 | 17. 동정위치 (겉깃) : 19 |
| 6. 소매 넓이 : 44.5 | 동정위치 (안깃) : 17 |
| 7. 진 동 : 29 | 18. 겹고름길이 · 넓이 : 장44, 단42, 넓이3 |
| 8. 수 구 : 19 | 19. 안고름길이 · 넓이 : 장39, 단34, 넓이1.8 |
| 9. 겹선타 넓이 (안) : 상18, 하39 | 20. 무 넓이 : 24 |
| 겹선타 넓이 (밖) : 상 하17.5 | 21. 무 길이 : 106.5 |
| 10. 안선타 넓이 : 상7, 하24.5 | 22. 옆선 길이 : 102.5 |
| 11. 겹선타 길이 (안) : 안104, 밖35.5 | 23. 옆선 트기 : 81.5 |
| 겹선타 길이 (밖) : 안35.5, 밖33 | 24. 겨드랑바대 : 3.5×3.5 |
| 12. 안선타 길이 (안) : 96 | 25. 누비 간격 : 1.8 |
| 안선타 길이 (밖) : 93.5 | 26. 안단 넓이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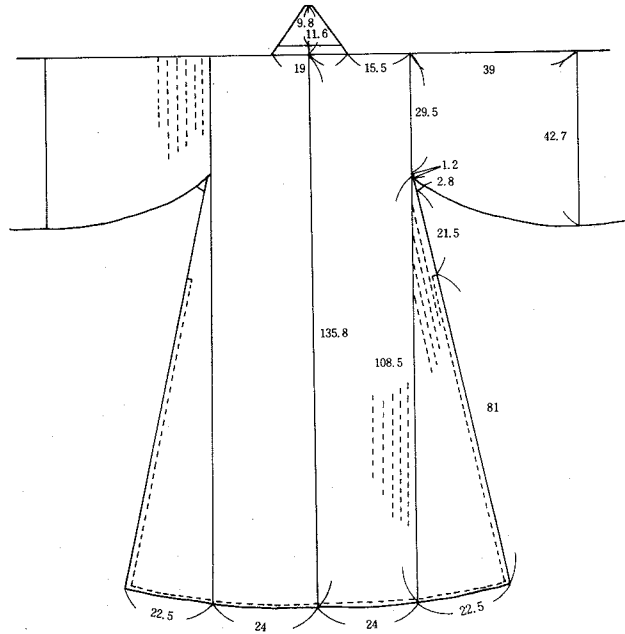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鮮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4) 素色 명주 누비 襪衣

- | | |
|-------------------------------|------------------------------------|
| 1. 총 길이 : 135.8 | 13. 깃 길이 : 102 |
| 2. 뒷 품 : 52 | 14. 깃 넓이 : 11.6 |
| 3. 화 장 : 113 | 15. 동정 길이 : 63.3 |
| 4. 고 대 : 19 | 16. 동정 넓이 : 9.8 |
| 5. 소매 길이 : 88 | 17. 동정위치 (겉깃) : 21.2 |
| 6. 소매 넓이 : 42.7 | 동정위치 (안깃) : 17.5 |
| 7. 진 동 : 29.5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44.5, 단44.5, 넓이2.7 |
| 8. 수 구 : 19.2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1.5, 단31.5, 넓이1.7 |
| 9. 겹섶 넓이 (안) : 상19, 하38.5 | 20. 무 넓이 : 22.5 |
| 겹섶 넓이 (밖) : 상 하15.7 | 21. 무 길이 : 108.5 |
| 10. 안 섶 넓이 : 상5.5, 하27.5 | 22. 옆선 길이 : 102.5 |
| 11. 겹섶 길이 (안) : 안112.5, 밖39.6 | 23. 옆선 트기 : 81 |
| 겹섶 길이 (밖) : 안39.6, 밖34 | 24. 겨드랑바대 : 2.8×2.8 |
| 12. 안섶 길이 (안) : 101.5 | 25. 누비 간격 : 2.2 |
| 안섶 길이 (밖) : 96.7 | 26. 안 단 넓이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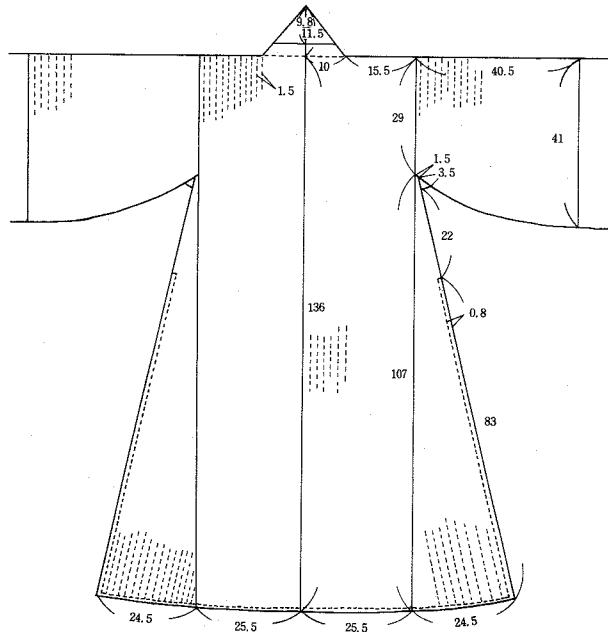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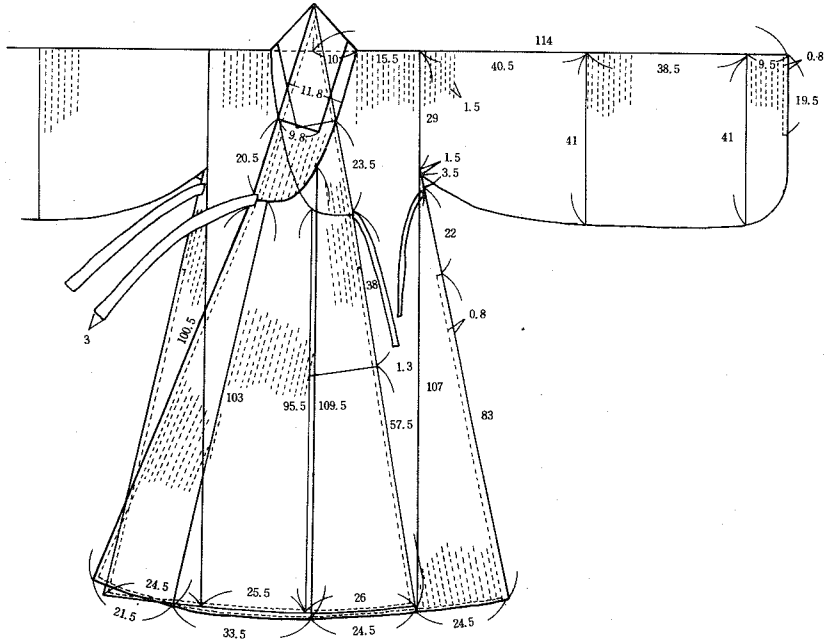




(5) 素色 명주 누비 襜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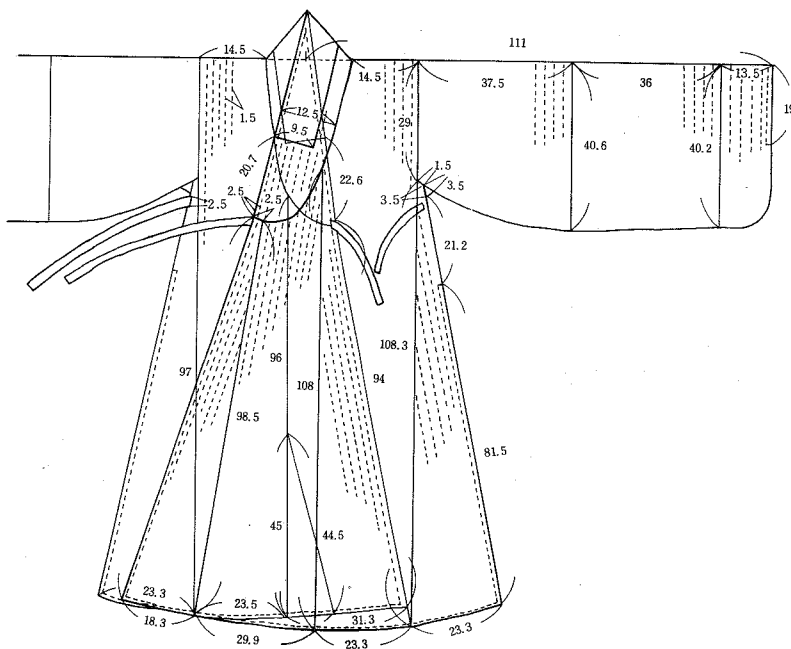
- | | |
|------------------------------|------------------------------------|
| 1. 총 길이 : 136 | 13. 깃 길이 : 106 |
| 2. 윗 품 : 54 | 14. 깃 넓이 : 11.8 |
| 3. 화장 : 114 | 15. 동정 길이 : 62 |
| 4. 고대 : 20 | 16. 동정 넓이 : 9.8 |
| 5. 소매 길이 : 88.5 | 17. 동정 위치 (겉깃) : 20.5 |
| 6. 소매 넓이 : 41 | 동정 위치 (안깃) : 23.5 |
| 7. 진동 : 29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45, 단37, 넓이3 |
| 8. 수구 : 19.5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0.5, 단19.5, 넓이1.3 |
| 9. 겹섶 넓이 (안) : 상12, 하35.5 | 20. 무 넓이 : 24.5 |
| 겹섶 넓이 (밖) : 상4, 하21.5 | 21. 무 길이 : 107 |
| 10. 안섶 넓이 : 상10.5, 하26 | 22. 옆선 길이 : 105 |
| 11. 겹섶 길이 (안) : 안109.5, 밖103 | 23. 옆선 트기 : 83 |
| 겹섶 길이 (밖) : 안103, 밖100.5 | 24. 겨드랑바대 : 3.5×3.5 |
| 12. 안섶 길이 (안) : 95.5 | 25. 누비 간격 : 1.5 |
| 안섶 길이 (밖) : 95.5 | 26. 안단 넓이 : 0.8 |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襖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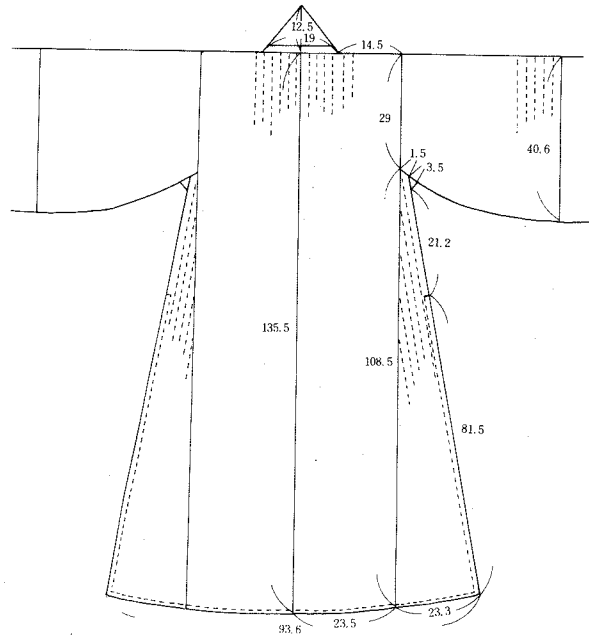


(6) 褐色 명주 누비 縵衣

- | | |
|-----------------------------|------------------------------------|
| 1. 총 길이 : 135.5 | 13. 깃 길이 : 106 |
| 2. 뒷 품 : 51 | 14. 깃 넓이 : 12.5 |
| 3. 화 장 : 111 | 15. 동정 길이 : 62.7 |
| 4. 고 대 : 19 | 16. 동정 넓이 : 9.5 |
| 5. 소매 길이 : 87 | 17. 동정 위치 (깃깃) : 20.7 |
| 6. 소매 넓이 : 40.6 | 동정 위치 (안깃) : 22.6 |
| 7. 진 동 : 29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47.7, 단44.8, 넓이2.5 |
| 8. 수 구 : 19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2.7, 단18.5, 넓이1.8 |
| 9. 겹섷 넓이 (안) : 상14.5, 하29.9 | 20. 무 넓이 : 23.3 |
| 겹섷 넓이 (밖) : 상3, 하18.3 | 21. 무 길이 : 108.5 |
| 10. 안 섷 넓이 : 상12, 하31.3 | 22. 옆 선 길이 : 102.7 |
| 11. 겹섷 길이 (안) : 안108, 밖98.5 | 23. 옆 선 트 기 : 81.5 |
| 겹섷 길이 (밖) : 안98.5, 밖97 | 24. 겨 드 랑 바 대 : 3.5×3.5 |
| 12. 안 섷 길이 (안) : 96 | 25. 누 비 간 격 : 1.5 |
| 안 섷 길이 (밖) : 94 | 26. 안 단 넓이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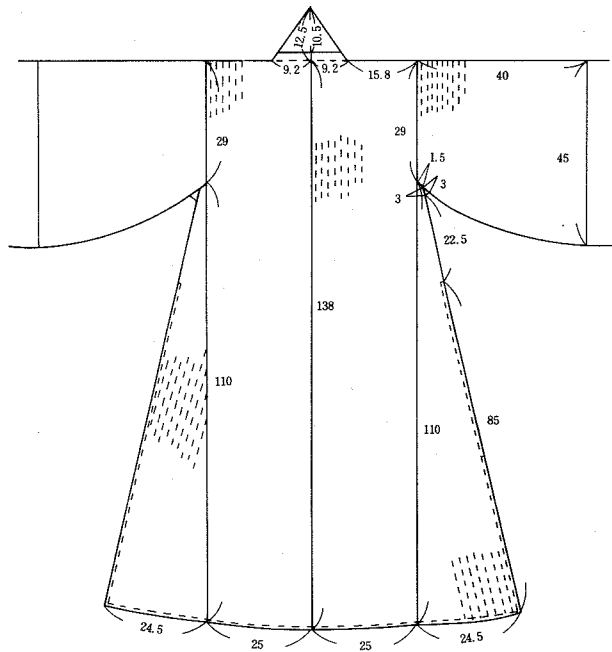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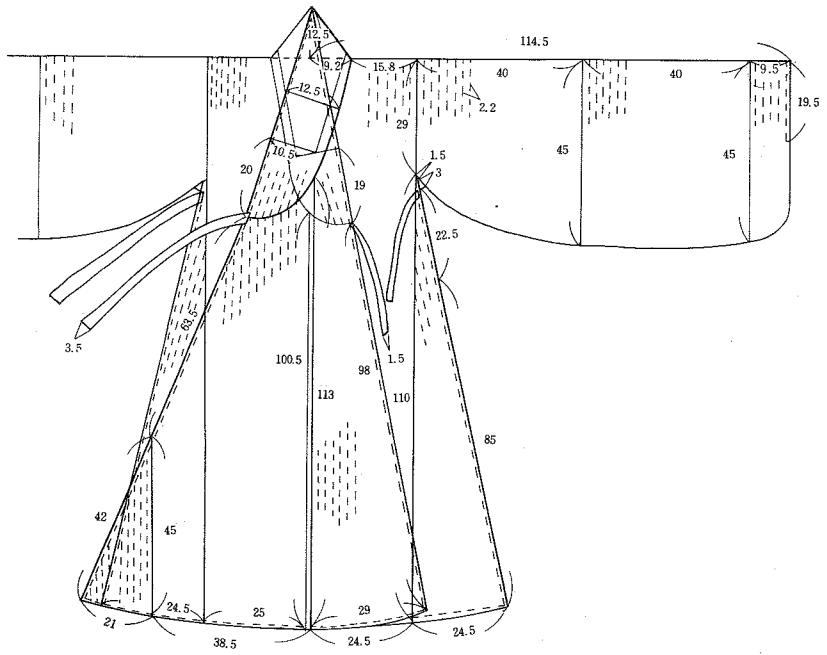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解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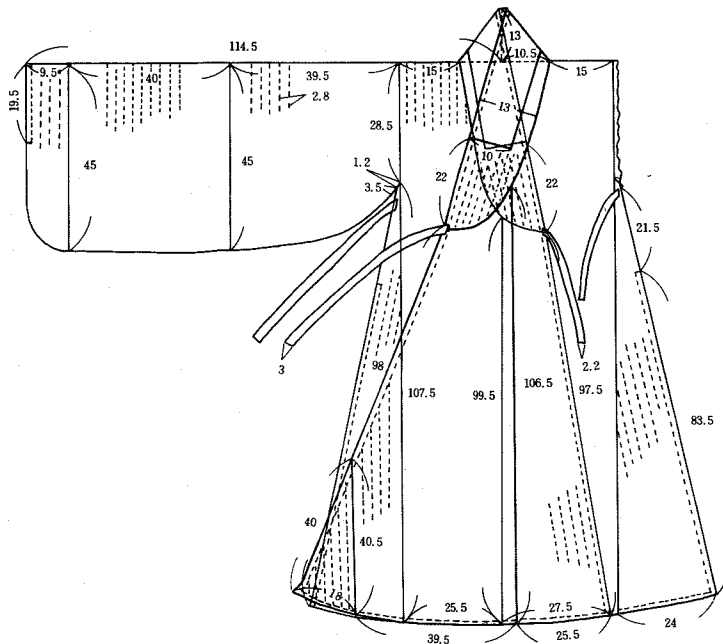
(7) 濃褐色 명주 누비 襪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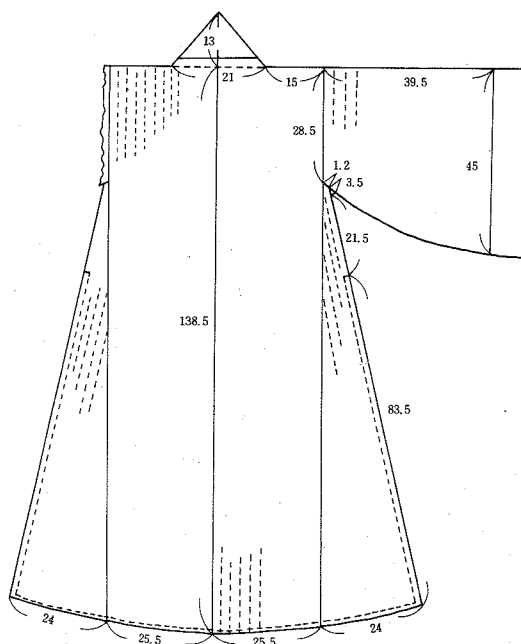
- | | |
|---------------------------|----------------------------------|
| 1. 총 길 이 : 138 | 13. 깃 길 이 : 102.5 |
| 2. 뒷 품 : 53 | 14. 깃 넓 이 : 12.5 |
| 3. 화 장 : 114.5 | 15. 동 정 길 이 : 63.5 |
| 4. 고 대 : 18.4 | 16. 동 정 넓 이 : 10.5 |
| 5. 소 매 길 이 : 89.5 | 17. 동정위치(겉깃) : 20 |
| 6. 소 매 넓 이 : 45 | 동정위치(안깃) : 19 |
| 7. 진 동 : 29 | 18. 겉고름길이·넓이 : 장42.5, 단37, 넓이3.5 |
| 8. 수 구 : 19.5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 파손, 단22, 넓이1.5 |
| 9. 겉섶넓이(안) : 상16.5, 하38.5 | 20. 무 넓 이 : 24.5 |
| 겉섶넓이(밖) : 상 하21 | 21. 무 길 이 : 110 |
| 10. 안 섶 넓 이 : 상10.5, 하29 | 22. 옆 선 길 이 : 107.5 |
| 11. 겉섶길이(안) : 안113, 밖45 | 23. 옆 선 트 기 : 85 |
| 겉섶길이(밖) : 안45, 밖42 | 24. 거 드 량 바 대 : 3×3 |
| 12. 안섶길이(안) : 100.5 | 25. 누 비 간 격 : 2.2 |
| 안섶길이(밖) : 98 | 26. 안 단 넓 이 : 0.8 |



(8) 褐色 명주 누비 襪衣

- | | |
|----------------------------------|---------------------------------------|
| 1. 총 길이 : 138.5 | 13. 깃 길이 : 104 |
| 2. 뒷 품 : 53 | 14. 깃 넓이 : 13 |
| 3. 화 장 : 114.5 | 15. 동정 길이 : 60 |
| 4. 고 대 : 21 | 16. 동정 넓이 : 10 |
| 5. 소매 길이 : 89 | 17. 동정 위치 (깃깃) : 22 |
| 6. 소매 넓이 : 45 | 동정 위치 (안깃) : 22 |
| 7. 진 동 : 28.5 | 18. 겹고름길이 · 넓이 : 장 49, 단 파손, 넓이 3 |
| 8. 수 구 : 19.5 | 19. 안고름길이 · 넓이 : 장 25, 단 22.5, 넓이 2.2 |
| 9. 겹선타 넓이 (안) : 상 16, 하 39.5 | 20. 무 넓이 : 24 |
| 겹선타 넓이 (밖) : 상 18 | 21. 무 길이 : 107.5 |
| 10. 안선타 넓이 : 상 10, 하 27.5 | 22. 옆선 길이 : 105 |
| 11. 겹선타 길이 (안) : 안 106.5, 밖 40.5 | 23. 옆선 트기 : 83.5 |
| 겹선타 길이 (밖) : 안 40.5, 밖 40 | 24. 겨드랑바대 : 3.5 × 3.5 |
| 12. 안선타 길이 (안) : 99.5 | 25. 누비 간격 : 2.8 |
| 안선타 길이 (밖) : 97.5 | 26. 안단 넓이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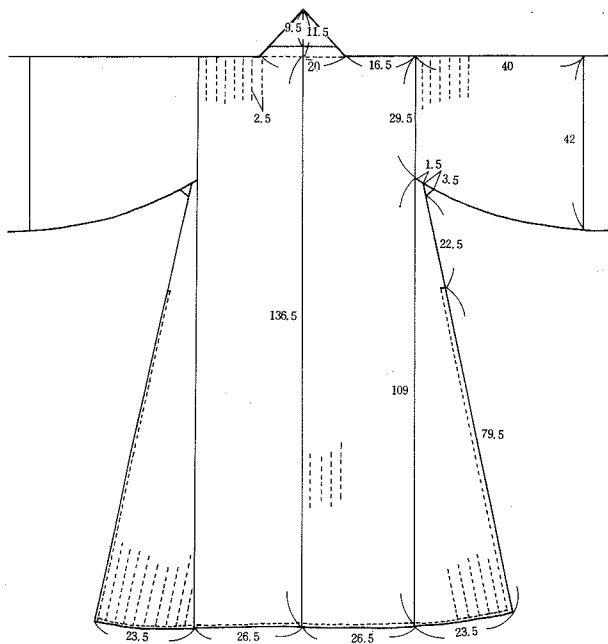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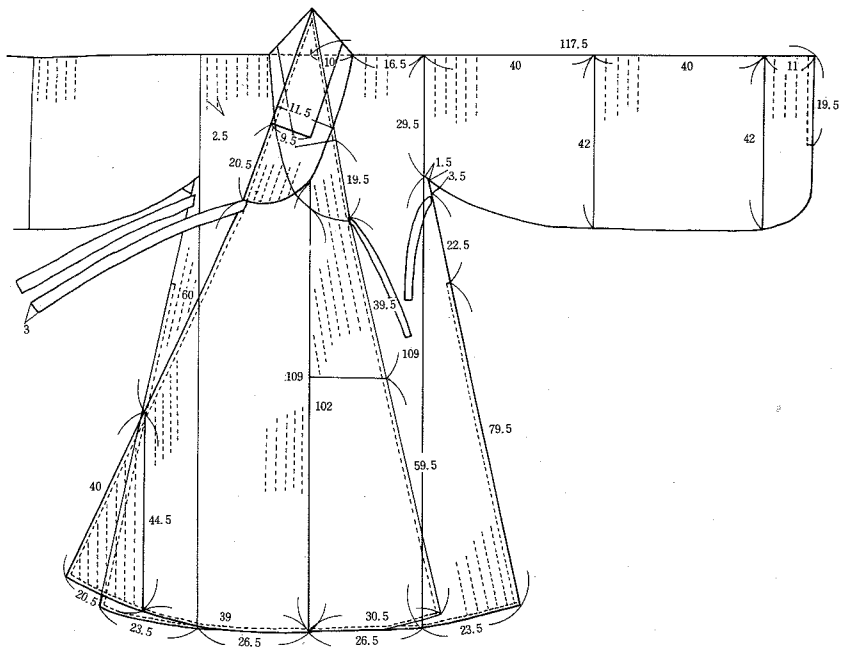




(9) 濃褐色 명주 누비 弊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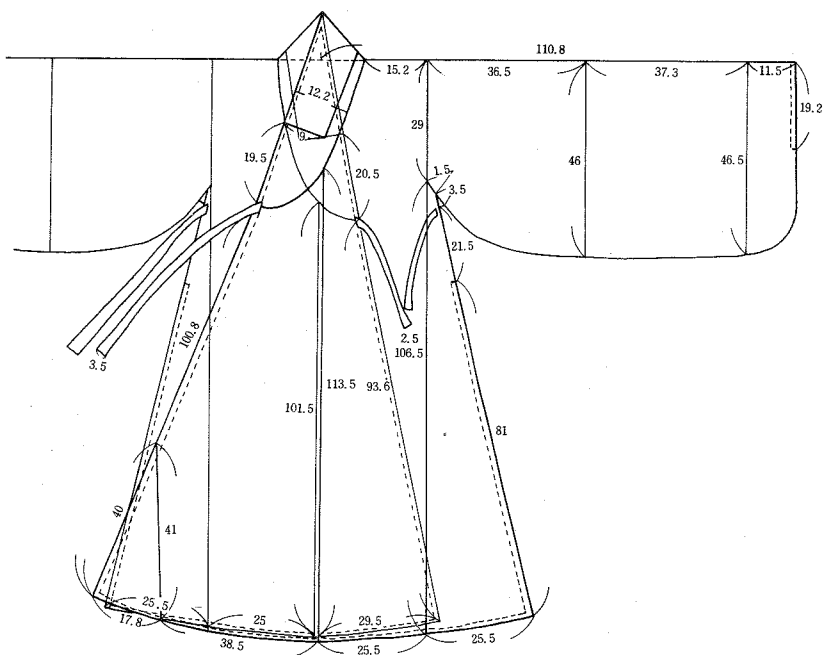
- | | |
|------------------------------|----------------------------------|
| 1. 총 길 이 : 136.5 | 13. 깃 길 이 : 100 |
| 2. 뒷 품 : 56 | 14. 깃 넓 이 : 11.5 |
| 3. 화 장 : 117.5 | 15. 동 정 길 이 : 60 |
| 4. 고 대 : 20 | 16. 동 정 넓 이 : 9.5 |
| 5. 소매 길 이 : 91 | 17. 동정위치(겉깃) : 20.5 |
| 6. 소매 넓 이 : 42 | 동정위치(안깃) : 19.5 |
| 7. 진 동 : 29.5 | 18. 겉고름길이·넓이 : 장47, 단44, 넓이3 |
| 8. 수 구 : 19.5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4.5, 단25, 넓이1.5 |
| 9. 겉섶 넓 이 (안) : 상16.5, 하39 | 20. 무 넓 이 : 23.5 |
| 겉섶 넓 이 (밖) : 상 하20.5 | 21. 무 길 이 : 109 |
| 10. 안섶 넓 이 : 상9.5, 하30.5 | 22. 옆 선 길 이 : 102 |
| 11. 겉섶 길 이 (안) : 안109, 밖44.5 | 23. 옆 선 트 기 : 79.5 |
| 겉섶 길 이 (밖) : 안44.5, 밖40 | 24. 겨 드 랑 바 대 : 3.5×3.5 |
| 12. 안섶 길 이 (안) : 102 | 25. 누 비 간 격 : 2.5 |
| 안섶 길 이 (밖) : 99 | 26. 안 단 넓 이 : 0.8 |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翁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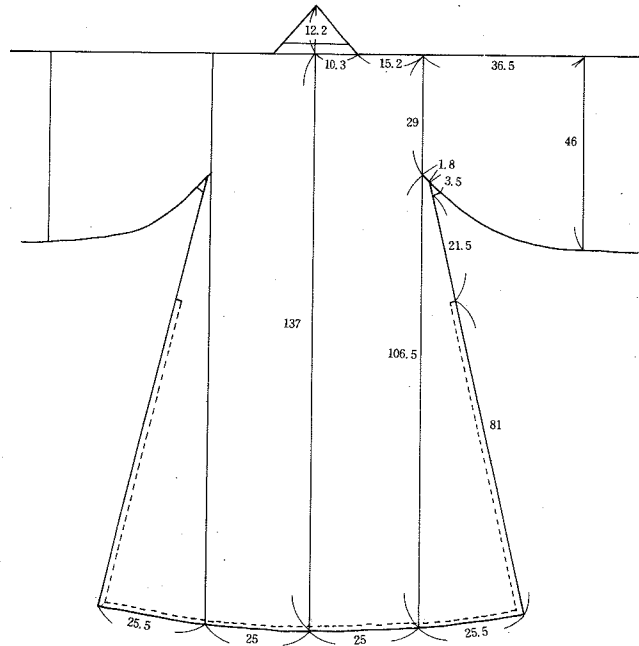


(10) 濃褐色 명주 縵衣

- | | |
|------------------------------|----------------------------------|
| 1. 총 길 이 : 137 | 13. 깃 길 이 : 101 |
| 2. 뒷 품 : 54 | 14. 깃 넓 이 : 12.2 |
| 3. 화 장 : 110.8 | 15. 동 정 길 이 : 61 |
| 4. 고 대 : 20.6 | 16. 동 정 넓 이 : 9 |
| 5. 소매 길 이 : 85.3 | 17. 동정위 치 (깃깃) : 19.5 |
| 6. 소매 넓 이 : 46.5 | 동정위 치 (안깃) : 20.5 |
| 7. 진 동 : 29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48.2, 단41, 넓이3.5 |
| 8. 수 구 : 19.2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0.5, 단30, 넓이2.5 |
| 9. 겹섶 넓 이 (안) : 상16, 하38.5 | 20. 무 넓 이 : 25.5 |
| 겹섶 넓 이 (밖) : 상 하17.8 | 21. 무 길 이 : 106.5 |
| 10. 안 섶 넓 이 : 상9.5, 하29.5 | 22. 옆 선 길 이 : 102.5 |
| 11. 겹섶 길 이 (안) : 안113.5, 밖41 | 23. 옆 선 트 기 : 81 |
| 겹섶 길 이 (밖) : 안41, 밖40 | 24. 겨 드 랑 바 대 : 3.5×3.5 |
| 12. 안 섶 길 이 (안) : 101.5 | 25. 누 비 간 격 : . |
| 안 섶 길 이 (밖) : 93.6 | 26. 안 단 넓 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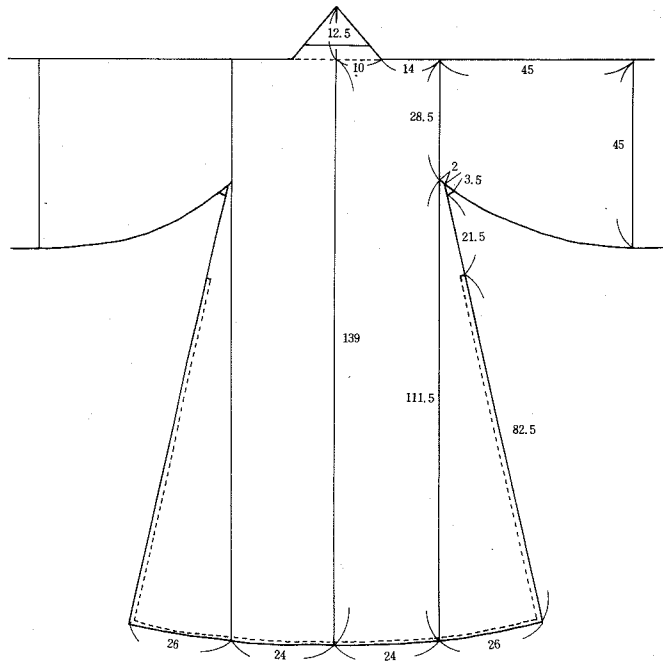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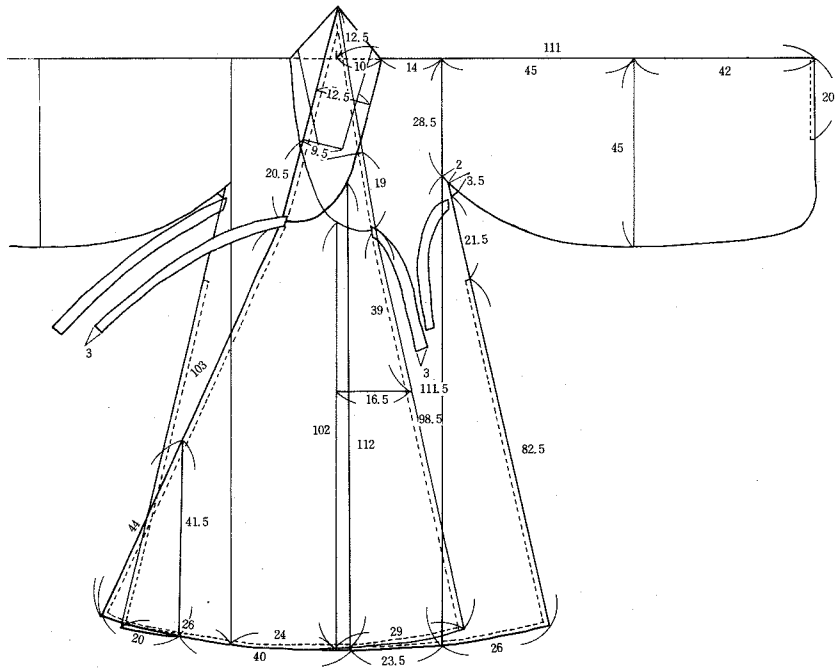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鮮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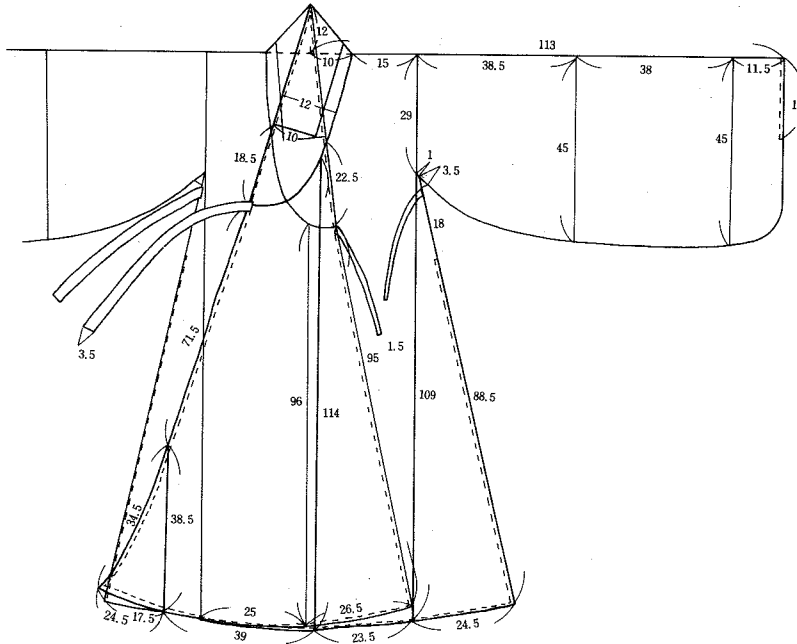
(11) 素色 명주 襪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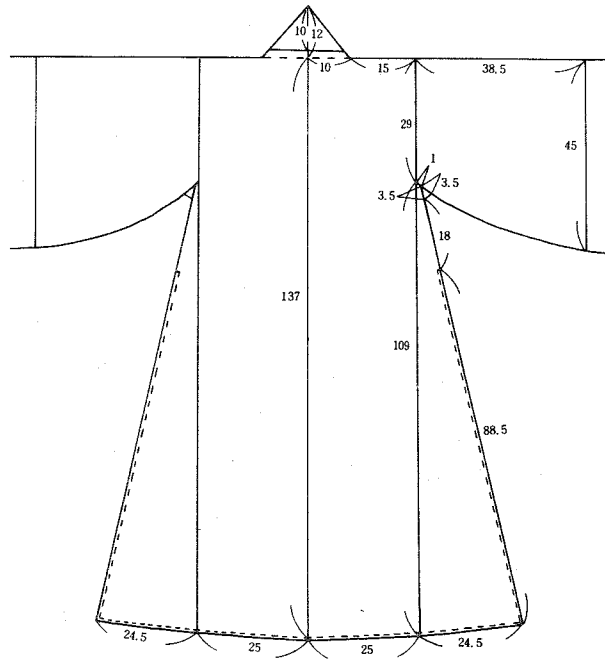
- | | |
|-------------------------------|-----------------------------------|
| 1. 총 길이 : 139 | 13. 깃 길이 : 98.5 |
| 2. 뒷 품 : 52 | 14. 깃 넓이 : 12.5 |
| 3. 화 장 : 111 | 15. 동정 길이 : 59 |
| 4. 고 대 : 20 | 16. 동정 넓이 : 9.5 |
| 5. 소매 길이 : 87 | 17. 동정 위치 (겉깃) : 20.5 |
| 6. 소매 넓이 : 45 | 동정 위치 (안깃) : 19 |
| 7. 진 동 : 28.5 | 18. 겉고름길이·넓이 : 장 파손, 단 42, 넓이 3 |
| 8. 수 구 : 20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 35.5, 단 파손, 넓이 3 |
| 9. 겉섶 넓이 (안) : 상 15.5, 하 40 | 20. 무 넓이 : 26 |
| 겉섶 넓이 (밖) : 상 하 20 | 21. 무 길이 : 111.5 |
| 10. 안섶 넓이 : 상 9, 하 29 | 22. 옆선 길이 : 104 |
| 11. 겉섶 길이 (안) : 안 112, 밖 41.5 | 23. 옆선 트기 : 82.5 |
| 겉섶 길이 (밖) : 안 41.5, 밖 44 | 24. 겨드랑바대 : 3.5×3.5 |
| 12. 안섶 길이 (안) : 102 | 25. 누비 간격 : . |
| 안섶 길이 (밖) : 98.5 | 26. 안 단 넓이 : . |



(12) 濃褐色 명주 襪衣

- | | |
|------------------------------|------------------------------------|
| 1. 총 길 이 : 137 | 13. 깃 길 이 : 104 |
| 2. 뒷 품 : 52 | 14. 깃 넓 이 : 12 |
| 3. 화 장 : 113 | 15. 동 정 길 이 : 63 |
| 4. 고 대 : 20 | 16. 동 정 넓 이 : 10 |
| 5. 소매 길 이 : 88 | 17. 동정위치(깃깃) : 18.5 |
| 6. 소매 넓 이 : 45 | 동정위치(안깃) : 22.5 |
| 7. 진 동 : 29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 파손, 단31.5, 넓이3.5 |
| 8. 수 구 : 19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30.5, 단 파손, 넓이 1.5 |
| 9. 겹섷 넓 이 (안) : 상17, 하39 | 20. 무 넓 이 : 24.5 |
| 겹섷 넓 이 (밖) : 상 하17.5 | 21. 무 길 이 : 109 |
| 10. 안 섷 넓 이 : 상6.5, 하26.5 | 22. 옆 선 길 이 : 106.5 |
| 11. 겹섷 길 이 (안) : 안114, 밖38.5 | 23. 옆 선 트 기 : 88.5 |
| 겹섷 길 이 (밖) : 안38.5, 밖34.5 | 24. 겨 드 랑 바 대 : 3.5×3.5 |
| 12. 안 섷 길 이 (안) : 96 | 25. 누 비 간 격 : . |
| 안 섷 길 이 (밖) : 95 | 26. 안 단 넓 이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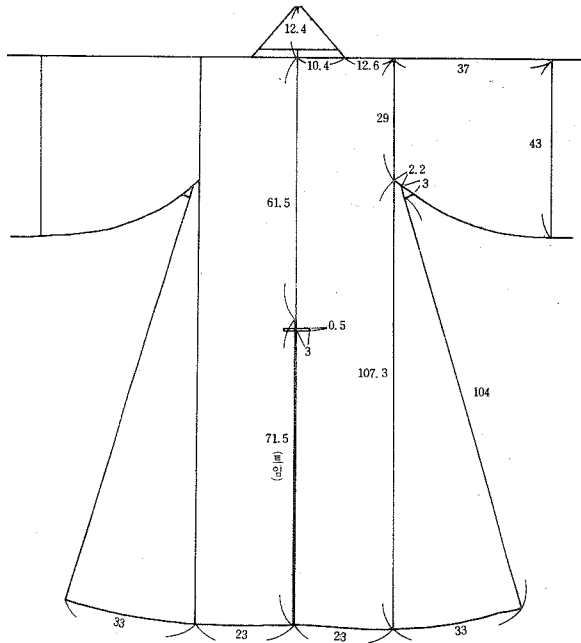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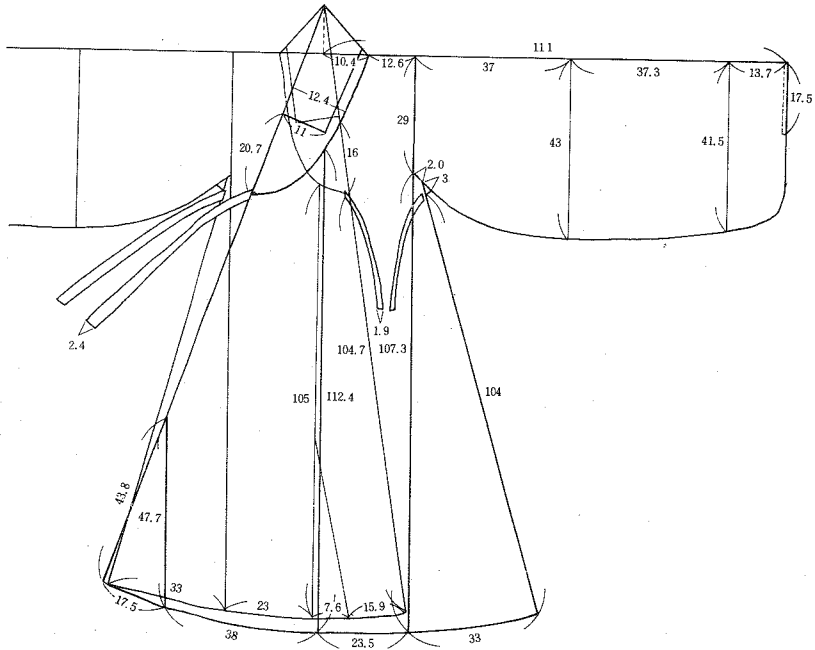




2) 뒤트임 褄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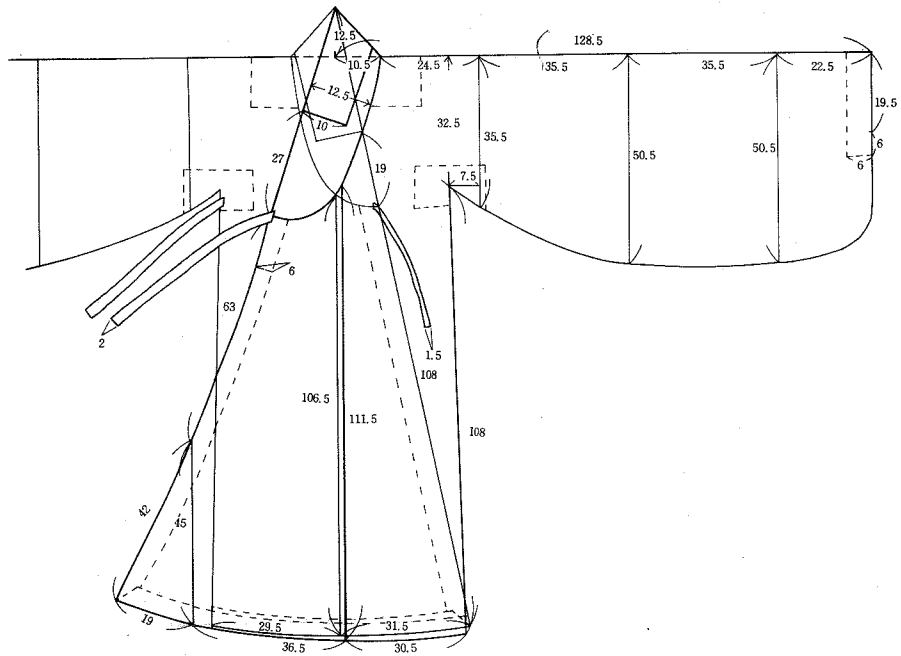
- | | |
|------------------------------|------------------------------------|
| 1. 총 길 이 : 133 | 14. 깃 넓 이 : 12.4 |
| 2. 뒷 품 : 50 | 15. 동 정 길 이 : 58.9 |
| 3. 화 장 : 111 | 16. 동 정 넓 이 : 11 |
| 4. 고 대 : 20.8 | 17. 동정위치 (겉깃) : 20.7 |
| 5. 소매 길이 : 88 | 동정위치 (안깃) : 16 |
| 6. 소매 넓 이 : 43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54.5, 단54.5, 넓이2.4 |
| 7. 진 동 : 29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 29, 단28.5, 넓이1.9 |
| 8. 수 구 : 17.5 | 20. 무 넓 이 : 33 |
| 9. 겹섶넓이 (안) : 상18, 하38 | 21. 무 길 이 : 107.3 |
| 겹섶넓이 (밖) : 상 하17.5 | 22. 옆 선 길 이 : 104 |
| 10. 안 섶 넓 이 : 상7, 하23.5 | 23. 옆 선 트 기 : . |
| 11. 겹섶길이 (안) : 안112.4, 밖47.7 | 24. 겨 드 랑 바 대 : 3×3 |
| 겹섶길이 (밖) : 안47.7, 밖43.8 | 25. 누 비 간 격 : . |
| 12. 안 섶 길이 (안) : 105 | 26. 안 단 넓 이 : . |
| 안 섶 길이 (밖) : 104.7 | 27. 뒤 트 기 : 71.5 |
| 13. 깃 길 이 : 95.6 | |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襖衣 復原 略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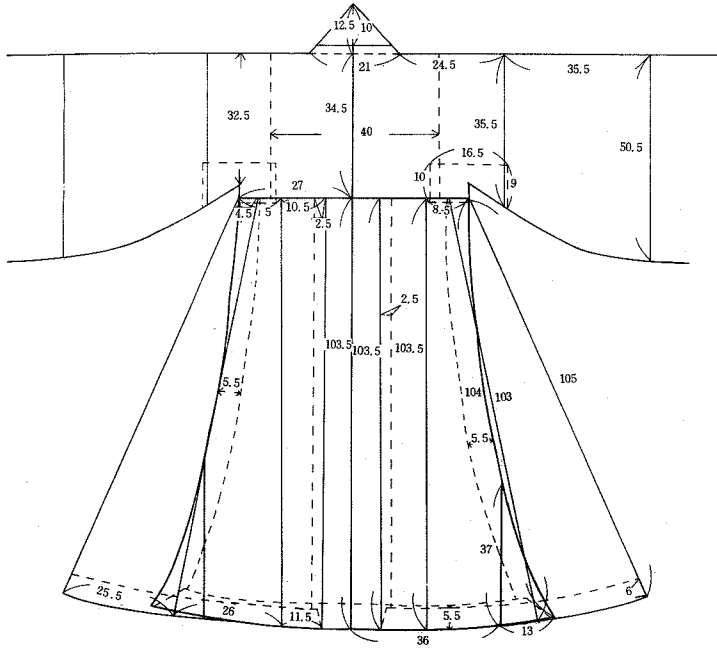


道 袍

- | | |
|------------------------------|-----------------------------------|
| 1. 총 길 이 : 138 | 15. 등 정 길 이 : 61.5 |
| 2. 뒷 품 : 54 | 16. 등 정 넓 이 : 10 |
| 3. 화 장 : 128.5 | 17. 등 정 위 치 (겉깃) : 27 |
| 4. 고 대 : 21 | 등 정 위 치 (안깃) : 19 |
| 5. 소 매 길 이 : 101 | 18. 겹고름길이·넓이 : 장42, 단41.5, 넓이2 |
| 6. 소 매 넓 이 : 50.5 | 19. 안고름길이·넓이 : 장 파손, 단22.5, 넓이1.5 |
| 7. 진 동 : 32.5 | 20. 무 넓 이 : 25.5 |
| 8. 수 구 : 19.5 | 21. 무 길 이 : 108 |
| 9. 겹섶 넓 이 (안) : 상17, 하36.5 | 22. 옆 선 길 이 : 105 |
| 겹섶 넓 이 (밖) : 상 하19 | 23. 옆 선 트 기 : . |
| 10. 안 섶 넓 이 : 상9.5, 하31.5 | 24. 겨 드 량 바 대 : 16.5×10 |
| 11. 겹섶 길 이 (안) : 안111.5, 밖45 | 25. 누 비 간 격 : . |
| 겹섶 길 이 (밖) : 안45, 밖42 | 26. 안 단 넓 이 : 6 뒤트임2.5, 전삼5.5 |
| 12. 안 섶 길 이 (안) : 106.5 | 27. 전 삼 넓 이 : 상54, 하98 |
| 안 섶 길 이 (밖) : 108 | 28. 전 삼 길 이 : 103.5 |
| 13. 깃 길 이 : 107.5 | 29. 등 길 이 : 34.5 |
| 14. 깃 넓 이 : 12.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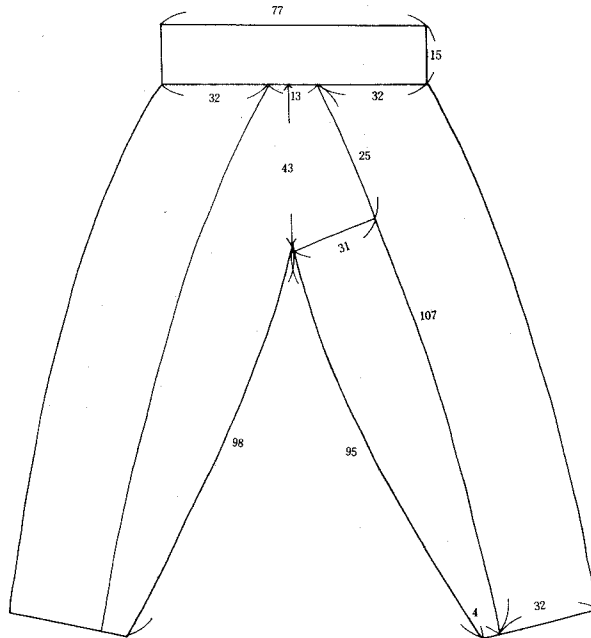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2. 袴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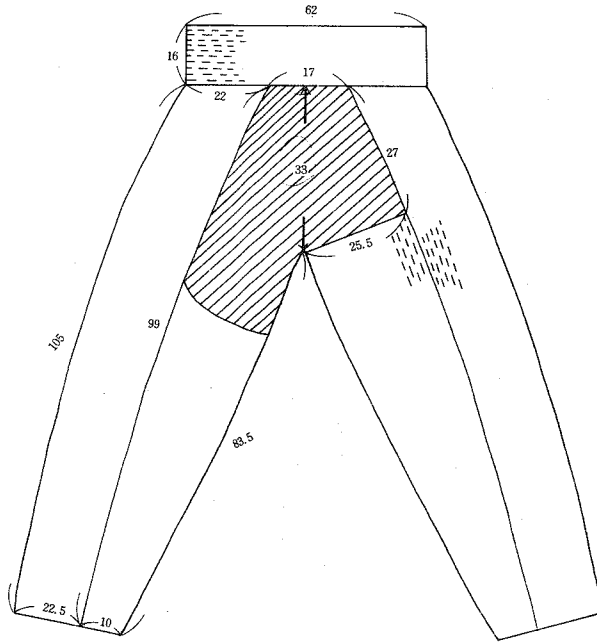
(1) 素色 명주 바지




1. 총 길이 : 108
2. 허리둘레 : 154
3. 허리나비 : 15
4. 밑 위 : 43
5. 부 리 : 36
6. 배 래 : 98

(2) 素色 명주 누비 바지

1. 총 길이 : 105
2. 허리둘레 : 124
3. 허리나비 : 16
4. 밑 위 : 33
5. 부 리 : 32.5
6. 배 래 : 83.5



 파손된 부분

IV. 出土襪衣의 形態構造 및 縫製의 特徵

1. 袍

옆트임 襪衣 12點, 뒤트임 襪衣 1點, 道袍 1點 總 14點이다.

1) 옆트임 襪衣

① 襪衣의 表色이 素色 5點, 濃褐色 5點, 褐色 2點이고, 裏色은 素色 7點 軟褐色 4點, 濃褐色 1點으로 모두 12點이다. 表色 裏色과의 關係를 보면 濃褐色·軟褐色 1點, 濃褐色·素色 4點, 褐色·軟褐色 1點, 褐色·素色 1點, 素色·素色 2點, 素色·軟褐色 2點, 素色·濃褐色 1點으로 素色 2點을 제외하고는 안팎의 색을 다르게 넣어 주었다.

② 襪衣 12點 모두 안팎이 고운 明紬이며 42±4cm의 다양한 폭이다.

③ 겹襪衣는 3點, 누비襪衣는 9點으로 누빈 폭은 가장 섬세하게 누빈 것이 1.2cm 폭에서 2±0.8cm의 폭으로 식서방향을 따라 한 두올뜨기의 고운 홈질이다. 봉제실은 가는 비단실을 사용하였으며 사이에 솜을 두지는 않았다. 이는 솜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누빔이 아니라 안팎을 고정시키고 장식을 위한 누빔으로 보인다.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齋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④총길이는 $137 \pm 2\text{cm}$ 로 보통 袍類보다 다소 길이가 길므로 襪衣의 主人公의 身長이 꽤 컸으리라 추측된다.

⑤깃은 겹깃 안깃이 모두 오늘날의 겹깃처럼 설편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의 칼깃으로 양깃 모두 깃나비 $12 \pm 0.5\text{cm}$ 의 매우 넓은 것으로 가장 넓은 것이 13cm 이다. 깃길어도 모두 100cm 가 넘는 길이다. 오늘날의 袍類가 겹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설편에서 따로 내어달은 목판깃임에 그 형태 구조상 다르다.

⑥겉설편은 12點 모두 2중설편이나 그 形態 構造上 두가지 種類가 있다. 3點은 겉설편두장이 모두 깃에 연결되어 있다. 안쪽설편의 어손술기를 길쪽에 대었으며 시접은 설편쪽으로 보냈으며 바깥설편의 어손술기는 안쪽설편의 곧은술기에 대어 시접은 안쪽설편으로 보냈다. 설편밖은 곧은술기로 되어있다. 9點은 그 構造상 두장의 설편으로 보이나 이는 비단폭이 좁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편아래 도련넓이가 충분히 넓지 못함을 보충하기 위한 봉제상의 불가피로 보이며 깃에는 설편이 한장이다. 곧은 술기를 길에다 대었기에 설편 바깥은 어손술기로 되어 있으며 설편코가 매우 아름다운 곡선이다. 오늘날의 袍·저고리의 설편이 한장인 것의 구조와 같다.

⑦안설편은 모두 고대 중심선에서부터 내어 달았으며 설편도련넓이 $27 \pm 3\text{cm}$ 이다. 설편의 어손술기를 길쪽에 대었으며 시접방향은 길쪽으로 보냈다. 설편바깥선은 곧은 술기이다.

⑧양옆선에 앞뒤로 무를 달았으며 무의 어손술기를 길에 대었고 시접은 길쪽으로 보냈다. 무귀리 이은 옆중심선은 곧은 술기이며 진동에서 약 20cm 이상 내려와 트임을 주었다. 트임의 길이는 $84 \pm 4\text{cm}$ 가량이며 옆선트기끝은 약 1.8cm 가량 表色의 배색에 맞춘 비단실로 사뜨기 마물림 장식을 하였다.

⑨겨드랑에는 약 3.5cm 의 정사각형 무로 활동성을 보완한 기능적인 겨드랑바대를 모두 대주었다.

⑩소매통은 모두 40cm 가 넘는 넓은소매로 가장 넓은것이 46.5cm 이다. 소매길어도 $88 \pm 2\text{cm}$ 의 길고 넓은 廣袖이다.

⑪袖口는 약 19cm 정도이며 끝에는 表色과 배색 맞춘 비단실로 사뜨기 마물림 장식을 하였다.

⑫동정은 모두 素色명주로 넓은 9.5cm 10cm 가량으로 매우 넓다. 안쪽으로 1cm 가량 넘기고 겉에서 숨뜨기 한 것이 오늘날의 동정다는 바느질법과 마찬가지로 깃머리 끝에서 약 20cm 가량 높이가 올라가 달려있다.

⑬고름은 겉고름 넓이가 가장 좁은 것이 1.8cm 이며 그외엔 모두 약 3cm 정도로 길이는 $46 \pm 3\text{cm}$ 정도이다. 表色과 다른 色의 명주로 고름을 대어준 것이 단순히 고름의 用度가 앞을 여미기 위한 機能性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름의 裝飾性이 考慮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고름은 넓이 $2 \pm 0.5\text{cm}$ 이며 길이 또한 겉고름과 달리 짧아 $30 \pm 5\text{cm}$ 이다.

⑭누비襪衣 경우에만 9點 모두 袖口, 옆선의 앞뒤트임, 앞뒤도련, 설편을 돌아가며 表色의 배색과 어울리는 色으로 0.8cm 나비의 명주안단을 대주어 곱게 감침질하였다.

⑮봉제실은 모두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2) 뒤트임 氈衣

- ① 表色은 濃褐色 裏色은 변색된 軟褐色으로 안팎 모두 고운 明細이다.
- ② 총길이 133cm로 함께 出土된 다른 氈衣類보다 다소 짧은 편이다.
- ③ 깃은 겹깃 안깃이 모두 칼깃이며 깃길이 95.6c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 ④ 쇠는 곧은솔기가 길쪽에 달리고 쇠바깥은 어손솔기이다. 시접은 쇠쪽으로 보냈다.
- ⑤ 양옆선에 앞뒤로 무가 달렸으며 무의 어손솔기는 길쪽으로 대어 주고 시접방향은 길쪽으로 보냈으며 무의곧은솔기인 옆중심선은 모두 박아 시접을 뒤쪽으로 보냈다.
- ⑥ 겨드랑이에는 사방3cm의 정사각형 무로 겨드랑바대를 대 주었다.
- ⑦ 소매통은 43cm이며 소매길이 88cm인 廣袖이다.
- ⑧ 袖口는 17.5cm로 비교적 약간 좁다.
- ⑨ 동정넓이 11cm로 매우 넓다.
- ⑩ 겹고름은 폭2.4cm로 좁으나 길이는 54.5cm로 가장 길다.
- ⑪ 뒤고대 중심선에서부터 61.5cm 가량 내려와 양옆으로 71.5cm 가량 뒤트기를 하였으며 트기 끝에는 단추매듭으로 마무리 장식을 하고 있다.
- ⑫ 명주폭은 약39cm이다.
- ⑬ 봉제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3) 道 袍

- ① ㅍ임이 굵은실로 거칠게 짠 명주로 변색된 黃綠色 道袍이며 색상·천의 질감 형태 구조가 유일하며 함께 出土된 氈衣類와 매우 다르다.
- ② 총길이 138cm로 길이에 별반 다름이 없다.
- ③ 깃은 겹깃 안깃 양깃이 모두 칼깃이다.
- ④ 소매통이 50.5cm로 다른 氈衣보다 5~10cm 가량 더 넓고 소매길이는 10cm나 되어 氈衣보다 약15cm가량 훨씬 긴 매우 넓고 긴 廣袖로 道袍가 다른 袍類에 비해 上格으로 취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쇠의 構造는 다른 氈衣와 同一하다.
- ⑥ 동정은 겹깃머리에서 27cm 가량 떨어져 매우 높이 달려있다. 이는 고운 素色 명주를 사용하였다.
- ⑦ 양옆선에 앞뒤 무가 있으나 무의 옆 中心線이 뒷길쪽으로 4.5cm 가량 넘어갔다.
- ⑧ 뒷길은 진동선에서 2cm 가량 내려와 2분하여 上·下를 切開했으며 허리 아래는 뒤중심선에서 부터 좌우 7cm씩 떨어져 14cm 가량 뒷길이 벌어져있다. 그 위에 도련이 넓고 곡선이 아름다운 전사를 덧대주고 있다.
- ⑨ 뒷길과 앞길 가슴선까지 안쪽으로 명주 등바대를 대주었다. 등바대 명주 폭은 40cm이다.
- ⑩ 겨드랑이에는 안쪽으로 겹감과 같은 천의 세로10cm 가로16.5cm의 겨드랑이 바대를 덧대어

주고있다.

⑪진동의 가름늘은 소매에 7.5cm 가량 연장되어있다.

⑫전삼의 도련가장자리, 앞뒤도련, 섯선, 수구에는 나비 5.5~6cm의 안단을 돌아가며 대주었고, 곱게 길에 대고 감침질 하였다.

⑬고름은 걸감과 같은 천으로 걸고름은 나비2cm 안고름은 나비1.5cm이다.

⑭훈옷이기에 시접은 모두 통솔로 처리하였으며 봉제실은 다소 굵은 비단실을 사용하였다.

⑮명주폭은 약38cm 폭이다.

2. 袴 衣

1) 素色 명주 바지

①素色명주로 안팎을 대었다. 안의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다.

②허리둘레가 150cm 가량으로 매우 넓으며 바지부리도 약35cm로 매우 넓다.

③총길이 102cm로 길다.

④바지의 세부절개가 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의 구별이 뚜렷하여 오늘날의 남자바지와 똑 같은 구조를 갖고있다.

⑤봉제실은 비단실을 사용하였다.

2) 素色 명주 누비 바지

①안팎 모두 素色명주이다.

②안팎을 겹쳐 누볐으며 누비간격은 1cm로 한올흠질로 식서올방향따라 곱게 누볐다.

③마루폭 큰사폭 작은사폭의 세부절개 상태가 뚜렷하다.

④봉제실은 비단실을 사용하였다.

V. 맺음말

以上の 分析結果 袍는 옆트임 襪衣가 主種을 이루었으나, 뒤트임 襪衣와 道袍가 함께 나오니 當時 士族男子의 私服이 襪衣·道袍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길이가 모두 매우 길기때문에 襪衣의 主人의 身長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襪衣는 소매가 넓고 소매길이가 긴 廣袖의 형태라 볼 수 있으며, 道袍에 있어서는 소매의 넓이와 길이에 있어서 襪衣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넓고 길어 모든 袍中에서도 道袍는 上格으로 着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袍의 깃은 걸깃 안깃 양깃이 모두 섯선안에 들어가 달린 칼깃형태로 오늘날의 깃이 걸깃은 칼깃·안깃은 섯선에서 따로 내어 달린 목판깃의 형태와 다르다. 깃넓이가 넓고 길이도 길어 목이 많이 감싸이는 형이다. 섯에 있어서는 걸섯이 二重섯과 한장섯이 동시에 나타나며 二重섯의 구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섯의 도련이 넓어 앞여밈을 겨드랑 가까이에서 폭 여미게 되어있다. 안섯은 등

솔기선에서부터 내어 달은 한장설이다. 또한 양 옆선에 앞뒤 무를 대었기에 아랫도련폭이 넓으나 옆선을 깊게 터 주고 있어 활동을 위하여 도련폭을 넓게 하였다기 보다는 넓은 자락의 여유로움을 위한 미적 발로라 봄이 좋을것 같으며 이러한 袍의 구조에서 우리 전통의복의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엿 볼 수 있다 하겠다. 겨드랑이에는 기능성 높은 겨드랑바대를 정사각형 무로 대 주고 있다. 겨드랑 무는 오늘날의 袍·襦衣에는 사라진 옛 구조로 양팔의 동작범위를 고려한 직선봉제의 난점을 보충키 위한 기능구조로 오늘날의 봉제방법에 있어 다시금 부활시켜야 할 구조라 본다. 素色縵衣 2點을 제외하곤 안팎을 모두 다른 色으로 배색조화를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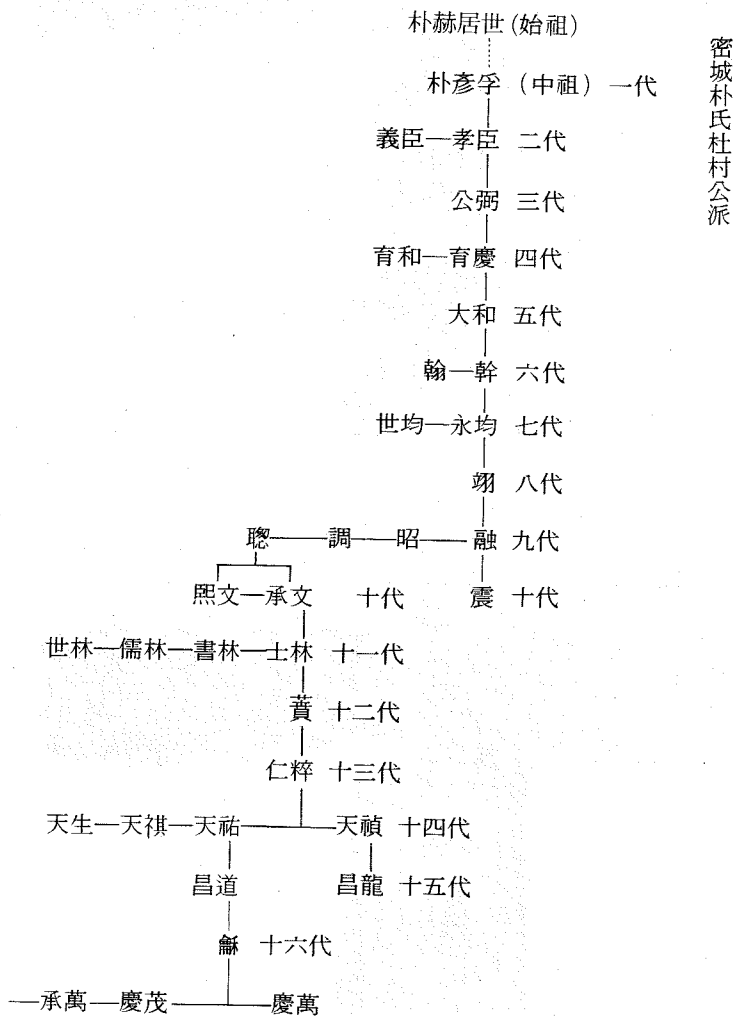
누비縵衣는 9點으로 솜을 안 두고 안팎누비를 하였으니 이는 防寒用 袍를 제작한 후 솜을 고정시키기 위한 누비가 아니라 단조로운 袍 表面에 裝飾을 겸한 裝飾縫으로 볼 수 있다. 도련과 트기의 가장자리 둘레를 돌아가며 0.8cm 정도의 좁은 안단을 表色과 배색을 맞춰 대어 주었음이 특이하고 袖口와 트기의 끝을 비단실로 배색 맞춰 사뜨기 마물림 裝飾을 해 준것이 섬세하기 짝이 없는 고운 바느질이다. 道袍는 뒷길에 상하로 허리선을 잘라 주었고 뒤여밈이 벌어져 있어 그 위에 도련이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전삼을 대어 주었다. 도련과 트기의 둘레는 안단을 넓게 대 주었으며 뒷길에는 등바대를 겨드랑에는 안에 넓은 겨드랑 바대를 대어 내구성을 보완하였다. 바지는 오늘날의 바지와 별반 다름이 없이 세부절개선이 명확하다. 명주폭은 38cm 이상 46cm 폭까지 다양하며 봉제실은 비단실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같이 모든 縵衣를 명주로 지은 호사스러운 규모이고, 바느질이 곱고 섬세하여 단 기간내에 縵衣用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生存時에 미리 지어 두었다가 사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朴齋墓의 出土服飾은 袍類의 다양함이나 그 量的 規模에서 볼 때 17C 中葉 嶺南地域 喪禮風俗 뿐만 아니라 士族層의 男子 服飾을 연구하는데도 실질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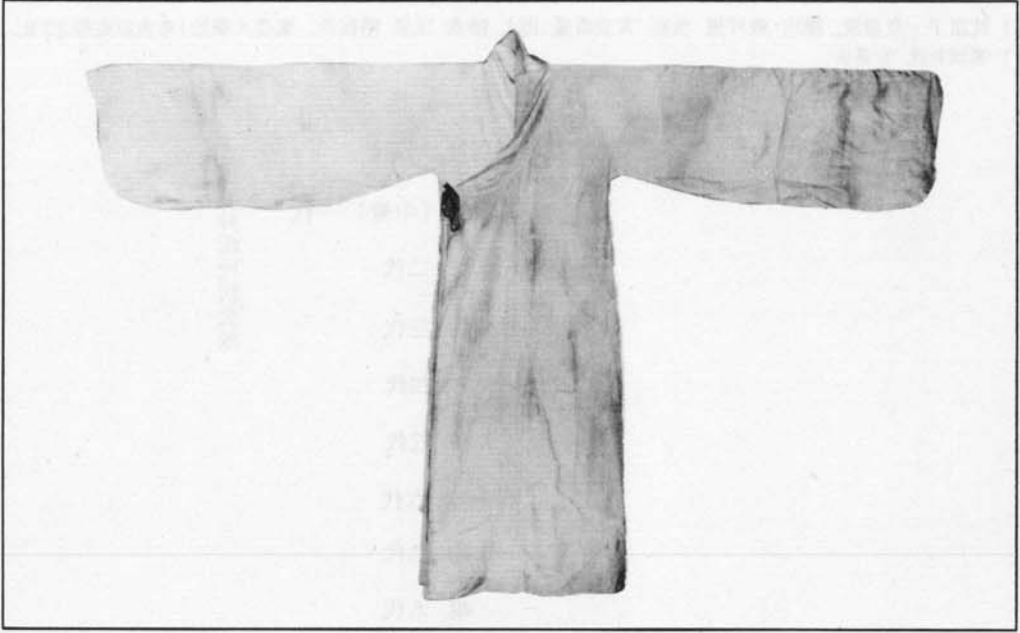
陝川郡 鳳山面 魯坡里 所在 朴穌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註

- 1) 沈富子·全惠淑, 陝川 嶧坪里 所在 文益新墓 出土 襪衣 復原 略報告, 東亞大學校(考古歷史學志) 2, 1986.
- 2) 密城朴氏 家系表.



圖版 1.



素色 명주누비 氈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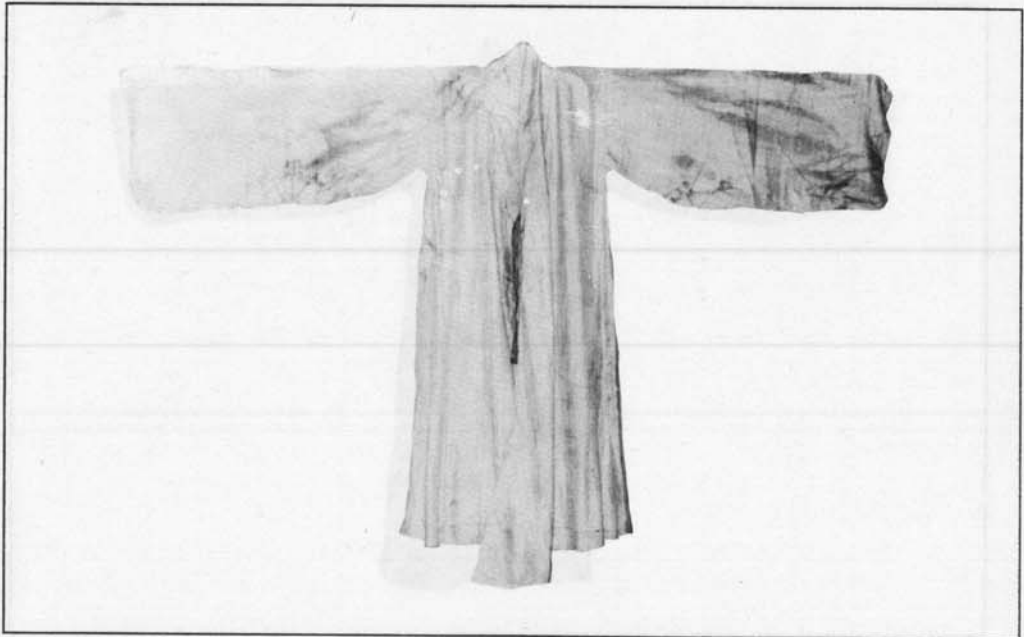


濃褐色 명주 누비 氈衣

圖版 2.



素色 명주 누비 襖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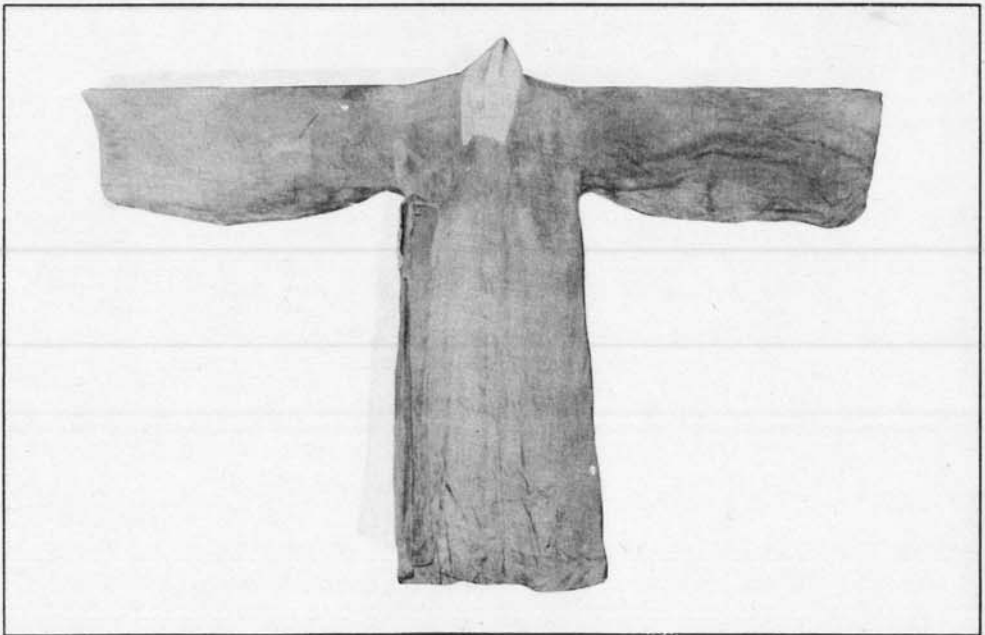


素色 명주 누비 襖衣

圖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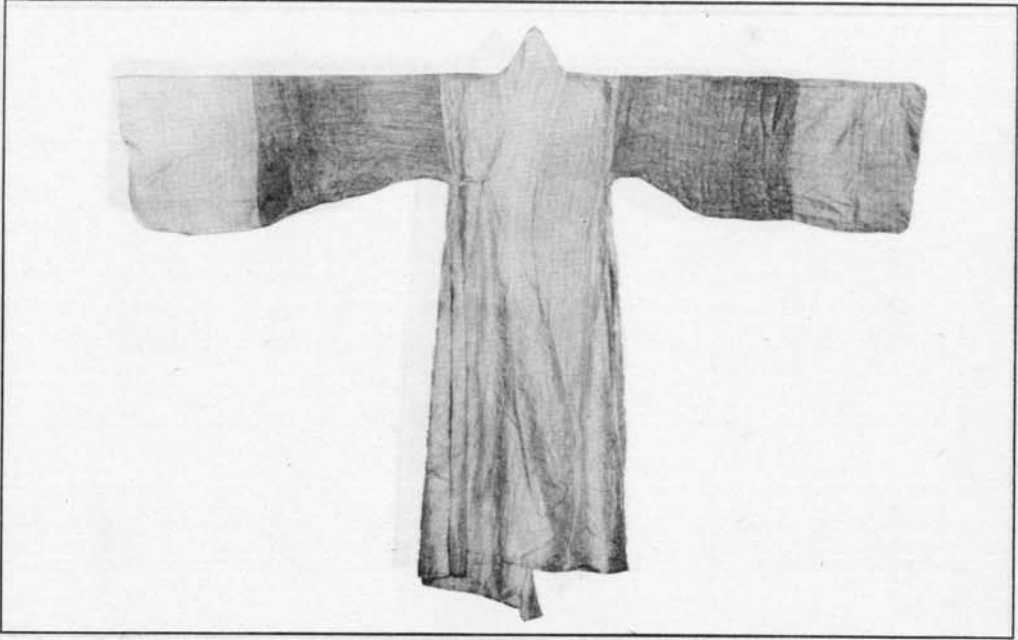


素色 명주 누비 襪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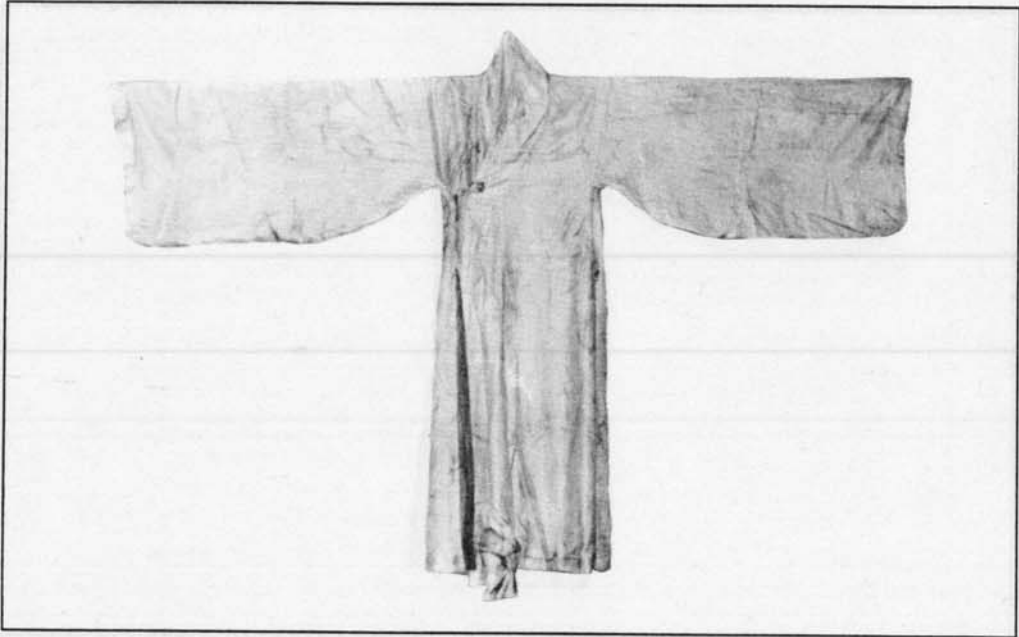


褐色 명주 누비 襪衣

圖版 4.



濃褐色 명주 누비 襖衣



濃褐色 명주 襖衣

圖版 5.



素色 명주 襪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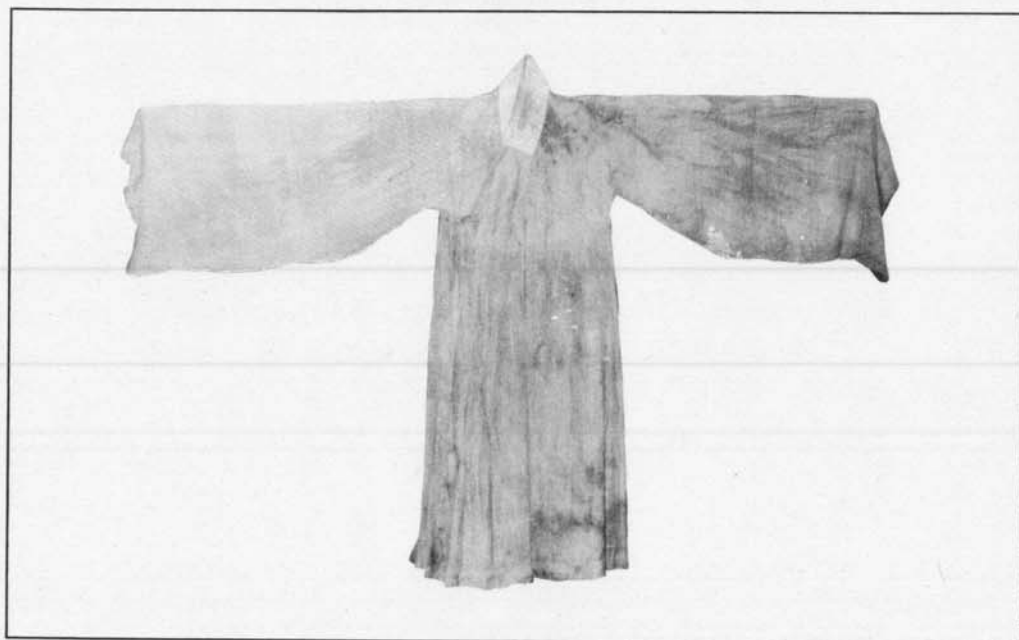


濃褐色 명주 襪衣

圖版 6.



濃褐色 명주 襪衣



褐色 명주 道袍

會寧五洞의 土器에 관한 問題

— 北部韓國 無文土器編年을 위하여 —

西 谷 正*
李 東 注**譯

〈目 次〉

- | | |
|---------------------|--------------------|
| 1. 머릿말 | 4. 會寧五洞遺蹟 檢出土器의 檢討 |
| 2. 會寧五洞 遺蹟의 概要 | 5. 끝맺음말 |
| 3. 發掘調査의 經過와 位置와 遺物 | |

I. 머릿말

韓半島에 있어서 考古學研究는 韓國에 對한 日本의 植民地支配의 開始와 같이 日本人研究者에 의해서 活發하게 行해졌으나 1945년에 韓國이 日本帝國主義로 부터 解放되고 부터는 韓國人研究者에 依해서 精力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解放前에 있어서는 韓國考古學全體로 부터, 말하자면, 無文土器의 調査와 研究에 다루어 졌던 比重은 극히 적었으나, 解放後가 되면서 韓國考古學의 一貫된 體系化가 要求되는 中에 無文土器에 關한 研究도 飛躍的으로 進展하고 있다.

解放前에, 有史以前 혹은 石器時代의 土器에 있어서, 櫛文土器에 대해서 無文土器를 認知했던 것은 鳥居龍藏¹⁾이 처음이었다. 그후 藤田亮策²⁾은 石器時代의 前期에, 無文土器(藤田은 第一鍾의 原始彌生式系의 土器〈厚手平底無文〉라 부른다)를 使用하고 있었을 즈음에 櫛文土器가 들어 왔다고 했었다. 여기에서 無文土器로부터 櫛文土器에의 編年觀이 제시되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 日本 九州大學文學部 考古學科 教授

** 大學院

1) 鳥居龍藏, 1917, 「平安南道, 黃海道 古蹟調査報告」〈『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서울 이 중에는 無文土器라고 하는 名稱으로 부르고 있다.

2) 藤田亮策, 1934, 「朝鮮古代文化」『岩波講座 日本歷史』第 12回配本, 東京(『朝鮮考古學研究』1948, 京都所收)

藤田의 編年觀은 數年後의 橫山將三郎³⁾의 研究에 依해서 訂正되었다. 橫山은 鳥居, 藤田 兩者의 成果를 繼承해서 韓國의 先史時代에 두 種類의 土器가 存在하는 것을 指摘하고, 第Ⅰ型의 「彌生式에 비슷한 土器」, 말하자면 無文土器는 第Ⅱ型의 「이른바 櫛文土器」보다도 후기의 것임을 提唱하여 藤田說을 逆轉시켰다. 橫山の 또 하나의 重要한 指摘은 地勢와 風土 等の 地理的 條件으로 부터 韓半島를 北鮮(咸鏡南北道), 西鮮, 南鮮地域으로 三分하고 거기에 分布上의 特色과 더 나아가서는 地方差를 認識하여 地域差의 概念을 導入했던 것이다.

無文土器의 本格的인 研究는 解放後의 韓國人研究者의 活躍을 기다리지 않을수 없었다. 1949年의 咸鏡北道 羅律郡 草島遺跡⁴⁾과 1954年과 1955年의 두차례에 걸친 咸鏡北道 會寧郡 五洞遺蹟⁵⁾ 等の 여러 곳에서 實施했던 重要遺蹟의 發掘은 無文土器의 豊富한 基礎資料를 提供하였으며, 續出하는 基礎資料의 蓄積過程에서 無文土器의 分析結果도 公表되었다. 黃基德⁶⁾은 西北地區의 無文土器를 팽이형토기로 하고 그것에는 典型과 變形의 두가지 類型이 있으며, 典型으로 부터 變形으로 變遷⁷⁾하는 것으로 說明하여 無文土器를 細分化하는 努力을 보였다.

解放後 十數年間에 걸친 韓國人을 中心으로 한 各地研究者의 調査와 研究는 1960年頃부터 잇달아 發表되는 成果에 依해서 結實되었다. 하나는 無文土器의 地域性이 具體적으로 追求되어⁸⁾ 各地域에서의 細密化⁹⁾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編年이 상당히 細分化된 것이다. 예를들면 西北地區의 팽이형토기를 四型式五類型으로 分類하고, 그것을 前半期와 後半期로 大別하거나¹⁰⁾ 南部의 無文土器의 三群을 크게 二時期로 區分¹¹⁾ 試圖등 뛰어난 成果가 보여졌다.

이러한 成果를 회고하며 無文土器의 研究課題를 展望하건데, 無文土器의 地域性이 반드시 體系化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現狀에 있어, 地域性에 立脚한 體系化와 相互間의 關係解明의 重

3) 橫山將三郎, 1939, 「朝鮮의 史前土器研究」, 『人類學·先史學講座』第9卷, 東京.

4) 科學院 考古學及 民俗學研究所 (以下, 考古學研究所로 略함), 1956, 『羅律草島 原始遺蹟發掘報告書』『遺蹟發掘報告書』第1集, 平壤.

5) 考古學研究所, 1960, 『會寧五洞原始遺蹟發掘報告』『遺蹟發掘報告』第7集, 平壤.

6) 黃基德, 1958, 「朝鮮西北地區原始土器의 研究」『文化遺產』1958年 第4號, 平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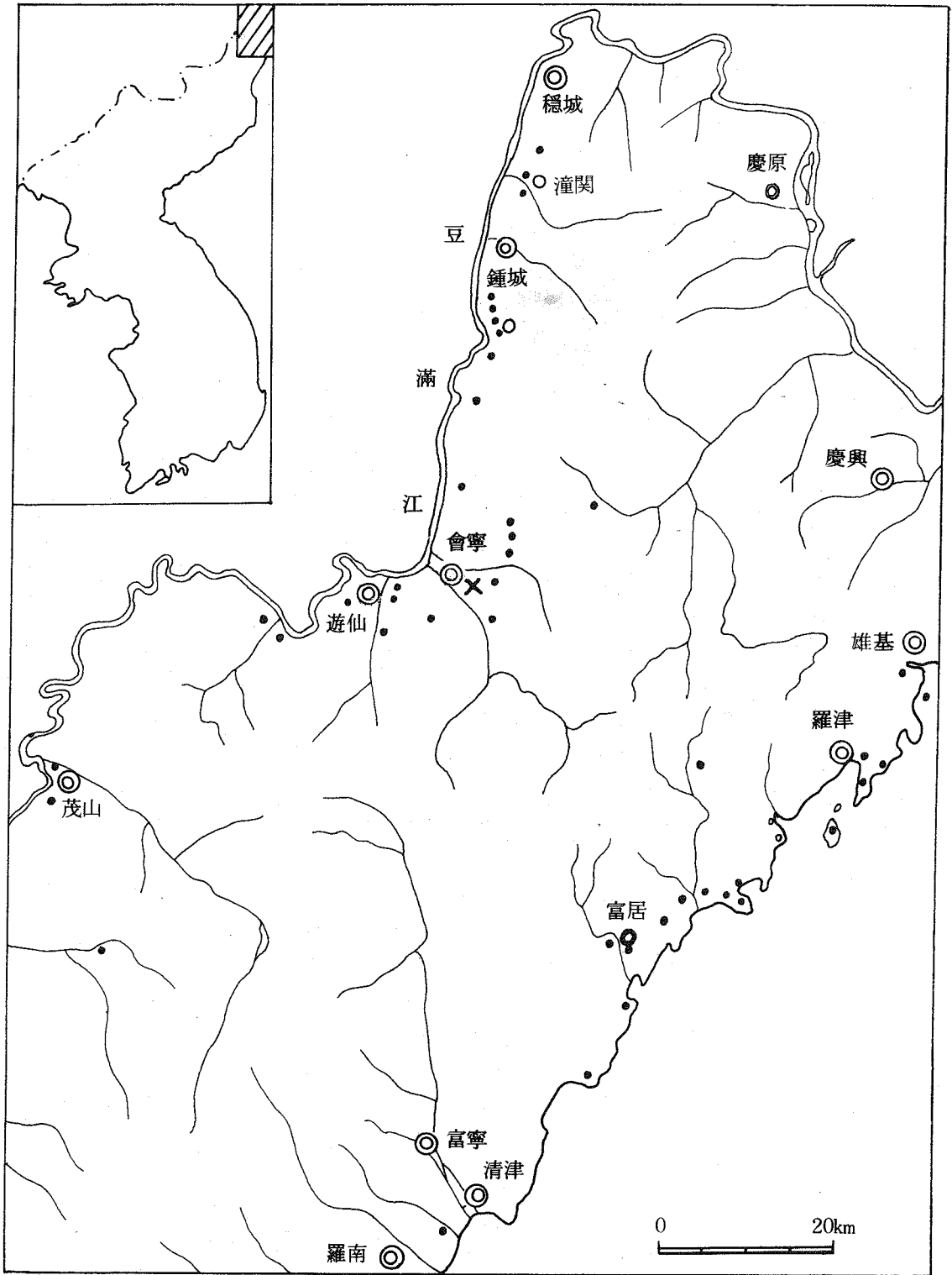
7) 그후, 田村晃一, 1963, 「朝鮮半島의 角形土器とその石器」(『考古學研究』第10卷 第2號, 岡山)에 있어서 고마형土器(팽이형土器)의 典型과 變形, 예를들면 日本의 彌生式土器에 보이는 壺나 甕으로 말하는 關係는 아닌가 하며, 사실, 石橋里 遺蹟에는 典型과 變形의 고마형토기가 同一豎穴內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相違를 機能差로 보고, 黃基德이 말하는 것 같은 時期差는 없는 것으로 主張하였다. 田村의 見解가 妥當한 것 같다.

8) 鄭漢德, 1966, 「朝鮮 西北地方 巨石文化期における ヌマ形土器とその文化について」『考古學雜誌』第52卷 第4號, 東京.

9)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黃基德, 1970, 「豆滿江流域의 靑銅器 時代文化」『考古民俗論文集』2, 平壤. 李炳善, 1963, 「鴨綠江流域靑銅器 時代의 特徵的인土器와 그 分布狀況」『考古民俗』1963年 第3號, 平壤. 金用珩, 1963, 「美松里遺蹟의 考古學的位置—年代論を中心として—」『朝鮮學報』第26輯, 天理. 林炳泰, 1969, 「漢江流域 無文土器의 年代」『李弘植博士 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서울. 尹容填, 1969, 「琴湖江流域의 先史遺蹟研究 (1)」『古文化』第五·六合輯, 서울.

10) 鄭漢德, 1966, 前揭論文.

11) 後藤直, 1973, 「南朝鮮의 <無文土器>」『考古學研究』第19卷 第3號, 岡山.



第 1 圖 豆滿江 流域遺蹟 分布圖(×丑가 五洞遺蹟)

要性を痛感한다. 土器形式의 細分化 역시 셀트關係에 의한 形式과 그 序列의 設定에 對해서도 지금 약간 形式論에 重點을 두었던 觀點이 期待된다. 特히 韓國의 南部와 北部地區에서의 細分化에는 再檢討의 餘地와 未開拓의 分野가 남겨져 있다. 그것은 또한 無文土器文化 發掘의 諸段階를 設定하는 基礎的 혹은 前提的作業으로도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韓半島의 無文土器의 더욱 完成된 體系化에 着手하는 始初로서 먼저 北部地區의 確實한 土器形式의 設定을 行하고, 거기에서 發生하는 問題點을 指摘해서 금후의 研究에 대비하는 동시에 確實한 데이터의 蓄積을 꾀하고 싶다. 그 때문에 會寧五洞遺蹟出土의 土器를 再檢討하고자 한다.

二. 會寧五洞遺蹟의 概要¹²⁾

韓國의 北部에 中國·蘇聯과 國境을 接하면서 흐르는 豆滿江의 流域에는 그 右岸과 左岸, 모두 이미 일찍부터 原始時代의 遺蹟이 많이 알려져 오늘날에는 그 수가 수십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豆滿江上流地帶의 咸鏡北道 茂山郡 篤所로 부터 河口의 雄基郡 西水羅에 이르기 까지 分布하는 原始時代遺蹟은 결코 단순한 것은 아니고 時期差가 있는 것등 複雜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단 豆滿江의 右岸地方에서는 茂山, 會寧, 三峯, 潼關, 西水羅, 洛生 地境洞등의 數個所에 있어서 原始文化의 中心地를 認識할 수 있다(第1圖). 그중에서도 會寧邑의 주변에는 原始時代의 遺蹟이 아주 많다. 遺蹟은 會寧邑을 中心으로 雲淵, 城東, 南山, 鳳儀, 黑狗峯, 永綏, 料洞, 大德, 獎武, 金生, 少乙峴, 弓心, 汗城, 開拓洞등 10여개소나 알려져 있으나, 거의 會寧을 中心으로 半徑5킬로 圈內에 들어있다. 會寧邑內에 있어서도 五洞을 비롯해서 城東門內, 五山麓城內中心部등의 數個所에서 原始時代遺蹟이 發見되고 있다. 五洞遺蹟은 그중에서 가장 中心을 이루는 重要遺蹟이며 그 原始文化層의 위에는 古代및 中世의 文化層도 있다.

그런데 咸鏡北道會寧邑의 五洞에 있는 五洞遺蹟은 豆滿江中流右岸의 平野部에 있어서 會寧邑의 市街地로부터 南方으로 1키로정도의 곳에 있다. 會寧邑은 豆滿江의 支流, 會寧川의 右岸임과 同時에 八乙川의 左岸에 해당하는 河岸台地에 立地한 都市로 周邊에는 豆滿江 流域에서 最大의 肥沃한 平野를 끼고 있다. 이 地域은 일찍이 渤海와 金國의 領域으로서 女眞族이 살았던적도 있었으나, 그후 朝鮮으로 영입되어졌다. 會寧에는 그 女眞族의 土城과 李朝의 石城이 築造되는 등 歷史的인 都市였으며, 現在에도 이 地方의 政治, 經濟, 혹은 軍事, 文化的으로도 重要한 地域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五洞遺蹟은 일찍이 會寧川에 의해 形成되었던 冲積台地에 立地하나 會寧川은 現在에는 河床이 낮아져 이 台地의 산기슭을 흐르고 있다. 河口의 氾濫에 의해 遺蹟의 상당한 部分이 일찍부터 流失되어 왔으며 現在에도 그 台地의 斷面에 原始時代의 文化層이 露出되어 있다. 五洞遺蹟은 그 台地에 수만평방미터라고 하는 넓은 地帶를 갖는 아주 大規模인 集落遺蹟이다.

五洞遺蹟이 發見되었던 것은 50~60年前이라고 말해지듯이 比較的 오래된¹³⁾ 것이나, 組織的

12) 이 節에 對해서는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5~7항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다.

13) 1938년에 京都大學에 寄贈된 小宮繁男氏의 收集資料 가운데 五洞遺蹟石器가 나오기 때문에, 그 1938年 以前인 것이 틀림없다. 有光校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京都大學 文學部 考古學 叢書』 第3册, 京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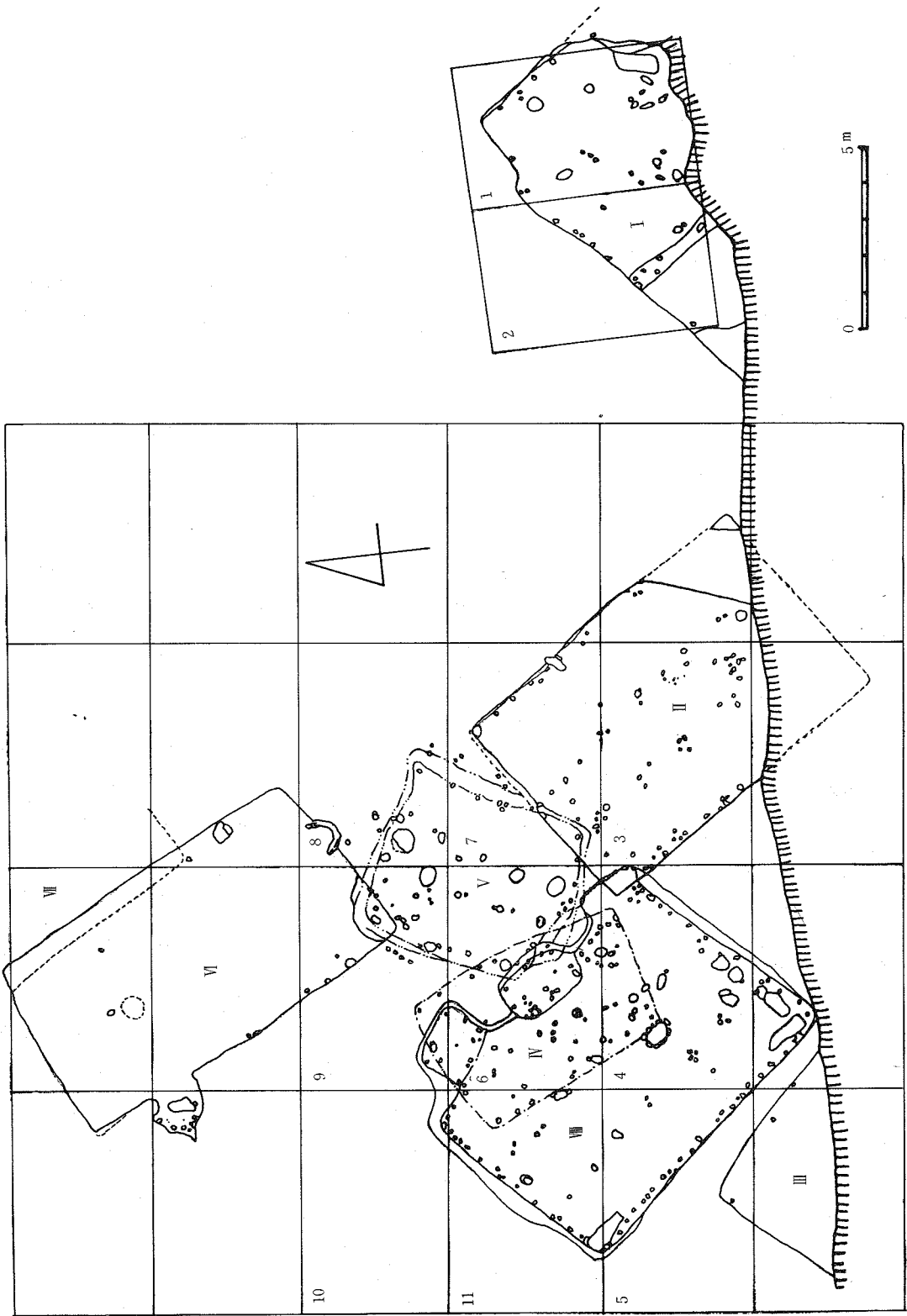
인 發掘調査는 解放後가 되고나서 처음으로 實施되었다. 즉 北韓이 科學院 考古學 및 民俗學研究所(이하 考古學研究所라고 略한다.)의 멤버에 의해 수회에 걸쳐 五洞遺蹟의 범위와 包含層의 狀態 등이 여러가지 角度로 豫備調査되어 發掘의 準備가 進行되었다. 1949년에 實施되었던 羅律草島遺蹟의 發掘을 마치고 이 東海岸地域의 遺蹟과의 對備 研究를 위해서 高原地帶인 豆滿江流域遺蹟群 中에서도 五洞遺蹟이 發掘候補地로서 부각되었다. 1950년 봄에 행해졌던 豆滿江流域遺蹟 分布調査時, 가을에 發掘하는 것이 결정되어 충분히 準備作業이 행해졌다. 그런데 그때부터 발발했던 6·25戰爭에 의해 調査計劃이 일시 중단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에 이르렀지만, 戰爭 종식 후에 國土復興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五洞遺蹟의 發掘이 戰後 最初로 進行되었다. 發掘은 考古學研究所員이 中心이 되어 各地의 歷史博物館과 大學의 關係者도 參加해서 進行되었다. 二次에 걸친 發掘은 먼저 1954年9월에 始作되었다. 發掘過程에서 住居址가 重複해서 나타나고, 또 範圍도 점차로 擴大되었으나 寒波의 到來에 의해 10月 27일에 일단 중단되었다. 다음해 1955年 8月25일부터 再開되었으나, 따로 緊急한 事業이 생겼기 때문에 9月27일에 이르러 發掘作業을 一段落시켰다. 前後 70余日間에 걸쳐 現場作業에는 延500명의 研究者와 1200여명의 勞動力이 投入되었으며 發掘面積도 약 400平方미터의 範圍에 達하고 있다. 發掘에 의해 形態가 明確한 6基의 住居址를 비롯해서 不完全한 것 3基를 합쳐 合計 9基의 住居址와 그외에 약간의 作業場(石器製作所)을 發見하였고 또한 5000余點의 遺物을 採取했다.

三. 發掘調査의 經過와 層位와 遺物¹⁴⁾

五洞遺跡의 範圍가 아주 넓은 것은 이미 記述했던 대로이나, 그것을 全面的으로 發掘하는 것은 容易한 것은 아니다. 우선 遺跡地의 數個所에서 보였던 斷面部를 간단하게 調査한 것에 의해서 遺跡의 範圍가 數萬平方미터에 미치는 것을 알았다.

考古學研究所가 發掘했던 地點은 住宅地區를 조금 벗어났던 곳으로 現在는 수수밭으로 되어있다. 그곳은 遺跡地의 東南端에 解當하나 會寧川의 浸蝕作用에 의해 遺跡地의 相當部分이 破壞되어 斷面部가 露出해 있다. 마침 그 部分이 東南端의 第一, 第二區로 부터 發掘이 開始되어 점차로 西方과 北方에 發掘範圍가 擴張되었다. (第二圖). 發掘의 하나의 區劃은 幅4m 길이6m, 24平方m의 장방형의 部分을 單位로서 進行되었다. 最初 遺跡地의 東南端에서 南北으로 長軸을 두고, 區劃(第一, 第二區)을 橫으로 2개 設定하여 發掘하던중, 거기에서 東南向의 第I號住居址를 檢出했다. 그러나 大部分이 小川의 浸蝕에 의해 消失되어 있다. 이 住居址의 西南方에는 溝와 그것에 이어지는 住居址가 있었으나, 그것은 增築에 의한 附加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住居址의 밑은 이 遺跡의 生土層인 均一한 부드러운 砂層이고, 또 上層에는 地의 住居址나 그 외의 遺構와 의 重複은 없었다. 住居址의 底面으로 부터는 거의 유물은 出土하지 않았지만, 住居址內의 堆積層으로 부터는 각종의 遺物이 發見되었다. 住居址의 어깨선은 깊이 85cm 정도에서 나타났는데

14) 이 節에 對해서는,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9—26항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다.



第2圖 發掘地區와 住居址의 配置

遺物은 대략 깊이 40cm 정도에서 出土 되었다. 遺物이 住居遺跡어깨선의 上部에서 出土되는 경우에도 전부 住居址의 範圍內에서 出土했다.

第二地區 西側은 第二次世界大戰때에 日本人이 왔던 防空壕에 의해 깊이 破壞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部分을 피하여 8m 서쪽으로 斷面部를 基準으로하여 새롭게 發掘區가 設定되었다. 새로운 發掘區는 東西로 長軸을 두고 從으로 第三, 第四, 第五의 3개의 區劃을 걸쳐서 發掘되었다. 東端의 第三區의 斷面に 의하면 文化層이 아주 두껍고, 그 사이에 2個의 灰層이 끼어 있었다. 한편 西端의 第五區의 斷面部는 文化層이 얇고, 또 그 사이에 있는 第四區의 斷面部에는 거의 文化層이 보이지 않고, 表土의 바로 아래에 傾斜해 있는 生土層面이 露出되어 있다. 더우기 第四區와 第五區의 北側에 각각의 第六區와 第十一區를 과 나아갔다. 第三區의 밑에 第Ⅱ號住居址와 第五區의 南側의 斷崖面에 있어서 第Ⅲ號住居址를 發見했다. 第四區와 第六區를 과 나아가자 불을 지폈던 第Ⅳ號住居址를 發見하고 더우기 그 아래에 또 한개의 特別히 큰 第Ⅷ號住居址를 確認했으나 더이상 파지 않고 일단 묻어 다음해로 미루었다.

새해부터 第四, 第五, 第六, 第十一區의 發掘을 再開하는 한편 第三區의 北側에 第七區와, 거듭 그 北側에 第八區를 設定했다. 第六, 第十一區의 北側에서도 각각 第九, 第十區를 設定하였다. 第八, 第九區에서 發見했던 第Ⅵ號住居址는 地表로 부터 얇고 上部에 特別히 文化層이 없었기 때문에, 特別히 區劃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住居址의 어깨선에 따라 生土層의 床面까지 完全히 發掘되었다. 그즈음 東北部分에서 第Ⅷ號住居址가 重複해서 出現했다. 第三區를 中心으로 發見되었던 第Ⅱ號住居址는 長軸을 西北으로 부터 東南方向으로 두었던 長方形의 것으로 第四, 第六, 第七區에 걸쳐 있었다. 第Ⅱ號住居址는 生土層을 깊이파서 만들었던 것으로 第Ⅴ號住居址 및 第Ⅷ號住居址와 重複해 있었다. 第六區를 中心으로 第四, 第五, 第九, 第十, 第十一區가 걸쳐서 發見되었던 第Ⅳ號住居址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다. 長軸을 西北으로 부터 東南方向으로 두었던 長方形으로 크기는 가장 작은 것이다. 第Ⅳ號住居址는 이미 堆積했던 文化層을 파서 만들어져 있었다. 즉 第Ⅷ號住居址의 上部에 있고, 또 第Ⅴ號住居址와 重複되고 있다. 第六區의 東쪽에는 第七, 第八, 第九區에 걸쳐서 一基의 약간작은 方形의 第Ⅴ號住居址를 發見했으나 方向은 他的 것과 조금 달라있고 西南方에 若干 치우쳐 있었다. 第Ⅴ號住居址는 第Ⅱ, 第Ⅳ, 第Ⅵ, 第Ⅷ住居址와 서로 重複해 있었다. 第四, 第五區에서 出現했던 第Ⅷ號住居址는 生土層을 깊이파서 만들었던 것으로 長方形의 커다란 것이었다. 이 住居遺蹟은 第Ⅱ號住居址보다 長軸을 조금 西와 東으로 회전시켰던 것으로 東北壁의 바깥에 붙었던 2개의 方形의 小竪穴을 갖고 있는 점에 特徵이 있다. 第Ⅷ號住居址는 第四區를 中心으로 第五, 第六, 第九, 第十, 第十一區에 걸쳐 第Ⅱ號, 第Ⅴ號住居址와는 一部分이 교차되고, 거듭 上部에 第Ⅳ號住居址가 중복되어 있다. 그리고 發掘期間중에 發掘地點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五洞農業協同組合에서 야채 저장고를 팠을 즈음에, 同時期의 原始時代의 住居址를 一基 發見했다.

住居址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으나, 石器製作의 作業場도 住居址의 주변에서 發見되었다. 第Ⅷ號住居址의 西北側어깨선 위에서 黑曜石製 石器가 발견되었고, 또한 第八區의 第Ⅴ號, 第Ⅵ號住居址와의 三角形의 空間部에서 磨製石鏃과 石錐를 제작하던 각각의 作業場이 발견 되었다. 또

한 第Ⅱ號住居址內의 堆積層으로 부터도 作業場의 흔적이 몇개인가 重複해서 發見되었다.

다음에, 遺物의 出土狀態, 혹은 그 層位關係에 대하여 몇가지 指摘을 하고자 한다. 第Ⅱ號住居址內의 堆積層의 狀態는 特히 詳細히 觀察되었다. 그 結果에 의하면 住居址의 堅穴이 완전히 廢棄物에 의해 埋沒될때까지는, 이 住居遺跡을 橫으로 형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불을 피우고 石器를 만드는데에, 그 堅穴住居의 遺蹟을 作業場으로 使用했던 것 같다고 말해진다. 그 경우 앞의 第Ⅱ號住居址의 堆積層에 있어서 몇개인가의 作業場이 重複해있었다는 指摘과 합쳐 생각하면 第Ⅱ號住居址內로 부터의 出土遺物은 2個 以上으로 細分이 可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各各의 遺物은 具體的으로 明示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住居址의 堆積狀態를 보면 堅穴에 의해서 樣相이 틀리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第三區를 보면, 먼저 南쪽部分에서는,¹⁵⁾ 地表面下에 있는 50cm의 두께를 가진 腐飾土層의 아래에는 黑色灰層이 15cm, 다음으로 黃色灰層이 15cm, 그다음에 黑色灰層이 15cm, 그 아래에는 다른 灰層이 15cm, 그곳으로 부터 生土層까지의 사이에 有機質이 섞인 黑色灰層이¹⁶⁾ 30cm의 두께로 層位를 이루고 있었다고 말한다. (第4圖) 또한, 같은 第三區의 南側의 斷面에서도 東쪽과 西쪽과의 堆積狀態는 다르지만, 東쪽에서는 黑色灰層이 하나로 統合되어 그 위에 腐飾土層이 두겹게 重複되어 있고, 또 黑色灰層의 아래에는 黃色灰層이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서 3개의 層位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西쪽에서는 腐飾土層의 아래에는 黑色灰層은 없고, 黃色灰層만 하나있으며, 그 아래에는 有機質이 섞인 黑土層이¹⁷⁾ 있을 뿐이다. 第三區에서도 北側의 斷面에서는 內部的 堆積狀態가 상당히 複雜한것을 알 수 있다. (第3圖) 이 第三區에서는 第Ⅱ號住居址가 廢絶後, 完全히 埋沒하기 以前에, 途中에 堆積한 部分과 그위에 몇개인가의 作業場이 設置되었던 部分이, 적어도 2개이상 있는 것이 指摘되고 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第3圖, 第4圖의 層位圖가운데 그 사이의 事情을 알듯한 圖示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層位와 遺構의 關係에 疑問이 남는다.

그런데 發見되었던 住居址의 方向은 第Ⅴ號住居址를 除外하면 거의 長軸을 西北으로 부터 東南方向으로 向하고 있다. (第2圖), 또 住穴이 없는 第Ⅵ號住居址를 除外하면, 그 이외의 住居遺跡은 대략 長軸의 方向으로 四列式의 柱穴群이 發見되었다. 이와같이 住居址의 方向과 柱穴群에 보이는 建造物의 架構形式은 住居址가 築造되었던 年代의 前後關係를 생각하는 경우에 參考로 된다. 또한 遺物이 造成되면서 부터 各各의 住居址堆積層을 相互對比해도 各各의 特徵이 認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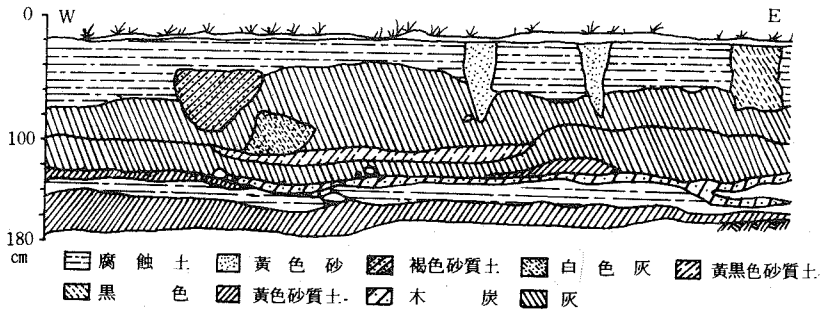
먼저 黑曜石製品과 黑曜石剝片의 總數量을 들면, 第Ⅱ號住居址內의 堆積層으로 부터 全遺跡出土土量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數量이 出土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面積의 第Ⅵ號住居址內에서는

15)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第4圖의 凡例에는 黃色灰層으로 되어있다. 插圖와 記述사이에 矛盾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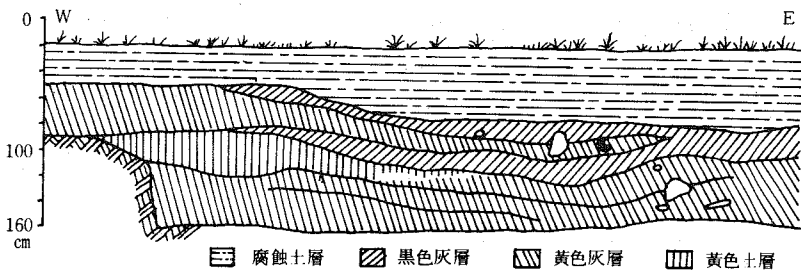
16)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13항의 插圖와 本文의 記述 및 第3區의 平面圖와의 對比에서, 第3圖와 第4圖는 逆轉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7)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第4圖의 凡例에 의하면 黃色土器로 되어 있어 插圖와 記述에 矛盾이 있다.

會寧五洞의 土器에 관한 問題



第3圖 第3地區 北側部分 堆積狀態



第4圖 第3地區 南側部分 堆積狀態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數量밖에 나오지 않고, 또한 第Ⅱ號住居址보다 規模가 큰 第Ⅷ號住居址의 堆積層으로 부터도 그 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黑曜石製 石器의 製作에 使用했다고 생각되어 지는 부리(주둥이)형 석기는, 黑曜石製品이 가장 많이 出土했던 第Ⅱ號住居址內에서 全出土量의 4분의 3이나 出土했다. 이것은 부리형석기와 黑曜石製 石器와의 깊은 關係를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이 第Ⅱ號住居址의 堆積層으로부터는 丹塗磨研土器¹⁸⁾가 많이 出土했으며 그것은 全出土量의 3분의2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第Ⅴ號住居址에서는 丹塗磨研土器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丹塗磨研土器와 같은 內外를 정연하게 研磨한 磨研土器가 壓倒的으로 많이 出土했다고 한다. 第Ⅴ號住居址內에서 出土한 磨研土器의 비율은 全出土量의 3분의2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生土層을 底面으로 하고 서로 교차했던 第Ⅱ號住居址와 第Ⅴ號住居址와의 相互關係는 상당히 興味깊은 것이다.

第Ⅱ號住居址內의 堆積層으로 부터 黑曜石製 石器와, 그 破片이 壓倒的으로 많이 出土한 것은 前述한 대로인데 대해서, 第Ⅴ號住居址內에서는 그것들이 全出土量의 100분의 3정도 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 反面 第Ⅱ號住居址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片岩製의 石鏃과 石維는 第Ⅴ號住居址內에서 壓倒的으로 많이 檢出되었다. 石鏃의 形態에 對해서도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第Ⅱ號住居址에서는 黑曜石製의 打製石鏃이 90여개나 出土되었으나 片岩製의 磨製石鏃은 7~8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마저도 形態는 모두 黑曜石製 石鏃과 같이 無莖으로, 基部가 凹形의 것 뿐이었

18)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에는 「彩色土器」라 하고있다.

다. 그것에 對해서 第V號住居址중에서는 黑曜石製의 打製石鏃이 겨우 10여개 밖에 發見되지 않았으나, 片岩製의 磨製石鏃은 60여개나 出土했다. 石鏃의 形態에도 第II號住居址의 경우와는 다르며, 긴 有莖形과 柳葉形을 나타내고 있다. 부리형 石器도 第II號住居址內에서는 3~4개 밖에 나오지 않았다. 磨製石錐은 第II號住居址內에서는 2개였으나 第V號住居址內로 부터는 破片까지 합치면 40여개나 發見되고 있다. 石製紡錘車는 13개 가운데 7개가 第II號住居址內의 堆積層으로부터 出土하고, 石斧는 第IV號住居址와 第V號住居址에서 比較的 完全한 것이 數個出土했으며, 手斧는 第VI號住居址內에서 많이 出土하고 있다. 第II號住居址의 堆積層과 그 東側에서는 주로 黑曜石製의 打製石器가 出土하고 서쪽에서는 磨製石器가 많이 出土했다. 骨角器類는 第VIII號住居址內의 堆積層과 第IV號住居址에서 가장 많이 出土했다. 이와같이 보면 黑曜石製 打製石鏃은 주로 丹塗磨研土器와 片岩製磨製石器, 特히 石鏃, 石錐의 類는 磨研石器를 各各 共伴한다고 할 수 있다.

褐色의 無文土器¹⁹⁾ 發掘範圍의 거의 全域에 걸쳐서 上·下層에 있으며, 다른 土器와 서로 混然하고 있다. 褐色을 한 櫛文土器²⁰⁾도 약간 있으나 無文土器와 섞여 出土했다. 土器의 器壁에 한쌍의 乳頭와 같은 把手가 있고, 口緣端이 수직인 火盆形의 乳頭形把手付土器는 第VI號住居址와 그 周邊에서만 보였다.

第VI號住居址는 最上層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構造的으로도 柱穴이 없는 것과, 壁面에 붙여서 만든 爐蹟을 갖는 것 등의 特色이 있다. 이 住居遺跡內로부터 鐵斧의 形態를 알 수 있는 크기의 破片과, 작은 破片이 各各 1個씩 있었으며, 더우기 爐跡의 밑에는 鐵滓와 같은 것이 散在해 있었다. 그외에, 白色玉製의 指輪破片도 出土했다. 住居址마다 遺物을 冢맞추면 以上열거한 대로였으나, 여기에 住居址 相互의 關係에 對하여 언급해보자.

發掘區域內에서 住居址는 合計 8基를 發見했다. 그중에 完全한 形態를 남겼던 것은 四基로, 나머지 4基는 一部 혹은 대부분이 破壞되었었다. (第二圖).

第I號住居址는 絶반정도 破壞되어 있었으며, 第II號住居址를 비롯해서 第IV, 第V, 第VI, 第VII, 第VIII號住居址는 各各의 깊이를 다르게 하면서 서로 重複하고 있었다. 第VIII號住居址는 깊이 237cm로 가장 下部에 있고, 第VI號住居址는 깊이 138cm로 가장 上部에 있었다. 第VI號住居址를 빼면 柱穴이 四列씩되어 있는 形式이다. 그러나 극히 一部分밖에 現在하지 않는 第III號住居址와, 完掘하지 않은 第VII號住居址는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었다. 第IV號住居址와 第V號住居址는 둘다 약간 規模는 작으나, 方向은 各各 西北과 東西으로 長軸을 두고있다. 第V號住居址만은 거의 方形인 同時에 方向도 그 외의 것과는 조금 다르고, 東北으로 부터 西南方向으로 長軸을 두고있다. 더구나 堅穴壁어깨선의 上部에도 柱穴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점에 조금 特異함이 보인다. 第IV號住居址는 火災가 있었기 때문에 建築材와 生活用具도 그대로 남아있어, 當時의 狀況을 잘 示唆해 주고 있다. 이 住居址의 堆積層으로부터 出土된 遺物은 뚜렷한 세트(set)관계를 나타내고 있

19)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에 「褐色土器」라고 부르고 있으나, 以前부터 「厚手無紋土器」라고 불린 것으로 말해지기 (43항) 때문에 여기에는 無文土器라고 統一한다.

20)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에는 文樣에 있는 褐色土器라고 되어있다.

會寧五洞의 土器에 관한 問題

다. 第Ⅱ號住居址의 遺物은 黑曜石製 打製石器和 丹塗磨研土器가 主이며, 부리형石器和 石製紡錘車가 代表的이다. 第Ⅰ號住居址의 遺物은 이것과 類似한 점이 많지만 石製紡錘車와 부리형石器는 없고, 그 대신에 멧돌이 代表的遺物로 되어있다. 第Ⅴ號住居址에서는 磨研土器와 磨製石鏃, 石錐가 代表的遺物이며, 또 第Ⅵ號住居址의 遺物의 特徵은 乳頭形 把手付土器와 鐵器類이다.

以上の事實을 綜合하면 第Ⅵ號住居址가 가장 후기의 것임에 對해서, 第Ⅷ號住居址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第Ⅱ號住居址는 第Ⅷ號住居址보다 후기의 것이고, 第Ⅱ號住居址와 第Ⅰ號住居址는 대체로 비슷한 年代의 것이다. 또한 第Ⅳ號住居址는 第Ⅷ號住居址보다 후기의 것은 分明하나,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第Ⅵ號住居址는 이것 보다도 훨씬 후기의 것이다. 그리고 第Ⅲ號住居址는 第Ⅷ號住居址와 매우 近接位置에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同時에는 存在하지 않았을 것 같다. 단, 第Ⅲ號住居址의 上層에서 磨研土器가 나왔기 때문에 磨研土器를 特徵으로 하는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오래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또 第Ⅴ號住居址의 底面이 第Ⅱ號住居址보다 約20cm 나 깊은데도 불구하고 第七區의 西端에서 第Ⅱ號住居址 內의 堆積層을 깎아 깊이 파던 事實과, 第Ⅱ號住居址의 西北귀퉁이에서 第Ⅱ號住居址가 第Ⅷ號住居址의 東쪽 귀퉁이를 切斷하고 있는 等으로 보아, 第Ⅱ號住居址는 第Ⅷ號住居址보다 후기의 것이고, 또한,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 第Ⅳ號住居址와 第Ⅱ號住居址는 共に, 第Ⅷ號住居址와 第Ⅴ號住居址와의 사이에 끼어있는 住居址이기는 하나, 그 2개의 住居址가 짝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層位上 2개의 住居址의 前後關係는 明白하지 않다. 그러나 第Ⅳ號住居址의 遺物은 第Ⅱ號住居址의 그것보다는 늦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第Ⅳ號住居址는 第Ⅱ號住居址와 第Ⅴ號住居址와의 사이에 해당하는 住居址인 것을²¹⁾ 推測할 수 있다. 이 事實을 基準으로 다음에 土器의 編年等에 對해서 檢討해 보자.

四. 會寧五洞遺蹟檢出土器의 檢討

本稿의 目的이 無文土器의 編年的位置設定에 있는 것은 序頭에도 언급했던 대로이나, 그 意味에서는 第Ⅲ節에서 들었던 住居址 相互間의 時間差는 그대로 土器編年의 有力한 根據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會寧五洞源始遺蹟發掘報告”(이하「報告書」로 略함)에서는 土器編年의 觀點에 疑問點이 많음과 동시에 그 積極적 자세도 엿볼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第Ⅷ號住居址의 堆積層으로 부터는, 주로 無文土器가 出土했던 것에 대해서, 第Ⅱ號住居址堆積層으로 부터는, 주로 丹塗磨研土器가 出土했다고 하는 事實에 의거해서, 丹塗磨研土器가 無文土器보다 뒤에 出現한다고²²⁾ 하거나, 혹은 乳頭形把手付土器, 磨研土器, 丹塗磨研土器는 各各 다른 特徵을 가진 遺物만을 同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굳이 層位上의 差異²³⁾를 불려고 하거나, 더우기, 住居址마다의 出土

21) 黃基德, 1970, 前揭論文, 18~19항

22) 考古學研究所, 1960, 前揭書 26항

23) 考古學研究所, 1960, 前揭書 51항

品の 特徴을 強調하거나 하는 指摘에서는, 무엇인가 거기에 無文土器나 丹塗磨研土器로부터 磨研土器, 乳頭形把手付土器라고 하는 編年序列을 示唆하는 듯이 남득되어진다. 사실 「報告書」가 나오고, 10年後인 1970년에 黃基德이 發表했던 論文「豆滿江流域의 靑銅器時代文化」(以下「論文」으로 略함)에 있어서는²⁴⁾「丹塗磨研土器」關係 住居址로 부터 「褐色磨研土器」²⁵⁾ 關係 住居址, 그리고 「乳頭形把手付土器」關係 住居址로의 變遷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無文에 褐色의 작고 거친 土器, 즉 無文土器는 發掘範圍의 거의 全體에 걸쳐 上·下層에 있어서 他의 土器와 相互間에 섞여 出土했다고²⁶⁾ 하는 事實, 또 無文土器는 이 遺蹟形式의 前期間에 걸쳐서 使用되었던 代表的인 土器라고²⁷⁾ 하는 指摘을 參考로 하면, 五洞遺蹟의 基本的土器는 無文土器의 範疇에 들어가는 듯이 남득할 수 있다. 실제로 土器를 잘 알 수 없는 第Ⅲ號住居址와 乳頭形把手付土器를 出土한 第Ⅴ號住居址를 빼면 남은 六基의 住居址에서 無文土器가 出土해, 때로는 다른土器와 共伴하고 있다. 즉 第Ⅰ號住居址에서는 丹塗磨研土器와 無文土器가 조금씩 出土하고, 또 上層으로 부터는 質이 堅固한 灰色土器가 약간 出土했다. 그리고 櫛文土器도 드물게 섞여 있었다. 第Ⅱ號住居址에서는 丹塗磨研土器와 無文土器는 많았으나 磨研土器와 乳頭形把手付土器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경우 磨研土器나 乳頭形把手付土器가 全然 없었다는 것인지 어떤지는 확실하게 되어있지 않다. 第Ⅲ號住居址에서는 上層에서 磨研土器가 出土했던 점으로 보아 磨研土器가 나오는 第Ⅴ號住居址보다는 以前の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한 第Ⅲ號住居址의 埋沒後에 第Ⅴ號住居址와 같은 時期의 磨研土器가 上部에 堆積했던 것처럼 남득되어 진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第Ⅲ號住居址에 同伴하는 土器는 不分明하다. 第Ⅳ號住居址의 土器는 전부 無文土器였었다. 第Ⅴ號住居址의 堆積層에서는 「報告書」에 依하면 磨研土器가 많이 出土하고 丹塗磨研土器는 거의 出土하지 않았다고 한다. 丹塗磨研土器가 一片도 出土하지 않았던 것인지 어떤지는 記述이 없다. 그리고 「論文」에 依하면 磨研하지 않은 褐色無文土器나 褐色磨研土器가 많이 出土했다고 한다.²⁸⁾ 그리고 「報告書」에는 쓰여지고 있지 않으나 10年後에 나왔던 「論文」에 依하면 無文土器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第Ⅵ號住居址는 乳頭形把手土器가 壓倒的으로 많이 出土되었다고 하며, 또한, 이 住居址內의 堆積層의 代表的인 遺物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報告書」의 別의 部分에는 「黑色土器」가 出土했다고도 한다. 더우기 報告書에는 記載되고 있지 않으나, 鄭白雲에 依하면, 第Ⅵ號住居址의 堆積層으로 부터 나온 鐵斧와 같은層으로 부터 「灰色陶質土器」가 發見되었다고²⁹⁾ 말하고 있다. 여기

24) 黃基德, 1970, 前掲論文 8~9항

25) 「褐色磨研土器」라는 것은 「論文」에 있어서 처음 나온 用語로 『報告書』에는 「褐色土器」(筆者는 여기에서 無文土器라고 부른다)와 「磨研土器」로 2가지로 區別하고 있다.

『報告書』와 「論文」의 사이에 土器의 名稱에 있어서 어떤 코멘트도 없기 때문에 當惑케 한다.

26)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15항

27) 考古學研究所, 1960, 前掲書 26항

28) 黃基德, 1970, 前掲論文, 20항

29) 鄭白雲(朴文國譯), 1960, 「朝鮮における 鐵器使用의 開始について」『朝鮮學報』第17輯 180항, 天理.

에서도 乳頭形把手付土器가 壓倒的으로 多數였는데도 黑色土器, 灰色土器以外에, 더우기 다른 土器는 一片도 나오지 않았는지 어떤지에 對한 記述이 「報告書」에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第Ⅶ號住居址에는 더없이 많은 無文土器片이 出土되었고 丹塗磨研土器片과 黑色土器片도 出土하였으며, 더우기 櫛文土器片도 數個있었다. 第Ⅷ號住居址의 堆積層에서는 丹塗磨研土器는 거의 보이지 않고 土器는 거의 全部가 無文土器였었다. 그러나 堆積層의 上部에서는 磨研土器와 乳頭形把手付土器도 몇개가 出土했으나 그 數는 극히 적다고 한다. 第Ⅷ號住居址의 主流를 이루는 土器는 無文土器인것은 알고 있으나, 丹塗磨研土器가 一片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나, 또, 堆積層의 上部에서 나왔다고 하는 磨研土器와 乳頭形把手付土器가, 第Ⅷ號住居址와는 완전히 無關한 것인지 어떤지는 애매한 점이 많고 疑問이 남는다.

다음에 乳頭形把手付土器(第8圖)의 問題가 있다. 乳頭形把手付土器는 모래섞인 點土로 成形한 것으로, 口緣端이 직립해 있고 胴部器壁에 한쌍의 乳頭같은 把手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乳頭形把手付土器는 가장 늦은 第Ⅵ號住居址에서 出土했고, 더구나, 어쩌면 鐵斧 등의 遺物에 편성하여 初期鐵器時代的인 것이 엿보이고 있으며, 爐蹟에 관해서도 靑銅器時代와 그 이전의 遺蹟에서는 볼 수 없는 形態인 것이기 때문에 第Ⅵ號住居址를 아주 후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最近에도 第Ⅶ號住居址로 부터 나온 遺物에 鐵器가 보이기 때문에 後期靑銅器時代를 論議할때에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立場에 一貫하고 있다.³⁰⁾ 時代區分의 問題와도 關連하지만, 第Ⅵ號住居址는 鐵器時代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第Ⅵ號住居址가 靑銅器時代(筆者가 말하는 無文土器時代)의 範疇에 넣어야 할 것임은 이미 強調해온 대로이다.³¹⁾ 결국 第Ⅵ號住居址에서 出土한 乳頭形의 把手를 가진 無文土器와 有孔石器는, 咸鏡北道의 新石器時代遺蹟으로 부터 종종 發見되기 때문에, 팽이형토기와 併行하는 無文土器文化³²⁾의 것으로 생각해도 별로 무리가 없고, 특히 鐵器가 出土한 것에 의해 年代를 내려서 鐵器時代로 말할 수는 없다. 第Ⅵ號住居址가 確實히 無文土器文化로 해도, 그 年代에 대해서는 第Ⅵ號住居址의 鐵斧가 鑄造製品인 것과, 共存했다고 말해지는 灰色陶質土器가 中國의 戰國時代 土器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燕혹은 그것과 그렇게 멀지않는 時期로 생각할 수 있다. 報告書에서도 第Ⅵ號住居址와 같이 長方形으로 竪穴도 알고, 柱穴도 없는 형태가 西北址方의 靑銅器時代遺蹟으로 가끔 보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住居址의 構造에서 보더라도 西北址方과 隣接한 東北址方의 五洞遺蹟에, 韓國의 研究者들이 말하는 靑銅器時代, 결국 無文土器時代의 것이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다.

鄭白雲이 第Ⅵ號住居址 內에서 鐵斧와 같이 出土했다고 하는 灰色陶質土器에 對해서는 상세한

30) 黃基德, 1970, 前掲論文 18항.

31) 西谷正, 1967, 「朝鮮における 金屬器의 起源問題」『史林』第 50卷, 第5號, 93항, 京都. 西谷正, 1970, 「朝鮮における 初期鐵製品の問題」『日本製鐵史論』第51頁, 廣島.

32) 筆者는 原始時代의 韓國에 있어서 先土器時代, 櫛目文土器時代, 無文土器時代로 時代區分을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의 研究者는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로 나누어 時代區分을 하고있다.

記載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든 말하든 바와 같이 戰國時代의 陶質土器가 鑄造鐵斧와 같이 中國에서 朝鮮으로 搬入되고 있었거나, 혹은, 그 影響下에 韓國에서 製作되었다고 생각하면 별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無文土器의 일종인 乳頭形把手付土器를 製作해서 使用한 사람들이 中國의 燕에서 鑄造鐵斧나 灰色陶質土器를³³⁾ 受用했다고 解釋하고, 兩者의 共存을 肯定하고 싶은 것이다. 이 灰色陶質土器와 第I號住居址의 上層에서 數個 出土했다고 하는 灰色土器와의 關係는 어떤 것일까? 報告書나 論文에 의한 한, 분명하지는 않지만, 灰色陶質土器라는 名稱에서 連想되는 實體와, 灰色土器에 관한 報告書의 記述을 고려하면, 필시 兩者는 同一範疇에 드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灰色土器에 관한 報告書의 記載를 봐 보자. 灰色土器는, 그 名稱대로 灰色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溫度에서 燒成되어져 있기 때문에 質이 견고하다. 報告書에서는 鐵器時代의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筆者의 見解는 鐵器와 同伴했던 外來, 혹은 外來系統의 것이고, 無文土器와 共存했다고 생각한다. 灰色土器는 五洞遺蹟의 上層에서 出土했다고 하나, 그것이 第I號住居址뿐인가, 아니면 그 이외의 住居址의 上層에서도 나온 것인가 하는것은 분명치 않다. 口緣部에만 點土紐를 使用해서 손으로 만들고 있다. 胎土에는 모래를 섞지않고 良質의 粘土를 使用하고 있는 듯 하다. 土器窯에서 燒成했기 때문에 溫度는 800~900도를 넘었다고 하며, 色調는 灰褐色이나 黑色을 보이는 것도 있다. 形態로서는 碗과 같은 것도 있으나 대개는 口徑이 좁고, 그 口緣部가 크게 外反한 壺이다. 口緣端部에는 篋와 같은 施文具로 刻目を 押壓하거나 혹은 描出한 것이 있다. 把手에는 縱長의 突出한 것이 붙어있다. 이것만의 記述로서는 詳細히 모르겠지만 小形의 壺 중에는 肩에서 胴部에 걸쳐 列點文과 같은 것이 있다. 위의 特徵만으로 볼때는, 극히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灰色土器라고 하는 것은, 中國·燕의 戰國式陶器가, 혹은 그것의 強한 影響을 받아서 韓國에서 製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 같은 第VI號住居址에서만 出土되었다고 하는 黑色土器를 들 수 있다. 黃土와 같은 부드러운 모래가 섞인 粘土로 만들어진 黑色土器가 咸鏡北道일대에 자주보이며 鍾域郡三峯의 돌막遺蹟과 羅津郡草島遺蹟등이 代表的이다. 거기에는 乳頭와 같은 把手가 붙었던 甕, 甌을 비롯해서 高杯, 台付碗 等の 器種이 있다. 五洞遺蹟의 第VI號住居址에서는 破片만 出土되어 그 形態는 알 수 없으나, 土器의 胎土가 속 까지 검다고 하며, 蓋가 있는 窯施設에서 高溫度로 燒成되었다고 한다. 손으로 整形하였으며 外側은 정연하게 磨研했다. 第VI號住居址로 부터만 出土하고 있으며 乳頭形把手를 갖는다고 하기때문에, 乳頭形把手付土器와의 共存關係에 있다고 생각해 두자.

다음에 櫛文土器에 대하여 언급해 보자. 櫛文土器는 全部 破片이며, 그 수는 약 150余點에 달하고 있으나 無文土器와 섞여서 出土했다. 특히 第I號住居址에서는 가끔 混入되어 출토하고, 또 第VII號住居址에서도 數個 出土되었다. 그것 이외의 出土狀況에 대해서는 報告書에 記載되고 있지 않다. 五洞遺蹟의 櫛文土器는 가는막대로 눌렀거나 篋 같은 것으로 세게 土器表面을 그어 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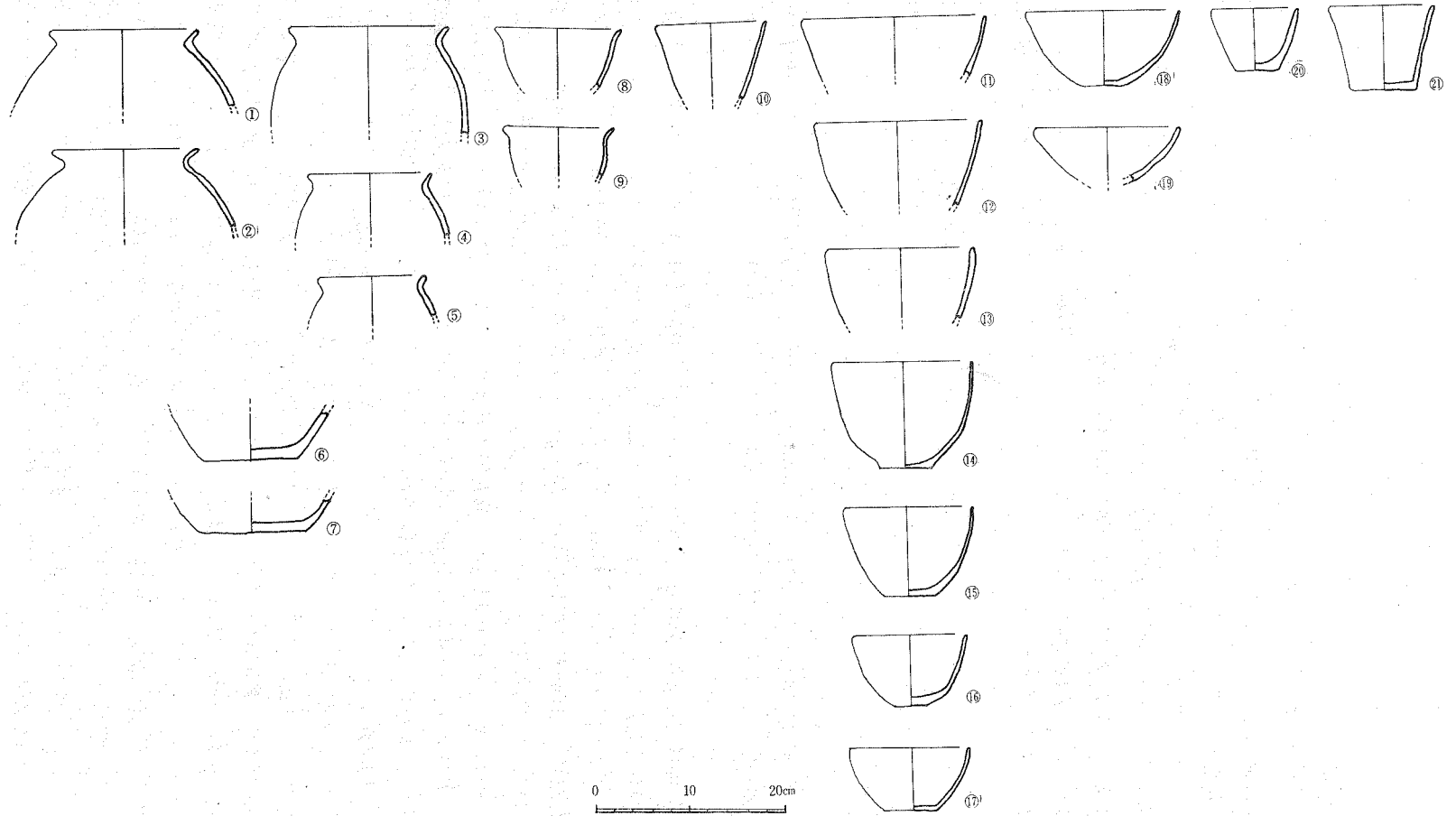
33) 灰色陶質土器에 있어서는 韓國에서 製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文土器表面에 描出했던 것으로, 質은 褐色의 無文土器와 대략 類似하다. 類似한 文樣을 가진 土器는 遊仙郡 黑拘峯遺蹟에서도 보인다고 말해지고 雄基郡 松坪洞遺蹟의 土器에도 비슷한 것이 있다. 土器破片中에는 口緣部도 있으나, 口緣端이 수직으로 끝나는 것과 조금 外反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後者에는 無文土器와 같이 刻目文의 裝飾을 가진 것도 있으며, 어느 것이나 櫛文土器의 終末期의 것이 많은 것 같다. 이 土器에 同伴하는 遺構는 發見되지 않았으나, 틀림없이 五洞遺蹟에 있어서도 일찌기 櫛文土器文化의 生活面이 있었고, 그것이 無文土器文化의 集落造成에 의해서 破壞되었기 때문에, 無文土器文化의 遺構와 遺物안에 混入했던 것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乳頭形把手付土器는 無文土器文化의 範疇에 들고, 더구나 그것들은 灰色陶質土器와 黑色土器가 共存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櫛文土器는 大部分이 櫛文土器時代의 終末期의 것으로 無文土器文化 以前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五洞遺蹟의 無文土器文化는 無文土器, 丹塗磨研土器, 磨研土器, 乳頭形把手部土器, 黑色土器, 灰色土器라고 하는 多彩로운 土器形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時期差가 있었던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 次項에서 檢討해 보고자 한다.

五洞遺蹟出土 無文土器文化의 細分, 즉 型式差의 設定에는 重複해 있었던 住居址相互間의 前後關係, 또 住居址의 方向과 構造의 類似에 의한 同時性등을 規準으로 생각하고, 共存遺物도 參考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第三節에서 住居址相互의 關係를 言及했던 中에서, 第Ⅳ號住居址의 아래에 第Ⅷ號住居址가 있고, 또 第Ⅵ號住居址는 最上層에 있을 뿐만아니라, 住居址의 構造와 遺物에 있어서도 이번에 發掘했던 住居址內에서 가장 후기의 樣相을 보였다. 第Ⅴ號住居址가 第Ⅱ號住居址와 重複하고 있고, 第Ⅱ號住居址가 第Ⅷ號住居址를 다시 重複하고 있는 것 등으로 봐서, 第Ⅱ號住居址가 第Ⅷ號住居址보다 늦고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重複關係는 아니나 遺物의 편성으로 부터 보아 第Ⅳ號住居址가 第Ⅱ號住居址보다 늦고,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오래된 것도 指摘되고 있다. 그리고 遺物의 編成과 住居址의 方向으로 보아, 第Ⅰ號住居址와 第Ⅱ號住居址와의 同時性이 생각되어 진다. 第Ⅶ號住居址는, 住居址의 方向으로 보면 第Ⅱ號住居址와 第Ⅳ號住居址와의 同時性을 언급하게 되나, 遺物의 편성은 第Ⅱ號住居址에 가깝다. 그리고 第Ⅲ號住居址에 대해서는, 上層으로 부터 第Ⅴ號住居址에서 현저했던 磨研土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第Ⅴ號住居址보다는 이르다고 말해진다. 方向이나 遺物로서 말하면 第Ⅱ號住居址에 가까운 듯한 기분도 있다. 따라서 第Ⅷ號住居址→第Ⅰ·Ⅱ號住居址→第Ⅳ號住居址→第Ⅴ號住居址→第Ⅵ號住居址라고 하는 5個의 時期로 編年이 可能하다. 그러나 이 五期의 編年이 그대로 無文土器文化의 五期編年을 의미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五洞遺蹟의 無文土器文化에 관한 分期일 뿐이다. 예를들면 地境洞遺蹟의 土器는 把手를 가진 點에서는 第Ⅵ號住居址에 가까우나 한편 刻目の 突帶를 가진 點에서는 第Ⅴ號住居址에 가깝고, 第Ⅴ號住居址와 第Ⅵ號住居址사이에 들어간다고 想定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細分이 進前될 可能性이 있다. 또 第Ⅳ號住居址의 無文土器와의 比較에 있어서 第Ⅷ號, 第Ⅰ號, 第Ⅱ號住居址의 無文土器의 實相을 알게되면, 그것의 3期區



第5圖 第Ⅱ號住居址出土丹塗磨研土器

分이 다시 細分되는 경우와 그 逆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첫째로 第Ⅷ號住居址를 생각해 보자. 앞에서 筆者는 五洞遺蹟의 基本的인 土器는 無文土器인 것을 指摘했다. 第Ⅷ號住居址에 있어서 無文土器가 出土해 있는 것이 記述되어 있으나, 無文土器로서 一括되었던 資料중에서 어느 것이 第Ⅷ號住居址의 出土物인 것인가하는 것이 明示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形式設定이 극히 困難하다. 그렇지만 無文土器로서 一括되었던 土器중에는 分明하게 여러 形式을 보이기 때문에, 장래 第Ⅷ號住居址의 無文土器를 摘出할 必要가 있다. 또 第Ⅷ號住居址에는 丹塗磨研土器가 出土하지 않았으나, 櫛文土器의 終末期에 해당하는 丹塗土器가 이미 發見되었기 때문에, 第Ⅷ號住居址의 段階로 丹塗磨研土器의 存在를 豫測할 수가 있다.

둘째로 第Ⅰ號, 第Ⅱ號住居址에서는 無文土器와 丹塗磨研土器가 出土했다. 第Ⅰ號住居址의 上層으로 부터 灰色土器가 나왔으나, 後世에 흘러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除外한다. 그런데 無文土器에 대해서는 第Ⅰ號, 第Ⅱ號住居址에서 어떠한 形式의 無文土器가 나왔는가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 第Ⅰ號住居址出土의 丹塗磨研土器에 대해서도 같다. 다만 將來 그土器가 明示될 것을 바라고 있다. 第Ⅱ號住居址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지는 第Ⅶ號住居址으로 부터 黑色土器가 出土하고 있는 것을 參考로 하면 第Ⅰ號, 第Ⅱ號住居址의 段階에서 黑色土器의 存在도 豫測할 수 있다. 단 第Ⅵ號住居址에 탁월했던 黑色土器가 第Ⅵ號住居址와 重複했던 第Ⅶ號住居址에서 出土하고 있는 것, 그리고 第Ⅶ號住居址가 一部밖에 發掘되고 있지 않는 것등을 考慮해 보면, 第Ⅶ號住居址의 黑色土器가 第Ⅵ號住居址의 混入品이라고 하는 疑問도 成立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더라도, 咸鏡道의 櫛文土器의 終末期에도 黑色塗彩土器가 있고, 또 五洞遺蹟의 第Ⅵ號住居址에서는 黑色土器가 優勢하기 때문에, 黑色土器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겨 두고 싶다.

第Ⅱ號住居址의 丹塗磨研土器에 대해서는, 第五圖에 보였던 土器가 거의 第Ⅱ號住居址의 出土品이라고 하기 때문에, 形態에 대해서 그 셋트關係를 比較的 잘 알 수가 있다. 즉 壺, 鉢, 碗 등이다. 丹塗磨研土器는 第Ⅰ號, 第Ⅱ號住居址에서 出土되었는데, 모아서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즉 黃褐色을 나타내고 精巧하게 燒成된 土器의 表面에 赤色顏料를 塗彩했던 것이다. 鉢과 碗이 많으나 珠形에 가까운 胴部에 “<”字形의 口緣部를 가진 壺도 있으며, 底部는 어느 것이나 平底이다. 이 種類의 土器는 中國의 內蒙古에서 東北址方으로 分布하고 있으며, 豆滿江流域에서는 延吉小營子, 鍾城三峯, 雄基西浦項·松坪·琵琶島, 羅津草島등지에서 出土되고 있다. 胎土에는 黃土에 비슷한 精選된 粘土를 使用하고 있으며 器形의 差異에 關係없이 共通의 胎土이다. 底部에서 부터 빚어 올려서 整形했던 것이나 器壁의 두께가 一定하고, 또 表面은 매끈하다. 600~700도에서 燒成되었던 것으로 表面은 黃褐色을 나타내고 있다. 碗에는 底部가 좁은 것과 넓은 것이 있는데, 前者에 있어서는 胴部가 완만한 圓弧를 이루는 것이 많다. 鉢에는 口緣部가 조금씩 外反하는 것과 수직인 것이 있다. 後者에 있어서는 底部가 넓다.

세번째로 第Ⅳ號住居址의 出土土器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른바 無文土器밖에 出土되고 있지 않는 듯 하며, 그 이외의 丹塗磨研土器와 磨研土器, 黑色土器 等の 存否에 對해서, 將來 原資料에 맞게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無文土器에 對해서는 器種의 編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資料이나 그외에 高杯 등의 存在도 推測되기 때문에 역시 今後의 課題로 남겨 두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五洞遺蹟의 無文土器는 胎土에 모래가 섞인 粘土를 使用하며 손으로 빚거나, 또는 輪積法으로 整形되고 있다. 대략 먼저 底部를 만들고 그 緣邊을 위로 빚어 올려서, 거기에 粘土로 둥근고리를 만든다음 손으로 빚어 덧붙이고 胴部下半까지 만든다음 그 위에 粘土의 둥근고리를 쌓아서 順次的으로 올려 간다고 한다. 土器의 表面은 內外 共히 까칠까칠한 느낌을 주나 때때로 아래 위로 빚질했던 것도 있다. 器壁의 두께는 一定하지는 않으나 一般的으로 두꺼운 편이며, 燒成溫度는 500~600度 정도로 露天에서 굽혔다고 말해진다. 色調는 赤黑色의 것이 많고 드물게 黑灰色의 斑點도 보인다. 壺類에는 黃褐色이 많고 碗등에는 赤褐色이 많으며 土器의 形態와 種類에 의해서 色調가 다르다고도 말해진다.

口緣部는 外反한 것이 가장 많다. 甕에는 口緣部가 넓고 그 口緣部는 外反하며, 壺는 口緣部가 좁아지고 그 端部가 조금 外反한다. 底部는 一般的으로 좁고 편평하며 底部에 나무잎을 깔았던 것은 없으며 底部의 周邊이 突出해 있는 것은 적지 않다. 底部의 中央에 直徑2cm 정도의 약간 커다란 구멍을 뚫고 다시 그 周圍에 直徑5mm 정도의 작은 구멍 5개를 燒成前에 뚫었던 甌(시루)의 底部도 알 수 있다. 口緣部에는 裝飾이 종종보이는데, 大別하면 三種類이다. 一定한 間隔에 穿孔되었던 小孔을 늘어 놓은 것, 內側에서 器壁의 안까지 눌러서 小孔을 움푹 패이게한 結果 外表面에 突瘤(혹)를 가진 것, 손가락과 손톱으로 押壓했던 것, 및 小孔과 押壓文을 합했던 것 등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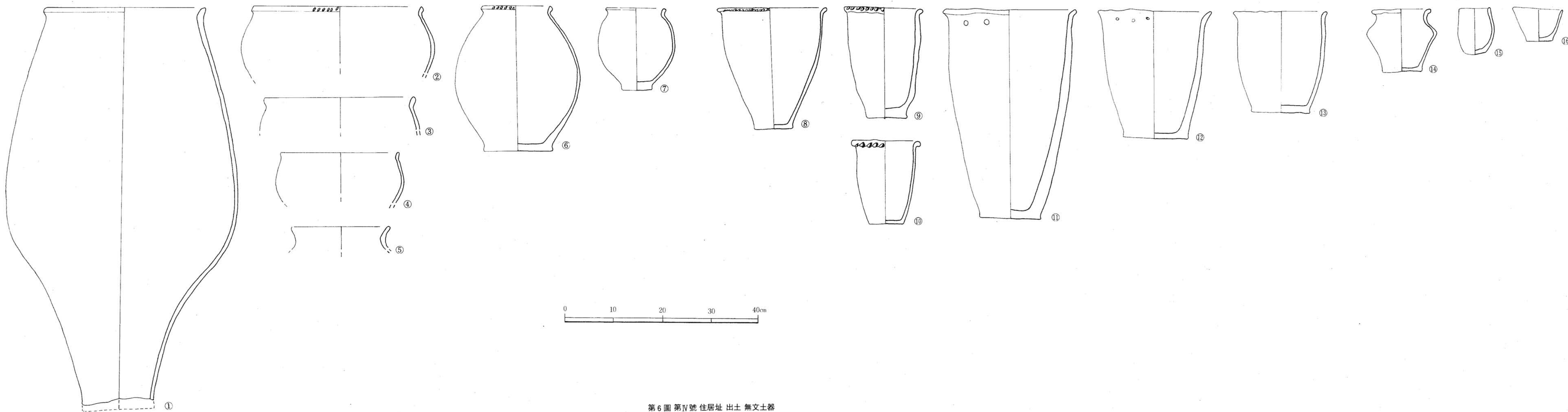
無文土器의 形態로서는 一般的으로 下部가 좁고 胴部가 약간 볼록해지고 口緣部가 外反한 分化形의 甕이 絶對적으로 多數를 차지한다. 이와같은 甕이외에도 形態와 種類는 雜多하다.

第Ⅳ號住居址의 無文土器(第六圖)에서는 먼저 酒瓶을 꺼꾸로 한것 같은 形을 한 大形의 壺가 있다.(第6圖①), 底部에서 直行한 器壁은 갑자기 볼록해져 胴部로 移行하고, 그곳으로부터 조금씩 좁아지는 것처럼 되어서 口緣部에 이른다. 口緣部는 약간 “<”字形과 같이 外反한다. 높이 약 80cm, 口徑32cm, 胴部最大口徑이 46cm이다. 底部가 빠졌던 것을 住居의 西南隅로 질러 넣어서 使用했다.

또 하나의 形態를 이루는 壺(同⑥)는 底部와 口徑이 거의 같으며 口徑이 좁고 底部가 넓은 감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나 底徑이 口徑보다 좁고, 球形의 胴部를 이루는 것이(同⑦) 보통이다. 전자는 높이 28cm, 口徑 14cm, 胴部最大徑이 25cm를 나타내고, 口緣端의 突帶狀의 部分에 刻目文 혹은 押壓文이 보인다. 後者의 口緣端에는 文樣이 없다.

甕은 分化形을 나타내나 口徑이 비교적 크고 넓은감을 주는 것과(同⑧) 底徑에 대해 그것만큼 넓지않은 口徑을 가졌던 것(同⑨)도 있다. 前者에는 口緣이 “<”字形으로 外反하고 그 口緣端의 肥厚部에 刻目文 혹은 押壓文이 보인다. 後者에서는 더욱더 口緣端이 둥글게 外灣하고, 그 端部에 指壓文과 같은 文樣을 갖는 것과, “<”字形으로 완만하게 外反하는 口緣端의 아래에 小孔과 突瘤(혹)를 나란히 하는 것이 있다. 그외에 胴部가 아주 나와있는 小形의 壺(同⑭)와 小形의 鉢(同⑯)이 있다.

네번째로 第Ⅴ號住居址出土의 土器를 들 수 있다. 第Ⅴ號住居址에서는 磨研土器(第七圖)만 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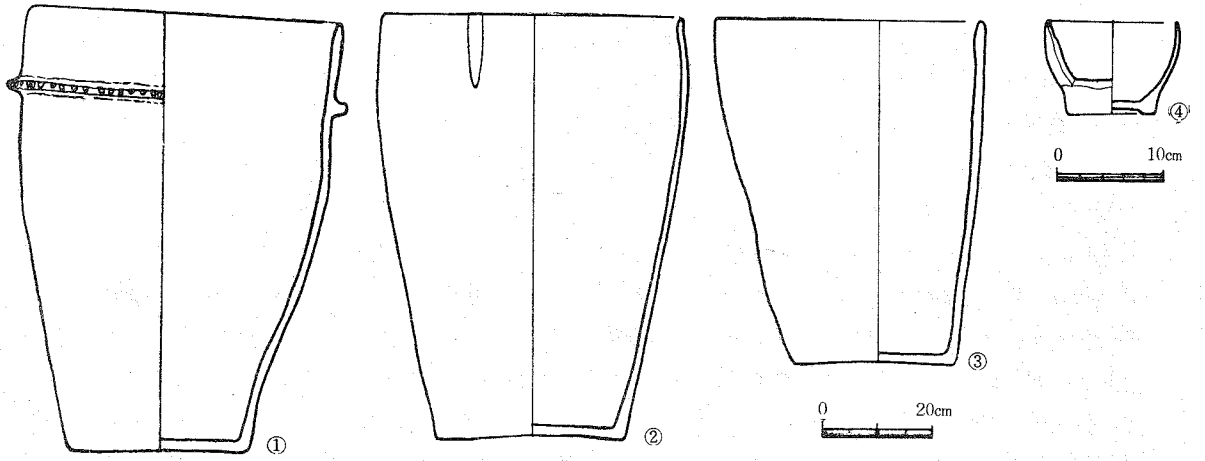


第6圖 第IV號 住居址 出土 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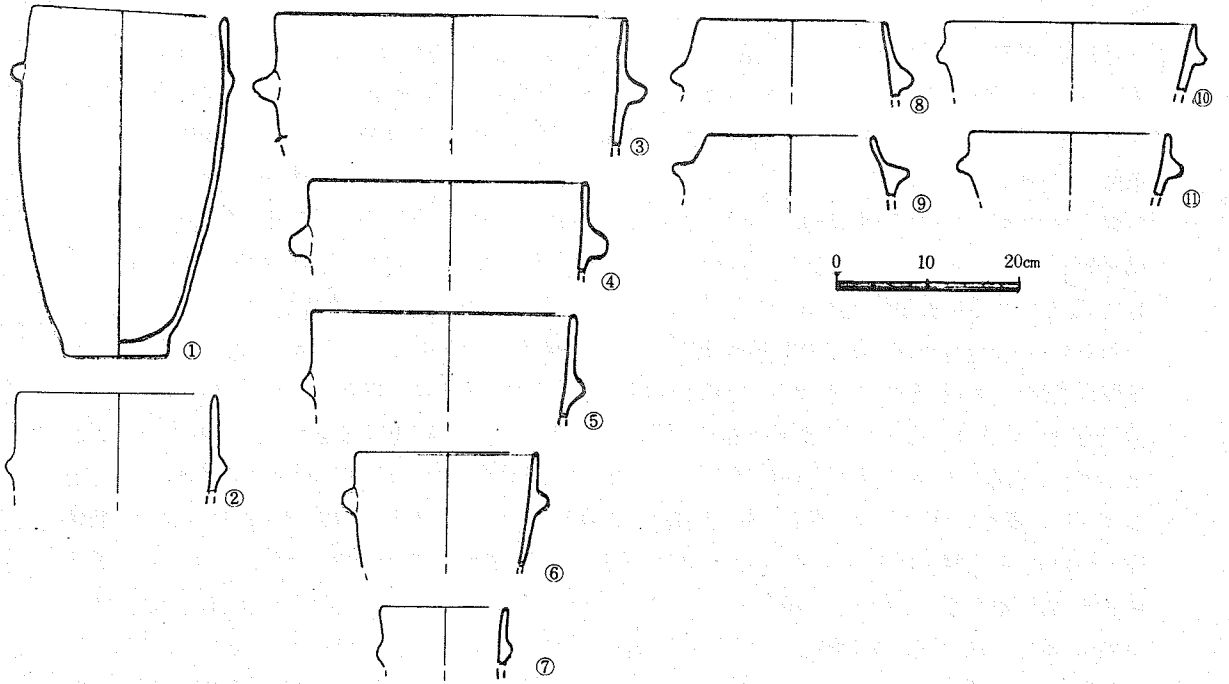
土했다. 더구나 第V號住居址에서는 甕밖에 알려져 있지 않기때문에, 이것과 共存하는 他의 器種이 이른바 無文土器인가, 혹은 같은 磨研土器인가 하는 疑問이 남는다. 단 第V號住居址의 甕은 第IV號住居址出土의 甕에서 系譜를 더듬을 수 있다. 즉 第V號住居址의 口徑에 對해서 比較的 큰 底徑을 가진 土器(同②)는 第IV號住居址의 甕의 일종으로 보인다. 第V號住居址의 土器에서 口緣端이 外反하지 않고 수직인 點과, 胴部가 그다지 넓지 않고 수직에 가까운 것, 더우기 口緣下에 突帶를 가진 것이 있는 것 등 새로운 特徵이 發見된다. 또 小形의 碗(同④)은 들린 바닥을 하고 있는 점이 注目된다. 磨研土器는 끈기가 강한 粘土로 整形한 比較적 두꺼운 土器로 内外面은 물론, 底部까지 磨研하고 광택을 내고 있다. 이 種類의 土器는 豆滿江流域의 鍾城洛生里 地境洞을 비롯해서 會寧沙乙里, 鍾城 潼關里, 水南·水北遺蹟등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다. 胎土에는 상당히 끈끈한 粘土를 使用하고 있으나 丹塗磨研土器의 胎土와 같이 부드러운 砂土를 섞은 것 같다. 碗類를 除外하면, 우선 底部를 만들고 나서 輪積을 하고 있으며, 바닥의 두께는 一定하나 中央의 바닥이 들린바닥으로 되어있다. 碗類는 손으로 빚어서 整形하고, 들린바닥을 하고 있고 燒成溫度는 대략 800~900도의 높은 溫度로 구워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견고하게 燒成되어져있다.

色調는 부드러운 色을 내고 内外面에 黑色을 발랐던 것같은 얼룩이 보이는 것이 많으며 口緣部의 아래에 突帶를 두르고 그위에 文樣을 가진 것과 갖지 않은 것이 있다. 文樣에는 押壓列點文과 刻目文과 같은 것이 있다. 形態에서는 底徑이 약간 좁은 圓筒形의 甕이 代表的인 것이며 器壁의 두께는 13mm 内外이고, 높이는 75cm를 넘는 대형의 것도 있다. 甕들 중에는 口緣 밑에 突帶를 貼付했거나 口緣에 乳頭와 같은 裝飾을 附加했던 것이 있다. 甕외에 碗, 鉢등이 있으며, 第III號住居址의 上層에서 出土한 小形의 甕, 高台와 같이 底部에 붙은 얇은 碗等이 第V號住居址의 出土品과 共通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 보면, 세트(Set) 關係를 構成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지막 다섯번째 로서 第VI號住居址出土의 乳頭形把手付土器가 있다. 全體의 器形으로서 第V號住居址의 甕의 形制를 引用한 것이나 口緣의 아래에 乳頭形의 把手를 한쌍 갖춘 點에 커다란 特色이 보인다. 여기서도 甕形土器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壺形土器에, 이른바 갈색의 無文土器의 系譜를 이어받은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나 不分明하다. 乳頭形把手付土器가, 「無文土器로 부터 變化했던 것인가」혹은 「無文土器와는 별도의 것으로 兩者가 共存한 것인가」라는 問題點이 있다. 第VI號住居址에서 共存했던 黑色土器는 다른 遺蹟에서 乳頭形把手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乳頭形把手付土器의 一種으로 봐도 크게 상관이 없을것 같다. 그 중에는 磨研했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第V號住居址의 磨研土器 特徵의 명맥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灰色陶質土器가 共存한 것은 이미 言及했던 대로이다. 여기에서 조금더 乳頭形把手付土器(第8圖)의 特徵에 對해서 確認해 두자. 胎土로서는 粘土에 부드러운 모래가 섞여 있고 강자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雲母片이 들어 있으나, 고의로 雲母片을 섞었던 것 같지는 않다. 胎土가 굵기 때문에, 器面은 매끄럽지 않고 약간 粗雜하게 보이며, 製作法으로서 輪積法과 卷上法을 使用하지 않고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色調는 灰褐色이 많고 열고 검은 것도 있으며, 燒成溫度는 약 600~700°C 라고 한다. 이 土器는 露天은 아니고 일종의 窯壁이 있는 窯施設로 燒成되



第7圖 第V號住居址 出土磨研土器



第8圖 第VI號住居址 出土乳頭形把手付土器

었다고는 하나, 根據와 詳細한 것은 不分明하다. 이 土器의 特色으로 되어있는 把手는 乳頭와 같은 것이 口緣의 下部에 양쪽으로 붙어 있다. 把手 中에는 土器가 整形되고 부터 器壁에 구멍을 뚫어 붙였던 것과, 整形때 器壁의 粘土를 쌓아 올려서 만든 것도 있다. 形態를 보면 口緣端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둥근듯 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 口緣部가 수직인 것(第8圖, ㉓)이 一般의이나, 조금 外側으로 넓은 것(同㉔)과 內側으로 內傾한 것(同㉕)도 있다. 全體의 器形은 提示되었던 범위내에서 대개 壺形으로 限定되어 지며, 크기는 一定하지 않고 여러가지 이다. 그리고 바닥이 작고 두꺼운 것이 特徵이며, 底部가 움푹 패이고 周緣이 나온 것도 있다. 復元되었던 甕은 一個뿐이다(同㉖). 높이는 38cm, 口徑21cm로 胴部가 조금 볼록해 지고 있으며, 把手는 口緣端으로부터 7cm 아래에 붙어 있다.³⁴⁾ 이것과 類似하고 혹은 形式의으로 先行한다고 생각되는 것에 地境洞遺蹟의³⁵⁾ 出土品이 있다. 地境洞遺蹟은 五洞遺蹟으로 부터 東北으로 20Km 정도의 곳에 있으며, 無文土器도 出土한 遺蹟이므로 五洞遺蹟과 對比하는 것에 적합하다. 여기에는 大小의 甕, 鉢, 台付鉢 등의 種類가 있다. 大形의 甕에는 內面에 輪積한 痕跡이 있는 것과, 內灣한 肩部에 4개의 把手를 갖고 거기에 칼자욱을 넣었던 것이 있는 것, 把手의 사이에 한줄의 押壓列點文帶를 두른 것등, 五洞遺蹟 出土의 乳頭形把手付土器와 약간 다른 樣相이 보이나, 胎土, 色調, 器形에 있어서 共通的인 點도 있고, 필시 五洞遺蹟 VI號住居址出土의 土器에 先行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地境洞遺蹟에서는 그 외에 鉢, 台付鉢등의 器種에도 많이 있는 것이 注目되고, 五洞遺蹟의 乳頭形把手付土器의 形式에 대해서도 他의 器種의 存在를 推測할 수 있다.

五. 끝맺는 말

지금까지 記述해 왔던 것 처럼 五洞遺蹟出土의 各種土器를 分析하면 住居址의 變遷에 의거해서 五洞遺蹟에 관한 五期로 編年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豆滿江流域이나 東海岸 沿岸流域으로부터된 北部韓國 全體의 編年에 까지 止揚하기에는 時期尙早의 感이 없지않다. 왜냐하면 各遺蹟에서 確固히 했던 編年을 確認해 가는 中에서 五洞遺蹟의 五期編年이 細分되는 경우와, 오히려 逆으로 縮約되는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北部韓國 全域을 包括한 無文土器를 編年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各遺蹟에의 確實한 型式設定과 그것에 근거한 編年이 必要하며, 그와 같은 基礎作業을 거침으로서 만이 다음의 目的이 達成되는 것이다. 그 意味로 이번의 五洞遺蹟 出土 土器의 編年作業을 그 出發點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1960년에 五洞遺蹟의 報告書가 公刊된 以來 10年後의 1970년에 提出된 論文에는 상당히 疑問點이 많다. 無文土器의 編年에 關하여 말하면, 靑銅器時代(筆者가 말하는 無文土器時代)의 文化로서 五洞遺蹟의 第I號, 第II號住居址를 指標로 하는 「赤色磨研土器」(筆者가 말하는 丹塗磨研土器)와, 第IV號, 第V號住居址를 地標로 하는 「褐色磨研土器」의 2時期로 區別해서, 前者를 前

34) 이상의 記述은, 考古學 研究所, 1960, 前掲書 48~49항에 의했다.

35) 樞本杜人, 1968, 「咸北先史遺蹟의 調査(2) —靑丘考古記2—」 『朝鮮學報』 第47輯, 97~100항, 天理.

期, 後者を 後期로³⁶⁾ 區分하고 있다. 거기에는 가장 오래된 第Ⅷ號住居址와 그 出土品을, 「赤色磨研土器」住居址인 第Ⅴ號住居址의 아래에 있기때문에 問題로 삼지 않는다든가³⁷⁾, 第Ⅵ號住居址에서는 鐵器가 出土되었다고 하여 鐵器時代에 까지 年代를 낮추어 靑銅器時代에서 除外하고 있다. 이 처럼 五洞遺蹟의 無文土器文化 中에서 가장 이른 第Ⅷ號住居址나, 가장 늦은 第Ⅵ號住居址를 無視하고 있는 점에 우선 하나의 커다란 錯誤가 있다.

또한 報告書에는 褐色의 無文土器를 出土한 第Ⅳ號住居址보다도 磨研土器를 出土한 第Ⅴ號住居址가 더욱 늦다라고 하고 있지만 論文에 의하면, 第Ⅴ號住居址에서도 無文土器가 出土하고 있다. 거기에는 當然히 形式差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도 土器가 提示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特히 前述한 대로 報告書에는 褐色土器와 磨研土器를 明確하게 區分하고 있는 것인데, 반하여 論文에서는 褐色磨研土器로 兩者를 統一시켜 취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 사이의 事情이 전혀 說明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第Ⅴ號住居址의 磨研土器가 第Ⅳ號住居址의 褐色土器와 셋트關係를 이루는 것은 지금까지 어디에도 論議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五洞遺蹟을 例로 하여 樹立된 無文土器의 二時期區分에는 어쨌든 承服할 수가 없다.

(1974. 10. 19.)

36) 黃基德, 1970, 前揭論文, 8~9항

37) 黃基德, 1970, 前揭論文. 18항

義盡瘁王事而若有違約者當以軍律施行云云 咸應曰諾
於是乎人心稍定 闔境晏然

○當乎壬申西賊之變人心涵涵有多奔竄本府鄉孫等會于柞
溪書堂相約曰吾始祖太師公起自倡義而忠義二字為我鄉孫
世守之志業前朝紅賊亂有戶長竭誠捍王之勲勞恭愍王特
加厚賞我朝萬曆壬辰天啓甲子崇禎丙子雍正戊申亂
我鄉孫連為效勞故英廟己酉頒教文許以鄉孫之能知大
義特下與士族一體勸課之恩命況先師麗禱之方喪食素
啟碑必起亦莫非忠義則今我後生雖不肖敢不繼前人志業哉
吾儕中名編史籍者專力守城廩我地主從事儒業者相率舉
義盡瘁王事而若有違約者當以軍律施行云云咸應曰諾於
是乎人心稍定闔境晏然

我不同類也以若種我之俗安有捨我衣裳而從彼之介
辨試勝敗之形不待戰而後可知而顧此常國之徒初出
尊權之計且是無謀之輩劫於利害死生之私不
國事之如何生靈之如何強為此持漏甕是沃萬
之計夫以前日則 朝廷之事雖不可與和而王
今日則以
之地似不可袖手尼視茲不勝憂之功效此替白
依頓

56

閣下留念 省譽焉
伏奉留新元
益地氣體候連身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生病
已三年子膺規病亦三年父子之病俱到極地矣生
信前冬以後稍得生道子病似不可救伏切悶耳
前以前卷
晉真即入路同慶而生之父子一未晉質於軒陛之
前和情愴感實難為地至於 上書亦無使因

57

春克修上今春聲得此路凡有私情之可
白者亦不敢呈上再餘伏祝為國
保重以慰生靈之望不備曰
辛巳正月十七日生權載鐸上書 閣下卷

58

七. 雜文

單張의 형태로 전하는 이 기록은 洪景來亂에 접한 安東 吏族
들의 대응결의를 수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이 기록 중에 安東의
吏族들이 會集하여 相約했다고 하는 柞溪書堂은 柞溪祠에 附設
된 書堂으로서, 이 祠宇는 安東의 전형적인 鄉吏知識人이라 할
麗澤齋 權載運(一七〇一—一七七八)을 配享했던 곳이다. 權載
運은 知印으로부터 立身했던 이력으로 말미암아 吏族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으며, 또한 널리 추앙받았던 것이다. 權載運은
權永翁과는 소수 家系는 달랐으나 그 역시 監營吏를 배출할
수 있는 주도적 家系 출신으로서 《麗澤齋遺稿》라고 하는 文
集도 남겼다.
한편 이 내용 가운데 吏族들 내 두 부류들이 각기 소임을 다
한다고 한 대목도 주목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吏族을 吏
案에 오른 부류와 儒業에 종사하는 두 부류로서 나누어 지칭
해 놓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조선 후기 이후 鄉吏知識인들이
뚜렷하게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當乎壬申西賊之變 人心洶洶 有多奔竄 本府鄉孫等 會
于柞溪書堂 相約曰 吾始祖太師公起自倡義 而忠義二字
爲我鄉孫世守之志業 前朝紅賊亂 有戶長竭誠捍王之勲勞
恭愍王特加厚賞 我朝萬曆壬辰天啓甲子崇禎丙子雍正戊申亂
我鄉孫連爲效勞故 英廟己酉 頒教文許以鄉孫之能知大義
特下與土族一體勸課之恩命 況先師麗齋之方喪食素殿牌必
趨 亦莫非忠義則 今我後生雖不肖 敢不繼前人志業哉 吾
儕中名編吏籍者 專力守城 扈我地主 從事儒業者 相率舉

橫以事理似必有事而後已近來領議大發若當
 有多之日則將欲一遷活凱一遷倡義每身願
 忘後得
 下言於五之虞必存閣等樣則借發不難此非但
 為國家義理之當然置觀四五年挽回重之
 潘守在此一路伏願
 留必有察焉五六通寺處當其時仰白耳
 伏本當否否

50

大監氣體似連身易安伏息此之無任下誠生
 願此伏信何遠曠 假此久茲以替白
 耳餘伏祝為
 國保重以副遠外區之之望不備白
 改庚土月初十日生權載錄 書新軒
 寬面事勢走木的知如轉移之機似在此時
 閣下處分雖非生之所聞味而抑揚之際機關
 深不勝顯醫為敢替白耳

51

伏本當新正
 大監氣體似連身易安伏息此之無任下誠生
 願此伏信何遠曠 假此久茲以替白
 耳餘伏祝為
 國保重以副遠外區之之望不備白
 改庚土月初十日生權載錄 書新軒
 寬面事勢走木的知如轉移之機似在此時
 閣下處分雖非生之所聞味而抑揚之際機關
 深不勝顯醫為敢替白耳
 下教中國字下有亡字人字下有死字又伏見斤和碑文

52

曰主和賣國當時國論皆欣欣相賀曰國安有長存不亡之國
 中人宜有長生不死之人乎與其義而存不若得義而亡豈
 為倫權而生不若為人而死惟其計較於存亡之際是以主和之說
 起焉惟其恐懼於死生之地是以賣國之徒繼焉惟其為今我
 國下既主和之論而洞斥賣國之徒則死生存亡非所論而五百
 年文明之流三千裡禮義之俗庶可保而有無愧於周公之廟矣
 狄鄒聖之闢邪說而況以閩南而照之則國不必亡人不必死乎
 奈之何甲戌秋衣居東之後時為大度義理都喪始以受言

53

為及為移權許者畢竟別致乎今日其曰胡與倭也事之如
 禮之君東國之服事中國非以胡而事之也以其踐中國承大
 統而猶有天子節義至今有拂鬱之懷而況彼踐中國受
 統乎其曰發廢則土則當入居而通貨云者自古隣國之
 通好者安有入居其土地使其民人然後為講好哉况彼
 之設計不過與洋國腸肚相連變亂我衣衾禽糧我人民
 子女玉帛必克其欲而後已今此主和之說賣國于不賣國
 乎於乎三尺之碑八路所聞而去月十九日事遂未知何以處

54

之既不聞
 陛下之至此議措此事則其所不知者亦非所難知近自數年以
 來器械備糧儲亦竭似無東濟之道而後國之不保者亦
 多則既非師直為法況為洋人先驅者不過貪我玉帛而已
 則魏相所謂貪兵是也以此國兩言之則表裏山河在巨首
 是故以隋唐之師而蓋取於三分之句鹿則今日山川即昔
 日之山川也社稷既存則目下之兵糧備美炮軍既設則目
 下之精兵在矣若命知兵一人倡求八路之義旅則彼

55

予愛之厚常恐溢然不得報為一耳餘依
 國保重懸區區之望不備白
 丁丑三月二十日生確載錄書
 伏未審初念
 大監氣體候連享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其自安東
 之斗谷九月十四移寓闕慶之蓋坪距京三百八

44

十里春田荒夏近為穢移所廢未允趨進伏坊遠外
 區區之忱而已伏祝為
 國保重以慰瞻望大備白
 權熒事果是荒蕪底人而于後永無聲息雖欲跟蹤
 茫然莫知未充上白伏坊悚惶而已
 止近洞新慶躬未遲已三年書木上已六朔矣且荒
 野僻遠聞未聞裏面之如何橋首西望只仗坊遠外
 之忱而事有可疑者三夫以

45

閣下之地彼輩之德惠縱或偷一時之倖而今已三年矣
 不可然者一也且以
 閣下之望雖無這地位而滿廷羣臣無敢望餘光而頓
 風則不可然者二也且一朝廷多事外繁類起苟
 閣下當運之威河海之量無以措手而善處矣况
 閣下亦和一款已扶五百年義理為八路所仰望則不
 可然者三矣然而日望西音消息永寂則或者憚

46

到適然而將指斥時之闢字抑或
 閣下左右無人可議到徒以身前之事陳述一不為長
 遠慮乎况今金木會枯斗柄熒惑懸危躔外蒼
 似不止此若失此機會而因循以過則深非處置之
 道生之較為此累二者徒恃 寵愛之隆而忘其德
 越之罪伏願
 俯心省察焉
 嘗讀通鑑唐太宗謂侍臣曰吾對陣便知其驕弱

47

以吾弱當其體下當其弱彼未吾弱不過百步而止
 吾求其弱必出其陣後逐擊之無不勝矣此善策
 也
 道德方以復設疏舉事今月二十八日發行而仁同之
 張安東數三奏魯王其亭不與其論者目之以其小
 黨攻斥無比如英陽趙東儒其時累為都廳及奉
 疏故英倅空然提回受辱萬端不得獲痊移寓
 他鄉故洪州令李景藏之捕振伯亦終始不復敢

48

同為此聞慶地也則以今番疏舉欲改為斤和之疏
 事則不成而徒受侮弄伏坊痛歎耳
 伏未審五夏
 大監氣體候連享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其自安東
 之斗谷九月十四移寓闕慶之蓋坪距京三百八
 閣下當運之威河海之量無以措手而善處矣况
 閣下亦和一款已扶五百年義理為八路所仰望則不
 可然者三矣然而日望西音消息永寂則或者憚

49

丙子九月三十日生權載鐸上書
 生在直谷時有百年昇平等語矣那意未一年
 而後箇再到八路大流頓非昇平氣際矣且二
 月 上書中有和議必成不久更來等語矣今
 者當之果然德中矣大抵倭人之再到由彰
 朝廷之召戎 朝廷之召戎似出於宰相
 閣下欲作朝夕偷安之計而已也今以八路之數
 任之管葛使之贍 國家之用活八路之人實

(38)

難措手而况倭人固和議之已成未幾三方交
 通貨色唯彼將死之命焉口吻前使為彼虜所
 使或有在鬼不逞之輩托以討賊轉生其計則
 不測之慮無所不到矣况 朝廷處分不使八路
 之人明白共知獨與異類細密議事至已過之
 後每有難測之舉所以人情洵為國家長遠
 慮者無不抱膝長吁矣况如生者曾受 知之
 深蒙 愛之厚安得隱默而不白乎夫

(39)

閣下今日之地生非不知矣寸雲蔽日尺霧障天雖
 以
 閣下日月之明河海之量施措無道經濟莫展而但
 應愛之道隨時低昂而自有執中之權衡矣彼輩
 樽俎之辭不過曰和則無事不則有事云而今日
 之事不可謂無事且結此以後禍慶將層生彼
 輩罪犯自有因故之律矣夫故不可預而強叙預
 之則彼之其計愈成矣罪有可討而國循不討則復

(40)

之成勢愈望天今日權衡專在此二條矣伏願
 聖心省察焉
 昨年二月倭寇守箕尾六朔而大旱如是今年
 二月賊星自箕尾入于武房之間矣六月以後
 復自武房將向箕尾而方在心分全羅道金
 堤王溝之間似有可察之機伏願
 聖心省察焉
 島嶼在三道之中而正所謂表裡山河伏願

(41)

呼吸心勿忘焉
 曠候已久猷發有日伏未審新春
 大監氣體候遷新萬安伏慕區區無任下
 誠生自前年五月以後腹痛微作而今則
 於夜伏枕度了似是病氣伏悶無已荒憂
 誠等日聞目下生存之民似無全保之道其
 氣象甚凜二年餘不備白
 丁丑二月初七日生權載鐸上書

(42)

正月十七日權旭日瑞來到生家聞其梗
 緊則客中辛酸甚覺悽愴使之莫接於
 聞廢地其事幾當在權旭上書中矣伏願
 下監聖焉
 五月十七日權煜使上書想已
 下監聖矣伊戶月次伏未審筆夏
 大監氣體候連享萬安伏慕區區無任下
 誠生自前年五月以後伏枕呻吟苦楚愈前

(43)

則二三主事之臣不過脚於聲勢自為偷生之計
而滿廷唱和之流只是束手為策講和之後事變
層生非無計較疑貳於其心而疾雷當頭智勇俱
窮講和二字已牢定於其心而外障
閣下之嚴斥一以慮大國之問罪一以畏八方之口
諫有若在戰和之間而其聲和一字已成矣去月
二十八日漢感怒遣一度翼日復進此月初旬以
前賊必退去未幾月更未矣

32

朝廷處分非生所敢言而至於斥和一款惟
閣下一人而已人眾勝天古人有言且握義不屈視
死如歸者此固人臣之事令
宗社存亡繫於
閣下則莫如觀形察勢若能有田天之勢則堅執此
論為第一件道理不能然則以吾不知三字委之
於當路徐觀動靜退保三南據險守要鎮撫人心
則一國之幸今日之幸伏願

33

留心省察焉
今日之勢可戰以山川而不可戰以兵甲也何者
彼固久於練習其膽已堅東國則數百年不見兵
火之民也未及交鋒心先破矣雖使十子房百項
羽整頓其旅必無鎮御之道况東國山川重閣疊
障在二羊腸則所以據險守要仰白於書尾者
也伏願
留心省察焉

34

民軍令出於內實而事竟不行深為可惜此計之
便者甚多氏有所聚糧有所積而兼之清野則賊
無措手之道矣伏願
留心省察焉
賊之講和後先請土地次請白米此則大闕成敗
雖使講和此二條不可許也且三南尤不勞勞損
伏願
留心省察焉

35

若有
閣下之舉則有最大一件事而非生之所敢開口者
伏願
留心省察焉
全嶺人心畧有所維結而專繫
閣下去就伏願
留心省察焉
外寇以為大患而內憂似有甚於此者伏願

36

留心省察焉
若無大危急時節東下之謀不可輕舉伏願
留心省察焉
伏未審季秋
大監氣體候連亨萬安伏慕區區下誠生素以痰濕
之疾恒在伏枕中度肆未能一盡進候于大遠自
二月歸後緣於道路餘德累至死境此月初始得
生道故今始替假耳餘不備白

37

國事未嘗不夜起彷徨仰觀乾象則歲星已脫辰分
 潛下之洪濟一國似亦不久去月二十八日大角終
 夜動也
 宮闈之內想必有事熒感雖已遲安而終非其度冬
 春之間全黃以北漢水以南似有出沒之職至明
 春然後將有人作之慮若待其有事之日始為防
 禦之策則其機不亦晚乎所以前日上書中有御
 難之道在於安民濟屯之策在於得人等語果不

26

宜於尋常過聽否乎且
 閣下今日所處之誠難矣屬垣之耳敲簞之口在
 在皆是則臨之以威再臨之易制之以機其變愈
 深所以和平二字又有所昂白於前日而
 閣下容其愚而納其忠至發佩服之
 下教則古昔所謂非言之艱而行之艱者正指此等
 處發也惟
 閣下察之

27

閣下之今日所務內棟
 朝廷之失宜外棟夷虜之伺隙則雖以
 閣下之威明
 閣下之淵覽若非和字字字酌量無措事之方下手
 之道矣况外棟之道由內修內修之道不出遠
 二字上大抵兵事雖難遂度而明春有事在所必
 然雖使豫防而周度之猶有不如意十八九之數
 而況不豫則必貽不度則必失于休頤

28

如憲省察馬餘不備白
 乙亥十月十二日在權載鐸上書
此下答書出於十月四日而國中
 即下答書見於十月旬後耳
 丙子二月替于大遠上書
 伏未審仲春
 大監氣體候連享萬安伏蒸區區無任下誠生
 今以米每欲馳進而身病纏綿萬無登道之勢至
 今巡拖不得已使子大遠替書仰白耳餘不備白

29

丙子二月初五日在權載鐸上書
請下答
 生
 臣自在宜谷以未至前年九月上書累陳外憂若
 無一得之見妄敢以此等事開口於
 閣下之前試但是出位之言若
 君大夫問而答者自是故禮故其措措之方應慶之
 閣下未嘗下問此生所以隱默而不敢發也以曰禦
 難之道在於安民濟屯之策在於得人云爾若此非

30

倉猝間過去說語蓋有所領思於中者而事已過
 去言之無益今日之憂至於此境請以今日者仰
 白矣斤和二字
 閣下上為五百年
 列聖朝禮樂之治下倡億民忠義之膽必不待生之
 贊談而但生之所居荒遠消息隔絕全未聞近日
 賊情之如何
 朝廷處分之如何而若以前後處事之道外面推測

31

昨日進謁時幸蒙憐山之
 允許而今依承
 下高始伏開洋船之留礙仁川此時還山果非道理
 非不知
 下教之當然但兵事之必有生之所言於平日則况
 既見其形而敢作掃山之計哉聞洋船不過數
 隻雖以完伯書揣之亦不過七八隻此不過欲為
 完試之計兼作偵探之謀也此生之不必留也且

20

閣下之地猶不得行一策畫一謀况如生者安能措
 閣下以政付
 閣下以兵以
 閣下之地猶不得行一策畫一謀况如生者安能措
 閣下以政付
 閣下以兵以
 閣下之地猶不得行一策畫一謀况如生者安能措
 閣下以政付
 閣下以兵以

21

手於其間哉此生之不欲留也且賊之游魂伺隙
 已八年於此矣今雖止於嘗試後必有大舉生於
 百口計尚今沒緒若使頑酋大作蹂躪之計則西
 山之賊豈無東應之理耶以生之地先為百口料
 理然後方赴國難此生之不可留也且生之所居
 安東斗谷距京五百五十里今將撤移於醴泉台
 城去京四百里日後來往之節甚便利而必生
 閣下之地猶不得行一策畫一謀况如生者安能措
 閣下以政付
 閣下以兵以

22

大臣之日夜綢繆謀議寧不憂賊之來去而惟探
 閣下之一動一靜則日後之事亦不可預料者存乎
 其間此一款雖以生之盡言不諱亦不敢明言此
 亦生之不願留一端也歷數事勢曲折如此若使
 生而不留則正朱夫子所謂大則大狼狽小則
 小狼狽遠則遠狼狽近則近狼狽惟
 閣下裁之餘不備白
 八月二十六日 生權軒錄 立馬洋橋臨發上書曰

23

生此月初五日入城二十六日將登程計其間後
 二旬有一日而朝臣之無辜遠配者六人賊搜之
 索泊者凡日見沒者二城武臣中謀事仗法者三
 人大臣之如許事如許論駭人目而誤國事者不
 可枚舉不過二旬之日變故如此則通今年除日
 而言不知幾二旬日後事變或減於此耶加於此
 耶生不敢知而亦似有不難知者惟
 閣下珍重生未獲趨道而執鞭東指道路千里臨發

24

閣下千萬珍重生若得
 閣下不知所云殆覺古人之非虛語也伏願
 召命則趨當趨追而止餘不備白
 九月歸家後上書
 伏未審季秋
 大監氣體俱連享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生前月
 二十六日離京城此月初六日抵家路中倖無大
 病生自離京師以來每念到

25

伏未雷仲秋
 八月上京後上書
 乙亥六月初十日生權載鐸上書
 閣下為國保重大元斯氏而已矣餘不備白
 依情祈頌祝惟願
 大監氣體候連亨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生賴庇
 依情而北望雲天愛隔千里回思三四刻待衛之

14

伏未雷仲秋
 乙亥八月初五日生權載鐸上書
 閣下直谷有上白之言故前月二十五日登程今方入
 城賴庇無恙而但官闈出入與前日有異故先此
 仰覆耳餘不備白
 乙亥八月初五日生權載鐸上書
 在京時往覆書札
 昨來筆洞與朴直閣面即五世同契之家而方酬
 酌訖伏承

15

下書憑伏雷
 大監氣體候連亨萬安伏賀區區無任下誠生到此
 後越敘趨晉門下非但欲借咫尺之地以接
 餘光而止每有所極蓄未盡故再通與柳景三金公
 秀過景三數朔同祝之人已不暇論而公秀亦一
 面如舊細述六月以後蘇末而感補
 閣下之威嚴大重慶事太剛在庭群臣莫不恐懼失
 色趁走下風云夫董之以威懼之以莊是為人上

16

御下之常道孰敢曰不可而生之愚見竊有所疑
 於心而未解者既是疑於心而未解則安得不披
 肝膽以解其疑乎夫
 閣下居東之日畧涉羊腸之路瞿塘之波矣生之累
 累仰白者每在嚴和二字之分而
 閣下嘗優容而色許之矣生之所心喜而願聖者亦
 嘗曰以
 大監之淵衷遠覽必已解於處難涉險之道云爾而

17

不過數月之內莫耐一夕之念驅車直馳雷霆於
 閣下之耳目水炭於廷端之心肝萬事悒虛十目
 生猜都從一嚴字誤著矣往者既不可追而人心
 向背正在此閣接人之道務從和字處事之方務
 從平字和平二字止為今日緊急底道理生之冒
 萬感妄發至此者豈不知並涉惶悚而疑而未解味
 而末盡亦非生之所自期於平日也且閣近日都

18

雨相傳之言則直谷官所今方修葺更有
 東卷之經營云此必外面浮動之說以
 閣下之淵衷遠覽曷常有此哉夫以尋常之人其在
 衆望之地一動一靜猶不敢輕焉為之何況一國
 之所矚萬民之所瞻咸萃於
 閣下而昨年以迄八路疏儒之在於謫所者凡幾人
 矣此不可不顧也愚衷所激言不知裁惟
 閣下細垂察焉餘不備白

19

乙亥四月二十六日生權載鐸上書
 今日沈道鐸以山城事至被
 嚴詞在於當場卷有兩仰白而退而思之猶未得盡
 其前懷若使生有懷而不盡其言則非但生之不
 盡事
 閣下之道无有大辜負於
 閣下求言之盛德至誠請以上書畢其說惟
 閣下裁納之生退聞人言參以其容貌動止沈道鐸

⑧

五十年讀書之人而透疎成性者也以若透疎
 之人陳此說於
 閣下之前者其前後規慮豈不至詳至密乎在床而
 思之在途而思之至此而又思之思之既熟而乃
 敢開口於
 閣下之前而及其料外之規模措劃雜到眼前則宜
 其失色而徬徨矣况
 閣下之神彩壓人雄辯奪衆乎思不至此而輕為及

⑨

之者此生所謂流道鐸之透疎而此人之失不過
 透疎二字使此人歸其家則不過曰吾慮事不熟
 云云
 閣下人有來問者則亦以是語答之人將曰子之被
 嚴詞固然矣安敢以斗筭之量不量事勢而輕踐干
 雲之路哉繼而曰
 大宛文曾謂河海之量夫人皆知不擇細流而何獨
 於子而不容也是亦子之身命也云爾則一國迄

⑩

之士八路裹足之人將縮其頭而止其足矣
 閣下將誰與論一國之政而壓八路之望哉吾人所
 謂說之之聲音顏色拒人於千里之外者不幸而
 近之矣生徒恃
 閣下納言之盛德如是妄發惟
 閣下裁之餘不備白
 乙亥五月初三日生權載鐸上書
 六月拂辰時上書

⑪

生累以歸計仰讀而終不蒙
 允者豈不以嶺外遼踪習於悶卷之事而以小民之
 艱難朝夕諷誦以備警駭之職且觀
 閣下補德太盛禮恭太過每以不安二字既加稱歸
 生言之亦累而終不以生言為信者亦豈不以生
 而士而輩或有助於補拾之萬一也哉但士之為
 士以其有操行也生未嘗有職於斯而衣
 閣下之衣食

⑫

閣下之食偃仰門屏之下趨走搢紳之間則非但生
 之失其軀而已
 閣下亦何取於失軀之人而固挽而留之哉且生少
 多疾病不耐炎暑且生之親忌在六月十九日姑
 疾常生以七月二十五日登道當於八月初五日
 趨進伏計耳餘不備白
 乙亥五月十二日生權載鐸上書
 拂辰後上書

⑬

念生受知於
 門已三世矣且受
 下送之 息則則永許其身矣既許之後允當念盡
 德之道而趨走承 命未足為恭末稍末稍區劃
 在斯當當顧今眼目頗多生一往直谷則人將曰
 直谷之私人云爾後雖有可為之事可言之端既
 多掣碍又恐連累因此未宜遲遲且無言亦甚未
 安替書仰白恭錄

②

庚分餘不備伏惟
 乙亥三月初九日 生權載鐸上書
 書曰君不密則失臣之不密則失身機事不密則
 不成伏願
 留心垂察焉
 書曰在知人在安民夫御亂之道在於安民濟老
 之策在於得人伏願
 留心省察焉

③

易曰節以制度不傷財不害民蓋侈用則傷財傷
 財必至於害民故孟子曰必恭儉取於民有制恭
 者取人之本也儉者節用之要也伏願
 留心省察焉
 在直谷時上書
 前日省州縣一款未盡而達替書上白耳書齊典
 曰筆十有二州朱夫子釋之曰充時為九州至舜
 而為十二州夫中國州縣之或九或十二自二帝

④

三王前後不同而大抵封建之法自秦始崩分
 天下為三十六郡其間小縣之分屬一郡不知其
 幾縣而以天下之大猶止於三十六而已今東國
 地廣不能當中國九州之一而多至於三百六十
 夫既有州縣則必置守令又置吏校守令吏校皆
 不能自備其食一錢尺布必出於民而為日用衣
 食之道非但為守令吏校衣食之資守令吏校之
 任手遊食全家資活盡出於此民口吻之中此猶

⑤

祇常祿而言之若有罪人參於其間則浚民之膏
 剝人之皮無所不至况職吏之法徒有其名廢奢
 之習日以成風民之不聊其生專由於守令之多
 設而若過校蕩之世則十室之邑兵不幾人糧不
 幾已器械凡具皆是之比雖使管葛良乎守其土
 而鍊其兵便同鯨拒即見魚散適足為推波助瀾
 之資一處傾壞八域震蕩由是觀之治世若其多
 亂世恨其弱治亂俱不得其平矣八道之設非但

⑥

為東方成數山川區域風氣界限莫不出於自然
 則道則因循為八而一道之內合設十二州合可
 為九十六必以九十六為數者近來陞并之法廢
 而不立彈法之失其正序蓋已久矣道各置十二
 州而因寓陞并之制則治世民舒其力國添其用
 亂世官有其權兵恃其眾而內政之法不期而自
 修矣伏願
 留心省察焉餘不備白

⑦

於周公之膺夷狄鄒聖之闢邪說而況以閑商而照之則國不必亡人不必死乎奈之何甲戌秋袞衣居東之後時局大變義理都喪始以受書為反局移權之計者畢竟馴致乎今日其曰胡與倭一也事之如禮云者東國之服事中國非以胡而事之也以其踐中國承大統而猶有丙子節義至今有拂鬱之懷而況彼踐中國承大統乎其曰幾處割土則當入居而通貨云者自古隣國之通好者安有入居其土地使其民人然後為講好哉況彼之設計不過與洋國腸肚相連變亂我衣裳禽獸我人民子女玉帛必克其欲而後已今此主和之說賣國乎不賣國乎於乎三尺之碑八路所同而去月十九日事遠未知何以處之既不聞閣下之主此議措此事則其所未知者亦非所難知近自數年以來器械無備糧儲亦竭似無策膺之道而彼國之不協者亦多則既非師直為壯而況為洋人先驅者不過貪我玉帛而已則魏相所謂貪兵是也以我國而言之則表裏山河在在皆是故以隋唐之師而竟敗於三分之二句麗則今日山川即昔日之山川也社倉既在則目下之兵糧備矣烟軍既設則目下之精兵在矣若命知兵一人倡率八路之義旅則彼與我不同類也以若禮義之俗安有捨我衣裳而從彼之介鱗哉勝敗之形不待戰而後可知而顧此賣國之徒初出於專權之計且是無謀之輩劫於利害死生之私不顧國事之如何生靈之如何強為此捧漏甕沃焦釜之計夫以前日則朝廷之事雖不可與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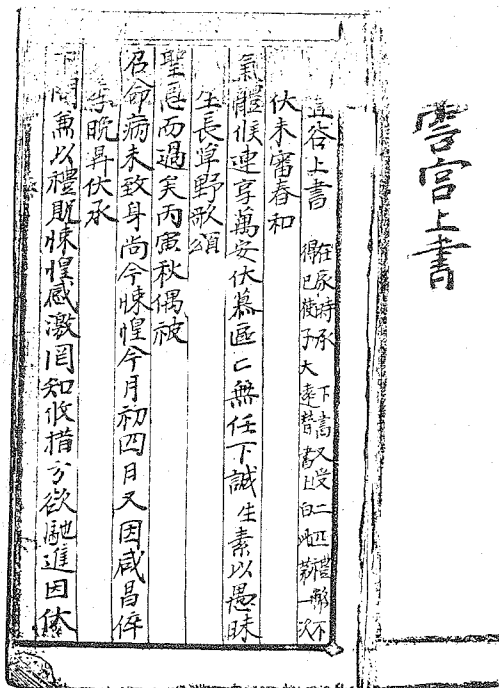
而至于今日則以閣下之地似不可袖手岸視茲不勝憂之切敢此替白伏願閣下留念省察焉

■伏未審新元大監氣體候連享萬安伏慕區區無任下誠生病已三年子膺規病亦三年父子之病俱到極地矣生自前冬以後稍得生道子病似不可救伏切閱閱耳所以前冬壽宴即八路同慶而生之父子一未晉賀於軒陛之前私情愴感實難為地至於上書亦無便因未克修上今春肇得此路凡有私情之可白者亦不敢呈上耳餘伏祝為國保重以慰生靈之望不備白

辛巳正月十七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營宮上書



①

隆而忘其猥越之罪 伏願留心省察焉

嘗讀通鑑 唐太宗謂侍臣曰 吾對陣 便知其疆弱 以吾弱 當其疆 疆當其弱 彼乘吾弱 不過百步而止 吾乘其弱 必出其陣後 返擊之 無不勝矣 此善策也

道儒方以復設疏舉事 今月二十八日 發行 而仁同之張安東數三家 實主其事 不與其論者 目之以其小黨 攻斥無此 如英陽趙秉儒 其時累爲都廳及奉疏故 英倅空然捉因受辱萬端 不得尊居 移寓他鄉 故洪州令李彙載之孫振伯亦終始不變故 同寓此 聞慶地生則以今番疏舉 欲改爲斥和之疏事則 不成 而徒受侮弄 伏切痛歎耳

■伏未審孟夏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賴庇依過 伏倅何達 曠候此久 又此替白耳 餘伏祝爲國保重 以副遠外區區之望 不備白

戊寅四月十二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裏面事勢 閱未聞知 外面交象 可謂晏然 而揆以事理 似必有事而後已 近來嶺議大發 若當有事之日則 將欲一邊治疏 一邊倡義 而每多顧忌 若得下書於五六處 如存問等樣則 倡發不難 此非但爲國家義理之當然 置觀四五年 挽回裏面之道 專在此一路 伏願留心省察焉 五六通奇處當其時 仰白耳

■伏未審孟冬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賴庇依遺 伏倅何達 曠候此久 玆以替白 餘伏祝爲國保重 以副遠外區區之望 不備白

戊寅十一月初十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裏面事勢 遠未的知 而轉移之機 似在此時 閣下處分 雖非生之所開喙 而抑揚之際 機關實深 不勝顯鬱 玆敢替白耳

■伏未審新正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賴庇 伏倅何達 生之替子仰白 非直爲觀光 計聞於前月十九 有可聞之機云爾 餘不備白

戊卯正月初二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生在直谷時 伏見閑商條卞 又丙寅年 伏聞下教中 國字下有亡字 人字下有死字 又伏見斥和碑文曰 主和賣國 當時國論 皆欣欣然相賀曰 國安有長存不亡之國乎 人豈有長生不死之人乎 與其失義而存 不若得義而亡 與其爲禽獸而生 不若爲人而死 惟其計較於存亡之際 是以主和之說起焉 惟其恐懼於死生之地 是以賣國之徒作焉 今我閣下既主斥和之論 而洞斥賣國之徒則 死生存亡 非所學論 而五百年文明之治 三千里禮義之俗 庶可保有 而無愧

障天雖以閣下日月之明 河海之量 施措無道 經濟莫展 而但應變之道 隨時低昂 而自有執中之權衡矣 彼輩構捏之辭 不過曰 和則無事 斥則有事云 而今日之事 不可謂無事 且繼此以後 禍變將層生 彼輩罪犯 自有罔赦之律矣 夫政不可預 而強欲預之 則彼之姦計 愈成矣 罪有可討 而因循不討 則彼之威勢 愈堅矣 今日權衡 專在此二條矣 伏願留心省察焉

昨年二月 熒惑守箕尾六朔 而大早如是 今年二月 歲星自箕尾 入于氏房之間矣 六月以後 復自氏房 將向箕尾 而方在心分 全羅道金堤玉溝之間 似有可察之機 伏願留心省察焉

鳥嶺在三道之中 而正所謂表裡山河 伏願留心勿忘焉

曠候已久 獻發有日 伏未審新春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自前年五月以後 腹痛微作 而今則終夜伏枕度了 似是疝氣 伏悶無已 荒憂餓葶 日聞且下生存之民 似無全保之道 其氣象甚凜凜耳 餘不備白

丁丑二月初七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正月十七日 權旭日瑞來到生家 聞梗槩則 客中辛酸 甚覺悽楚 使之尊接於聞慶地 其事幾當在權旭上書中矣 伏願下鑒焉 此書為日 瑞所浮沈

正月十七日 權煜使上書 想已下鑒矣 伊后月改 伏未審 肇夏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自前年五月以後 伏枕叫苦 每念前眷愛之厚 常恐溘然 不得報萬一耳 餘伏祝為國保重 以慰區區之望 不備白

丁丑三月二十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伏未審初冬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自安東之斗谷 九月二十四 移寓聞慶之鰲坪 距京三百八十里 春汨荒憂 近為搬移所糜 未克趨進 伏切遠外區區之沈而已 伏祝為國保重 以慰瞻望 大備白

權煜事 果是荒泆底人 而干後永無聲息 雖欲跟蹤 茫然莫知 未克上白 伏切悚惶而已 生近汨薪憂 躬未進已三年矣 書未上已六朔矣 且荒野僻遠 闕未聞裏面之如何 矯首西望 只伏切遠外之沈 而事有可疑者三 夫以閣下之地 彼輩之慝 愚縱或偷一時之倖 而今已三年矣 不可然者一也 且以閣下之望 雖無這地位 而滿廷群臣 無敢望餘光 而頡下風則 不可然者二也 且朝廷多事 外警頻起 苟非閣下雷霆之威 河海之量 無以措手而善處矣 況閣下斥和一款 已扶得五百年義理 為八路所仰望則 不可然者三矣 然而日望西音 消息永寂則 或者運到適然 而將招片時之鬧乎 抑或閣下左右 無人可議 到徒以目前之事 陳達一不為長遠慮乎 況今金木會於斗柄 熒惑越於危躔 外警似不止 此若失此機會 而因循以過則 深非處置之道 生之敢為此累累者 徒持寵愛之

當頭 智勇俱窮 講和二字 已牢定於其心 而外憚閣下之嚴斥 一以慮大國之問罪 一以畏八方之口誅 有若在戰和之間 而其實和一字已成矣 去月二十八日 榮惑忽退一度 翼日復進 此月初旬以前 賊必退去 未幾月 更來矣 朝廷處分 非生所敢言 而至於斥和一款 惟閣下一人而已 人衆勝天 古人有言 且握義不屈 視死如歸者 此固人臣之事 今宗社存亡 繫於閣下 則莫如觀形察勢 若能有回天之勢 則堅執此論 爲第一件道理 不能然則 以吾不知三字 委之於當路 徐觀動靜 退保三南 據險守要 鎮撫人心 則 一國之幸 今日之幸 伏願留心省察焉

今日之勢 可戰以山川 而不可戰以兵甲也 何者 彼固久於練習 其膽已堅 東國則數百年不見兵火之民也 未及交鋒 心先破矣 雖使十子房項羽整頓其旅 必無鎮御之道 况東國山川 重關疊嶂 在在羊腸 則所以據險守要 仰白於書尾者也 伏願留心省察焉

民保令 出於丙寅 而事竟不行 深爲可惜 此計之 便者甚多 民有所聚糧 有所積 而兼之清野 則 賊無措手之道矣 伏願留心省察焉

賊之講和後 先請土地 次請白米 此則大關成敗 雖使講和 此二條不可許也 且三南尤不當勞損 伏願留心省察焉

若有東下之舉 則 有最大一件事 而非生之所敢開口者 伏願留心省察焉

全嶺人心 畧有所維結 而專繫閣下去就 伏願留心省察焉

外寇似爲大患 而內憂似有甚於此者 伏願留心省察焉 若無大危急時 節東下之計 不可輕舉 伏願留心省察焉

伏未審季秋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 下誠生素以痰濕之疾 恒在伏枕中度 肆未能一番進候 子大遠自二月歸後 緣於道路餘憊 累至死境 此月初 始得生道 故 今始替候耳 餘不備白

丙子九月三十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生在直谷時 有百年昇平等語矣 那意未一年而倭酋再到 八路大荒 頓非昇平氣豫矣 且二月上書中 有和議必成不久更來等語矣 今者當之果然億中矣 大抵倭人之再到 由於朝廷之召戎 朝廷之召戎 似出於牢拒閣下 欲作朝夕偷安之計而已也 今以八路之穀 任之管葛 使之贈國家之用 活八路之人 實難措手 而况倭人因和議之已成 來據三方 交通貨色 惟彼將死之命 爲口吻所使 爲彼虜所役 或有恠思不逞之輩 托以討賊 轉生姦計 則 不測之慮 無所不到矣 况朝廷處分 不使八路之人 明白共知 獨與異類 綢繆密議 事至已過之後 每有難測之舉 所以人情洶洶 爲國家長遠慮者 無不抱膝長吁矣 况如生者 曾受知之深 蒙愛之厚 安得隱默而不自白乎 夫閣下今日之地 生非不知矣 寸雲蔽日 尺霧

九月歸家後 上書

■伏未審季秋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前月二十六日 離京城 此月初六日 抵家 路中倖無大病 生 自離京師以來 每念到國事 未嘗不夜起彷徨 仰觀乾象 則 歲星已脫辰分 閣下之洪濟一國 似亦不久 去月二十八日 大角終夜動芒 宮闈之內 想必有事 熒惑雖已退步 而終非其度 冬春之間 全黃以北 漢水以南 似有出沒之賊 至明春然後 將有大作之慮 若待其有事之日 始為防禦之策 則 其機不亦晚乎 所以前日上書中 有御難之道 在於安民 濟屯之策 在於得人等語 果不置於尋常 過聽否乎 且閣下今日所處 處之誠難矣 屬垣之耳 鼓簧之口 在在皆是 則臨之以威 其隙愈易 制之以機 其變愈深 所以和平二字 又有所昂白於前日 而閣下容其愚 而納其忠 至發佩服之下 教則 古昔所謂非言之艱 而行之艱者 正指此等處發也 惟閣下察之 閣下之今日所務 內揀朝廷之失宜 外攘夷虜之伺隙則 雖以閣下之威明 閣下之淵覽 若非和平字則 實無措事之方 下手之道矣 况外攘之道 實由內修 內修之道 不出這二字 上大抵兵事 雖難遙度 而明春有事 在所必然 雖使豫防而周度之 猶有不如意 十八九之歎 而況不豫則必貽 不度則 必失乎 伏願留心省察焉 餘不備白

乙亥十月十二日 生權載鐸 上書

此下答書 出於十月四日 而因中間浮沈 始見於十二月中旬後耳

丙子二月 替子大遠 上書

■伏未審仲春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自前冬以來 每欲馳進 而身病纏綿 萬無登道之勢 至今延拖 不得已使子大遠 替書仰白耳 餘不備白

丙子二月初五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生自在直谷以來 至前年九月上書 累陳外憂 若無一得之見 安敢以此等事 開口於閣下之前哉 但是出位之言 若君大夫問而答者 自是故禮故 其施措之方 應變之策 閣下未嘗下問 此生所以隱默而不敢發也 只曰 禦亂之道 在於安民 濟屯之策 在於得人云爾者 此非倉猝間過去說話 盖有所領畧於中者 而事已過去 言之無益 今日之憂 至於此境 請以今日者仰白矣 斤和二字 閣下 上為五百年列聖朝禮樂之治 下倡億萬民忠義之膽 必不待生之贅談 而但生之所居荒遠 消息隔絕 全未聞近日賊情之如何 朝廷處分之如何 而若以前後處事之道 外面推測則 二三主事之臣 不過怯於聲勢 自為偷生之計 而滿庭唱和之流 只是束手無策 講和之後 事變層生 非無計較 疑貳於其心 而疾雷

都從一嚴字 誤着矣 往者 既不可追 而人心向背 正在此
關 接人之道 務從和字 處事之方 務從平字 和平二字 正
爲今日緊急底道理 生之冒瀆尊威 妄發至此者 豈不知極
涉惶悚 而疑而未解 悚而未盡 亦非生之所自期於平日也
且聞近日都下相傳之言則 直谷宮所今方修葺 更有東居之經
營云 此必外面浮動之說 以閣下之淵衷遠覽 曷常有此哉
夫以尋常之人 其在衆望之地 一動一靜 猶不敢輕易爲之
而況一國之所盼 萬民之所瞻 咸萃於閣下 而昨年以返八
路疏儒之在於謫所者 凡幾人矣 此不可不顧也 愚衷所激
言 不知裁 惟閣下細垂察焉 餘不備白

■昨日進謁時 幸蒙歸山之允許 而今伏承下書 始伏聞洋
船之留碇仁川 此時還山 果非道理 非不知下教之當然 但
兵事之必有 生之所言於平日則 况既見其形 而敢作歸山
之計哉 生聞洋船不過數隻 雖以完伯書揣之 亦不過七八
隻 此不過欲爲先試之計 兼作偵探之謀也 此生之不必留
也 且閣下之威德遠彰 非但八路之所歸心 兼亦洋倭之所
嚮伏 而彼雖出於嘗試 賊船入於都城咫尺之地 朝廷處分
視之晏然 貪權樂勢之自如平日姑置 一邊內讐終始不靖
竟不聞授閣下以政 付閣下以兵 以閣下之地 猶不得行一
策 畫一謀 况如生者安能措手於其間哉 此生之不欲留也
且賊之游魂 伺隙已八年於此矣 今雖止於嘗試 後必有大

學生於百口計 尚今沒緒 若使頑酋大作 蹂躪之計則 西
出之賊 豈無東應之理耶 以生之地 先爲百口料理然後方
赴國難 此生之不可留也 且生之所居安東斗谷 距京五百
五十里 今將搬移於醴泉台城 去京四百里 日後來往之節
事甚便利 而必生之下去後 可成此事 此生之不得不歸也
且二三大臣之日夜綢繆謀議 寧不憂賊之來去 而惟探閣
下之一動一靜則 日後之事 亦不可預料者 存乎其間此一
款 雖以生之盡言不諱 亦不敢明言 此亦生之不願留一端
也 歷數事勢曲折如此 若使生而不容歸則 正朱夫子所謂
大則大娘狼 小則小娘狼 遠則遠娘狼 近則近娘狼 惟閣下
裁之 餘不備白 有下 答書

■八月二十六日 生權載鐸 立馬畔橋 臨發上書曰 生此月初
五日 入城 二十六日 將登程計 其間纔二旬有一日 而朝
臣之無辜遠配者六人 賊艘之來泊者九日 見沒者二城 武臣
中謀事伏法者三人 大臣之如許事 如許論 駭人目而誤國
事者 不可枚舉 不過二旬一日 變故如此則 通今年除日而
言 不知幾二旬日後事變 或減於此耶 加於此耶 生不敢知 而
亦似有不難知者 惟閣下珍重 生未獲趨進 而執鞭東指 道
路千里 臨發涕零 不知所云 始覺古人非虛語也 伏願閣下
千萬珍重 生若得召命則 趁當趨進而已 餘不備白

六月歸家時 上書

■生累以歸計仰瀆 而終不蒙允者 豈不以嶺外遐踪 習於閩巷之事 而以小民之艱難 朝夕諷誦 以備瞽矇之職 且閣下兼德太盛 禮恭太過 每以不安二字 輒加稱號 生言之亦累而終不以生言為信者 亦豈不以生為士而冀或有助於補拾之萬一也哉 但士之為士 以其有操行也 生未嘗有職於斯 而衣閣下之衣 食閣下之食 偃仰門屏之下 趨走搢紳之間 則非但生之失其軀而已 閣下亦何取於失軀之人 而固挽而留之哉 且生少多疾病 不耐炎暑 且生之親忌在六月十九日 姑埃涼 生以七月二十五日 登道 當於八月初五日 趨進 伏計耳 餘不備白

乙亥五月十二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歸家後 上書

■伏未審季夏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賴庇依歸 而北望雲天 窺隔千里 回思三四朔侍衛之沈情 私頌祝 惟願閣下為國保重 大庇斯民已矣 餘不備白

乙亥六月初十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八月上京後 上書

■伏未審仲秋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 曾於直谷 有上白之言 故前月二十五日 登程 今方入城 賴庇無恙 而但宮闈出入 與前日有異 故先此仰覆耳 餘不備白

乙亥八月初五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在京時 往覆書札

■昨來筆洞與朴直閣面 即五世同契之家 而方酬酌 訖伏承下書 憑伏審 大監氣體候 連享萬安 伏賀區區無任 下誠生到此後 趁欲趨晉門下 非但欲借咫尺之地 以接餘光 而止 每有所蘊蓄未盡故耳 適與柳景三金公秀遇 景三數朔 同枕之人 已不暇論 而公秀亦一面如舊 細述六月以後 顛末 而咸稱閣下之威嚴太重 處事太剛 在庭群臣 莫不恐懼 失色 趨走下風云 夫董之以威 臨之以莊 是為人上 御下之常道 孰敢曰 不可 而生之愚見 竊有所疑於心而未解者 既是疑於心而未解 則安得不披盡肝膽 以解其疑乎 夫閣下居東之日 畧涉羊腸之路 瞿塘之波矣 生之累累仰白者 每在嚴和二字之分 而閣下嘗優容 而色許之矣 生之所心喜而額望者 亦嘗曰 以大監之淵衷遠覽 必已解於處難涉險之道云爾 而不過數月之內 莫耐一夕之忿 驅車直馳 雷霆於都下之耳目 冰炭於廷端之心肝 萬事歸虛 十日生猜

■前日省州縣一款 未盡所達 替書上白耳 書舜典曰 肇十有二州 朱夫子釋之曰 堯時爲九州 至舜而爲十二州 夫中國州縣之或九 或十二 自二帝至三王 前後不同 而大抵封建之法 自秦始皇始 分天下爲三十六郡 其間小縣之分屬一郡 不知其幾縣 而以天下之大 猶止於三十六而已 今東國地廣 不能當中國九州之一 而多至於三百六十 夫既有州縣 則必置守令 又置吏校 守令吏校 皆不能自備其食 一錢尺布 必出於民 而爲日用衣食之道 非但爲守令吏校衣食之資 守令吏校之遊手遊食 全家資活 盡出於此民 口吻之中 此猶就常祿而言之 若有匪人 參於其間 則浚民之膏 剝人之皮 無所不至 况賊吏之法 徒有其名 豪奢之習 日以成風 民之不聊 其生專由於守令之多設 而若遇板蕩之世 則十室之邑 兵不幾人 糧不幾包 器械凡具 皆是之此 雖使管葛良平 守其土而鍊其兵 便同螳拒 即見魚散 適足爲推波助瀾之資 一處傾壞 八域震蕩 由是觀之 治世 苦其多 亂世 恨其弱 治亂俱不得其平矣 八道之設 非但爲東方成數 山川區域 風氣界限 莫不出於自然 則道則因舊爲八 而一道之內 各設十二州 合可爲九十六 必以九十六爲數者 近來邱井之法 廢而不立 陣法之失 其正宗蓋已久矣 道各置十二州 而因寓邱井之制 則治世 民舒其力 國添其用 亂世 官有其權 兵持其衆 而內政之法 不期而自修矣 伏願留心省察 焉 餘不備白

乙亥四月二十六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今日沈道鐸以山城事 至被嚴訶 生於當場 畧有所仰白 而退而思之 猶未得盡其所懷 若使生有懷而不盡其言 則非但生之不能盡事 閣下之道 尤有大辜 負於閣下 求言之盛德 至誠請以上書 畢其說 惟閣下裁納之 生退聞人言 參以其容貌動止 沈道鐸果五十年讀書之人 而迂疎成性者也 以若迂疎之人 陳此說於閣下之前者 其前後規慮 豈不至詳 至密乎 在家而思之 在途而思之 至此而又思之 思之既熟 而乃敢開口於閣下之前 而及其料外之規模 措劃雜到眼前 則宜其失色而徬徨矣 况閣下之神彩 壓人 雄辯奪衆乎 思不至此 而輕爲及之者 此生所謂沈道鐸之迂疎 而此人之失 不過迂疎二字 使此人歸其家 則不過曰 吾慮事不熟 至被嚴訶 人有來問者 則亦以是語答之 人將曰 子之被嚴訶 固然矣 安敢以斗筲之量 不量事勢 而輕踐千里之路哉 繼而曰 大院丈 曾謂河海之量矣 人皆知不擇細流 而何獨於子而不容也 是亦子之身命也 云爾 則一國延頸之士 八路裹足之人 將縮其頸而止其足矣 閣下將誰與論一國之政 而壓八路之望哉 古人所謂 訖訖之聲音顏色 拒人於千里之外者 不幸而近之矣 生徒持閣下納言之盛德 如是妄發 惟閣下裁之 餘不備白

乙亥五月初三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六。《雲宮上書》

《雲宮上書》는 權載鐸이 大院君에게 보낸 편지를 謄書해 놓은 것이다. 雲宮은 雲峴宮을 지칭하는 것이며, 또한 이 편지에 나오는 直谷이라는 地名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大院君이 高宗에게 실권을 물려주고 난 후 머물던 京畿道 陽州郡 直谷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모두 25통의 편지를 정리하여 놓았는데 이 중에 아홉통의 편지는 보낸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수록 내용은 당대의 時務에 관한 견해나 안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時局의 변천에 대한 權載鐸의 민감한 관심과 생각이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그의 편지에 대하여 大院君 자신이 거의 빠짐없이 답장을 보내고 있어서 두 인물 간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開港을 둘러싸고 정초의 부영이 심각하게 진전되어 마침내 大院君의 재집권을 초래하게 된 壬午軍亂의 직전에 해당하므로 이 편지는 여러 모로 주목된다 하겠다. 이제 이것을 날짜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지를 보낸 날짜	大院君의 下答有無	備 考
高宗 12年(1875)	3月 9日 詳 未 詳 4月 26日 5月 3日 5月 12日 6月 10日 8月 5日 未 詳 未 詳 8月 26日 10月 12日	有家時 보냄 上 同 直谷에 있을 때 보냄 上 同 歸家할 때 보냄 歸家後 보냄 上京後 보냄 漢陽에 있을 때 보냄 上 同 漢陽을 떠나면서 보냄 歸家해서 보냄
高宗 13年(1876)	2月 5日 詳 未 詳 9月 30日 詳 未 詳	有家時 보냄 上 同 上 同 上 同
高宗 14年(1877)	2月 7日 詳 未 詳 3月 20日 詳 未 詳	上 同 上 同 上 同 上 同
高宗 15年(1878)	4月 12日 詳 未 詳 11月 10日 詳	上 同 上 同 上 同
高宗 16年(1879)	正月 2日 詳 未 詳	上 同 上 同
高宗 18年(1881)	正月 17日 詳	上 同

直谷上書 在家時 承下書 又受二四禮幣不
得已使子大遠替書上白 此第一次

■伏未審春和 氣體候 連享萬安 伏慕區區無任 下誠生素以愚昧 生長草野 歌頌聖恩而過矣 丙寅秋偶被召命 病未致身 尚今悚惶 今月初四日 又因咸昌倅李晚昇 伏承下問兼以體貶 悚惶感激 罔知攸措 方欲馳進 因伏念生受知於門下 已三世矣 且受下送之恩 既則 永許其身矣 既許之後 尤當念盡忠之道 而趨走承命 未足爲恭 末稍區劃 在所當審 顧今眼目頗多 生一往直谷則 人將曰 直谷之私人云爾 後雖有可爲之事 可言之端 既多掣碍 又恐速累 因此未定進退 且無言亦甚 未安 替書仰白 恭竢處分 餘不備伏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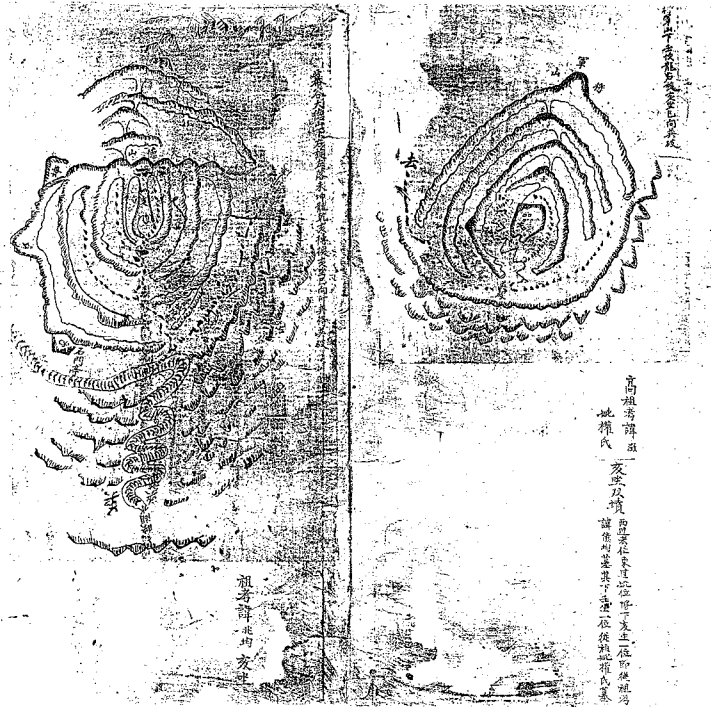
乙亥三月初九日 生權載鐸 上書 有下
答書

■易曰 君不密則失臣 臣不密則失身 機事不密則不成 伏願留心垂察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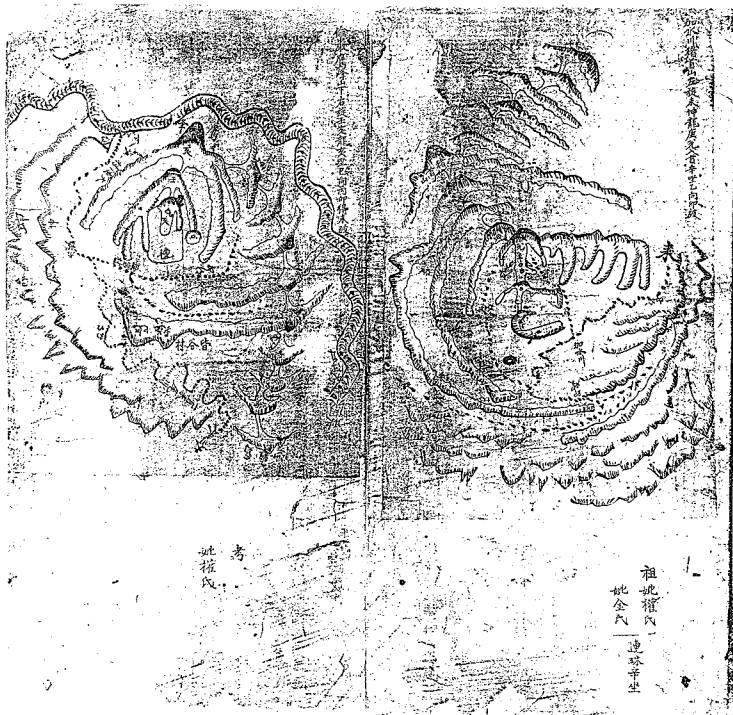
書曰 在知人 在安民 夫御亂之道 在於安民 濟屯之策 在於得人 伏願留心省察焉

易曰 節以制度 不傷財 不害民 蓋侈用則傷財 傷財必至 害民 故孟子曰 必恭儉 取於民有制 恭者 取人之本也 儉者 節用之要也 伏願留心省察焉

在直谷時 上書



④1



④2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九代祖考諱世河 連環... 此安氏

五代祖考諱... 此安氏...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八代祖考諱...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九代祖考...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八代祖考...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六代祖考...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七代祖考...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此圖同右鏡...

八高祖圖



37

權哥姓名吉卦 升泰臨師觀晉噬嗑

假令以姓字為上卦以名字為下卦而計畫之法永字八畫乙字三畫權字為三十四畫以八、六、六、除之而俱無零數卦名之合於權姓者惟升泰臨師四卦而名字十三畫為升之泰三十三畫為泰之升二十一畫為升之師三十二畫為泰之臨四卦中最吉者乃是升之泰權姓人造名者以此為準可矣



38

<p>女金繼燕 <small>現世史考</small></p> <p>女權碩駁 <small>子興漢</small></p> <p>子成漢 <small>子宗錡</small></p> <p>子台規 <small>子尚大</small></p>	<p>女權致中 <small>子伯隆</small></p> <p>子李隆 <small>子彭龍</small></p> <p>女卓頌杓</p> <p>子昌潤 <small>子不介</small></p> <p>子彭傑 <small>子彭龍</small></p>	<p>子次霄</p> <p>女閔以道 <small>子巳山</small></p> <p>子昌彬 <small>子益澁</small></p> <p>子之珣 <small>子犬混</small></p> <p>女尹三徵</p> <p>子泰混 <small>子命孫</small></p>	<p>女金是錯 <small>子晉駁</small></p> <p>子昌郁 <small>子之瑛</small></p> <p>子三混 <small>子</small></p> <p>女權道根 <small>子命孫</small></p> <p>子顯澤</p>
<p>子始大 <small>子信者</small></p> <p>子一夫 <small>子駿者</small></p> <p>子鳳者 <small>子益者</small></p>	<p>子彭龍</p>	<p>子巳山</p>	<p>子顯澤</p>

31

<p>女金起倫 <small>子致鍊</small></p> <p>子達北 <small>子聲振</small></p>	<p>女金是宗 <small>子有亨</small></p> <p>女朴以漢 <small>子彦用</small></p> <p>女金起倫 <small>子致鍊</small></p>	<p>子宇柱 <small>子重萬</small></p> <p>女金之鏡 <small>子有亨</small></p> <p>子聖萬 <small>子慶昌</small></p> <p>子慶昌 <small>子仁昌</small></p>	<p>子日柱 <small>子就萬</small></p> <p>女員貴顯 <small>子一復</small></p> <p>子喜昌 <small>子仁昌</small></p>	<p>女權振廷 <small>子克平</small></p> <p>女金永邦 <small>子是傑</small></p> <p>子天柱 <small>子用星</small></p> <p>女金日龍 <small>子晉錫</small></p> <p>子曼柱 <small>繼子斗萬</small></p> <p>女權道規 <small>子可孫</small></p> <p>子運萬 <small>子命昌</small></p> <p>子斗萬 <small>子駿得</small></p>	<p>女權振廷 <small>子克平</small></p> <p>女金永邦 <small>子是傑</small></p> <p>子天柱 <small>子用星</small></p> <p>女金日龍 <small>子晉錫</small></p> <p>子曼柱 <small>繼子斗萬</small></p> <p>女權道規 <small>子可孫</small></p> <p>子運萬 <small>子命昌</small></p> <p>子斗萬 <small>子駿得</small></p>
<p>子聲振</p>	<p>子有亨</p>	<p>子慶昌</p>	<p>子一復</p>	<p>子晉錫</p>	<p>子台矩</p>
<p>子聲振</p>	<p>子有亨</p>	<p>子慶昌</p>	<p>子一復</p>	<p>子晉錫</p>	<p>子致大</p>
<p>子聲振</p>	<p>子有亨</p>	<p>子慶昌</p>	<p>子一復</p>	<p>子晉錫</p>	<p>子鐵者</p>

32

女權斗聖 子重平 子三壽	女權擊日 女金夏成 子昌說 子德說 子	女 子最大 子東燦 子元甲	女權熙平 子必大 子宗燦	女姜千齡 子得黃	女南震傑 子汝山	女 子台彬 子台瑞 子驗得 子順得	女閔繼祖 子台彬 女金德五
子過平 子聖道 子德點 子大舅	子獻猱	子重燦 子元甲 子瑞興 子確甲	子台祥 子	女尹過時 子			

29

女朴善維 子世昌	女權振英 子大平 子奇伯	女金致章 子東雄 子亮	女權昌漢 繼子宗進	女金萬弼 子繼權	女金以章 子栢齡	女金重詰 女權士連 子德奇	子後善 子傑 子木石
女權弄璋 子德臨 子聖範	子日隆 子德秀	子孫隆 子彭佐	子益隆 子彭年 子彭祖 子昌文	子載運 子錫福	子泰運 子珠圓	子完粹 子鳴應	子德臨 子百良

30

女金德裕			女金尚秋			子德輔	
子俊得	女女女		子昌龜	女金尚瑾	子昌斌	子昌鼎	
			子				

25

子百均 <small>元</small>			庶子占叔		女徐喜杓		
<small>德顯</small>	庶女永娘		子順行	子	子日得	女	女
<small>德顯</small>	女彩即		子信行	子		女權聖乾	女
	女李聖杜		子				女
	子龍澤						子

26

						公同... 及... 年... 命定	
女金重龜	子思默	子東偃	子東游	子致衡	子仁衡	子及衡	子德衡
女權連團	女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21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子德寬
女尹得履	女金德善	女權祖源	子思深	子思潭	子思沈	子東漢	子東魯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子

22

<p>孝淑家</p> <p>子應鑄 子謙得正 子泓</p> <p>子道亨 子道恒 子世錄 子百萬</p> <p>子命道 子漢成 子世久</p> <p>子命洵 子喜套 子德興 子慎己 子衡運</p> <p>子喜學 子德備 子詢</p> <p>女金毛河</p>		<p>子應鑄 子謙得正 子泓</p> <p>子道亨 子道恒 子世錄 子百萬</p> <p>子命道 子漢成 子世久</p> <p>子命洵 子喜套 子德興 子慎己 子衡運</p> <p>子喜學 子德備 子詢</p> <p>女金毛河</p>	
<p>子喜學</p> <p>子德備</p> <p>子詢</p> <p>女金毛河</p>		<p>子德興</p> <p>子慎己</p> <p>子衡運</p>	

19

<p>子謙得正 子泓</p> <p>子道亨 子道恒 子世錄 子百萬</p> <p>子命道 子漢成 子世久</p> <p>子命洵 子喜套 子德興 子慎己 子衡運</p> <p>子喜學 子德備 子詢</p> <p>女金毛河</p>		<p>子德興</p> <p>子慎己</p> <p>子衡運</p>	
<p>子喜學</p> <p>子德備</p> <p>子詢</p> <p>女金毛河</p>		<p>子德興</p> <p>子慎己</p> <p>子衡運</p>	

20

					女權仁俊 子道 子以道	庶子次吉	
				女金天益 子是以鐸	女高是功 子國信	女金振滿 庶子必偁	子致光
女權道經 繼子以銓	女權龜齡 子運衡	女權重湜 子運衡	女權斗運 子運衡	女權三浣 子私焉	女李廷弼 子私焉	女李必偁 子私焉	子伯偁
							子鉞 子鉞 子鉞

(17)

						女權壽琴 子益堅	女權慎道
				女權致正 子任載	女權禮曾 子自詰	女權以均 子道鳴	子相漢 子斗正
				女權致正 子任載	女權禮曾 子自詰	女權以均 子道鳴	子輔漢 子斗燦
				女權致正 子任載	女權禮曾 子自詰	女權以均 子道鳴	子相漢 子斗正
				女權致正 子任載	女權禮曾 子自詰	女權以均 子道鳴	子相漢 子斗正

(18)

子得忠	子希璧	子光必	子振必	子夏郁	子汝憐	子宗孫
子周連	子貴必	子爾璣	子爾玗	子甲孫		
女金光建	子世杠	子台龜	子台崙	子時源	子福駿	
子弼杠	子致傑	子車源	子龍駿	子貴興		
女權應懌	子世輝	子昌岩	子貴興			
女權命申	子奇彥	子萬燕	子百燕			
女金汝賢	子有切					
子朋彥	子德郁					
女金義孫	子末比尼					
子東必	子秀杓	子慶喜				
子得信	子繼吉	子秀元	子			

15

子尚吉	子東杰	子守台	子景燁	子秀基	子慶郁
女權末詰		子景燁	子儀順	子慶溫	
子東老	子德台	女金鼎九	子景順	子李連	
女金已租	女裴昌運	子是文			
女權弘望	子貴邦	女金錫佐			
子盛宗	子順宗	女金昌輝			
女權微道	子景澁	子就澁			
子就澁	子鶴成	子望傑			
女權擇中	子致華				

16

子時顯	子昌順	子昌德	子大元	子欽胆	女裴斗朋	女金思錄	燕子石昌
女金得璉	女金仁得	子昌億	女權鶴奇	子權	子伯愈	女權孟秀	子云三
子忠孫	子漢甲	子虎夢	子宅仁	子慶得	子景浴	子喜福	子百福
子泰甲	子文甲	子泰甲	女徐文樞	子	女權景雙	子喜福	
					女權景郁		

13

子得智	女金是鑑	子繼中	女金振鳴	子以輝	子以煥	子以光	女金慶崇	子再倫	子貴連	女金甫鉉	子夏錫	子夏彬
子有寬	子有輝	子有微	子始秋	子尚秋	子益秋	子再倫	子克錄	子應龜	子思默	子東雁	子有寬	子百植
子千植	子重龜	子應龜	子思默	子東雁	子觀錫	子友得	子云伯	子銀金	子云東	子震澤	子時維	子震澤
子有寬	子有輝	子有微	子始秋	子尚秋	子益秋	子再倫	子克錄	子應龜	子思默	子東雁	子有寬	子百植
子有寬	子有輝	子有微	子始秋	子尚秋	子益秋	子再倫	子克錄	子應龜	子思默	子東雁	子有寬	子百植

14

女權碩哲	女金聲勳	女權碩朝	女權振發	女權致武	女權斗星	女權李龍	女權善邦	女權斗壽	子慶章	子慶禎	子慶常	子慶道東	子慶世	子望久	子望烈	子望孫	子得微
子世行	子承邦	子廷發	子兆均	子遠鳴	子十均	子之宗	子道泰	子登典	子益齡	子時亨	子大興	子輔國					
子益齡	子時亨	子大興	子輔國														

⑤

女權忠	女權日選	女金聲德	女權得詰	女權得明	子英郁	子義鐵	子崇鐵	子致平	子致中	子伯隆	子彭年	子彭傑	子成滄
子敬獻	子繼裕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爾鏡
子必亨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子必明	子必榮

⑥

立平 <small>女同正</small>	子端正 <small>女同正</small>	子大直 <small>女同正</small>	立德 <small>女同正</small>	子世弼 <small>女同正</small>	子謙 <small>女同正</small>	子德平 <small>女同正</small>	子暹 <small>女同正</small>	子慶和 <small>女同正</small>	子三山 <small>女同正</small>	子孝生
子榮世	子純男	子自一	子自立	子奇齡	子斗天	子斗德	子堯命	子得昌	子成漢	子宗鏞
子貴榮	女金允信	女權壽	子石堅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孝仁 <small>女同正</small>	子世弼	子謙	子孝仁	子石堅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子宗鏞

③

孝忠 <small>女同正</small>	子貴福	子起遠	子起京	子起文	女權德休	子士英	子鶴齡	子慶衡	子茂得	子文甲
子斗標	子再星	女權斗祥	子再命	子大嵩	子鳳嵩	子仲嵩	女權時顯	子昌順	子昌德	子來甲
女權大中	子復昌	繼子得昌	繼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子德鍊
孝忠	子貴福	子起遠	子起京	子起文	女權德休	子士英	子鶴齡	子慶衡	子茂得	子文甲

④

始相權幸 子仁幸 諸飛文作行 三難聖上三重 大匡臣父切臣 太即奉法金新 羅宗法危大奴 賜姓推重後 四法序金人 文此下十餘代 思公等三願 府滿白送祀金 本師傳大張大 師負別處在府 西天崇山而造 火谷子每泉	子仲時 子守中 子均漢 子光漢 子宏真 子位融 子安宏 子弁 子貞幹 子利典	子冊 子均漢 子子彭 子先蓋 子齋 子貞幹 子利典	子仲時 子守中 子均漢 子光漢 子宏真 子位融 子安宏 子弁 子貞幹 子利典
子就宜 子棟和 子傳	子性源 子次平 子漢謙 子位融 子安宏 子弁 子貞幹 子利典	子均漢 子光漢 子宏真 子位融 子安宏 子弁 子貞幹 子利典	子均漢 子光漢 子宏真 子位融 子安宏 子弁 子貞幹 子利典

①

貞幹 子位平 子叔元 子思拔	子通 子英正 子仁可	子棟達 子得元	子通 子英正 子仁可
貞幹 子位平 子叔元 子思拔	子通 子英正 子仁可	子棟達 子得元	子通 子英正 子仁可

②

啓書 啓書

金瑣重 權哲珠 權有重 申慶朋 徐海俊 李東深 金義強 吳致圭 金有強 權潤甲 吳智運 金鏡培 金修鋪 金有澈 權錫壽 權錫玉 權鍾郁 朱章煥 吳達運

安東 安東

吳致述 義城 金成煥 義城 金在際 安東 金潤堂 安東 卞學大 安東 吳德龍 義城

17

16

亞管吏

記官 記官

馬徒

記官 記官

五. 家牒

19

18

이 《家牒》은 一九世紀 초에 權永翁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家牒》에 수록한 八高祖圖의 최종인물이 바로 權永翁 자신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근에 후손이 追記한 것도 들어있으나 원래의 내용과 字體가 뚜렷하게 구별 되기 때문에 별다른 실명(實名)을 첨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家牒》은 內外孫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더우기 八高祖圖까지 수록되어 있으므로, 營吏들의 通婚圈은 물론 이들 집단의 동질성과 배타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긴하다.

<p>記管 權應鉉 刑 安東</p> <p>記管 權義明 兵 安東</p>	<p>記管 吳爾洙 刑 義城</p> <p>記管 李基淑 戶 義城</p> <p>記管 金法垠 禮 安東</p> <p>記管 金商重 戶 安東</p> <p>記管 金世奎 承 義城</p> <p>記管 權周曉 兵 安東</p> <p>記管 金宜泰 戶 安東</p>	<p>記管 權有夏 承 安東</p> <p>記管 權五雲 刑 安東</p> <p>記管 金熙基 戶 安東</p> <p>記管 權善元 刑 安東</p> <p>記管 權善玉 承 安東</p> <p>記管 權辰睦 刑 安東</p> <p>記管 金洗均 戶 安東</p>
---------------------------------------	--	--

⑤

④

<p>記管 吳爾洙 刑 義城</p> <p>記管 李基淑 戶 義城</p> <p>記管 金法垠 禮 安東</p> <p>記管 金商重 戶 安東</p> <p>記管 金世奎 承 義城</p> <p>記管 權周曉 兵 安東</p> <p>記管 金宜泰 戶 安東</p>	<p>記管 權有夏 承 安東</p> <p>記管 權五雲 刑 安東</p> <p>記管 金熙基 戶 安東</p> <p>記管 權善元 刑 安東</p> <p>記管 權善玉 承 安東</p> <p>記管 權辰睦 刑 安東</p> <p>記管 金洗均 戶 安東</p>	<p>記管 金蘇鋒 兵 義城</p> <p>記管 權華崇 工 安東</p> <p>記管 金晚洽 通 義城</p> <p>記管 金先國 兵 義城</p> <p>記管 金海益 刑 安東</p> <p>記管 金禹河 戶 安東</p> <p>記管 金宜潭 刑 安東</p> <p>記管 徐奎元 禮 雷城</p> <p>記管 金始潤 禮 安東</p> <p>記管 金點卿 戶 安東</p> <p>記管 權有圭 刑 安東</p> <p>記管 金處雄 祭 安東</p> <p>記管 吳炳睦 刑 義城</p>
--	--	--

在喪

金錫琦 兵 安東
 金元浩 安東
 權福一 戶 安東
 權德璋 禮 安東
 金贊旼 刑 安東
 權鎭忠 安東
 金文學 承 義城
 權理郁 兵 安東
 權鎭忠 刑 安東
 權鎭忠 刑 安東
 金錫坤 禮 安東

⑦

⑥

啓書
啓書
啓書

權鍾郁	安東
朱章煥	盈德
吳達運	義城

亞營吏

馬徒

記官

● 이 <營吏官案>은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다(청구번호: 朝-57가-48)한편 이 案에 각 인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논란식의 첨지를 붙이고 그 위에 성명을 적어놓았다(活字로 정리할 때, □ 표시를 한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詔文記官

權燾

安東

詔文記官

金英斗

義城

詔文記官

徐貴允

軍威

記官

權炳錫

安東

記官

權世斌

萊

記官

記官

記官

權燾

安東

①

記官

權晚鎔

戶 萊

記官

金光旭

戶 安東

記官

吳膺燮

戶 義城

記官

權應元

戶 安東

記官

金漢圭

戶 安東

記官

金佐成

戶 安東

記官

權義六

戶 安東

記官

權有假

戶 安東

記官

權缺

戶 安東

記官

權慶恭

戶 安東

記官

吳晚旭

戶 義城

記官

權昌炫

戶 安東

記官

金有鍾

戶 安東

記官

權始鎬

戶 安東

記官

吳圭燮

戶 義城

記官

金世玉

戶 安東

③

②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通引

權曾玉	禮	安東
權基雲	刑	安東
權應祥	禮	安東
權錫萬	刑	安東
金有湖	戶	安東
金南燮	刑	安東
金進成	刑	安東
金基浩	禮	安東
權會雲	禮	安東
金光新	承	義城
權有瑀	承	安東
權錫大	刑	安東
金光浩	禮	安東
權瑞鳳	禮	安東

記官 記官 記官 記官 記官 記官 記官 記官

權有圭	刑	安東
金處雄	啓	安東
吳炳睦	刑	義城
金宜雲	刑	安東
權佐圭	承	安東
朱炳吉	戶	盈德
權龍振	工	安東
李義中	兵	義城

金有玉	安奇
沈錫天	幽谷
朴承老	昌樂
黃鳳甲	安奇
趙點郁	安奇
林國魯	金泉
朴鳳一	昌樂
林義魯	金泉
吳光燮	安奇
趙聖伯	安奇
朴瑞圭	昌樂
金云善	昌樂
黃瑞運	安奇

馬徒

金宜燮	兵	義城
權始鉉	刑	安東
崔宇夏	刑	慶州
權興一	刑	安東
權晚宜	承	安東
權錫興		安東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啓書

金壽煥	工	義城
權基聲	刑	安東
權應河	承	安東
權圭河	承	安東
權應祚	承	安東
金有潭	禮	安東
吳最佑	承	義城
權益璋	禮	安東
權錫河	工	安東
吳最甲	啓	義城
權鳳魯	禮	安東
權東旭	禮	安東
金成宇		安東
金甲垠		安東
申應周	工	寧海
金		
金應三	承	義城
吳濟運	承	義城
李應烈		星州

通引 通引 通引 通引

李東燮	禮	義城
權義治	承	安東
權時億	禮	安東
權處一		安東

金成處	幽谷
林義奎	安奇
玄道哲	長水
沈圭善	幽谷
朴奎瑞	金泉
李萬伯	昌樂
李有燮	昌樂
姜進河	昌樂
林聖淑	金泉
金應哲	幽谷
張有權	金泉
姜浩一	召村
秋進浩	幽谷
林基河	安奇
黃云哲	安奇
金圭凡	安奇
孫圭銜	昌樂
姜方龜	昌樂
權應振	昌樂
朴世河	松羅
朴世巖	昌樂
金益現	昌樂
林萬甲	安奇
裴道業	幽谷
林秉得	安奇

馬徒

四. 〈營吏官案〉

吏案은 鄉吏(혹은 營吏·營人吏·鎮吏 등을 포함한 지방의 衙前)들의 성명들을 기재하여 놓은 열람부로서 지방관이 差任을 할 때, 이 吏案에 오른 鄉吏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상례였다.

여기에 수록한 〈營吏官案〉에는 慶尙道 監營의 監營吏와 通引, 啓書 그리고 馬徒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출신 지역과 담당 職任도 적어놓았다. 이 案의 작성시키는 수록인물의 이력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高宗21年(一八八四) 이후, 地方制度의 改定이 있었던 高宗32年(一八九五) 사이로 추정된다. 이 案에는 記官(보통 監營吏라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71名, 通引 18名, 그리고 啓書 76名이 올라있는데 이들을 출신 지역과 가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신지역	本貫	姓氏	記官	通引	啓書
安東	安東	權金	33	11	31
	"		21	5	19
義城	海州	吳金	5	0	11
	義慶	李	6	1	5
		李	2	1	3
軍威	利川	徐	2	0	2
寧海	坡寧	尹申	0	0	2
			0	0	1
慶州	慶州	崔	1	0	0
星州	星州	李	0	0	1
靑松	坡平	尹	0	0	1
盈德	?	朱	1	0	0

요컨대 이 표는 監營의 행정실무가 거의 安東의 두 吏族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 正祖21年(一七九七)에 작성된 이 戶口單子는 權昌質의 것인데, 소유 奴婢가 수록된 부분은 전부 잘려 나갔다. 한편 權昌質의 外祖인 權斗正의 본관이, 이 單子에는 永嘉(安東)로 기재되어 있는데, 1년 후 發給된 准戶口에는 醴泉으로 기재하고 있어 흥미롭다(准戶口【四】참조). 權斗正은 같은 安東 吏族 출신이며, 다만 다른 家系에 속하고 있다.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同性 同本의 吏族들간의 혼인은 18세기까지도 자주 행하였거 왔는데 점차 이를 의식하여 本貫을 달리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三。差 帖

여기에 수록한 2편의 差帖은 모두가 權昌質에게 發給된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慶尙道 觀察使가 發給하였는데, 그가 權昌質로 差定한 架山の 南倉別將이나 分賑監官은 鄉吏들의 吏任은 아니었지만 觀察使의 직접 관할하에 있는 屬官이므로 觀察使가 差定했던 것이다(물론 分賑監官은 상설직이 아니었다).

【一】

差帖

觀察使兼巡察使爲差

定事架山南倉別將差

定爲去乎不輕察任向

事合下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折衝權昌質

乙巳正月二十五日 準此
差定

兼使

都事

● 이 差帖은 慶尙道 觀察使가 正祖9年(一七八五)에 權昌質을 架山山城 내 南倉의 別將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帖文이다. 架山の 別將은 주로 慶尙道 監營의 營吏 가운데 유력한 인물이 差任되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로써 權昌質의 威勢를 짐작할 수 있다.

【二】

差帖

觀察使兼巡察使爲差

定事本道分賑監官差定爲

去乎不輕察任向事合下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前同知權昌質 準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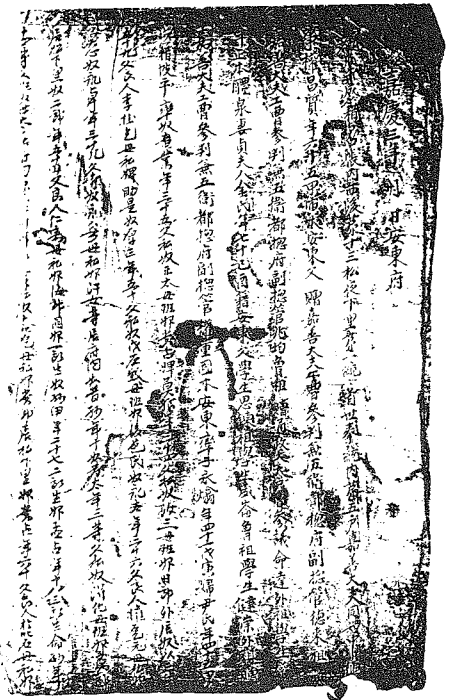
癸丑正月 日

差定

兼使

都事

● 이 差帖은 慶尙道 觀察使가 正祖17年(一七九三)正月에 權昌質을 分賑監官으로 임명하면서 내린 帖文이다.



● 正祖 22 年 (一七九八) 에 權昌質에게 發給된 准戶口인데, 소유奴婢의 기재사항이 대부분 떨어져 나갔다. 남아있는 부분을 6년전의 准戶口와 대조하여 보면 外居奴가 최소三口 이상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五】

壬子式城也洞戶籍單子

第八統統首沈復泰 統內

第四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行景祿官衛將權昌質年五

十九甲寅本安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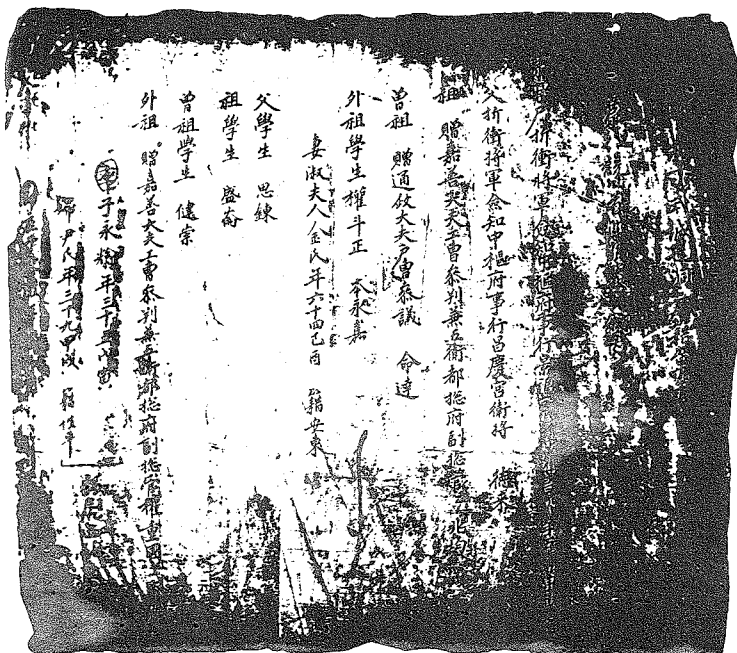
父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行昌慶官衛將 德來

祖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 兆均

曾祖 贈通政大夫戶曹參議 命達

外祖學生權斗正 本永嘉

妻淑夫人金氏年六十四己酉 籍安東



父學生 思鍊

祖學生 盛崙

曾祖學生 健宗

外祖 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權重國 本安東

○ 節 子永 年三十五戊寅

婦尹氏年三十九甲戌 籍坡平

○ 節 庶子永澈年十六丁酉

移居西後松上里

○ 下

【三】

乾隆六十年正月 日 安東府

考乙卯成籍戶口帳內 西後第八松夜下里第四統首世奉
統內第四新戶幼學權永翁年三十八戊寅本安東 父嘉善大
夫同知中樞府事昌質 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
摠管德來 曾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
摠管德來 曾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
兆均 外祖學生金思鍊本安東 妻尹氏年四十二甲戌籍坡平
父幼學舜華 祖學生時俊 曾祖學生德邵 外祖將仕郎申潤
興本平山 率奴龍業年三十二甲申父私奴鄭太母班婢貴占
奴龍範年三十八戊寅父良人在京母私婢朴娥 婢莫娘年三
十二乙酉父私奴呂三母班婢日郎 乙卯自首戶口等准給者



● 이 准戶口는 權永翁이 生員試에 합격하기 전인 正祖19年(一七九五)正月에 發給된 것이다. 權永翁은 府內 城也洞에서 西後

面松下里로 移居하였으며, 이 당시 그는 奴名과 婢名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중에서 奴龍業과 婢莫郎은 그의 父親이 거느리고 있었던 奴婢로서 正祖16年(一七九二) 이후 分給된 것으로 짐작된다(周挾無改印)。

【四】

嘉慶三年 月 日 安東府

考戊午成籍戶口帳內 西後第十三松夜下里第一統首世
奉 統內第五戶嘉善大夫同知中樞事權昌質年六十五甲寅
本安東 父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德來
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兆均 曾祖贈
通政大夫戶曹參議命達 外祖學生權斗正本醴泉 妻貞夫人
金氏年七十己酉籍安東 父學生思鍊 祖學生盛審 曾祖學
生健崇 外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權
重國本安東 率子永翁年四十一戊寅 婦尹氏年四十五甲戌
籍坡平 率奴龍業年三十五父私奴正太母班婢貴占 婢莫郎
年三十四父私奴汝三母班婢日郎 外居奴以三年五十九父
良人李桂豆母私婢助是 奴厚三年五十父私奴戊石致母班
婢俊邑氏 奴永太年三十六父良人權豆元母私婢草心 奴永
卓年三十九父寺奴永學母私婢汗女等居府內 奴昔孫年十
奴昔太年三等父私奴得化母班婢莫郎居松下里 奴二郎年
五十四父良人仁宗母私婢海郎 同婢一所生奴孫伊年二十
七二所生婢孟占年十八 三所生命孫年十四等父私奴世太
居府內 婢哲竹年五十一父私奴念豆母私婢貴郎居松下里
婢貴占年六十父良人瓮石母私婢

乾隆二十一年 月 日 東府

權昌質年二十一甲寅永安東父贈嘉善奕工曹承勳無五衛都總府副總管德慶鎮

進求承勳妻員夫人金氏年六十七已酉籍 父學士恩錄祖學生盛裔曾祖學生健堂外祖

中級轉城年移居西後松下里糜子承勳年三十四自承勳龍奉年三十四年父私淑法三母班輝

郭輝銀年四十八庚辰父私淑奕名班輝郭外居輝者年庚辰父名班輝郭外居輝者年庚辰父名班輝郭外居輝者

二所生收黃年甲申四所生收黃年戊戌父私淑得大居居百翠多星輝二眼非七母父名仁年五移

日眼年改等父私淑自年母私淑名辰同郭二所生輝得廿年戊辰父私淑法三居故也洞四所生輝吳娘

年己酉父私淑法三同郭二所生輝得廿年甲申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輝二所生收黃光年辛巳二所生輝得廿年甲申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居法洞洞下化年己酉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辛巳年辛亥父私淑私淑名居安寄里輝得廿年丙申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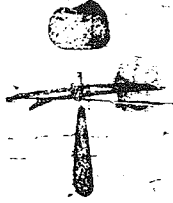
丁亥二所生收得年庚子父私淑私淑名居法洞洞下化年己酉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郭次尚居居里收亦太年癸亥父私淑私淑名居法洞洞下化年己酉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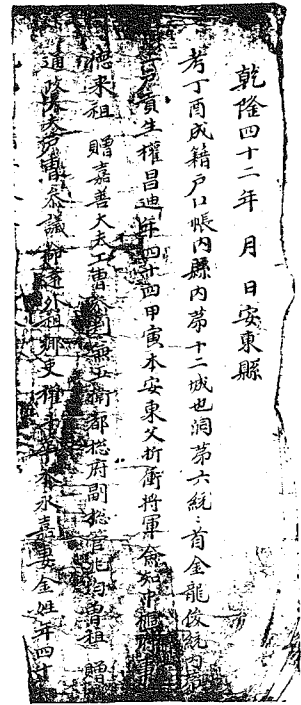
私淑私淑同郭二所生收黃光年辛巳年辛亥父私淑私淑名居法洞洞下化年己酉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考文私淑於此金居法洞洞以日初年丁酉父私淑私淑名居法洞洞下化年己酉父私淑私淑士娘同郭二所生收太孫年甲申四所生亦太娘年丙申父私淑黃三

行府使



唱



【二】

乾隆六十年 月 日 安東府

考乙卯成籍戶口帳內 府內第十一城也洞第七統統首權洛
孫 統內第五戶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權昌質年六十二甲
寅本安東 父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德
來 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兆均 曾祖
贈通政大夫戶曹參議命達 外祖學生權斗正本永嘉 妻貞夫
人金氏年六十七己酉籍安東 父學生思鍊 祖學生盛崙 曾
祖學生健崇 外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
管權重國本安東 子永翁年三十八戊寅 婦尹氏年四十二
甲戌籍坡平 移居西後松下里 庶子永澈年十九丁酉 率奴
龍奉年三十四壬午父私奴汝三母班婢日郎 苾婢鐵竹年四
十八戊辰父私奴姪芴母班婢貴郎 外居婢貴占年戊午父良
人斡石母班婢權娘 同婢二所生奴龍業年甲申 四所生奴尙
芴年戊戌父私奴鄭太居臨西琴召里 婢二娘年乙丑父良人
仁宗母私婢海娘 同婢一所生奴孫伊年壬辰 二所生婢孟占
年辛丑 三所生奴命孫年乙巳 扣班奴世太扣居城也洞 婢
日娘年戊午父私奴自平母私婢芴辰 同婢二所生婢得女年

戊寅父私奴汝三居城也洞 四所生婢莫娘年乙酉父私奴汝
三同婢一所生奴石孫年己酉父私奴得和居松上里 婢日女
年己未父不知母私婢貴今 同婢一所生奴貴芴年辛巳 二所
生婢毛丹年甲申 三所生奴太孫年辛卯 四所生婢太娘年丙
申父私奴貴三居法尙洞 婢卜化年己巳父不知母私婢士娘
同婢一所生奴厚邑氏年己亥 二所生奴未邑氏年癸卯 四
所生奴首邑氏年辛亥父私奴嚴芴居安奇里 婢戊占年丙寅
父不知母班婢盡心 同婢一所生婢草占年丁亥 二所生奴占
得年庚子父私奴蕊奉居法尙洞 婢卜梅年丁酉 婢學梅年庚
子父良人權厚得母班婢尙占居泉里 奴永太年癸未父良人
權芴元母私婢草心居法尙洞 婢日今年辛巳父私奴昌伊母
私婢孟心 同婢一所生奴實巨里年壬子父良人千朋 婢益心
年戊子父母上同 同婢一所生奴春得年辛亥父私奴於屯金
居法尙洞 奴日福年丁酉父母上同居松上里 婢天心年丙辰
父私奴權芴母私婢莫兮 同婢二所生奴得芴年辛卯 四所
生奴汗芴年戊戌父良人黃成居廣德里 婢毛丹 一所生奴金
芴年戊申 三所生婢金丹年庚戌父私奴賢居法尙洞 奴永
澤年庚辰父寺奴永學母班婢汗女居法尙洞 苾婢造心年丙
申父私奴宗業母私婢己正 奴貴三年甲申父良人吳哥母班
婢壬心居禮安邑內 壬子戶口相準等准給者 行府使(押)

● 이 准戶口는 正祖 16年(一七九二)에 權昌質에게 發給한 것이
다. 당시 그는 庶子 1人 외에 尙當主의 奴婢를 거느리고 있었는
데 이들 대부분은 外居奴婢였다. 특히 外居奴婢의 尙當主는 安
東府內에 거주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准戶口 외에는 完전한 모
습을 갖춘 또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어 구체적인 변화양상은
파악하기 어렵다(「周挾無改印」).

● 이 教旨는 純祖 13年(一八一三)에 權昌質을 嘉善夫에서 嘉義大夫로 品階를 加資한다는 告身教旨이다. (「施命之寶」)

【十一】
教旨

幼學權永翁生員二等第十四人入格者

嘉慶六年九月二十六日

● 이 白牌는 純祖 2年(一八〇二)에 生員試에 合格한 權永翁의 것으로서, 당시 그의 나이는 44세였고 곧 成均館에 入學하였다. (「科擧之寶」).

二. 准戶口・戶口單子

本編에는 모두五件의 准戶口와 戶口單子를 수록하였다. 한편 이들 외에도三件의 戶口單子가 남아있는데 과손이 너무 심한 관계로 이들은 수록하지 않았다(이들은 모두 權永翁에게 贈給된 것이다).

수록한 准戶口와 戶口單子에 관련된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 류	戶 主	發給日字	居 住 地	文書의 有無	비 고
准 戶 口	權 昌 迪	正祖 1年 (1777)	府內 城也洞 6統~2戶	有	權昌質의 弟
	權 昌 質	正祖 16年 (1792)	府內 城也洞 7統~5戶	無	
		正祖 22年 (1798)	西後面 松夜下里 1統~5戶	有	
	權 永 翁	正祖 19年 (1795)	西後面 松夜下里 4統~4新戶	無	權昌質의 長子
戶口單子	權 昌 質	正祖 21年 (1797)	府內 城也洞 8統~4戶	有	

【一】

乾隆四十二年 月 日 安東縣

考丁酉成籍戶口帳內 縣內第十二城也洞第六統首金龍俊 統內第二戶貢生權昌迪年四十四甲寅本安東 父折衝將軍 兪知中樞府事德來 祖贈嘉善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兆均 曾祖贈通政大夫戶曹參議命達 外祖鄉吏權斗華本永嘉 妻金姓年四十

● 이 准戶口는 正祖 1年(一七七七)에 貢生 權昌迪에게 發給되었다. 權昌迪(一七三四?)은 權昌質의 동생으로서, 그는 監營의 巡將을 역임하였다. 이 准戶口는 과손이 심하여 소유 奴婢의 실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 이 教旨는 正祖10年(七八六) 10月 30日에 權昌質에게 발급된 것이다(「施命之寶」)。

【五】
教旨

孺人金氏爲淑夫人者

乾隆五十一年十月三十日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權昌質妻依法典從夫職

● 이 告身教旨는 權昌質에 대한 官階授與에 따라 그의 妻에게 발급한 것이며, 正三品에 해당하는 官階가 주어졌다. 權昌質의 妻는 安東 金氏 吏族 출신의 金思鍊의 딸로서, 金思鍊의 家系는 역시 監營吏를 배출하여 왔던 戶長公 處商派였다. 나아가 權昌質은 金思鍊과 같은 시기에 監營吏로 赴番하였다(「施命之寶」)。

【六】
教旨

權昌質爲嘉善大夫者

乾隆五十五年六月二十八日

補賑人賞加事承傳

● 이 教旨는 納粟한 權昌質에게 대하여 正祖14年(一七九〇) 6月26日에 加資한 것이다(「施命之寶」)。

【七】
教旨

權昌質爲嘉善大夫行龍驤衛副護軍慶熙宮衛將者

乾隆五十七年七月 日

● 이 教旨는 正祖16年(一七九二) 7月에 權昌質에게 發給된 것이다(「施命之寶」)。

【八】
教旨

權昌質爲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慶熙宮衛將者

乾隆五十七年七月 日

● 이 告身教旨는 正祖16年(一七九二) 7月에 權昌質에게 發給된 것이다(「施命之寶」)。

【九】
教旨

淑夫人金氏爲貞夫人者

乾隆五十七年七月 日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權昌質妻依法典從夫職

● 이 告身教旨는 正祖16年(一七九二) 7月 權昌質에 대한 官階授與에 따라 그의 妻에게도 從二品에 해당하는 官階를 수여한 것이다(「施命之寶」)。

【十】
教旨

權昌質爲嘉義大夫者

嘉慶十八年□月初二日

依定式加資事

一。教 旨

本書에 수록된 教旨는 모두 11點이다. 이 중에서 權永翁의 白牌 1點을 제외하면 모두가 그의 부친 權昌質의 告身이다. 다만 權昌質에게 發給된 告身은 모두가 實識의 除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影職을 授與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들 教旨를 發給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發 給	日 字	發 給 對 象	教旨의 종류
正祖 7년(1783)	5月 24日	權 昌 質	告 身
正祖 10년(1786)	7月	"	"
"	9月	"	"
"	10月 30日	"	"
正祖 14년(1790)	6月 26日	"	"
正祖 16년(1792)	7月	"	"
"	7月	"	"
純祖 13년	?	"	"
正祖 10년(1786)	10月 30日	權昌質의 妻	"
正祖 16년(1792)	7月	"	"
純祖 1년(1801)	9月 26日	權 永 翁	白牌(生員)

【一】
教旨

權昌質爲通政大夫者

乾隆四十八年五月二十四日

補賑穀一百一十五石帖加成給事承傳

● 이 教旨는 正祖 7 年(一七八三) 5 月 24 日 賑恤穀을 바친 權昌質에게 通政大夫(正三品)의 官階를 내려준 것이다(「施命之寶」).

【二】
教旨

權昌質爲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勇者

乾隆五十一年七月日

● 正祖 10 年(一七八六) 7 月 에 발행한 教旨로서 權昌質은 從三品인 折衝將軍에 行忠武衛副司勇의 官職에 除授되었다(「施命之寶」).

【三】
教旨

權昌質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景福宮衛將者。

乾隆五十一年九月日

● 이 告身教旨는 正祖 10 年(一七八六) 9 月 에 權昌質에게 發給된 것이다(「施命之寶」).

【四】
教旨

權昌質爲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景福宮衛將者。

乾隆五十一年十月三十日

- (一) 營吏即安東權生員·金生員也 居家則方冠潤袖 對案讀書 入番則始着淡紅直領 而年少座卑者 不敢着皮鞋 六房濟濟 主張一營之事 曠昔之年 優於文算 粗識義理 挽近以來 全不劬工 只以彙錄請囑 招番赴役爲能事 戶房·刑房 有內外番二人 其他只一人 而啓書吏四人也 一路穀簿 皆爲戶房所管 故往往有作弊幼弄之端 刑房 主張刑配等事 故尤多作奸 蓋其習俗漸滋於欺瞞 無弊不生(李參鉉、《鍾山集》21)
- (二) 拙稿、《安東鄉係事蹟通錄》의 간행과 朝鮮後期の 安東鄉吏」(『第29回全國歷史學大會 發書要旨』, 1986·5)
- (三) 《道先生案》、國會圖書館, 1970·10.
- (四) 安東地域 儒林들의 得勢에 대하여는 李樹健氏의 「17, 18세기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機能」(『大邱史學』27, 1986·11)에 잘 설명되어 있다.
- (五) 川島 藤也, 「文化柳氏にみらわる氏族移動とえの性格」-儒教的官僚體制と血統集團- (『朝鮮學報』70, 1974).
- (六) Edward W. Wagner, 「社會緩衝劑로서의 科擧」-李朝 北方三道의 경우- (『光復30周年紀念 綜合學術會議論文集』, 1975).
- (七) 朝鮮後期 이후 吏族의 家系分化和 이에 따른 主道적 家系의 성장, 그리고 이들 主道적 家系들에 의하여 寡頭의 運營體制가 확립된 사실에 대하여는 拙稿, 「彰忠祠의 건립과 居昌 慎氏 吏族」(『東亞研究』4, 1984·9) 및 「朝鮮後期 慶州의 鄉吏와 安逸房」(『歷史學報』107, 1985·9). 이 참고된다.
- (八)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는 拙稿, 「居昌 慎氏 世譜」의 간행과 鄉吏派의 編入」-朝鮮後期 鄉吏의 身分移動 問題에 대한 再檢討- (『白山學報』33, 1986·12)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 (九) James B.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1972)
- (十) 朴齊炯, 《近世朝鮮政鑑》上-19
- (十一) 拙稿, 「儒佛洋三敎說」을 통하여 본 尚州吏族 李明九의 天主教 批判論理와 그 意義」(『第30回 全國歷史學大會 發書要旨』, 1987·5)

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진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소속 가계들이 지방행정 실무를 독점·운영하는 寡頭的 운영체제가 확립된 一九세기 이후 보다 구체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들 鄉吏知識人들은 邑權의 동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용납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洪景來 亂에 대한 安東 吏族들의 倡義決議文(資料七) 雜文 참조)은 이러한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安東의 吏族들은 洪景來의 舉事 소식을 접하고 吏籍에 오른 부류들은 守城에 힘쓰고, 儒業에 종사하는 부류들은 서로 이끌어 倡義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鄉村社會의 동요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식은 동학농민전쟁이나 의병의 항쟁과 같은 일련의 위기 속에서 더욱 굳어졌으며, 이것이 조선 후기 주도적 가계 출신의 鄉吏知識人들이 지닌 독특한 신분적 이해의 한 표현으로서 부각하여 도 좋을 것이다.

V

權永翁 家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典籍은 《資料集成》에 수록한 資料 이외에 얼마 안되는 서적 뿐이다. 그의 家門에서 소장했던 방대한 양의 典籍은 그의 家門의 몰락과 함께 흩어져 버렸다. 이러한 몰락의 계기는 바로 權載鐸과 大院君의 밀접한 교유관계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어지며, 權載鐸의 가문도 大院君 정권의 失落과 함께 길을 갔던 것이다.

그렇지만 權永翁 가문과 같이 정치 권력의 추이에 따라 浮沈을 함께 했던 吏族 내 주도적 가계들은 별로 많지 않다. 조선 후기 이후 각 지역의 주도적 가계와 鄉吏知識人들의 대부분은 중

앙의 권세가들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들은 권세가들과 가능한 한 일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政爭의 직접적인 피해가 자신들에게 비화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각 지역의 주도적 가계들이 근대의 격동기 속에서 크게 진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이들 家系들이 정치권력의 浮沈속에서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들 나름의 대응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權載鐸 이후 그의 가문이 몰락한 것은, 경상도 鄉吏世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가문의 비중이 높아져서 중앙의 정치 권력의 파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사실과 함께, 여전히 양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大院君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던 때문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실은 조선 후기 이후 여전히 확고한 기반을 유지하던 양반 중심 사회에서, 신분상승을 위한 吏族들의 노력과 기대에 수반될 수 밖에 없었던 신분적 한계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III

조선후기 이후 各郡·縣의 향리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 吏族 내 주도적 가계들 내에 儒業에 종사하는 鄉吏知識人들이 증가한 사실은 安東의 경우에도 일치한다. 나아가 이러한 부류들의 증가와 함께 科擧에 응시하여 사회적 진출을 도모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門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널리 확산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들의 사회적 진출은 큰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中央의 권세가들의 배경이 없이는 관직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이 조선후기의 현실이었으며, 더우기 이들 鄉吏知識人들은 각 지역 儒林들의 배타성에도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진출의 기회를 가진 지방 출신의 향리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중앙의 권세가들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갖는 길 밖에 없었다. 이른바 권세가들의 門客이 되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 주변적 위치에 놓인 鄉吏知識人들에게 두드러졌던 사실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權永翁의 손자 權載鐸과 大院君과의 밀접한 교유관계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大院君은 王室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심하였으며, 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衙前 과도 관계를 깊게 맺고 이들을 이용하였다.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하여 大院君은 權載鐸과 같이 慶尙道 鄉吏世界에서 큰 비중을 지닌 監營吏 배출 가문의 鄉吏知識人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던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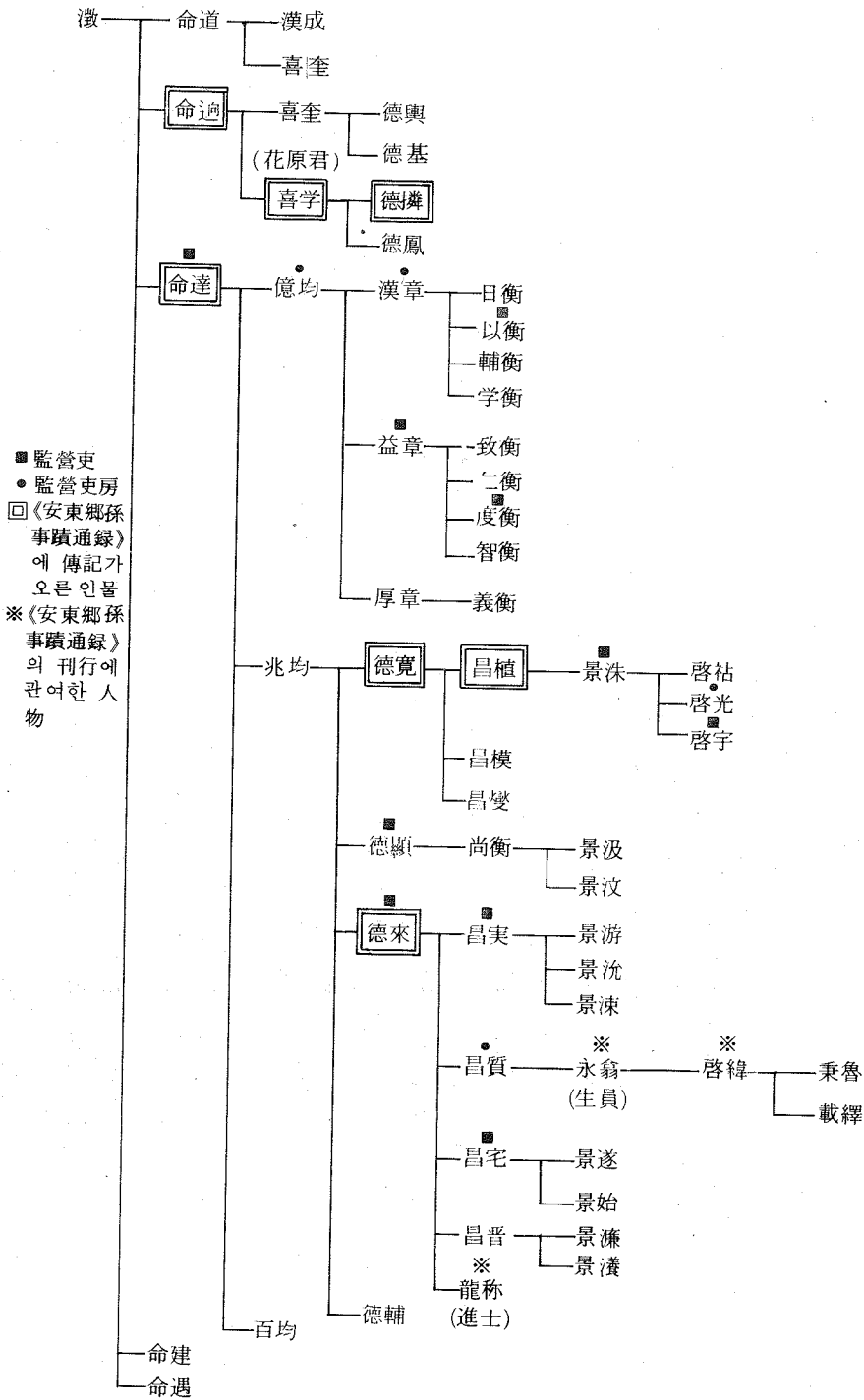
로 추론된다. 요컨대 이것은 兩班 중심의 사회에서 신분적 계를 수반한 鄉吏知識人들의 사회적 진출의 도와, 왕실 권위의 강화 노력 속에서 양반들의 이해와 대립될 수 밖에 없었던 大院君의 입장이 일면 부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權載鐸과 大院君의 밀접한 교유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앙의 권세가들과 밀접한 교유관계를 맺으려는 조선후기 鄉吏知識人들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의 한 표현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雲宮上書》는 權載鐸이 大院君에게 보낸 편지를 謄書하여 놓은 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權載鐸이 大院君의 答信을 계속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大院君이 高宗에게 실권을 물려준 高宗 二年(一八七四) 이후부터 壬午軍亂으로 재집권했던 高宗 一九年(一八八二) 직전까지의 사이에 쓰여진 글들이어서, 京畿道 陽州의 直谷으로 물러나 있던 시기의 大院君의 동향은 물론, 그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門客들의 어떠한 견해가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값진 자료로서 평가된다.

IV

鄉吏知識人의 성장이 자신들의 소속 가계가 각 지역 鄉吏世界를 주도하게 된 일련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이들의 의식구조와 이에 따른 행동양식은 자신들의 소속 가계가 처한

《安東鄉孫事蹟通錄》의 간행자 權永翁의 家系



르렸던 것이다. 스
이러한 실태가 權永翁 家系의 《家牒》에 잘 나타나 있다. 內外
孫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家牒》을 《道先生案》의 營吏 명

단과 대조·분석하여 보면, 監營吏 差任方式에 있어서 各 家系
의 세습성과 함께 配偶者 選擇에 있어서 同宗권의 증충적 구조
가 확고하게 구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東의 두 吏族과 견줄 수 없었다. (二) 그 구체적인 실례가 一八세기 말까지 監營吏 명단을 빠짐없이 수록한 慶尙道(道先生案)에서 확인되려니와, (三) 본 《資料集成》에 수록한 慶尙道 監營의 《營吏官案》도 이러한 추세가 十九세기 이후 그대로 지속되어 왔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특정 지역 출신이 監營吏를 독점·안배하고 있는 양상이 조선전기에는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것이 조선후기의 새로운 변화임을 말해준다. 더욱이 관찰사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어 온 추이에 따라, 監營吏의 권한과 역할도 점차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安東 吏族들의 慶尙道 鄉吏世界에 대한 비공과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던 것이다. (三) 한편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安東地域 儒林들의 得勢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四)

이렇듯 특정 지역 출신의 위세와 영향력이 中央集權을 指向해온 儒敎的 官僚國家인 朝鮮王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변화, 다시 말해서 지역성의 문제가 당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분명 조선후기 이후의 새로운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북 지방에서 文科及第者를 포함한 지식인들이 급증한 변화라든가, (五) 또는 정치 권력이 한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거주하는 閔閔들에 점차 집중되어 온 일련의 사실(六) 등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安東 鄉吏들의 得勢가 곧 安東의 모든 吏族들이 監營吏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安東에는 權氏 吏族 八家系와 金氏 吏族 四家系 외에도 驪興 閔氏 吏族과 鎭州 宋氏 吏族이 있었으나 후자의 위치는 지금처럼 미미하여, 權氏 吏族이나 金氏 吏族과는 비교되기 어려웠다. 또한 조선후기

이후 각 吏族 내에서는 家系分化和 함께 權氏 吏族 四家系와 金氏 吏族 三家系가 주도적 家系로서 부상하여 이들이 安東의 鄉吏世界를 이끌어 가는 양상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監營吏도 바로 이들 특정 家系 출신들에 의하여 점차 독점·세습되기에 이르렀다. (七) 《安東鄉孫事蹟通錄》의 刊行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權永翁의 소속 家系도 바로 이러한 주도적 家系의 하나였으며, 위의 책의 간행도 이 家系의 得勢를 배경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II

《安東鄉孫事蹟通錄》은 조선후기 安東 鄉吏들의 威勢를 반영하는 저술로서, 신분상승을 위한 실질한 갈구가 담겨 있다. 이 책의 편찬에는 成均進士 權心度를 비롯하여 進士 權龍稱, 生員 權永翁 그리고 幼學 權啓緯와 權景龍이 관여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吏任을 맡지 않고 儒業에 종사한 鄉吏知識人들로서, 이러한 鄉孫儒業者들의 성장은 소속 家系들이 慶尙道 鄉吏世界에서 점차여 온 차별한 위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제 權永翁 家系의 世系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면의 표와 같이 된다.

이렇듯 慶尙道 監營吏를 독점·배출할 수 있었던 威勢는 이 職任을 각 家系가 세습하면서 이와 동시에 監營吏를 배출하는 다른 家系들과 상호 증척되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보다 확고하여졌다. 요컨대 監營吏를 배출할 수 있었던 특정지역 출신의 吏族 家系들 사이에 통혼권이 형성됨으로써, 鄉吏世界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중층적 구조까지 보다 확고하게 형성되기에 이

朝鮮後期 慶尙道 鄉吏世界에 있어서 安東 吏族들의 得勢와

鄉吏知識人의 動向

I

高宗四년(一八六七)에 慶尙道 監司로 부임하였던 李參鉉(一八〇七?)은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慶尙道 監營의) 監營吏들은 바로 安東의 權生員과 金生員들이다. 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方冠과 濶袖를 입고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監營에 赴番하게 되면 비로소 淡紅色 直領을 입는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계급이 낮은 자는 감히 가족신을 신지 못한다. 六房(吏房·戶房·禮房·兵房·刑房·工房)이 모두 모여서 監營의 모든 일을 온통 주관하였다.

전에는 글과 계산은 뛰어난 義理에 대하여는 잘 몰랐다. 근래에 와서는 모두가 단지 인연을 맺어 청을 들어주기를 부탁하여 番에 불리워 營役에 나가는 일을 능사로 삼고 있다.

戶房과 刑房은 內番과 外番으로 두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단지 한 사람이며 啓書吏는 네 사람이다. 경상도 모든 지역의 宰正은 모두 戶房에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때때로 罰單을 만들

고 농잔을 부리는 실마리가 생겨났다. 刑房은 刑을 주고 流配시키는 일 등을 주관했기 때문에 더욱 더 간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많았다. 대개 그 습속은 점점 기만하는 것으로 변어나가서 생기지 않은 罰單이 없었다.)

위의 기록은 慶尙道 監營의 監營吏들 安東의 鄉吏들이 독점하여, 경상도 지방 행정 실무가 이들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양상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서 權生員, 金生員이라고 李參鉉이 비꼬아 지칭한 대상은 바로 安東의 安東 權氏 吏族과 安東 金氏 吏族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安東 출신의 두 吏族이 慶尙道の 지방 행정 실무를 장악하고 있는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 義城이나 大邱 등지의 吏族들도 監營吏나 營人吏를 배출·안배하여 왔으나, 이들은 그 威勢에 있어 결코 安

目次

머리말

朝鮮後期 慶尙道 鄉吏世界에 있어서 安東 吏族들의 得勢와 鄉吏知識人의 動向

一。教旨 228

二。准戶口・戶口單子 226

三。差帖 221

四。〈營吏官案〉 219

五。〈家牒〉 212

六。〈雲宮上書〉 182

七。雜文 172

소홀히 하고 있는 연구 풍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 요인의 일부는 자료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제한된 자료를 과신했던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자료집과 함께 앞으로는
속간될 자료집들이 이 방면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기여가 된다면
다행이겠다.

李 勛 相 (文科大學 史學科 助教授)

(이 자료집은 1986년도 문교부 자유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결과물의 일부이다)

머리말

이 자료집은 純祖 24年(1824)에 《安東鄉孫事蹟通錄》을 간행했던 權永翁 가문의 소장 자료를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權永翁은 安東 吏族 출신의 鄉吏知識人으로서, 그의 가문은 조선 후기 이후 慶尙道 監營의 監營吏를 독점·배출했던 극소수 가문의 하나였으므로 慶尙道 鄉吏世界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은 상당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權永翁은 生員試에 합격하여 成均館에 入學하였으나, 사회적 진출에 대한 그의 희구는 문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 속에서 신분적 제약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安東鄉孫事蹟通錄》의 간행은 조선 후기 安東 吏族들의 得勢와 함께 이를 배경으로 성장한 향리지식인의 신분적 고뇌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결실이었다.

조선 후기 鄉吏 집단의 동향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이 유교적 관료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양반 중심의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향리지식인을 배출하였던 각 郡縣의 吏族 내 주도적 家系들에서 근대 이후에는 주요 엘리트들이 다수 배출되어 근대 사회를 살피는데 있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향리 관계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들과 관련된 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는 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특히 힘든 일은 각 지역에 존재하였던 吏族 가문들을 탐문하여 이들의 소장 자료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근대 이후의 변화 양상은 현지조사에 의존하지 않고는 거의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노력은 이 방면의 연구에 꼭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더라도 소재가 널

리 알려져 자료발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양반 가문들과는 달리 조사성과는 언제나 빈약함을 면치 못했다. 그 직접적인 요인은 근대 이후의 사회 변동이 이들이 世居하여 왔던 邑治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나아가 주목할 만한 吏族 가문들은 한결간야 수백년 동안 世居하여 온 지역을 떠나갔던 데 있었다. 한편 공문 문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경우, 일부 도서관은 특유의 폐쇄성을 고집하여 열람조차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틀들히 행한 조사 작업은 그 결과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한편 발굴 작업과 병행하여 지금까지 모여진 자료는 일단 정리·공간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책의 형태로 편찬된 것과 고문서류로서 분류 정리하되, 이 방면의 자료가 희소한 사실을 고려하여 고문서류의 경우, 다른 형태의 자료라도 내용과 관련이 있다면 소장처와 관계 없이 함께 묶어 이해를 돕도록 배려하였다. 본 고문서 자료집에 《營吏官案》이나 《家乘》 등을 포함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발굴과 정리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결국 고문서의 첫 편찬 작업은 가장 양이 적고 정리가 손쉬운 것부터 선정하였는데, 그러더라도 모든 일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앞서 필자는 향리 집단에 대한 온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 방면의 연구를 포함하여 조선 시대 신분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남들할 만한 것이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의 차이라기 보다 자료에 대한 엄밀한 비판이 결여된 채 손쉽게 결론을 도출하여 온 연구자의 자세, 다시 말해서 기초 작업들이 너무

《慶北地方郷吏關係古文書資料集成》— I

《安東郷孫事蹟通錄》의 刊行者 權永翁 家門과

그들의 文書

考古歷史學志(第三輯)

1987年 5月 25日 印刷

1987年 5月 31日 發行

編輯 東亞大學校博物館

印刷 世明出版社
Tel. 242-1361~5

600-□□

連絡處：釜山市 西區 東大新洞 3街 1番地

☎ 243-0011~5 · 교환 : 19